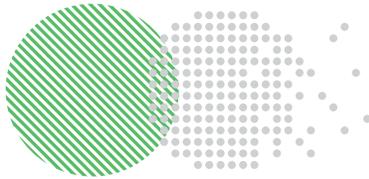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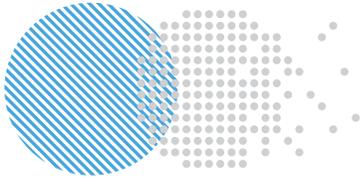


연구보고25-일반02

청년의 성인기 이행경로 연구: 총괄보고서

김기현 · 김윤희 · 이용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과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만들어갑니다.



nyp*i*



청년의 성인기 이행경로 연구 I: 총괄보고서

저 자 김기현, 김윤희, 이용해

연구진 연구책임자_김기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_김윤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_이용해(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연구보조원_조양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원)

연구요약

■ 연구목적

- 이 연구는 청년의 성인기 이행이 점차 늦어지고 원활하지 않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 졸업, 취업, 분가 등의 실태를 파악하고 성인기 이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음.
- 동시에 지난 15년 간 추적이 이루어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KCYPS)’의 중1패널 코호트 조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다시 패널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심층 면담을 실시하여 성인기 이행을 분석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함.

■ 연구내용

- KCYPS 2010 중1패널 참여자를 대상으로 2025년 시점에서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기존 조사를 포함하여 심층적인 중단 분석을 시도하였음.
- 이 연구에서는 청년 성인기 이행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핵심지표(안)을 구축하고 지난 4년간의 변화 실태를 분석하는 한편, 국제비교도 실시하였음.
- KCYPS 중1패널 조사 참여자 중 21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 대상자를 선별해 이미 수집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좀 더 입체적으로 분석하였음.
- 이 연구에서는 국내 청년의 성인기 이행 정책을 진단하고 해외 사례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연구 결과를 토대로 청년 정책 방향과 과제(안)을 제안하였음.

■ 연구방법

- 문헌분석과 함께 패널조사와 횡단조사 자료에 대한 2차 분석을 시도하였음.
- 청년의 성인기 이행 지표(안)과 관련하여 전문가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였음.
- 21명을 대상의 심층면담과 총 3회의 전문가 자문회의를 진행하였음.

■ 연구결과

주요 연구결과

- KCYPS 2010 중1패널 추적조사 결과
 - 고3 시기에 고졸 취업과 대학원 진학을 희망했던 응답자 중 대다수가 대졸로 수렴
 - 대학 재학 시 절반 한 번 이상 휴학, 졸업유예를 경험하고 있어 이행기 지연
 - 성인으로서 첫 출발 상징 1순위는 첫 일자리며, 급여가 높은 회사 가장 선호
 - 70% 이상이 중소기업 취업 의사가 있었고, 창업 희망도 39.1%로 낮지 않았음.
- 청년 성인기 이행 지표 결과
 - 직업계고의 대학 진학률이 높아지고 있어 졸업 후 취업 강화 필요
 - 대학 학업 중단률이나 휴학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성인기 이행 지연
 - 대학원 중 박사과정 진학 희망 응답 비중이 감소해 고급인재 양성 대책 필요
 - 우리나라의 청년 고등교육 이수율은 최고 수준이나 대학원 비중은 매우 낮아
 -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공교육비가 매우 낮아 대학원을 중심 투자 확대 필요
 - 우리나라의 니트(NEET) 비율이나 노동시장 밖 청년비율이 높게 나타남.
- KCYPS 중1패널 교육기대 분석 및 심층면담 결과
 - 고3 고졸 취업 희망자 중 20대 후반 52.5% 대학 진학
 - 고3 대학원 희망자 중 20대 후반 20.6%만이 대학원 진학
 - 성적 중심의 진로와 진학 상담, 형식화된 진로지도 개선 필요
- KCYPS 중1패널 2차 분석 결과
 - 4년제 대학 진학 후 직장 이행유형이 절반 차지
 - 이행 과정에서 경력 형성 및 진입 지연 발생
 - 쉬는 청년의 경우 쉬는 기간 반복 경향 발견
 - 졸업 이후 취업을 하지 못할 경우 삶의 만족도 크게 하락

■ 핵심 정책제언

핵심 정책제언

- 청년 성인기 이행 정책 방향
 - 이 연구에서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청년 중심 접근과 선제적 접근, 맞춤형 접근과 협력적 접근이라는 4가지 정책방향을 제시
- 청년 성인기 이행 정책 과제(안)
 - 학습과 진학과 관련된 정책과제는 직업계고 내실화와 현장실습 체계화, 청년 진로교육 및 한국형 갭이어 추진, 대학원생 연구 및 생활 지원체계 구축, 학교-기업-정부 연계, 협력체계 강화 등 4가지 과제를 제안
 - 학교-일자리 이행과 관련된 정책 과제로는 학교-일자리 이행 지원 법제화, 한국형 청년보장제 추진, 공공기관 및 공기업 고용의무제 강화, 청년 일자리 이행경로 다양화, 취약위기 청년 이행기 지원체계 구축, 인턴십 및 일경험 내실화 등 6가지 과제를 제안

	과제명	정책대상	우선순위	담당부처
학습과 진학 	직업계고 내실화와 현장실습 체계화	직업계고 학생	3	교육부
	청년 진로교육 및 한국형 갭이어 추진	청년	2	교육부, 성평등가족부, 고용노동부
	대학원생 연구 및 생활 지원 체계 구축	대학원생	4	교육부
	학교-기업-정부(중앙, 지자체) 연계 협력체계 강화	전체 학생	1	교육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학교-일자리 이행 	학교-일자리 이행 지원 법제화	청년	5	국무조정실
	한국형 청년보장제 추진	청년	1	고용노동부, 교육부, 국무조정실
	공공기관 및 공기업 고용의무제 강화	청년 미취업자	3	고용노동부
	청년 일자리 이행경로 다양화	청년	4	교육부, 고용노동부
	취약 위기 청년 이행기 지원체계 구축	취약 위기 청년	2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인턴십 및 일경험 내실화	청년	6	교육부, 고용노동부, 국무조정실

청년의 성인기 이행 경로 연구 I : 총괄보고서

연구보고25-일반02

I. 서 론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3
2. 연구추진체계	7
3. 연구내용	8
4. 연구 방법	14
II. 이론적 배경	21
1. 청년 연령에 대한 논의	23
2. 청년의 성인기 이행에 대한 논의	27
III. 청년의 성인기 이행 지표체계 및 현황	31
1. 청년의 삶 실태에 대한 기존의 지표체계	33
2. 전문가 델파이조사 설계 및 결과	38
3. 청년의 성인기 이행 지표별 현황	47
4. 연구 결과 요약 및 시사점	60

IV. 청년의 성인기 이행 중단분석: KCYPS2010 중1패널	
추적조사	63
1. KCYPS 2010 중1패널 추적조사 개요	65
2. 조사 항목 및 방법	67
3. 조사 추진 과정 및 응답자 특성	74
4. 주요 결과	79
V. 청년의 성인기 이행 횡단분석: 국제 비교	163
1. 학습진학, 학교-일자리 이행 국제 비교	165
2. 교육과 직업 위험 인식 영향요인: WVS 결과	178
3. 분석 결과	181
4. 연구 결과 요약 및 시사점	184
VI. 청년의 성인기 이행 정책 현황 및 문제점:	
학습과 일자리	187
1. 법률 현황 및 문제점	189
2. 기본계획과 대책 현황 및 문제점	198
3. 정책사업 현황 및 문제점	203
4. 해외 사례와 정책적 시사점	212
VII. 정책제언	223
1. 연구결과에 따른 정책 방향과 과제 도출 과정	225
2. 청년 성인기 이행 정책 방향(안)	233
3. 청년 성인기 이행 정책 과제(안)	235
4. 청년 성인기 이행 정책과제(안) 추진로드맵 및 결론	258
참고문헌	261
부 록	269
1. KCYPS 2010 중1 코호트 추적조사(2025년) 설문지	271
2. 심층면담 조사지	312
3. 전문가 델파이조사 설문지(1차, 2차)	317
4. 추적조사 문항 출처 및 참고문헌	328
5. KCYPS 2010 유지조사 조사항목(2017-2024)	338

국문초록 339

Abstract 340

표 목차

표 I-1. KCYPS 2010 유지조사 문항	10
표 I-2. 중1패널(2010) 추적조사 주요 내용	15
표 I-3. 전문가 델파이조사 주요 내용	16
표 I-4. 전문가 자문 개요	16
표 I-5. 중1패널(2010) 추적조사 심층면담 주요 내용	17
표 I-6.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주요 계획	18
표 I-7. 청년 성인기 이행 심층분석 발표	19
표 III-1. 청년지표 영역체계 비교	34
표 III-2. 지방자치단체 청년통계(행정통계) 구축 현황	35
표 III-3. 청년친화도시 청년지표체계	36
표 III-4. 청년 성인기 이행 지표체계(안)	38
표 III-5. 성인기 이행 지표 영역체계(안)에 대한 델파이조사 결과	40
표 III-6. 성인기 이행 지표 영역의 정의(안)에 대한 델파이조사 결과	41
표 III-7. 성인기 이행 지표 영역의 정의 내용	42
표 III-8. 학습과 진학 핵심지표(안)에 대한 델파이조사 결과	43
표 III-9. 학교-일자리 이행 핵심지표(안)에 대한 델파이조사 결과	44
표 III-10. 자립 핵심지표(안)에 대한 델파이조사 결과	45
표 III-11. 가족 형성 핵심지표(안)에 대한 델파이조사 결과	46
표 III-12. 연도별 학습과 진학 핵심지표 출처	48
표 III-13. 연도별 학습과 진학 핵심지표 추이(2021-2024)	49
표 III-14. 연도별 학교-일자리 이행 핵심지표 출처	51
표 III-15. 연도별 학교-일자리 이행 핵심지표 추이(2021-2024) (1)	52
표 III-16. 연도별 학교-일자리 이행 핵심지표 추이(2021-2024) (2)	53
표 III-17. 연도별 자립 핵심지표 출처	54
표 III-18. 연도별 자립 핵심지표 추이(2021-2024) (1)	55
표 III-19. 연도별 자립 핵심지표 추이(2021-2024) (2)	56
표 III-20. 연도별 가족 형성 핵심지표 출처	57
표 III-21. 연도별 가족 형성 지표 추이(2021-2024) (1)	58
표 III-22. 연도별 가족 형성 지표 추이(2021-2024) (2)	59

표 IV-1. KCYPS 2010 중1 코호트 본조사 및 유지조사의 표본 유지율	66
표 IV-2. 해외척도 활용 조사 항목	72
표 IV-3. 응답자 특성	78
표 IV-4. 대학 진학 여부	80
표 IV-5. 대학(교) 입학 시 선택 기준 평균 (1점~7점)	80
표 IV-6. 휴학 경험 여부 및 이유 (복수응답)	82
표 IV-7. 대학 전공 계열	84
표 IV-8. 졸업 유예 경험 여부 및 사유	85
표 IV-9. 대학(교) 등록금 (한 학기 평균)	87
표 IV-10. 등록금 마련 방법 평균 비율	88
표 IV-11. 대학 시절 평균 성적(100점 기준)	89
표 IV-12. 대학 생활 만족도	90
표 IV-13. 대학원 진학 여부 및 진학 동기	92
표 IV-14. 대학/대학원 진학 위한 경험 비율 (예/아니오)	93
표 IV-15. 월 평균 진학 관련 사설학원 지불 비용	95
표 IV-16. 사설학원 비용 제외 월 평균 진학 준비 비용	96
표 IV-17. 진학 준비를 위한 하루 평균 투자 시간	97
표 IV-18. 성인으로서의 첫 출발 상징	98
표 IV-19. 일을 시작해야 하는 나이	100
표 IV-20. 소득 구분별 선호도 평균	101
표 IV-21. 선호하는 일자리 유형	103
표 IV-22. 중소기업 취업 의사 없는 이유	105
표 IV-23. 창업 경험 및 창업 의사 여부	106
표 IV-24. 첫 일자리 기준 인식	108
표 IV-25. 일자리 경험 횟수	109
표 IV-26. 첫 일자리 관련 상황 1	110
표 IV-27. 첫 일자리 관련 상황 2	114
표 IV-28. 첫 일자리 관련 상황 3	117
표 IV-29. 퇴사 및 해고 경험	120
표 IV-30. 실업급여 수령 경험 여부	121
표 IV-31. 실업급여 받지 못한 이유	121
표 IV-32. 플랫폼 노동 경험 여부	122
표 IV-33. 지난 1주일간 플랫폼 노동 경험 여부	123
표 IV-34. 지난 1주일간 플랫폼 노동의 주업 여부	124
표 IV-35.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경험 여부	125
표 IV-36. 직장 내 산업안전 위험 노출 경험 여부	126

표 IV-37. 지난주 취업 여부	127
표 IV-38. 부업 여부 및 갯수	127
표 IV-39. [취업자] 현재 일자리 관련 상황 1	128
표 IV-40. [취업자] 현재 일자리 관련 상황 2	131
표 IV-41. [취업자] 현재 일자리 관련 상황 3	133
표 IV-42. [취업자] 구직활동별 경험 비율	137
표 IV-43. [취업자] 현재 직장에의 설치 여부	139
표 IV-44. [취업자] 현재 노동조합 가입 여부	141
표 IV-45. [미취업자] 지난 1주일간 구직 활동 여부	141
표 IV-46. [미취업자] 지난 1주일간 구직 활동하지 않은 이유 (예/아니오) ...	142
표 IV-47. [미취업자] 지난 1주일간 구직 활동하지 않은 가장 주된 이유 (1가지 응답)	145
표 IV-48. [미취업자] 학교를 다니지 않고 일자리도 갖지 않은 상태 지속 기간	147
표 IV-49. 구직활동 지속 기간	148
표 IV-50. 취업/창업 위한 준비 경험 비율 (예/아니오)	149
표 IV-51. 취/창업 준비 관련 도움 받은 경험	151
표 IV-52. 월 평균 취/창업 관련 사설학원 지불 비용	154
표 IV-53. 사설학원 비용 제외 월 평균 취/창업 준비 비용	155
표 IV-54. 취/창업 준비를 위한 하루 평균 투자 시간	156
표 IV-55. 향후 직업 훈련 수강 계획 여부	157
표 IV-56. 직업 훈련 받지 않으려는 이유	158
표 IV-57. 향후 일 경험 계획 여부	160
표 IV-58. 일 경험 받지 않으려는 이유 (예/아니오)	161
표 V-1. 청년 성인기 이행 지표 국제비교 자료 출처	166
표 V-2. 청년의 교육 위험 인식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HLM)	181
표 V-3. 청년의 취업 및 실직 위험 인식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HLM) ...	183
표 VI-1. 청년기본법의 학습과 진학 관련 조항	189
표 VI-2.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의 학습과 진학 관련 조항	190
표 VI-3.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법률(안) 중 학습과 진학 관련 조항 ...	191
표 VI-4.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의 학습과 진학 관련 조항	191
표 VI-5. 위기아동청년법의 학습과 진학 관련 조항	192
표 VI-6. 진로교육법의 학습과 진학 관련 조항	192
표 VI-7. 청년기본법의 학교-일자리 이행 관련 조항	193
표 VI-8.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의 학교-일자리 이행 관련 조항	194

표 VI-9.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법률(안) 중 학교-일자리 이행 관련 개정안1	195
표 VI-10.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법률(안) 중 학교-일자리 이행 관련 개정안2	196
표 VI-11.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2021-2025)의 청년 성인기 이행 관련 과제 현황	198
표 VI-12. 2025년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 일자리분야 학습과 진학 정책과제	205
표 VI-13. 2025년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 교육분야 학습과 진학 정책과제 ..	206
표 VI-14. 2025년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 일자리분야 학교-일자리 이행 정책과제	207
표 VI-15. 고용노동부 청년도전지원사업과 청년성장프로젝트 운영 현황 (2025년)	208
표 VI-16. 2025년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 교육분야 학교-일자리 이행 정책과제	209
표 VI-17. 고용노동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현황(2025년)	210
표 VI-18. 2025년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 복지분야 학교-일자리 이행 정책과제	211
표 VI-19. 국제연합(UN)의 청년2030의 학습, 일자리 관련 정책 목표와 정책 방향	213
표 VI-20. 유럽연합(EU)의 청년전략의 학습일자리 관련 정책 목표와 정책 방향	215
표 VI-21. 유럽연합의 청년 학습 및 일자리 관련 정책사업 현황	217
표 VI-22. 주요국의 청년 학습 및 일자리 정책사업 현황1	219
표 VI-23. 주요국의 청년 학습 및 일자리 정책사업 현황2	221
표 VII-1. 직업계고 학교-일자리 이행 관련 예산 현황(2021-2025년)	239
표 VII-2. 청년 진로 관련 예산 현황(2021-2025년)	241
표 VII-3. 진로교육법 지원대상 범위 개정 사항	242
표 VII-4. 대학원생 학교-일자리 이행 관련 예산 현황(2021-2025년)	244
표 VII-5. 학교-기업-정부 연계 관련 예산 현황(2021-2025년)	246
표 VII-6. 청년기본법 제19조 개정 사항	247
표 VII-7.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4조②항 개정 사항	248
표 VII-8. 위기가동청년법 제17조 개정 사항	248
표 VII-9. 청년보장제 유사 관련 사업 예산 현황(2021-2025년)	250
표 VII-10.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 개정 사항	251
표 VII-11. 청년친화 강소기업 사업 예산 현황(2021-2025년)	253

표 VII-12. 청년 창업 지원 관련 대표사업 예산 현황(2021-2025년) ……	253
표 VII-13.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조항 신설 ……	254
표 VII-14. 취약위기 청년 지원 관련 예산 현황(2021-2025년) ……	256
표 VII-15. 인턴십 및 일경험 관련 예산 현황(2021-2025년) ……	258
표 VII-16. 청년 성인기 이행 정책 과제(안) 로드맵 ……	258

그림 목차

그림 Ⅰ-1. 청년의 성인기 이행 경로 연구 연도별 연구추진계획 (2025-2027)	7
그림 Ⅰ-2. 연도별 연구추진계획	8
그림 Ⅰ-3. 청년 핵심지표를 공개한 청년정책분석평가센터 홈페이지 (2025년)	9
그림 Ⅰ-4. KCYPs 2010 중1패널 본조사와 유지조사, 추적조사 현황 (2010-2025)	11
그림 Ⅱ-1. 지방자치단체 청년기본조례 청년 하한 연령 정의 비교 (2021/2025년)	24
그림 Ⅱ-2. 지방자치단체 청년기본조례 청년 상한 연령 정의 비교 (2021/2025년)	25
그림 Ⅱ-3. 청소년기에서 성인기 이행 시기 추세(1890/1990년)	26
그림 Ⅱ-4. 성인 이행기에 대한 모래시계 모형	28
그림 Ⅱ-5. 초혼연령 국제비교(2021년)	29
그림 Ⅱ-6. 남성의 생애 첫 연령 간 차이 변화(1990-2023년)	30
그림 Ⅲ-1. 세종시/제주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34
그림 Ⅲ-2. 청년의 성인기 이행 지표의 4가지 영역(안)	41
그림 Ⅳ-1. 온라인 조사 시스템	73
그림 Ⅳ-2. 추적 조사 1차 응답 대상자 및 섭외 현황	75
그림 Ⅳ-3. 추적 조사 1차 조사 응답 현황	76
그림 Ⅳ-4. 심층 면접 진행 과정	77
그림 Ⅳ-5. 심층 면접 진행 장소	77
그림 Ⅴ-1. OECD 국가별 청년(25-3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2024)	168
그림 Ⅴ-2. OECD 국가별 청년(25-34세)의 대학원 석사 학위자 비율 국제비교(2024년)	169
그림 Ⅴ-3. OECD 국가별 청년(25세 미만) 고등교육 입학률(2020년)	170
그림 Ⅴ-4. OECD 국가별 고등교육 연간 학생 1인당 공교육비(2021년)	171
그림 Ⅴ-5. OECD 국가별 고등교육 정부지출 공교육비 상대적 비중 (2021년)	172

그림 V-6. OECD 국가별 국공립대학 등록금 규모(2022/2023년) …	172
그림 V-7. OECD 국가별 2023년 대비 2025년 1분기 고용률 변화 (2025) …	173
그림 V-8. 25-34세 청년의 성별에 따른 교육수준별 고용률(2024년) …	174
그림 V-9. 15-29세 청년의 니트(NEET) 비율(2023년) …	175
그림 V-10. 25-34세 청년의 실업률 및 노동시장 밖의 비율(2024년) …	176
그림 V-11. 향후(1, 2년) 걱정되는 변화에 대한 인식 결과 비교 (2022년) …	176
그림 V-12. 청년(18-29세)의 실직 위험 응답 결과 국제비교(2022년) …	177
그림 V-13. 국가별 교육 및 직업 위험 인식 응답 결과(2017-2022) …	178
그림 VI-1. 청년 고용의무제 적용대상 기관 의무이행기관 비율 및 청년 신규고용비율(%) …	197
그림 VI-2.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방향」 목표, 정책방향과 대책 …	200
그림 VI-3.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목표, 정책방향과 대책 …	202
그림 VI-4.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 정책분야별 청년 학습일자리 관련 사업 수(2025년) …	204
그림 VI-5. 청년고용을케어 플랫폼 …	211
그림 VII-1. KCYPS 2010 중1패널 추적조사 결과 및 시사점 …	226
그림 VII-2. 청년의 성인기 이행 지표 결과 및 시사점 …	227
그림 VII-3. 청년 성인기 이행 국제비교 결과 및 시사점 …	229
그림 VII-4. KCYPS 중1패널 교육기대 분석 및 심층면담 결과와 시사점 …	231
그림 VII-5. KCYPS 2차 분석 결과 및 시사점 …	232
그림 VII-6. 청년의 성인기 이행 정책 방향(안) …	233
그림 VII-7. 청년 성인기 이행 정책 과제(안) …	235

○ ————— 제1장 서론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2. 연구추진체계
- 3. 연구내용
- 4. 연구방법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청년들은 성인기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급격한 변화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최근 들어 이러한 과정에서 더 큰 시련을 겪고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에서 2025년 5월 기준으로 졸업(중퇴 포함) 후 취업 소요기간이 평균 12개월로 나타났다(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 2025). 이는 이 조사가 처음 이루어진 2004년과 비교해 2개월가량 증가한 수치이다. 3개월 미만 조기 취업 결과를 살펴보면, 2004년 첫 조사에서 56.3%를 보여주었으나 2025년 45.8%로 낮아졌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들의 학교 졸업 후 취업까지 걸리는 기간이 지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첫 취업만이 아니라 첫 결혼이나 첫 분가 역시 지연되고 있다(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 2025). 초혼 연령은 1990년에 남성의 경우 27.8세였고 여성의 경우 24.8세였다. 이는 이 시기에 20대 결혼이 일반적이었음을 보여준다. 반면, 2023년에는 남성의 초혼 연령이 34.0세였고 여성은 31.5세였다. 30년의 세월이 지난 후 첫 결혼 시기는 이제 30대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다. 첫 분가는 공식 통계가 없는 상태인데 변금선 외(2024)가 청년(15-29세) 가구주 비율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연령으로 추정해 본 결과, 1990년에 33세에서 2023년 38세로 증가하였다.

단순히 이행기 지연만이 문제는 아니다. 「사회조사」에서는 2009년부터 2023년까지 격년으로 60세 이상에게 자녀와의 동거 여부를 묻고 같이 사는 이유를 질문하였다(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 2025). 2009년 자녀 동거 중인 경우가 31.7%였는데 “본인 또는 배우자의 독립생활이 불가능해서”라는 응답비율은 35.4%였고 반대로 “자녀의 독립이 불가능해서”라는 응답은 24.8%였다. 2023년 결과를 보면, 부모 부양 이유가 21.3%로

1) 본 장은 김기현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낮아졌고 자녀 양육 이유가 32.0%로 높아졌다. 이 같은 결과는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계금융조사」를 통해 29세 이하 청년 가구주를 기준으로 부채의 추이를 살펴보면, 2017년 대비 2024년 부채 증가율은 89.3%로 나타났다(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 2025). 같은 기간 전체 가구주의 부채 증가율은 28.6%여서 청년들의 부채 증가가 가파르게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비율을 봐도 마찬가지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부채가 있는 청년 가구주의 비율은 2017년 47.7%였는데 2024년 52.3%로 늘었다. 반면 전체 가구주의 비율은 같은 기간 63.5%에서 60.7%로 감소했다. 이러한 결과는 이제 많은 청년들이 부채를 짊어지고 사회에 진출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청년의 성인지 이행이 점차 지연되고 원활하지 못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나 정부의 청년정책에 대한 접근은 이행기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의 청년정책은 2020년 「청년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총괄조정기구인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설치되었고 행정부서로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이 신설되었다(관계부처 합동, 2020). 이어서 「청년기본법」에 따라서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2022-2026)이 수립되었고 각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에서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청년정책의 제도화가 청년기본법 제정 이후 빠르게 이루어졌으나 고용, 복지, 주거, 교육 등 기존의 기능 중심 정책 추진체계와 차별화되는 성인지 이행을 지원하는 고유한 정책 영역을 구축하지 못하였다. 해외처럼 청년정책을 성인지 이행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기보다 오히려 청년 연령 정의를 확대해 지원 대상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이 이루어져 왔다(김기현, 2021).

이와 관련 「청년기본법」에서 청년 연령은 19세에서 34세로 정의되어 있으나 각 지자체에서는 청년 연령을 확대해 왔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5). 광역지자체 중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라남도가 상한 연령을 45세로 늘렸으며 기초지자체에서 서울 도봉구를 포함해 88개 지자체에서 청년 연령을 40대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는 「청년기본법」에서 각 법률 및 조례에서 달리 연령을 정의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단 것과 관련이 있다. 청년기본법에서 단서 조항을 단 이유는 청년기본조례가 2015년부터 제정되어 청년기본법이 제정된 2020년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바로 법을 적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이는 향후 법률의 정의를 따르는 법 개정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차원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실제 이 단서 조항은 각 지자체에서 청년 상한 연령을 확대하는 법적 근거로 작용했다. 청년정책의 사무국 역할을 하고 있는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2021: 7)에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현재 218개 지자체에서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였고 이 중에서 청년기본법과 마찬가지로 19-34세로 정의하고 있는 지자체는 34개였다. 2025년 2월 현재 청년기본법의 청년연령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지자체는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한 238개 지자체 중에서 9개에 불과한 실정이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5). 그리고 40세 이상으로 청년 연령을 정의하고 있는 지자체는 44개에 그쳤다. 5년 사이에 40세 이상으로 청년 상한 연령을 바꾼 곳이 2025년 2월 현재 88개로 늘어 2배나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청년 연령을 40대 이상으로 확대하면서 기존의 전체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능 중심 정책과 청년정책 간의 중복 문제와 청년정책의 정체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유럽연합(EU)의 대표적인 청년정책인 청년보장제(youth guarantee)와 같이 조기개입과 성인지 이행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고용노동부의 재학생 맞춤형 고용 서비스 사업과 청년도전지원사업 등 일부 사업에 그쳐 정교한 실태분석을 통한 맞춤형 정책사업 발굴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연구에서는 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아동부터 청소년, 청년으로 이어지는 생애전반기 이행 과정에 대한 종단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해 분석할 경우 복합적인 원인에 따라 변하는 이행기의 양상을 제대로 포착하여 분석할 수 있다. 특히 아주 어린시절부터 성인에 이르는 기간동안 다양한 생애 정보를 분석할 수 있다면 성인기 이행과정에 대한 진단이 훨씬 더 풍성해 질 수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2010년부터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 (KCYPs)을 실시하였고 2016년까지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였다(하형석, 김기현, 최인재, 한지형, 2024). 이어서 패널유지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중1패널 코호트를 대상으로 유지조사를 실시하였다. 14년간의 추적이 이루어진 중1패널 코호트를 대상으로 성인기 이행과정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다양한 측면에서 성인 이행기의 문제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김기현, 오병돈, 2024).

성인 이행기는 생애전반기에서 성인으로 넘어가는 전환기로 학교 입학과 졸업, 일자리 이행, 자립과 같은 삶의 중요한 전환이 연속해서 일어나는 시기이다. 이러한 전환 과정을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횡단면 조사나 단기 연구보다는 종단면 조사와 장기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3년에 걸쳐서 청년들의 이행 과정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1차년도(2025년)에는 기존의 종단연구 데이터인 패널자료(KCYPS 2010 중1패널)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2026년 시점에서 추적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이는 성인기 이행 연구의 기초를 다지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심층적인 분석은 이행기의 시작점인 '진학과 취업'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2차년도(2026년)에는 1차년도에 구축된 추적조사를 '자립과 분가'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자 한다. 자립과 분가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독립하는 과정을 포괄하며 성인기 이해에 있어서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마지막 해인 3차년도(2027년)에는 '가족형성'이라는 성인기 이행의 마지막 주요 단계를 분석함으로써, 진학-취업-자립-가족형성으로 이어지는 전 이행 과정의 종합적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석의 바탕이 되는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16년간 추적이 이루어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 (KCYPs)의 중1패널 코호트 조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1차와 2차년도에 다시 패널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성인기 이행을 분석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한다.

동시에 청년의 성인기 이행 전반에 대한 지표체계를 구축하고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 Survey)와 같은 국제비교가 가능한 자료를 활용하여 종적인 분석 외에 횡적인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중1패널 코호트 참여자 중에서 심층면담 대상자를 선정해 성인기 이행에 대한 질적 분석도 시도해 보고자 한다.

종합적으로, 청년의 성인기 이행은 단일 시점이나 개별 영역, 하나의 분석 방법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복합적·점진적 과정이다. 따라서 이행의 전 과정을 포괄하고 각 단계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연차별로 구조화된 장기적 접근과 더불어 다양한 접근 방법이 불가피하다. 이에 3개년에 걸쳐 진행되는 이 연구는 성인기 이행의 지표체계, 국제 비교, 심층 면담 등을 통해 국내 청년의 삶의 궤적을 다차원적으로 분석함에 따라, 실효성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실증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는 왜 성인기 이행과정에서 청년들이 불안해 하는지, 이행과정 이 왜 불안정해졌는지를 분석해 청년들의 성공적인 성인기 이해를 돕기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연구추진체계

이 연구는 3년에 걸쳐 진행되는 장기 과제로 1차년도에는 청년의 성인기 이행 지표체계 및 KCYPS 2010 중1패널에 대한 추적조사 실시와 기존 자료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2차년도에는 2025년에 구축한 지표체계와 조사 자료에 대한 심층분석을, 3차년도에는 3년 간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매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했던 정책 방향과 과제를 집대성에 정책 로드맵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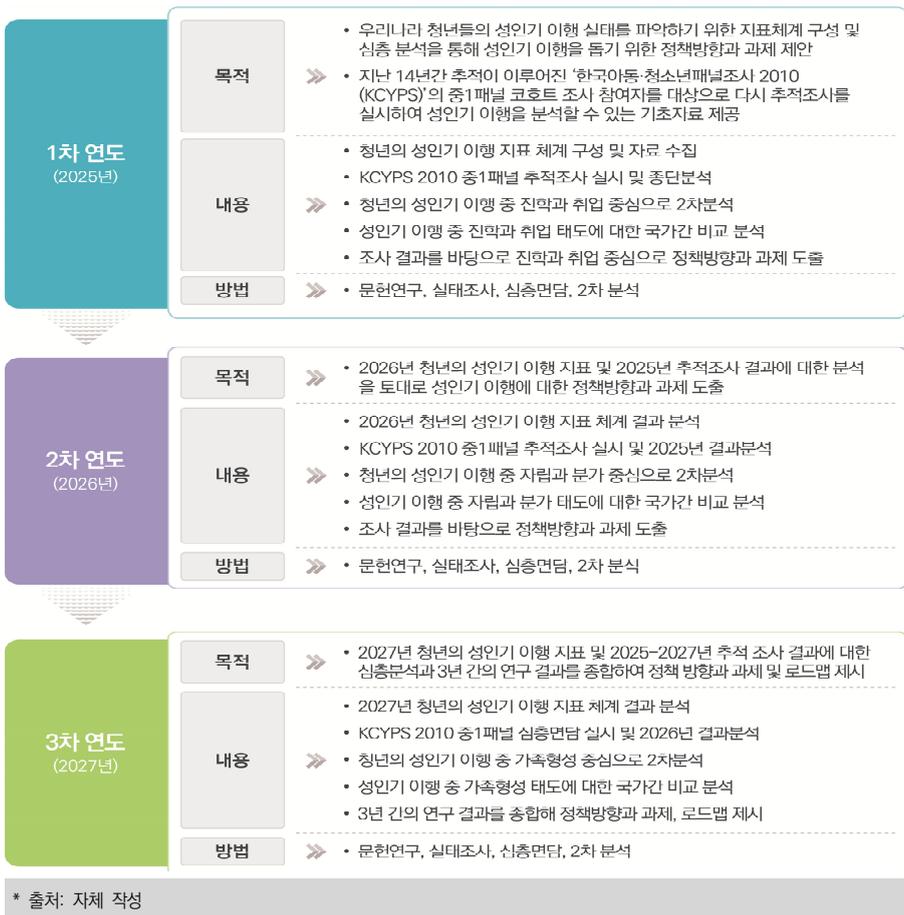


그림 | -1. 청년의 성인기 이행 경로 연구 연도별 연구추진계획(2025-2027)

연도별 연구 주제는 1차년도에 성인기 이행 중 학습과 진학, 학교-일자리 이행(school continuation, school to work)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2차년도(2026년)에 자립(independence, moving out), 3차년도(2027년)에 가족형성(family formation)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그림 1-2. 연도별 연구추진계획

3. 연구내용

1) 청년 성인기 이행 실태 파악을 위한 핵심지표(안) 구축 및 자료수집

이 연구에서는 청년 성인기 이행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핵심지표(안)을 구축해 보고자 한다. 핵심지표(안)은 기존의 연구나 정책 차원에서 제시된 청년지표 중에서 성인기 이행 실태와 관련된 지표들을 추출하고 전문가 델파이조사를 거쳐 확정된 후 이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 국제비교가 가능한 청년 성인기 이행지표에 대한 부분도 제시하였다.

해당 자료는 보고서를 통해 공개하는 한편, 2025년부터 구축된 청년정책분석평가센터 홈페이지(<https://www.nypi.re.kr/yap>)를 통해 해당 지표 결과를 공개해 청년 성인기 이행 실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자 한다.

해당 홈페이지 중 청년통계 메뉴를 선택하면 7가지 영역(인구와 가족, 학습과 역량, 경제와 고용, 주거와 자립, 복지와 건강, 문화와 가치관, 관계와 참여)별로 청년 핵심지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청년 핵심지표 중 청년의 성인기 이행 지표로는 2025년 현재 초혼연령, 대학진학률, 직업계고 대학진학률, 졸업(중퇴 포함) 후 첫 취업소요기간, 생애 최초 주택마련 소요기간 및 연령 등이 포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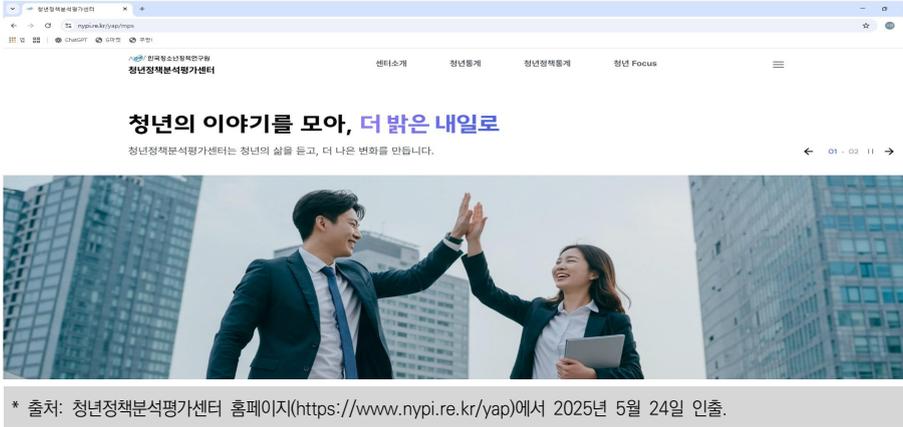


그림 1-3. 청년 핵심지표를 공개한 청년정책분석평가센터 홈페이지(2025년)

2) KCYPS 2010 중1패널 추적조사 실시 및 종단 분석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KCYPS 2010 중1 코호트를 대상으로 2016년 본조사가 종료된 후 약식조사 형태로 유지조사를 2017년부터 매년 진행하였으며 2025년에 제9차 조사를 마무리하였다.

KCYPS 유지조사는 패널 유지를 목적으로 개략적인 조사항목에 대해서 온라인 조사로 이루어졌다. 8년간 이루어진 유지조사에서 학교 졸업, 학교에서 일자리로의 이행, 부모로부터의 분가 등과 같은 이행 여부에 관한 문항이 포함되어 있어서 청년들의 성인 이행기에 대한 종단 분석이 가능하다.

KCYPS 유지조사의 조사항목은 표본 유지 차원에서 최소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상별로 문항이 구성되어 있으며 공통문항 10개와 학생 조사 문항 4개, 취업자 조사 문항 4개, 무직자 조사 문항 1개 등 총 18개 문항(연결문항 포함 시 21개)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표본 유지 차원에서 간소하게 이루어졌던 KCYPS 2010 유지조사를 본조사로 전환하여 패널조사에 준하는 추적조사로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에 걸쳐 실시하고자 한다. 우선 추적조사 설문지 초안을 구성하였으며 해당 설문지 초안과 문항 출처는 부록에 제시하였다.

표 I -1. KCYPS 2010 유지조사 문항

항목	내용	문항번호
공통문항	응답자(패널과의 관계)	문 1
	현 거주지	문 2
	부모님과의 동거 여부	문 3
	현재 가정생활 만족도	문 4
	청소년기 만족도	문 5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	문 6
	전반적 생활만족도	문 7
	주관적 웰빙(5개 문항)	문 7-1
	[남자]병역관계	문 8
	지난 1년간 신분변동 사항	문 9
대학(원)생 조사문항	현재 신분상황	문 10
	학교 소재지	문 11
	학교 유형	문 12
	전공	문 14
취업자 조사문항	학교생활 만족도	문 13
	직장 소재지	문 15
	직종	문 17
	종사상의 지위	문 18
무직자 조사문항	직장생활 만족도	문 16
	진학/취업 준비 여부	문 19
	진학/취업 가능성	문 19-1
	진학/취업 준비하지 않는 이유	문 19-2

* 출처: 하형석, 김기현, 최인재, 한지형(2024: 145). 문항번호는 9차 조사로 변경함.

KCYPS 2010 중1패널 조사는 2010년에 처음 시작되었고 조사 표본수는 2,342명이었다. KCYPS 2010 본조사는 2016년까지 이루어졌으며 표본유지율은 80.0%로 고3 시기에 응답한 표본수는 1,881명이었다. 이어서 유지조사가 2017년부터 2024년까지 8년간 이루어졌으며 1,559명이 처음 응답을 했고 2024년에 1,109명이 응답하였다. 2025년에 실시된 추적조사는 1,139명이 응답하였으며 최대한 표본수를 확보하기 위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웹조사(CAWI: Computer Assisted Web Interview)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 출처: 자체작성

그림 1-4. KCYPs 2010 중1패널 본조사와 유지조사, 추적조사 현황(2010-2025)

연구 첫 해인 올해에는 물리적으로 추적조사 결과에 대한 심층분석이 어렵기 때문에 KCYPs 2010 중1패널 본조사와 유지조사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다만, 올해 심층분석에서 교육기대에 대한 분석에서 고3시점에서 고졸, 대졸, 대학원졸 희망자가 실제 희망대로 교육을 마쳤는지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어서 2차년도부터 추적조사에 대한 본격적인 심층분석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한 분석은 1차년도에 주로 진학과 취업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먼저 고3시점에서 측정한 교육기대 수준과 실제 학교 진학 여부의 일치 여부에 대해 다항로짓분석(multinomial logit analysis)을 인구학적 변수와 부모 변수, 학교 변수, 개인의 특성 변수들이 미치는 효과를 검증해 보았다. 김기현, 오병돈(2024)은 코호트 비교(KYPS 2003, KCYPs 2010, KCYPs 2018) 분석에서 고3 시점에서 교육 기대의 차이를 분석한 바 있다. KCYPs는 14년간을 추적조사해 20대 후반까지 조사가 이루어져 실제 진학 여부와 교육 기대를 비교 분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 연구에서는 청년기 학교부터 직업세계 진입(school to work)까지 이행 궤적을 살펴보기 위해 청년들의 학업, 일자리, 일학습병행, 미취업 관련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에 아동청소년패널 응답자가 성인이 된 시점(2016년)부터 8차년도의 데이터를 활용하며 청년 경력 이행 변수를 생성하고, 경력 배열별 유사성을 분석하기 위해 시퀀스 분석

(sequence analysis)을 활용하여, 유형화를 완료하였다. 분석을 통해 분류한 학교-직장 이행 유형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는 초기 성인기 역할 이행이 20대 후반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 간의 불변 특성(unobserved heterogeneity)을 통제할 수 있는 고정효과(fixed effects) 모형을 활용하고자 한다.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는 유지조사 1차년도부터 8차년도까지 매년 수집되었으며, “귀하의 전반적인 생활을 고려할 때 현재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라는 문항을 통해 측정하였다. 주요 독립변수는 졸업, 취업, 분가 여부와 이들의 상호작용항(interaction terms)이며, 모두 매년 수집된 반복 측정값을 기반으로 하였다. 각각의 역할 이행은 ‘이행하지 않았음(0)’과 ‘이행하였음(1)’의 값을 가지는 이항변수로 부호화하였다. 추가적으로, 성별(남성, 여성)과 교육 수준(대졸 미만, 대졸 이상)에 따른 이행 효과의 차이를 탐색하기 위한 하위 집단 분석(subgroup analysis)을 수행하였다.

3) 청년의 성인기 이행 인식과 태도에 대한 국가간 횡단 분석

이 연구에서는 종단분석과 함께 다른 국가들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청년의 특성이 보편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우리나라만의 특색을 반영한 특수한 현상인지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 survey) 자료를 이용해 진학과 취업을 중심으로 성인 이행기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비교 분석해 보고자 한다. 우선 취업과 관련하여 세계가치조사에서는 내의 실직이나 구직활동에 대해서 얼마나 걱정하는지를 다루었다. 이 연구에서는 우선 실직이나 취업에 대한 걱정에 대해서 국가 간 비교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 조사에서는 자녀 유무와 상관없이 자녀가 좋은 교육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얼마나 걱정을 하고 있는지도 다루었다. 각 국가별로 이에 대한 비교 분석도 시도하였다. 이에 대한 분석은 개인수준의 영향 요인 외에 위계선형모형(hierarchical linear model)을 통해 저출생과 같은 인구 요인과 경제성장률과 같은 경제 요인, 사회불평등과 같은 사회 요인에 따른 영향을 파악해 보았다. 동시에 2차 분석으로 OECD 교육통계(Education at a Glance, 2024), 사회통계(Society at a Glance, 2024)를 비롯하여 OECD의 성인기초역량조사(OECD Survey of Adult Skills, 2023) 등을 통해 한국과 다른 국가들의 교육과 취업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비교 분석을 시도하였다.

4) 청년의 성인기 이행 질적 분석

이 연구에서는 심층면담을 통해 양적 자료로 포착하기 어려운 성인기 이행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질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는 특히 KCYPS 중1패널 조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심층면담 대상자를 선별해 이미 수집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좀 더 입체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김기현, 오병돈(2024)은 3개 코호트의 아동·청소년패널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고3 시기의 교육기대를 비교 분석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고졸 희망자, 대졸 희망자, 대학원 졸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양적 자료 분석을 통해 포착하지 못한 문제를 질적 방법론 중 사례연구(case study) 방법을 활용하여 심층면담을 통해 파악해 보았다.

참석 대상자는 성별(1:1)과 지역별(수도권, 충청권(대전, 세종 포함), 경상권(대구, 부산, 울산, 강원 포함), 전라권(광주, 제주 포함) 총 4개 권역으로 할당하고 면접 대상은 2016년 고3 시점에 생각했던 교육기대에 대해서 고졸, 대졸, 대학원졸로 응답한 21명(각 7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시도해 보았다.

5) 청년의 성인기 이행 정책에 대한 분석

이 연구에서는 청년의 성인기 이행 정책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먼저 이 연구에서는 청년 진학과 취업 중심으로 관련 법률과 조례에서 청년의 성인기 이행을 지원하는 내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이어서 이 연구에서는 청년 관련 기본계획과 대책에서 진학과 취업 중심으로 청년의 성인기 이행 관련 내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청년 관련 기본계획으로는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과 각 지자체에서 독자적으로 마련한 기본계획, 그리고 국무조정실에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에서 제시한 시행계획 등이 있다. 청년 관련 대책이나 방안으로는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2022), 자립준비 청년 지원보완대책(2022),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2024), 2025년 청년고용 정책방향(2025), 청년 첫걸음 보장제(2025) 등이 있다.

다음으로 이 연구에서는 진학과 취업 중심으로 청년의 성인기 이행 지원과 관련된 정책 사업으로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사업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기획재정부의 청년 올케어 플랫폼과 고용노동부의 대학일자리플러

스센터 사업(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 등), 청년도전지원사업, 국토교통부의 청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사업과 전, 월세 지원 사업, 교육부의 중앙취업지원센터와 시도교육청의 취업지원센터 사업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는 기존 선행연구들에서 분석한 해외사례를 종합해 진학과 취업 중심으로 기본계획과 정책 사업 중심으로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주요 분석 대상으로는 국제연합과 유럽연합을 비롯하여 미국과 함께 일본, 독일과 프랑스, 핀란드 등 정책정책 추진에 있어서 주요 참고사례로 분석이 이루어졌던 국가들이다.

6) 청년의 성인기 이행 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이 연구에서는 청년 성인기 이행 지표 분석과 중단 및 횡단분석, 심층분석과 심층면담 조사, 그리고 정책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진학과 취업 중심으로 청년의 성인기 이행 정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청년의 성인기 이행 관련 정책의 방향을 도출하고 이어서 정책과제(안)에 대해서도 제시해 보고자 한다.

4. 연구 방법

1) 문헌 연구

이 연구에서는 청년의 성인기 이행에 관한 연구 논문들을 분석해 이론적인 차원에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어서 청년 성인기 이행에 관한 국내외 청년관련 정책, 사업, 정책 담론을 파악하기 위한 문헌자료 조사와 함께 청년 성인이 이행 실태 및 환경과 관련된 문헌자료 수집하고 검토하였다.

2) 양적 연구

양적 연구로는 KCYPS 2010 중1패널조사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추적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분석은 고3 시점의 교육기대와 실제 진학 여부에 대해서 양적 조사에서 알기 어려운 질적인 측면을 고찰하고자 한다. 2024년까지 유지조사에 응답한 중1패널 응답자들은 1,309명이었으며 2010년에 실시된 본조사는 교육기본통계를 표집틀로 활용하여 학교 표집으로 이루어졌다.

표 1-2. 중1패널(2010) 추적조사 주요 내용

주요 요소	내용	비고
모집단	2010년 기준 전국의 중학교 1학년 학생	2025년 28세 내외
표집틀	2010년도 교육기본통계	-
표본수	중학교 1학년 학생 2,351명	2024년 유지조사 1,109명 참여
표집방법	다단계층화집락추출법	-
조사방법	웹조사(CAWI: Computer Assisted Web Interview)	웹조사 후 필요 시 전화(2차) 및 방문 조사(3차) 병행
조사시기	2025년 7월 - 9월	1,139명 조사 참여 (유지조사 참여자 중 898명 응답, 유지조사 미참여자 중 241명 응답)

2025년 목표 응답자 수는 조사 참여에 동의한 패널로 원 표본의 55% 이상 응답을 목표(1,300명 내외)로 했으며 1,139명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충분한 표본 수 확보를 위해 조사방법은 유지조사와 마찬가지로 웹조사를 실시하였다.

3) 2차 자료 분석

2차 자료는 세계가치조사를 비롯하여 OECD 자료를 활용하여 국제 비교 분석을 시도할 예정이며 청년 성인기 이행 지표와 관련하여 인구통태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사회조사, 가계금융조사 등과 같은 횡단조사 자료를 활용해 분석하였다.

4) 전문가 델파이조사 및 자문회의

이 연구에서는 청년 성인기 이행 지표체계에 대한 전문가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였다. 청년 성인기 이행 지표체계는 5월까지 구축하였고 6월에 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조사를 실시해 확정하였다.

표 1-3. 전문가 델파이조사 주요 내용

주요 요소	내용	비고
조사대상	청년연구 및 통계, 정책 전문가 20명	
선정방법	임의표집	
조사내용	청년의 성인기 이행 지표체계 타당성 검증	
조사방법	델파이조사	
조사시기	2025년 6월	1차 6.17-6.23 2차 6.30-7.7

전문가 자문회의는 3회에 걸쳐 실시하였다. 첫 자문회의는 KCYPS 중1패널 추적조사 설문지에 대한 자문회의가 4월 16일에 실시되었다. 이 자문회의에는 패널조사 수행 경험이 있고 청년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세 명의 자문위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두 번째 자문은 심층면담과 관련하여 연구 결과에 대해서 실시하였다. 심층면담조사는 KCYPS 중1패널 추적조사 실사가 진행되는 7월부터 실시될 예정으로 6월 중에 실시하고자 한다. 마지막 자문회의는 청년 성인기 이행 정책 방향과 과제에 대한 자문으로 조사 분석을 완료하고 정책방향과 과제 초안이 도출되는 10월 중에 실시하고자 한다.

표 1-4. 전문가 자문 개요

횟수	자문영역	자문진	개최 일시(장소)
1	KCYPS 중1패널 추적조사에 관한 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 ○ ◎◎◎(◇◇원) ○ △△△(◆◆원) 	4월 16일 15:00-16:00 (갤럽사무소)
2	청년 심층면담에 관한 서면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 ○ ◎◎◎(☆☆대) ○ △△△(▽▽대) 	10월 13-17일
3	청년 성인기 이행 지표체계에 대한 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 ○ ◎◎◎(◇◇원) 	10월 14일 14:00-15:00 (HJ비즈니스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 ○ ■■■(◇◇대) 	10월 15일 10:00-12:00 (갤럽사무소)

5) 심층면담

이 연구에서는 KCYPS 중1패널 추적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 대상은 2015년 시점에서 향후 교육기대에 대해서 응답한 중1패널 참여자이다. 면담 대상자는 성별을 1:1로 하고 2개 권역별로 10명 내외로 총 21명이었다.

표 1 -5. 중1패널(2010) 추적조사 심층면담 주요 내용

주요 요소	내 용
면담참여자 수	21명(KCYPS 2010 중1패널 응답자 중 선정)
면담참여자 특성 개요	성별 및 2개 권역(수도권, 비수도권), 교육수준(고졸, 대졸, 대학원) 별 세분화
면담방식	반구조화된 면접방식 / 개별면담
면담 시간 및 횟수	1인당 1시간씩 1회 면담
면담자	연구진

심층면담은 질적 분석방법 중에서 사례연구로 진행하였으며 2015년 당시 고3 시점에서 제시한 교육기대와 28세 내외 시점에서 실제 고졸이나 대학, 대학원 진학 여부를 살펴보고 양적 자료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부분을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 연구는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중학생 1학년부부터 응답 대상의 생애 초기 삶의 궤적에 대한 데이터를 활용해 추가적인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조사 문항을 5월 중에 구성하였고 KCYPS 중1패널 추적조사의 실사가 시작되는 7월 이후 8월 1일부터 15일까지 2주 동안 면접조사가 이루어졌다. 최종적으로 남성이 11명, 여성이 10명 조사되었고 수도권이 9명, 비수도권이 12명 조사되었다. 교육기대가 고졸(미결정 응답 2명 포함)인 경우는 5명, 대졸(전문대졸 2명 포함)인 경우는 8명, 대학원졸인 경우는 8명이 조사되었다.

6) 기타 연구방법

(1)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정책연구실무협의회는 성인기 이행 정책 방향과 과제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청년정

책 주관부처인 국무조정실과 두 차례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이어서 성평등가족부를 대상으로 한 차례 정책과제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표 1-6.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주요 계획

차수	주요내용	참석공무원 부처(과)	개최 일시 (장소)
1차	청년정책 및 향후 정책 방향 논의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	1월 8일 14:00-17:00 (국무조정실)
2차	청년정책 연구 관련 정책자료 논의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	2월 26일 10:00-12:00 (국무조정실)
3차	환경변화에 따른 성인기 이행 지원 논의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8월 8일 10:00-11:00 (성평등가족부)

(2) 청년 성인기 이행 심층분석 발표

이 연구에서는 교육기대와 실제에 대한 분석 결과에 대해서 NYPI 청년국제포럼에서 “한국의 진학과 취업 선택”이라는 주제로 연구책임자인 김기헌 선임연구위원의 발표가 이루어졌다. 이 발표는 KCYPS 2010년 중1패널과 더불어 KYPS 2003년 중2패널과 KCYPS 2018년 중1패널 등 3개 코호트에 대해서 고등학교 3학년 시점에서 생각했던 교육기대(고졸, 대졸, 대학원졸 희망)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 연구 결과와 관련된 두 번째 발표는 최종보고서에 수록된 교육기대와 성인기 이행 결과에 대한 분석 내용을 토대로 11월 25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정책포럼에서 김기헌 선임연구위원이 2025년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표 1-7. 청년 성인기 이행 심층분석 발표

차수	주요내용	참석자 범위	개최일시	장소
1회	NYPI 청년국제포럼 “한국의 진학과 취업선택”	학계, 현장 전문가 총 100여 명	7월 28일 15:00-18:00	포스트파워 스타이홀
2회	청소년연/직능연 공동정책포럼 “교육기대와 청년의 성인기 이행”	학계, 연구원 총 50 여 명	11월 25일 14:00-16:00	세종국책연구 단지 대강당

(3) IRB 승인

이 연구는 KCYPS 2010 중1패널 추적조사 설문지와 심층면담 조사표에 대해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를 통해 연구 윤리 문제를 점검받고 연구를 추진하였다. IRB 심의는 6월 초순에 진행되었다.

○ — 제2장 이론적 배경

- 1. 청년 연령에 대한 논의
- 2. 청년의 성인기 이행에 대한 논의

1. 청년 연령에 대한 논의

대상 중심 정책은 여성처럼 별도의 정책 대상에 대한 정의가 필요없는 경우도 있으나 영·유아, 아동, 청소년, 중년, 장년, 노인 등과 같이 특정 연령 집단을 대상으로 할 경우 별도의 정의가 필요하다. 청년정책 역시 정책 대상에 대한 정의가 필요한데 대체로 몇 세부터 몇 세까지 하한 연령과 상한 연령을 정의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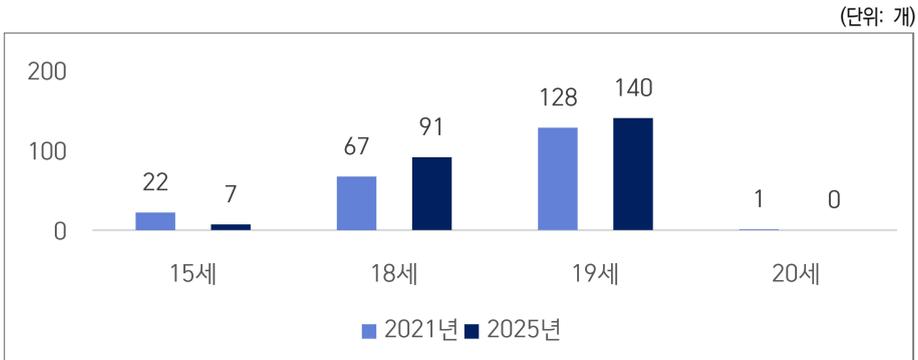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청년 연령을 법적으로 정의한 것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다. 이 법률에서는 직접 청년 연령을 정의하지 않고 시행령에 이를 위임하였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5). 이 법률의 시행령에는 청년을 15세에서 29세로 정의하고 있다. 이 법률에는 해당 조항인 제2조에 단서를 달고 있는데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의무고용 대상 연령을 34세로 제시하고 있다. 이 법률은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을 전면개정한 것으로 처음 법적 정의가 이루어진 것은 2004년이였다.

이어서 「청년기본법」이 2020년에 제정되었는데 이 법률에서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과는 달리 15세가 아닌 19세부터 29세가 아닌 34세까지로 청년을 정의하고 있다. 동시에 단서조항을 달아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서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청년기본법」의 청년에 대한 하한 연령이 15세가 아닌 19세로 정의한 것은 「민법」상 성인 연령을 고려한 것이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서 15세로 정의한 것은 국제적으로 일을 시작하는 연령으로 15세를 정의하고 있기 때문인데 「청년기본법」은 일을 할 수 있는 연령보다는 성인 연령을 따랐다. 이와 관련 한 가지 쟁점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피선거권과 선거권이 19세에서 18세로 낮아진 점이다. 성인의 권리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로 정치적인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것으로 「민법」상 성년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지지

2) 본 장은 김기현 선임연구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않았으나 하한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현재 광역 및 기초 지자체의 청년기본조례를 살펴보면, 적지 않은 지자체에서 19세가 아닌 18세를 청년 하한 연령으로 정의하고 있다. 2021년과 비교해 청년기본조례에서 18세를 하한 연령으로 규정한 경우는 67건에서 2025년에 91건으로 늘어났다. 다만, 아직까지 19세로 청년 하한 연령을 규정한 지자체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 자료: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2021: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출처: 김기현, 김윤희(2025: 5). [그림 2]를 재인용

그림 II-1. 지방자치단체 청년기본조례 청년 하한 연령 정의 비교(2021/2025년)

더 큰 변화는 상한 연령에서 나타나고 있다. 2025년 2월 현재 지자체 중에서 40세 이상으로 규정한 곳은 88개에 이르고 있다. 상한 연령을 45세로 규정한 지자체는 48곳이며 40세로 규정한 곳은 40곳에 이르고 있다.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첫 해인 2021년에는 43개 지자체에서 4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 기간 동안 2배 이상 늘어났다.

이처럼 정책 대상인 청년 연령이 늘어난 배경에는 고령화와 함께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있다.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통상 청년으로 볼 수 있는 20대와 30대의 비중이 점차 낮아지면서 정책 대상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을 늘리는 조례 개정이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단위: 개)



* 자료: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2021: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출처: 김기현, 김윤희(2025: 6). [그림 3]을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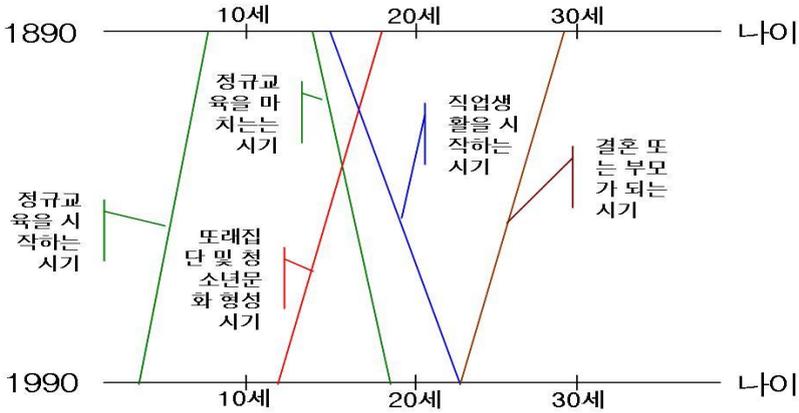
그림 11-2. 지방자치단체 청년기본조례 청년 상한 연령 정의 비교(2021/2025년)

이러한 변화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청년정책이 기존의 기능 중심의 정책과 차별화된 정책 추진에 대한 근거를 점차 잃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정 연령으로 청년을 정의하는 것은 공급자 입장에서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청년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이들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청년을 생애과정에서 독자적인 영역으로 다루는 문제는 정책 이전에 연구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연구자들은 청년 시기를 성인으로의 이행기(Jones & Wallace, 1992; Coleman & Hendry, 2006)로 보거나 발현 성인기(emerging adulthood)라는 별도의 발달 단계(Arnett, 1998) 보기 시작하였다.

존스와 월라스(Jones & Wallace, 1992)는 개인마다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특정 연령으로 청년을 규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어떤 사람은 18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분가해 결혼한다. 반면, 어떤 사람은 32세에 대학원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기도 한다. 이처럼 생애과정에서 성인이 되는 중요한 사건이나 사회적 관계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크리스홀름과 허렐만(Chisholm & Hurrelman, 1995)는 성인기 이행의 주요 사건들이 시대에 따라 시점을 달리한다는 점을 제기하였다. 1890년에 학교 졸업, 취업과 결혼 간의 거리는 매우 멀었다. 1990년에는 취업과 결혼 간의 거리가 매우 가까워져서 학교 졸업, 취업, 결혼이 촘촘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을 보여주었다.



* 출처: Chisholm & Hurrelmann(1995). Coleman & Hendry(2006: 15)에서 재인용

그림 II-3. 청소년기에서 성인기 이행 시기 추세(1890/1990년)

이처럼 성인기 이행 시점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성인기 이행기의 특성을 보여주는 청년을 특정 연령으로 규정하는 것보다는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기현(2018)은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적 연령(social age)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정책 대상이 가지는 특성에 주목하고 특정한 생물학적 연령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이든, 정책이든 젊은 시기를 생애주기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의미한다(김기현, 2018:175).

사회적 연령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불가피하게 법률이나 조례에서 특정 연령을 정의하더라도 핵심적인 정책의 내용은 청년의 특성에 주목해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서 예를 든 사례로 설명해 보면, 18세의 고졸 청년과 32세의 대학원졸 청년은 생물학적 연령에 있어서 큰 차이가 존재하지만 첫 취업을 원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 청년 연령을 넓게 정의하는 것은 사회적 연령에 따라 개인마다 존재하는 편차를 고려해 사각지대가 나오지 않게 하는 선에서 의미가 있다.

연령과 무관하게 성인기 이행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기존 기능 중심 정책과 충돌이 일어난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전체 성인을 위한 고용안전망으로 고용보험제도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실업급여와 실업부조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청년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며 중년이든, 장년이든, 노인이든 상관없이 적용되는 정책이며 특정 대상

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경우 공정성이나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한다. 반면 학교에서 일자리의 이행은 전체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망과 다른 특성이 존재한다. 막 졸업한 청년은 취업 경험이 없으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취약계층이 아니라면 실업부조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 학교에서 일자리의 이행은 사각지대로 남게 되는데 행정부서 역시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와 취업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가 상호 연계와 협력을 하지 않는다면 정책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성인기 이행을 지원하는 정책의 독자성과 함께 필요성이 제기된다. 만약 이행기가 아니라 이행 이후의 각종 정책을 청년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한다면 불가피하게 기능 중심 정책과 충돌이 이루어지며 중복 문제와 더불어 청년정책의 정체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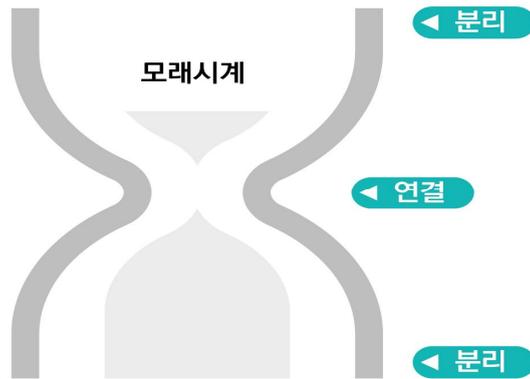
이러한 측면에서 이 연구에서는 청년 연령의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어 보고자 한다. 이에 대한 연구는 청년의 특성과 함께 중요한 성인기 이행 시점의 변화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청년의 성인기 이행 지표를 다룰 때 이 문제도 포함해서 접근해 보고자 한다.

2. 청년의 성인기 이행에 대한 논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은 성인기 이행(transition to adulthood)에 주목해 왔다. 이와 관련 가장 주목을 받은 것은 학교에서 일자리의 이행(school to work)이다. 경제학에서는 교육수익률(return to education) 문제를 비롯하여 교육의 성과와 관련하여 인적 자본(human capital)의 효과에 대한 검증에 주목하였다. 사회학에서는 취업에 미치는 가족 배경(family background)의 영향에 주목하거나 사회적 관계가 미치는 효과(social capital)를 분석하였다. 심리학에서는 자존감이나 자아탄력성과 같은 특성이나 진로성숙도와 진로준비행동과 같은 진로 관련 변수들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였다.

학교에서 일자리의 이행이 주된 관심 사항이었으나 학교 이행(school continuation)이나 가족형성(family formation) 역시 주목을 받았다(김기현, 2025: 3-5). 학교 이행은 학교에 입학하고 졸업하고 진학하는 과정인데 주로 분석의 대상이 된 부분은 대학 진학 여부에 미치는 독립변수들의 효과에 관한 부분이었다. 대학 진학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학업성적, 학교 적응, 출신 학교와 같은 교육 요인들과 부모의 교육, 직업, 소득과

같은 부모 요인, 그리고 직업포부와 교육기대, 부모와 친구 관계와 같은 개인적 요인들이었다. 최근 연구들은 대학 진학보다는 어떤 대학에 진학하는가와 같은 질적 차별화(qualitative differentiation)에 대한 논의가 강조되었다(Lucas, 2001). 한편, 학교 이행 과정에서 온전히 학교를 졸업하는가 역시 중요한 관심사로 학업 중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 출처: Jones & Wallace(1992). 김기현, 신동훈, 변금선, 고혜진, 신인철(2020 : 16)에서 재인용

그림 II-4. 성인 이행기에 대한 모래시계 모형

이어서 자립이나 가족 형성 역시 중요한 연구 주제이다. 다만, 이에 대한 연구에서 결혼이나 자녀 출생을 성인기 이행의 중요한 사건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통사회에서 혼인과 출생은 성인기 이행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지만 이제 결혼이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여겨지면서 부모나 타인으로부터 홀로 서는 문제(stand alone)가 강조되고 있다(김기현, 배정희, 김창환, 성재민, 2021: 18). 동시에 사회적 의무 이상으로 사회적 권리를 강조하며 성인기 이행에 있어서 참여(engagement)나 권한부여(empowerment)의 문제가 주목을 받고 있다.

성인기 이행의 역사적인 변화에 대해서도 주목을 받아왔는데 모래시계 모형과 같이 특정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Jones & Wallace, 1992). 우선 Jones & Wallace(1992)가 제기하고 있는 모래시계 모형은 전근대에서 근대의 변화가 전환기의 중요 사건 간의 거리가 가까워졌으나 현대에 와서 다시 멀어지는 경향을 보여준다고 지적하였다.

앞서 크리스홀름과 허렐만(Chisholm & Hurrelman, 1995)이 실증한 결과에 따르면, 20세기까지 학교 졸업, 취업, 결혼과 같은 주요 성인기 이행기 사건들의 시간적인 거리를 가까워졌다. 그런데 21세기 들어서 다시 성인기 이행 사건들 간의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했는데 이는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미혼과 비혼이 증가하면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2021년 현재 초혼 연령을 살펴보면, OECD 평균 남성은 33.8세, 여성은 31.5세로 30대 초반까지 늦춰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는 남녀별로 각각 33.4세와 31.1세로 거의 평균과 비슷한 수준인데 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초혼 연령의 지연은 OECD 국가의 보편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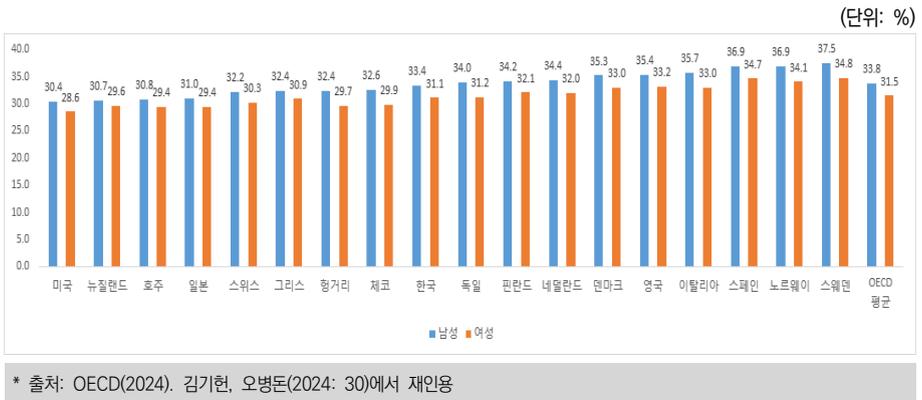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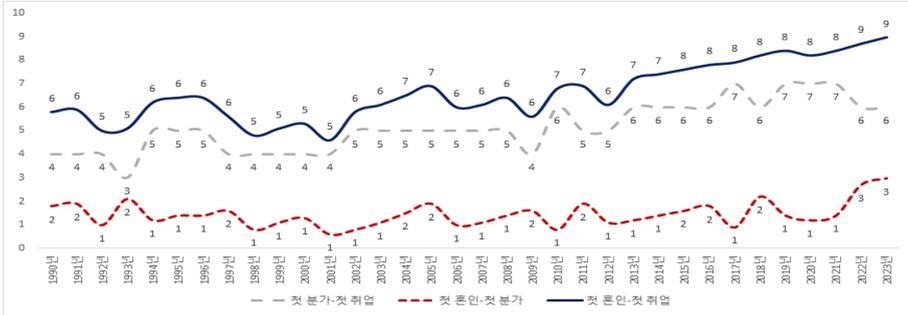


그림 II-5. 초혼연령 국제비교(2021년)

변금선 외(2024)는 1990년부터 2023년까지 중요한 성인기 이행의 사건들 간의 거리를 비교해서 분석한 바 있다. 남성을 기준으로 우선 첫 이행기 중에서 가장 거리가 짧은 것은 첫 혼인과 첫 분가 간의 거리로 최근 증가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나 3년 정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첫 취업과 첫 혼인 간의 거리로 9년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첫 취업과 첫 분가 간의 거리는 1990년 4년에서 2023년 6년으로 상승했다.

(단위: 세)



* 자료: 변금선, 김상현, 최지원, 김기현, 이승호, 이혜림(2024)
 ** 출처: 김기현, 오병돈(2024: 77). 각 이행 결과에 대해 순위로 정리한 [그림 V-1]을 재인용

그림 II-6. 남성의 생애 첫 연령 간 차이 변화(1990-2023년)

우리나라에서 생애 첫 연령 중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것은 학교 졸업이며 이어서 취업, 분가, 결혼의 순서였다. 이러한 이행 순서는 1990년부터 2023년까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 별도의 자료로 파악하기 어려우나 근대 20세 초반에는 전형적인 이행 순서로 분가에 이어 취업, 결혼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농촌에서 거주하던 청년들이 집을 나와 도시로 이주한 후 취업하고 결혼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연구에서는 청년의 성인기 이행 과정을 2010년부터 구축되었던 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의 중1패널에 참여자들이 2025년까지 성인기 이행 경로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24년까지 간략한 유지조사 형태로 조사가 이루어진 KCYPS 중1패널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추적조사를 실시하였다. 동시에 양적 분석으로 포착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중1패널 참여자 중 21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으며 동일인을 대상으로 3년에 걸쳐 성인 이행기에 관한 질문을 할 예정이다. 1차 연도 연구에서는 심층면담에서 학교이행과 관련하여 고3 시점의 교육기대(고졸, 대졸, 대학원졸 희망)와 실재를 분석하였다. 2차 연도에는 자립 과정을, 3차 연도에는 가족 형성을 다루고자 한다. 동시에 이 연구에서는 KCYPS 패널조사와 유지조사 자료를 이용해 성인기 이행 경로를 유형화하는 한편, 성인기 이행 유형에 따른 생활만족도에 대한 분석도 시도하였다. 이와 같은 개인의 생애경로에 대한 분석과 함께 사회 차원에서 어떤 변화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시계열 지표 체계 구축과 검토와 더불어 횡단 비교 차원에서 국가간 비교 지표와 결과 분석도 시도해 보았다.



제3장 청년의 성인기 이행 지표체계 및 현황

- 1. 청년의 삶 실태에 대한 기존의 지표체계
- 2. 전문가 델파이조사 설계 및 결과
- 3. 청년의 성인기 이행 지표별 현황
- 4. 연구 결과 요약 및 시사점

1. 청년의 삶 실태에 대한 기존의 지표체계

청년의 삶 실태에 대한 지표체계 논의는 2016년부터 본격화되었다. 이때 국가데이터처 승인통계로 본격적인 청년 관련 실태조사와 행정통계 활용이 이루어지면서 청년 지표 체계에 대한 구축 작업이 이루어졌다.

우선 2017년부터 국가데이터처 승인통계로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가 실시되었고, 2021년까지 조사가 이루어졌다. 2020년 「청년기본법」 제정 이후 법정 조사로 청년 삶 실태조사가 2022년부터 실시되면서 국무조정실과 국가데이터처 협의를 거쳐 중요 문항을 계승하고 새로운 조사로 일원화되었다(국무조정실, 2023a: 17).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실시와 함께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청년 사회경제 실태 지표를 2016년부터 구축해 보고서를 발간하였다(김기현, 하형석, 신인철, 2016). 이 보고서에서 제시한 청년 지표체계는 7가지로 나뉘는데 ① 인구와 가족, ② 교육과 훈련, ③ 경제와 고용, ④ 주거, ⑤ 건강, ⑥ 문화와 가치관, ⑦ 관계와 참여 등이었다(김기현, 이윤주, 유설희, 2017: 7).

같은 시기에 국가데이터처에서는 기존의 실태조사 자료와 행정통계 등을 활용해 청년의 삶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체계를 구축하였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정책 추진 시에 참고할 수 있는 지표체계를 2016년부터 구축하였다. 2016년 첫 행정통계 자료로 청년통계가 전주시에서 발간되었고 2017년에 경기도, 세종시, 울산시, 대전시 등 4개 광역자치체와 논산시, 아산시, 완주군, 순천시, 광양시 등 5개 기초자치체에서 청년통계를 발간하였다. 2025년 현재 행정통계를 발간했거나 발간 중인 지자체는 36곳에 이른다.

3) 본 장은 김기현 선임연구위원과 이용해 전문연구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집필하였음.

표 III-1. 청년지표 영역체계 비교

청년 사회경제 실태 지표(2017-2021년)	청년통계 (2018/2022년)	청년정책 연차보고서 (2022-2023년)	청년친화도시 청년지표 (2023년)
인구와 가족	인구가구	청년인구	인구
교육과 훈련	-	교육훈련	교육진로
경제와 고용	경제 일자리 창업	소득자산 청년 일자리	소득과 자산 노동
주거	-	주거	주거
건강	건강	건강	행복한 삶 건강
문화와 가치관	-	사회인식	-
관계와 참여	복지	관계참여 취약계층 청년	결혼과 출산 참여와 관계 취약계층

* 자료: 김기현, 이윤주, 유철희(2017), 국가데이터처(2022), 국무조정실(2023a) 국무조정실(2023b), 청년 사회경제실태 지표는 국가데이터처 승인통계로 2020년까지 이루어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청년정책 연차보고서는 2022년부터 국가데이터처 승인통계로 이루어진 청년 삶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

청년통계는 각 지자체마다 차이가 존재하나 국가데이터처에서는 2018년과 2022년 매뉴얼을 배포해 일괄성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2022년 개정판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본 통계 체계는 ① 인구가구, ② 경제, ③ 일자리, ④ 창업, ⑤ 복지, ⑥ 건강 등 6가지로 구성되었다(국가데이터처, 2022: 17). 이 매뉴얼에서는 이외의 영역에 대해 각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세종시/제주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 조사연역/주기**
 - 제1회 2019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실시
 - 조사 주기는 3년으로 제2회 조사는 2022년 실시 예정(2회부터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실시)
- 조사 대상**
 - 세종시/제주시 내 거주하는 만 15-39세 중 표본으로 추출된 1,500명
- 목표 방법**
 - 조사원이 가구를 직접 방문 조사하는 대면면접방법 (부재 시 자기기입 병행)
- 조사 항목**
 - 기본사항(5개): 성별, 생년월일, 혼인상태, 교육정도, 세종시 거주시점
 - 핵심사항(49개): 주거와 교통(5개), 가족(3개), 교육(37개), 건강(3개), 문화와 여가(3개), 삶의 질(3개), 노동(16개), 희망 일자리(3개), 취업정책(2개), 시 자체(2개)
- 조사 체계**
 - 조사 기획 및 예산지원, 정책협의회 운영과 공표는 세종시/제주시에서 진행
 - 조사 및 표본설계, 결과분석 및 보고서 작성은 지방통계청에서 진행
 - 통계청에서는 예산지원과 조사표 설계 지원 실시

* 출처: 김기현(2025: 23)

그림 III-1. 세종시/제주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표 III-2. 지방자치단체 청년통계(행정통계) 구축 현황

통계명	최초 조사연도(주기)	통계명	최초 조사연도(주기)
전주시 청년통계	2016년(2년)	당진시 청년통계	2019년(2년)
경기도 청년통계	2017년(2년)	전주시 청년통계	2019년(2년)
세종특별시 청년통계	2017년(1년)	남원시 청년통계	2019년(3년)
울산광역시 청년통계	2017년(2년)	완도군 청년통계	2019년(3년)
논산시 청년통계	2017년(2년)	거제시 청년통계	2019년(2년)
아산시 청년통계	2017년(2년)	인천광역시 청년통계	2020년(2년)
완주군 청년통계	2017년(3년)	광주광역시 청년통계	2020년(3년)
순천시 청년통계	2017년(2년)	여주시 청년통계	2020년(3년)
대전광역시 청년통계	2017년(2년)	보령시 청년통계	2021년(2년)
광양시 청년통계	2017년(3년)	천안시 청년통계	2021년(2년)
충청남도 청년통계	2018년(2년)	서산시 청년통계	2021년(2년)
고창군 청년통계	2018년(3년)	원주시 청년통계	2021년(1년)
김해시 청년통계	2018년(2년)	보성군 청년통계	2021년(3년)
창원시 청년통계	2018년(2년)	부산광역시 청년통계	2021년(2년)
경상북도 청년통계	2018년(2년)	화순군 청년통계	2022년(3년)
곡성군 청년통계	2018년(3년)	강진군 청년통계	2022년(3년)
제주특별자치도 청년통계	2018년(3년)	강원특별자치도 청년통계	2022년(2년)
충청북도 청년통계	2019년(2년)	홍성군 청년통계	2023년(2년)

* 출처: 김기현(2025: 22)

국가데이터처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승인통계로 진행한 청년 사회경제 실태 조사를 각 지자체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으로 세종시와 제주도를 대상으로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추진을 지원하였다. 2019년에 처음 이 사업이 이루어졌으며 2022년부터는 각 지자체의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이 조사의 지표체계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와 차이가 있다. 지역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로 교통이 추가되었고 조사 결과의 정책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취업 정책이나 시 차원의 청년정책 사업에 대한 항목을 추가하여 실시하도록 했다. 2022년부터 청년 삶 실태조사가 실시되어 광역지자체 수준에서 공신력 있는 통계자료 확보가 가능해졌으나 아직까지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활용가능한 통계는 제한적이다.

2022년부터 대규모 조사로 실시되었던 청년 삶 실태조사는 별도의 지표체계로 조사로

이루어졌다(정세정 외, 2022).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를 참고했는데 약간 차이가 있다. 국무조정실에서 발간해 온 청년정책백서와 청년정책 연차보고서에 포함된 청년 삶 실태 지표체계는 기본적으로 청년 삶 실태조사의 지표체계를 따르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① 청년인구, ② 소득·자산, ③ 청년 일자리, ④ 주거, ⑤ 건강, ⑥ 사회인식, ⑦ 관계와 참여, ⑧ 취약계층 청년 등이다. 이밖에 국가데이터처의 청년층 부가조사와 청년패널(YP: Youth Panel), 교육고용패널조사 등 개별 조사에서 청년 삶 실태를 파악하는 조사들이 실시 중이다.

이 중에서 청년층 부가조사는 횡단조사로 매년 5월에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부가조사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조사는 교육과 일자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질문 항목 중에서 성인기 이행과 관련된 문항들은 학교 이행 문항과 학교-일자리 이행 문항들이 포함되었다.

표 III-3. 청년친화도시 청년지표체계

지표 영역		지표
1. 행복한 삶		삶의 만족, 사회 신뢰, 청년 자살률
2. 건강	신체건강	주관적인 건강상태
	정신건강	우울증상 유병률
3. 교육과 진로	교육	고등교육기관 취학률
	진로	첫 취업 소요기간, 첫 일자리 근로형태
4. 노동	취업자	고용률, 이직률, 종사상 지위
	미취업자	실업률, 니트(NEET) 비율
	일-생활 균형	여가시간
5. 결혼과 출산	결혼	혼인율, (미혼 청년) 결혼 계획
	출산	출산율, 출산 계획
6. 소득과 자산	소득	소득
	자산	자산액, 부채액
7. 주거	주거	거주주택 유형,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률
8. 참여와 관계	참여	선거 투표율, 정치적 효능감
	관계	사회적 고립, 사회단체 참여율
9. 취약계층 청년		취약계층 청년 출현률
10. 인구		청년인구 수, 총부양비, 청년가구 구성, 정주의식

* 출처: 국무조정실(2023b: 8)

학교 이행 문항들은 최종학교의 입학과 졸업, 편입 여부, 중퇴 및 휴학 여부 등이다. 학교-일자리 이행 문항들은 첫 취업기간, 취업 준비와 취업경로, 창업 경험과 계획, 첫 일자리의 특성 등이 포함되었다. 이 조사는 성인 이행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청년 정책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횡단조사로 자리잡고 있다.

청년친화도시 추진과 관련 제시된 청년지표는 조사가 아닌 정책 추진 과정에서 성과 측정을 목적으로 제시된 경우이다. 이 지표에 대한 개발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용역과제로 수행된 결과이다. 개발 원칙은 세 가지가 적용되었는데 대표성과 활용성, 이용 가능성 등이었다(국무조정실, 2023b: 8). 대표성은 청년의 삶을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정도이며 활용성은 청년정책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데 활용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이용가능성은 해당 지표를 측정해 생산이 가능한 정도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한 청년지표가 제시되었고 이에 대한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몇 가지 측면에서 성인이 이행에 초점을 맞춘 지표체계의 구축과 활용이 필요해 보인다. 우선 청년정책이 청년의 성인이 이행 과정에서 청년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자신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성인이 이행에 초점을 맞춘 지표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 청년의 성인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며 다양한 문제가 발생해 이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진단할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수도권 인구 집중에 따른 경쟁 심화, 여전히 견고한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경력직 채용 중심의 고용관행 확대, AI와 같은 과학기술의 영향 등 사회 진출 시기인 20대 청년에게 매우 불리한 거시적 환경 변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연구에서는 청년지표 중에서 청년의 성인이 이행을 다룬 지표체계를 별도로 구축해 보고자 한다. 이는 KCYPs 2010 중1패널 추적조사 설문지를 구성하는데 활용하였다. 우선 KCYPs 2010 중1패널 추적조사 항목은 ① 학습과 진학, ② 학교-일자리 이행, ③ 자립과 주거, ④ 삶의 질과 참여 등 4가지로 구분하였다. 청년 성인이 이행 지표체계는 전문가 델파이조사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청년 성인이 이행 지표체계를 통해 거시적인 차원에서 청년 실태를 3년의 연구 기간 동안 분석해 보고자 하며 1차 연도 연구에서는 지표체계 구축과 더불어 지난 4년 간의 변화 양상을 분석해 보았다.

2. 전문가 델파이조사 설계 및 결과

1) 청년 성인기 이행 지표체계에 대한 전문가 델파이조사 설계

이 연구에서는 청년 성인기 이행 지표체계를 ① 학습과 진학, ② 학교-일자리 이행, ③ 자립, ④ 가족 형성 등 4가지로 구분하고 핵심지표(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자료 수집을 통해 청년들의 성인기 이행 결과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먼저 이 연구에서는 전문가 대상 델파이조사를 통해 지표 영역(안)과 핵심 이행 지표(안)을 확정하였다. 델파이조사는 최대 세 번에 걸쳐 이루어질 예정이며 1차 조사는 중간보고 회의를 거쳐 6월 17일부터 6월 23일까지 20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2차 조사는 1차 조사 결과를 정리한 후 6월 30일부터 7월 7일까지 진행되었으며, 2차 조사까지의 수렴도, 타당도 등을 토대로 결정하였다.

표 III-4. 청년 성인기 이행 지표체계(안)

지표 영역(안)	핵심지표(안)
1. 학습과 진학	진학을, N수생 비율, 휴학비율, 졸업 소요기간 등
2. 학교-일자리 이행	졸업 후 첫 취업 소요기간, 실업률, 쉬는 청년 비율 등
3. 자립	삶 결정에 대한 자율성, 부모 동거비율, 최저주거 미달가구 비율 등
4. 가족 형성	조혼율, 초혼연령, 1인가구 비율, 합계출산율 등

* 자료: 자체 작성

델파이조사는 각 지표 영역과 정의에 대한 적절성과 핵심지표(안)에 대한 적절성을 묻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세부 영역에 대한 부분은 이행기를 포괄적으로 해석해 측정가능한 지표를 제시하고 이를 전문가 델파이조사를 거쳐 확정하고자 했다. 각 지표 영역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먼저 학습과 진학은 “지식이나 기술, 가치와 태도 등을 습득하거나 개선하기 위해 공식적인 교육기관에 입학하고 증퇴하거나 졸업하고 진학하거나 비형식, 무형식 학습을 받는 과정”이다. 학교-일자리 이행은 “공식적인 교육기관에서 졸업 전에 일자리를 구하거나 졸업증퇴 후에 구직활동을 거쳐 노동시장에 진입하거나 이직 후 재진입하는 과정”이다. 이어서 자립은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꾸려나갈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상태 또는 능력을 갖추어 나가는 과정”이다. 마지막으로 가족 형성은 “개인이 다른

사람과 결혼, 동거를 하거나 출산이나 입양을 통해 자녀를 두는 등 새로운 가족관계를 만드는 과정"이다. 이러한 정의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적절성 검토를 거쳐 확정하였다.

학습과 진학에 포함되는 핵심지표로는 직업계고 진학률(직업계고 취업통계), 직업계고 취업률(직업계고 취업통계), 일반고 취업자 비율(교육통계연보), 대학수학능력시험 졸업생(N수행) 응시율(수학능력시험통계), 대학 미진학 이유(청년 삶 실태조사), 대학 진학률(교육통계연보), 대학생 학업중단율(교육통계연보), 대학생 휴학률(교육통계연보), 대학 졸업 소요기간(경제활동 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대학등록금(대학알리미), 학자금 대출 비율(대학알리미), 대학생 교육훈련을 받고 싶은 영역(청년 삶 실태조사), 대학에서 습득한 지식이 취업에 도움이 되는 정도(청년 삶 실태조사), 대학생의 취업목적 사교육 경험 비율(청년 삶 실태조사), 대학 취업률(고등교육 취업통계), 평생학습 참여율(평생학습 실태조사), 직장체험 경험비율(경제활동 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학생이 기대하는 교육수준(사회조사) 등이 핵심지표로 델파이조사에 제시되었다.

학교-일자리 이행에 대한 핵심지표로는 청년 졸업(중퇴) 후 첫 취업 소요기간(경제활동 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청년 졸업(중퇴) 후 조기 취업 비율(경제활동 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청년 경제활동 참여율(경제활동 인구조사), 청년 고용률(경제활동 인구조사), 청년 실업률(경제활동 인구조사), 청년 구직단념자 비율(경제활동 인구조사), 쉬는 청년 비율(경제활동 인구조사), 청년 니트(NEET) 비율(경제활동 인구조사), 청년 소진(번아웃) 경험 비율(청년 삶 실태조사), 첫 직장 근속기간(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청년 현재 일자리 업무 자율성 정도(청년 삶 실태조사), 청년 이직 또는 구직 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이유(청년 삶 실태조사), 청년 직장 내 괴롭힘 정책이나 대응 절차 유무(청년 삶 실태조사), 청년 위험한 근로 환경 경험 빈도(청년 삶 실태조사), 청년 복수 일자리(N잡러) 비율(청년 삶 실태조사), 활동법인 청년 대표자 비율(기업생멸행정통계), 신규 자영업자 사업자금 규모(경제활동 인구조사 비임금근로 부가조사), 신규 자영업자 사업자금 조달 방법(경제활동 인구조사 비임금근로 부가조사) 등이 제시되었다.

자립에 대한 핵심지표로는 삶을 결정함에 있어 자유로운 정도(사회통합실태조사), 본인이 하는 일이 가치있다고 생각하는 정도(사회통합실태조사), 바라는 미래 실현 가능성(청년 삶 실태조사), 갖추었다고 생각하는 미래 실현 요소(청년 삶 실태조사), 본인 세대 계층이동(사회조사), 부모 동거 비율(사회조사), 60세 이상 현재 자녀와 동거 이유(사회조사), 부모로부터 독립하려는 구체적 계획 비율(청년 삶 실태조사), 부모로부터 독립을 계획하지 않는

주된 이유(청년 삶 실태조사), 청년 거주 주택 점유형태(주거실태조사), 청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주거실태조사), 청년 지하반지하옥탑방 거주가구 비율(주거실태조사), 청년 주거비 과부담 가구 비율(주거실태조사), 생애 최초 주택마련 소요기간 및 연령(주거실태조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수급 비율(청년 삶 실태조사), 고립은둔 청년 비율(청년 삶 실태조사), 가족돌봄 청년 비율(청년 삶 실태조사), 청년 상대빈곤율(청년 삶 실태조사) 등이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가족 형성에 대한 핵심지표로는 조혼율(인구동향조사), 초혼연령(인구동향조사), 결혼에 대한 견해(사회조사), 결혼 문화에 대한 태도(사회조사), 향후 결혼계획(청년 삶 실태조사), 향후 결혼계획(청년 삶 실태조사), 1인가구 비율(인구동향조사), 출산연령(인구동향조사), 합계출산율(인구동향조사), 향후 자녀 출산 의향(청년 삶 실태조사), 이상적인 자녀수(사회조사),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사회조사), 가사 분담에 대한 견해(사회조사), 이혼에 대한 견해(사회조사), 재혼에 대한 견해(사회조사), 입양에 대한 견해(사회조사), 외국인을 우리나라 국민으로 수용하는 정도(사회통합실태조사), 자녀의 배우자로서 집단 구성원 포용 정도(사회통합실태조사) 등이 제시되었다.

2) 전문가 델파이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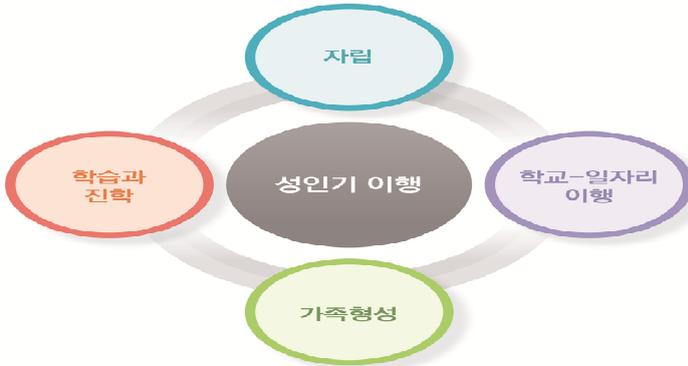
이 절에서는 전문가 델파이조사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델파이조사에서 주로 활용하는 기준인 CVR의 경우 0.5 이상, 수렴도의 겨우 0.5 이하, 합의도 0.75 이상을 활용하였다. 다만, 2차 조사에서는 합의도의 경우 기준을 완화하여 0.65 이상으로 적용하였다. 이는 통상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을 고려한 것이다.

표 III-5. 성인기 이행 지표 영역체계(안)에 대한 델파이조사 결과

지표 영역(안)	1차조사			2차조사		
	CVR	수렴도	합의도	CVR	수렴도	합의도
1. 학습과 진학	0.90	0.50	0.75	-	-	-
2. 학교-일자리 이행	0.90	0.00	1.00	-	-	-
3. 자립	0.80	0.50	0.75	-	-	-
4. 가족 형성	1.00	0.50	0.75	-	-	-

* 자료: 자체 작성

먼저, 청년 성인기 이행 지표 영역(안)에 대해서 학습과 진학, 학교-일자리 이행, 자립, 가족 형성 등 4가지로 제시한 결과, 1차 조사에서 세 가지 기준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4가지 영역(안)을 확정하였다.



* 출처: 자체작성

그림 Ⅲ-2. 청년의 성인기 이행 지표의 4가지 영역(안)

이어서 성인기 이행 지표 영역에 대한 정의(안)에 대해서 델파이조사에서는 전문가들에게 적절한지를 질문하였다. 1차 조사 결과, 자립과 가족 형성에 대한 정의는 기준을 만족하였으나 학습과 진학 및 학교-일자리 이행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표 Ⅲ-6. 성인기 이행 지표 영역의 정의(안)에 대한 델파이조사 결과

지표 영역(안)	1차조사			2차조사		
	CVR	수렴도	합의도	CVR	수렴도	합의도
1. 학습과 진학	0.40	0.63	0.58	0.60	0.50	0.75
2. 학교-일자리 이행	0.40	1.00	0.33	0.60	0.50	0.67
3. 자립	0.80	0.50	0.67	-	-	-
4. 가족 형성	0.60	0.50	0.71	-	-	-

* 자료: 자체 작성. 델파이 1차조사 시 지표영역체계(안)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지표영역 정의(안)의 합의도 기준을 0.65 이상으로 완화함.

표 III-7. 성인기 이행 지표 영역의 정의 내용

지표 영역(안)	구분	정의(안)
1. 학습과 진학	1차 조사	지식이나 기술, 가치와 태도 등을 습득하거나 개선하기 위해 공식적인 교육기관에 입학하고 중퇴하거나 졸업하고 진학하거나 비형식, 무형식 학습을 받는 과정
	2차 조사	정규 교육기관 혹은 비형식기관에서 학습하거나, 혼자서 지식, 기술 등을 습득하는 과정(무형식)
2. 학교-일자리 이행	1차 조사	공식적인 교육기관에서 졸업 전에 일자리를 구하거나 졸업, 중퇴 후에 구직활동을 거쳐 노동시장에 진입하거나 이직 후 재진입하는 과정
	2차 조사	정규 교육기관에서 졸업(중퇴 포함) 전이나 후에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과정
3. 자립	1차 조사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꾸려나갈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상태 또는 능력을 갖추어 나가는 과정
4. 가족 형성	1차 조사	개인이 다른 사람과 결혼, 동거를 하거나 출산이나 입양을 통해 자녀를 두는 등 새로운 가족관계를 만드는 과정

* 자료: 자체 작성. 굵은색으로 최종안임.

2차 조사에서 수정된 정의에 대해 학습과 진학은 기준을 만족하였고 학교-일자리 이행은 합의도에서 완화된 기준을 충족하였다. 먼저 학습과 진학에 대한 1차 정의는 “지식이나 기술, 가치와 태도 등을 습득하거나 개선하기 위해 공식적인 교육기관에 입학하고 중퇴하거나 졸업하고 진학하거나 비형식, 무형식 학습을 받는 과정”이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학습 영역인 형식, 비형식, 무형식 학습을 간명하게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를 반영하여 2차 조사에서는 “정규 교육기관 혹은 비형식기관에서 학습하거나, 혼자서 지식, 기술 등을 습득하는 과정(무형식)”으로 정의를 수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2차 조사의 정의를 따르고자 한다.

학교-일자리 이행에 대한 1차 조사의 정의는 “공식적인 교육기관에서 졸업 전에 일자리를 구하거나 졸업, 중퇴 후에 구직활동을 거쳐 노동시장에 진입하거나 이직 후 재진입하는 과정”이었다. 여기에서 쟁점이 된 부분은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하는 과정만 포함되는지, 아니면 취업 후에 이직을 하고 새로운 직장을 찾는 과정도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청년들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자신에게 맞는 직장을 찾는 것이어서 이를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되 재진입으로 표현하지 않고 이 자체도 진입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어 재진입이라는 표현을 삭제하였다. 동시에 좀 더 간명하게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어서 2차 조사에서는 “정규 교육기관에서 졸업(중퇴 포함) 전이나 후에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과정”으로 정의를 수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2차 조사의 정의에 따르고자 한다.

다음으로 자립에 대한 1차 조사의 정의는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꾸려나갈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상태 또는 능력을 갖추어 나가는 과정”이었고 가족 형성에 대한 정의는 “개인이 다른 사람과 결혼, 동거를 하거나 출산이나 입양을 통해 자녀를 두는 등 새로운 가족관계를 만드는 과정”이었다. 이러한 정의에 대해 전문가들이 대부분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이 연구에서는 1차 조사의 정의에 따르고자 한다.

표 III-8. 학습과 진학 핵심지표(안)에 대한 델파이조사 결과

핵심지표(안)	1차조사			2차조사		
	CVR	수렴도	합의도	CVR	수렴도	합의도
1. 직업계고 진학률	0.80	0.50	0.75	-	-	-
2. 직업계고 취업률	0.60	0.50	0.75	-	-	-
3. 일반고 취업자 비율	0.60	0.50	0.75	-	-	-
4. N수생 비율	0.60	0.50	0.71	0.70	0.50	0.71
5. 대학 미진학 이유	0.60	0.50	0.67	0.60	0.50	0.67
6. 대학 진학률	1.00	0.00	1.00	-	-	-
7. 대학생 학업중단률	1.00	0.50	0.75	-	-	-
8. 대학생 휴학을	0.60	0.50	0.71	0.70	0.50	0.67
9. 대학 졸업 소요기간	1.00	0.50	0.75	-	-	-
10. 대학등록금	0.10	0.63	0.58	0.10	0.63	0.58
11. 학자금 대출비율	0.40	1.00	0.33	0.60	0.00	1.00
12. 대학생 교육훈련 선호	0.40	1.00	0.33	0.50	0.63	0.58
13. 대학 지식 취업도움	0.40	1.00	0.33	0.50	0.63	0.58
14. 취업목적 사교육 경험	0.60	0.50	0.67	0.70	0.50	0.67
15. 대학 취업률	0.70	0.50	0.75	-	-	-
16. 평생학습 참여율	0.50	0.63	0.58	0.40	1.00	0.33
17. 직장체험 비율	0.40	1.00	0.33	0.70	0.50	0.67
18. 학생 교육기대 수준	0.70	0.50	0.67	0.90	0.13	0.92

* 자료: 자체 작성. 2차 조사에서 합의도는 0.75에서 0.65 이상으로 완화함. **굵은색**으로 최종안임.

이어서 각 영역별 세부 지표에 대한 델파이조사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학습과 진학에 대해서 18가지의 핵심지표(안)을 제시하였고 전문가들에게 적절성을 물어보았다. 1차 조사에서 N수생 비율, 대학 미진학 이유, 대학등록금, 학자금 대출비율, 대학생이 선호하는 교육훈련, 대학에서 배운 지식이 취업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 취업 목적 사교육 경험, 평생학습 참여율, 직장체험 비율, 학생 교육기대 수준이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2차조사에서 다른 전문가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하고 다시 한 번 응답을 요청한 결과, 이 중에서 N수생 비율, 대학 미진학 이유, 학자금 대출비율, 취업목적 사교육 경험, 직장체험 비율, 학생 교육기대 수준이 기준에 도달하였다.

표 III-9. 학교-일자리 이행 핵심지표(안)에 대한 델파이조사 결과

핵심지표(안)	1차조사			2차조사		
	CVR	수렴도	합의도	CVR	수렴도	합의도
1. 첫 취업 소요기간	0.90	0.00	1.00	-	-	-
2. 조기 취업비율	0.90	0.50	0.71	1.00	0.50	0.75
3. 청년 경제활동참여율	0.90	0.13	0.94	-	-	-
4. 청년 고용률	1.00	0.00	1.00	-	-	-
5. 청년 실업률	1.00	0.00	1.00	-	-	-
6. 청년 구직단념자비율	1.00	0.00	1.00	-	-	-
7. 쉬는 청년 비율	0.90	0.50	0.75	-	-	-
8. 청년 니트(NEET) 비율	0.90	0.13	0.94	-	-	-
9. 청년 소진 경험 비율	0.60	0.50	0.67	0.60	0.50	0.67
10. 첫 직장 근속기간	1.00	0.13	0.94	-	-	-
11. 현직 업무자율성 정도	0.50	0.63	0.58	0.60	0.50	0.67
12. 이직/구직 가장 큰 이유	0.60	0.50	0.75	-	-	-
13. 직장내 괴롭힘 제도	0.30	1.00	0.33	0.30	0.50	0.67
14. 위험한 근로환경 경험	0.40	1.00	0.33	0.50	0.63	0.58
15. 복수일자리(N잡러) 비율	1.00	0.50	0.71	1.00	0.50	0.75
16. 청년대표 활동법인	0.80	0.50	0.67	0.70	0.50	0.67
17. 신규 자영업자 자금규모	0.00	0.50	0.60	-0.10	0.50	0.50
18. 신규 자영업자 자금조달	-0.10	0.50	0.50	-0.10	0.50	0.50

* 자료: 자체 작성. 2차 조사에서 합의도는 0.75에서 0.65 이상으로 완화함. **굵은색**으로 최종안임.

이어서 학교-일자리 이행에 대한 델파이조사 결과, 전문가들은 조기 취업비율, 청년 소진 경험 비율, 현직 업무자율성 정도, 직장내 괴롭힘 제도, 위험한 근로환경 경험, 복수일 자리(N잡러) 비율, 청년대표 활동법인, 신규 자영업자 자금규모, 신규 자영업자 자금조달 방법이 핵심지표로서 적절성이 떨어진다고 응답하였다. 2차 조사에서 전체 전문가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하고 수정 여부를 물어본 결과, 조기 취업비율, 청년 소진 경험 비율, 현직 업무자율성 정도, 복수일자리(N잡러) 비율, 청년대표 활동법인은 핵심지표로서 적절하다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0. 자립 핵심지표(안)에 대한 델파이조사 결과

핵심지표(안)	1차조사			2차조사		
	CVR	수렴도	합의도	CVR	수렴도	합의도
1. 자신의 삶 결정 정도	0.90	0.00	1.00	-	-	-
2. 본인 일 가치 정도	0.60	0.50	0.75	-	-	-
3. 미래 실현 가능성	0.50	0.63	0.69	0.70	0.50	0.75
4. 미래 실현 요소	0.80	0.50	0.75	-	-	-
5. 본인 세대 계층이동	0.40	1.00	0.43	0.70	0.50	0.67
6. 부모 동거 비율	1.00	0.00	1.00	-	-	-
7. 60세 이상 자녀동거 이유	0.20	0.63	0.58	0.20	0.63	0.58
8. 부모 독립 계획	0.90	0.50	0.75	-	-	-
9. 독립하지 않는 이유	0.60	0.50	0.75	-	-	-
10. 청년거주 주거점유형태	0.80	0.50	0.71	0.80	0.50	0.67
11. 최저주거기준미달 여부	0.70	0.50	0.71	0.50	0.63	0.58
12. 자육고 거주 여부	0.70	0.50	0.67	0.60	0.50	0.71
13. 주거비 과부담 비율	0.90	0.50	0.71	0.80	0.50	0.75
14. 생애 최초 주거 마련	0.70	0.50	0.75	-	-	-
15. 기초생활수급 여부	0.70	0.50	0.71	0.70	0.50	0.67
16. 고립은둔청년 비율	0.80	0.50	0.75	-	-	-
17. 가족돌봄 청년 비율	0.80	0.50	0.75	-	-	-
18. 청년 상대빈곤율	0.60	0.50	0.75	-	-	-

* 자료: 자체 작성. 2차 조사에서 합의도는 0.75에서 0.65 이상으로 완화함. **굵은색**으로 최종안임.

다음으로 자립 핵심지표에 대해서 자신의 미래에 대한 실현 가능성, 본인 세대 계층이동 가능성, 60세 이상 자녀동거 이유, 청년거주 주거점유형태, 거주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지옥고 거주 여부, 주거비 과부담 비율, 기초생활수급 여부, 고립은둔청년 비율이 기준에 미달하였다. 2차 조사 결과, 이 중에서 자신의 미래에 대한 실현 가능성, 본인 세대 계층이동 가능성, 청년거주 주거점유형태, 지옥고 거주 여부, 주거비 과부담 비율, 기초생활수급 여부, 고립은둔청년 비율이 기준에 도달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족 형성 핵심지표(안)을 살펴보면,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 이혼에 대한 견해, 재혼에 대한 견해, 입양에 대한 견해, 외국인 국민 수용성, 외국인 가족 수용성이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2차 조사에서 최종적으로 추가된 핵심지표(안)은 이혼에 대한 견해, 입양에 대한 견해였다.

표 III-11. 가족 형성 핵심지표(안)에 대한 델파이조사 결과

핵심지표(안)	1차조사			2차조사		
	CVR	수렴도	합의도	CVR	수렴도	합의도
1. 조혼율	0.60	0.50	0.75	-	-	-
2. 초혼연령	1.00	0.00	1.00	-	-	-
3. 결혼에 대한 견해	0.90	0.50	0.75	-	-	-
4. 결혼 문화에 대한 태도	0.70	0.50	0.75	-	-	-
5. 향후 결혼 계획	0.90	0.00	1.00	-	-	-
6. 1인가구 비율	0.80	0.50	0.75	-	-	-
7. 출산연령	0.90	0.13	0.94	-	-	-
8. 합계출산율	0.70	0.50	0.75	-	-	-
9. 향후 자녀 출산의향	0.90	0.13	0.94	-	-	-
10. 이상적인 자녀수	0.60	0.50	0.75	-	-	-
11. 결혼하지 않는 이유	0.60	0.50	0.75	-	-	-
12.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	0.40	1.00	0.33	0.50	0.63	0.58
13. 이혼에 대한 견해	0.50	0.63	0.69	0.60	0.50	0.75
14. 재혼에 대한 견해	0.40	1.00	0.50	0.50	0.63	0.58
15. 입양에 대한 견해	0.50	0.63	0.69	0.80	0.50	0.67
16. 외국인 국민 수용성	0.00	0.50	0.60	0.20	0.50	0.67
17. 외국인 가족 수용성	0.00	0.50	0.60	-0.20	0.50	0.50

* 자료: 자체 작성. 2차 조사에서 합의도는 0.75에서 0.65 이상으로 완화함. **굵은색**으로 최종안임.

이 연구에서는 이번에 실시한 델파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각 핵심지표별로 국가데이터처 승인통계를 토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중요한 청년 성인이 이행 지표 중에서 누락된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내년도 과제에서 보장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 대한 설계와 조사 결과를 살펴보았다. 올해 연구에서 창업과 관련된 이행기 지표가 1개에 불과해 2차 연도 연구에서 해당 지표에 대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추가, 보완 작업을 진행하고자 한다. 동시에 확정된 세부지표별로 성별, 연령, 지역 등 인구사회적 특성별로 지표 결과를 구체적으로 다루어 보고자 한다.

1차 연도 연구에서는 델파이조사를 통해 청년의 성인이 이행 지표에 대한 영역체계와 세부 지표를 확정하였다. 다음 절에서는 세부 지표별 청년 성인이 이행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행 현황은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적용된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추세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청년층 부가조사는 5월에 실시되는 조사로 2025년 결과를 살펴볼 수 있으나 대다수 조사가 2024년이 가장 최근에 데이터를 공개한 시점이어서 이 연구에서는 2024년까지의 결과를 살펴보았다.

3. 청년의 성인이 이행 지표별 현황

이 연구에서는 학습과 진학, 학교-일자리 이행, 자립, 그리고 가족 형성 등 4가지 영역에 대해서 청년의 성인이 이행 지표별 현황을 살펴보았다. 청년 연령의 경우 통계자료마다 제공되는 범위가 달라 해당 자료의 청년 연령을 결과를 제시할 때 표기하였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청년을 국제노동기구(IL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서 사용하는 연령 규정에 따라서 15-24세와 15-29세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원자료를 통해 청년기본법의 19-34세에 대한 결과를 산출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문제점이 존재한다.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가중치는 5세 단위로 이루어져 19세의 경우 별도의 가중치가 존재하지 않아 20-34세의 결과 정도만 공표가 가능한 상황이다.

여기에서는 경제활동인구조사와 관련된 통계는 청년을 15-29세 결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밖에 사회조사를 비롯해 사회통합실태조사 등 대부분의 자료들은 10세 단위로 결과를 내고 있어 이 경우에 20-29세 등의 결과를 주로 제시하였다. 현재 표본 대표성에

문제가 되지 않고 19-34세의 결과를 알 수 있는 통계는 청년 삶 실태조사 정도가 유일한 상황이다.

먼저 학습과 진학에 대한 핵심지표에 대해서 수치를 파악한 출처는 주로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간하는 교육통계연보와 취업통계 보고서였다. 이 보고서들은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운영 중인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에서 데이터를 확보하였다.

표 III-12. 연도별 학습과 진학 핵심지표 출처

지표 영역(안)	출처
1. 직업계고 대학 진학률	교육통계연보(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25, https://kess.kedi.re.kr/)
2. 직업계고 취업률	직업계고 취업통계(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25, https://kess.kedi.re.kr/)
3. 일반고 직업반 취업률	직업계고 취업통계(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25, https://kess.kedi.re.kr/)
4. 수능 졸업생 응시율	수능통계(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5, https://www.suneung.re.kr/)
5. 대학 미진학 이유	청년 삶 실태조사(국가데이터처, 2025, https://kosis.kr/)
6. 대학 진학률	교육통계연보(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25, https://kess.kedi.re.kr/)
7. 대학생 학업중단률	교육통계연보(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25, https://kess.kedi.re.kr/)
8. 대학생 휴학률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국가데이터처, 2025, https://kosis.kr/)
9. 대학 졸업 소요기간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국가데이터처, 2025, https://kosis.kr/)
10. 학자금 대출비율	한국장학재단 통계연보(한국장학재단, 2025)
11. 취업목적 사교육 경험	청년 삶 실태조사(국가데이터처, 2025, https://kosis.kr/)
12. 대학 취업률	대학 취업통계(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25, https://kess.kedi.re.kr/)
13. 직장체험 비율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국가데이터처, 2025, https://kosis.kr/)
14. 학생 교육기대 수준	사회조사(국가데이터처, 2025, https://kosis.kr/)

* 출처: 각 지표별 출처 참조

학습이어서 2022년부터 격년 조사로 이루어지고 있는 청년 삶 실태조사와 경제활동인구 청년층 부가조사, 사회조사 등의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조사 자료들은 국가데이터처에서 운영 중인 국가통계시스템 KOSIS(<https://kosis.kr/>)에서 데이터를 확보하여 분석하였다.

이밖에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생에 대한 자료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제공하는 수능통계(<https://www.suneung.re.kr/>)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학자금 대출 비율에 대해서는 한국장학재단의 통계연보(2025) 보고서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확보하였다.

학습과 진학 결과를 보면, 직업계고는 일반계고와는 달리 계속 교육기관이 아닌 완성 교육기관으로 취업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다면 취업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

표 III-13. 연도별 학습과 진학 핵심지표 추이(2021-2024)

지표 영역(단위, 연령)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추세					
1. 직업계고 대학 진학률(%)		45.0	45.2	47.0	48.0	↗					
2. 직업계고 취업률(%)		55.4	57.8	55.7	55.3	↗↘					
3. 일반고 직업반 취업률(%)		35.9	40.8	36.8	43.9	↗↘↗					
4. 대학수학능력시험 졸업생 응시율(%)		27.0	26.4	28.0	31.7	↘↗					
5. 대학 미진학 이유(%)	고졸 학력을 취득하지 못해서	-	0.5	-	0.9	↗					
	빨리 취업하여 돈을 벌고 싶었기 때문에	-	30.8	-	40.4	↗					
	진학하고 싶었으나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	7.4	-	10.9	↗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에 성적이 부족해서	-	11.0	-	11.7	↗					
	대학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	26.8	-	25.4	↘					
	고등학교 시절, 졸업 후에 대해 아무런 생각이 없어서	-	3.2	-	5.7	↗					
	기타	-	20.5	-	5.1	↘					
6. 대학 진학률(%)		73.7	73.3	72.8	73.6	↘↗					
7. 대학생 학업중단률(%)		6.8	7.0	7.2	7.2	↗					
8. 대학생 휴학률(%, 15-29세)		48.1	46.6	45.8	46.8	↘↗					
9. 대학 졸업 소요기간(개월, 15-29세)		51	52	51	52	↗↘↗					
10. 학자금 대출비용 (1/2학기, %)	대학	일반상환(등록금 + 생활비)	3.1	2.5	2.6	2.5	4.3	3.9	4.5	4.6	↘↗
		일반상환(등록금)	2.3	1.7	1.9	1.6	3.1	2.6	3.0	2.7	↘↗
		취업후상환(등록금 + 생활비)	7.3	8.4	7.9	8.7	7.0	7.7	7.0	7.4	↗↘
		취업후상환(등록금)	4.2	4.4	4.0	4.1	3.5	3.7	3.4	3.5	↘
	전문대학	일반상환(등록금 + 생활비)	4.1	2.7	3.1	2.5	5.2	4.2	5.4	5.4	↘↗
		일반상환(등록금)	3.4	1.9	2.4	1.7	3.9	2.7	3.8	3.0	↘↗
		취업후상환(등록금 + 생활비)	10.0	12.0	10.9	12.3	9.4	10.7	9.2	10.0	↘
		취업후상환(등록금)	6.4	6.7	6.0	6.1	5.1	5.5	4.9	5.0	↘
11. 취업목적 사교육 경험(%)		-	32.4	-	28.0	↘					
12. 대학 취업률(%)		67.7	69.6	70.3	-	↗					
13. 청년 직장체험 비율(%, 15-29세)		44.6	44.3	43.1	43.6	↘					
14. 학생 교육 기대 수준(%)	고등학교 이하	-	5.4	-	5.6	↗					
	대학교(교)(4년제 미만)	-	10.8	-	9.9	↘					
	대학교(4년제 이상)	-	63.4	-	62.8	↘					
	대학원(석사)	-	10.6	-	12.7	↗					
	대학원(박사)	-	9.8	-	9.0	↘					

* 출처: 표 III-11 참조. 교육통계에서 취업률은 졸업자(진학자, 입대자, 제외인정자, 취업불가능자 등을 뺀 졸업자임) 중 취업자의 비율임. 직업계고는 특성화고, 마이스티고, 일반고 직업반을 모두 포함한 것임.

직업계고의 대학 진학률 자체만 놓고 보면, 높아지는 것을 부정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 다만, 직업계고의 취업률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직업계고 취업률이 높아진다면 대학 진학률은 낮아지게 된다.

직업계고 취업률은 최근 낮아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교육통계연보에서 취업률은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고용률과는 달리 여러 조건 예외를 제외하고 분모를 줄인 상태에서 추정한 결과여서 진학률과 취업률의 합계가 100%를 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 진학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설립 목적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인 이행기 관점에서 중요한 지표는 N수생 비율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대학 입학을 위해 몇 년 간 준비하는 사례가 많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1년 간 추가로 준비하는 재수생을 넘어 2-3년의 장기간에 걸쳐 수능시험을 치르는 경우가 많아 최근 N수생으로 표현할 정도이다. N수생은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졸업생의 응시율로 2022년 이후 큰 폭을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재수 기간이 청년들의 성인기 이행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학 진학과 관련하여 미진학 이유를 물어본 결과, 2022년과 비교해 증가한 것은 "빨리 취업하여 돈을 벌고 싶었기 때문에"였고 오히려 감소한 것은 "대학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였다. 대학 진학률은 73% 내외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데 거의 대학 진학을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위치인 천장에 도달한 상황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으며 이 결과는 높은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학생활과 관련하여 대학생의 학업중단률은 증가 추세이고 휴학 역시 늘고 있다. 학자금 대출 비율은 대학 유형이나 상환 방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최근 들어 증가 추세이다. 취업을 위한 사교육은 소폭 줄었고 직장체험 비율은 낮아졌다. 학생 교육기대 수준을 보면, 그동안 낮아졌던 고졸과 대학원 이상에 대한 선호도가 상승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이어서 학교-일자리 이행을 살펴보면, 이 지표 영역의 출처는 대부분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와 청년 삶 실태조사가 대부분이다. 창업과 관련하여 청년대표 법인의 비율 정도만 포함되었는데 이에 대한 데이터는 기업생멸통계를 통해 확보하였다.

표 III-14. 연도별 학교-일자리 이행 핵심지표 출처

지표 영역(안)	출처
1. 첫 취업소요기간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국가데이터처, 2025, https://kosis.kr/)
2. 조기 취업비율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3개월 미만 비율, 자체 작성
3. 청년 경제활동참여율	경제활동인구조사(국가데이터처, 2025, https://kosis.kr/)
4. 청년 고용률	경제활동인구조사(국가데이터처, 2025, https://kosis.kr/)
5. 청년 실업률	경제활동인구조사(국가데이터처, 2025, https://kosis.kr/)
6. 청년 구직단념자비율	경제활동인구조사(국가데이터처, 2025, https://kosis.kr/)
7. 쉬는 청년 비율	경제활동인구조사(국가데이터처, 2025, https://kosis.kr/)
8. 청년 니트(NEET) 비율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분석 자체 작성
9. 청년 소진 경험 비율	청년 삶 실태조사(국가데이터처, 2025, https://kosis.kr/)
10. 첫 직장 근속기간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국가데이터처, 2025, https://kosis.kr/)
11. 현직 업무지움성 정도	청년 삶 실태조사(국가데이터처, 2025, https://kosis.kr/)
12. 이직/구직 가장 큰 이유	청년 삶 실태조사(국가데이터처, 2025, https://kosis.kr/)
13. 복수일자리(N잡러) 비율	청년 삶 실태조사(국가데이터처, 2025, https://kosis.kr/)
14. 청년대표 법인 비율	기업생명행정통계(국가데이터처, 2025, https://kosis.kr/)

* 출처: 각 지표별 출처 참조

이 영역에서 연령 문제가 존재하는데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는 주로 15-29세 연령으로 청년 결과가 제시되었고 청년 삶 실태조사는 19-34세 연령으로 결과가 제시되었다. 다만,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원자료를 활용하여 20-34세 결과를 제시하였다.

학교-일자리 이행 결과를 보면, 핵심 지표인 첫 취업 소요기간은 최근 늘어나고 3개월 미만 조기 취업 비율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반대로 추세가 나타났을 때 긍정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통상 15-29세를 대상으로 할 때와 30대 초반을 포함할 때 결과 수치가 많이 달라지는데 청년기본법에서 청년을 34세까지 포괄하고 있어 이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경제활동참여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청년고용률은 높아졌다가 소폭 낮아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청년 실업률은 낮아지는 것이 좋는데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24년 증가하였다. 첫 직장 근속기간은 19개월을 유지 중인데 이직 이유를 물어본 결과 임금이라는 응답이 크게 증가하였다. 반면, 고용안정성은 낮아져 고용안정 중시하는 고용패턴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III-15. 연도별 학교-일자리 이행 핵심지표 추이(2021-2024) (1)

지표 영역(안)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추세	
1.	첫 취업 소요기간(개월, 15-29세)	10	11	10	12	↗ ↘ ↗	
2.	조기 취업비율(% , 15-29세)	47.4	49.0	47.9	47.7	↗ ↘	
3.	청년 경제활동참여율(% , 15-29세)	49.0	51.5	50.5	50.3	↗ ↘	
4.	청년 고용률(% , 15-29세)	44.0	48.0	48.0	46.9	↗ ↘	
5.	청년 실업률(% , 15-29세)	9.0	7.0	6.0	6.7	↘ ↗	
6.	청년 구직단념자비율(% , 15-29세)	2.4	1.5	1.4	1.4	↘	
7.	쉬는 청년 비율(% , 15-29세)	4.8	4.5	4.8	5.2	↘ ↗	
8.	청년 니트(NEET) 비율(% , 15-29세)	20.3	18.5	18.1	18.4	↘ ↗	
9.	청년 소진 경험 비율(% , 19-34세)	-	33.9	-	32.2	↘	
10.	첫 직장 근속기간(% , 15-29세)	18	19	19	19	↗	
11. 현직 업무 자율성 정도 (% , 19-34세)	일하는 시간	회사(상사, 고객 등)가 결정, 변경 불가	-	-	-	55.2	-
		정해진 범위 안에서 선택 가능	-	-	-	26.4	-
		제한 사항만 지키면 대체로 내가 결정	-	-	-	9.6	-
		전적으로 내가 결정	-	-	-	8.8	-
	일하는 장소	회사(상사, 고객 등)가 결정, 변경 불가	-	-	-	65.9	-
		정해진 범위 안에서 선택 가능	-	-	-	19.8	-
		제한 사항만 지키면 대체로 내가 결정	-	-	-	6.5	-
		전적으로 내가 결정	-	-	-	7.7	-

* 출처: 표 III-14 참조

이는 청년층 부가조사에서 미취업자 중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경우가 크게 감소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 유사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복수 일자리에서 일하는 청년 비율은 2년 사이 크게 증가하였다.

표 III-16. 연도별 학교-일자리 이행 핵심지표 추이(2021-2024) (2)

지표 영역(안)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추세
12. 이직/ 구직 가장 큰 이유 (%, 19-34세)	임금	-	48.5	-	57.9	↗
	근로시간	-	7.2	-	7.6	↗
	고용안정성	-	12.8	-	9.9	↘
	승진가능성	-	0.5	-	1.1	↗
	휴일(주5일제)	-	3.3	-	3.3	-
	동료 또는 상사와의 관계	-	1.6	-	1.6	-
	회사전망	-	4.2	-	3.0	↘
	본인의 장기적 진로설계	-	8.4	-	5.4	↘
	스카우트 제의	-	0.2	-	0.2	-
	복지수준	-	4.0	-	2.7	↘
	대기업	-	2.1	-	2.5	↗
	공기업	-	2.1	-	1.9	↘
정규직	-	4.5	-	2.9	↘	
기타	-	0.6	-	0.1	↘	
13. 복수일자리(N잡러) 비율(% , 19-34세)		-	3.9	-	5.5	↗
14. 청년대표 법인 비율(%)	20대	3.4	3.3	3.2	-	↘
	30대	12.2	12.0	11.9	-	↘

* 출처: 표 III-14 참조

창업과 관련된 지표로 활동기업은 청년대표가 있는 기업이 전체 기업 중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20대와 30대 모두 감소하였다. 이는 저출생의 영향을 고려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자립과 관련된 핵심지표는 정서적인 자립과 관련하여 사회통합조사와 청년 삶 실태조사가 주로 활용되었고 주거와 관련하여 주거실태조사가 주로 활용되었다. 정서적인 자립과 관련하여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 정도는 감소추세에서 다행히 상승추세로 전환되었다. 이는 본인의 일에 대해서 가치있다고 생각하는 정도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원하는 것을 미래 실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비율이 낮아졌다.

표 III-17. 연도별 자립 핵심지표 출처

지표 영역(안)	출처
1. 자신의 삶 결정 정도	사회통합조사(국가데이터처, 2025, https://kosis.kr/)
2. 본인 일 가치 정도	사회통합조사(국가데이터처, 2025, https://kosis.kr/)
3. 미래 실현 가능성	청년 삶 실태조사(국가데이터처, 2025, https://kosis.kr/)
4. 미래 실현 요소	청년 삶 실태조사(국가데이터처, 2025, https://kosis.kr/)
5. 본인 세대 계층이동	사회통합조사(국가데이터처, 2025, https://kosis.kr/)
6. 부모 동거 비율	청년 삶 실태조사(국가데이터처, 2025, https://kosis.kr/)
7. 부모 독립 계획	청년 삶 실태조사(국가데이터처, 2025, https://kosis.kr/)
8. 독립하지 않는 이유	청년 삶 실태조사(국가데이터처, 2025, https://kosis.kr/)
9. 청년거주 주거점유형태	주거실태조사(국가데이터처, 2025, https://kosis.kr/)
10. 지옥고 거주 여부	주거실태조사(국가데이터처, 2025, https://kosis.kr/)
11. 주거비 과부담 비율	주거실태조사(국가데이터처, 2025, https://kosis.kr/)
12. 생애 최초 주거 마련	주거실태조사(국가데이터처, 2025, https://kosis.kr/)
13. 기초생활수급 여부	청년 삶 실태조사(국가데이터처, 2025, https://kosis.kr/)
14. 고립은둔청년 비율	청년 삶 실태조사(국가데이터처, 2025, https://kosis.kr/)
15. 가족돌봄 청년 비율	청년 삶 실태조사(국가데이터처, 2025, https://kosis.kr/)
16. 상대빈곤율	가계금융실태조사(국가데이터처, 2025, https://kosis.kr/)

* 출처: 각 지표별 출처 참조

원하는 것을 미래에 실현할 때 필요한 것으로 정책의 정책 지원만이 2년 전에 비해서 높아졌다. 본인의 지위 상승 이동 가능성에 대해서 응답결과가 낮아졌다가 높아지는 추세로 바뀌었다.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과 독립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모두 증가했다. 독립을 하지 않는 이유와 관련하여 경제적인 여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돌봐야 할 가족 때문이라는 응답은 상승하였다.

이어서 주거에 대해서 보면, 자가 비율은 감소했고 보증금이 있는 월세의 비율은 높아졌다. 주거비 과부담 비율은 높아졌고 최저생계비 미만 가구의 청년과 고립은둔 청년, 가족돌봄 청년 모두 증가하였다. 한편 상대빈곤율은 낮아지는 추세를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가족 형성에 대한 지표를 살펴보면, 인구동향조사와 사회조사, 그리고 청년 삶 실태조사 등이 주로 활용되었다. 인구 천 명당 혼인율인 조혼율은 증가 추세이고 초혼 연령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남편의 경우 2024년에 소폭 감소했다.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응답이 소폭 증가했고 결혼 문화에 대해 동거에 대한 동의도가 소폭 낮아졌고 부부보다 가족 간의 관계가 우선이라는 응답 역시 소폭 감소했다.

표 III-18. 연도별 자립 핵심지표 추이(2021-2024) (1)

지표 영역(안)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추세	
1. 자신의 삶 결정 정도(% , 19-39세, 11점 척도 중 6-10 자유롭다 합계 비율)	80.7	80.2	77.9	82.4	↘ ↗	
2. 본인 일 가치 정도(% , 19-39세, 11점 척도 중 6-10 가치있다 합계 비율)	73.3	72.7	68.3	76.4	↘ ↗	
3. 미래 실현 가능성(% , 19-34세)	전혀 실현할 수 없다	-	5.2	-	7.6	↗
	어느 정도는 실현할 수 있지만 완벽하게는 실현할 수 없다	-	87.6	-	86.7	↘
	완벽하게 실현할 수 있다	-	7.2	-	5.7	↘
4. 미래 실현 요소(% , 19-34세, 4점 척도 중 3과 4를 선택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 합계)	부모의 경제력	-	61.6	-	55.5	↘
	부모의 교육수준	-	70.1	-	66.3	↘
	나의 교육수준	-	76.4	-	72.2	↘
	나의 노력	-	78.7	-	75.7	↘
	좋은 사람들을 아는 것	-	76.0	-	75.5	↘
	정부의 정책지원	-	32.3	-	33.4	↗
5. 본인 지위 상승이동 가능성(% , 19-29세, 상승가능성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 응답비율)	59.7	57.5	59.4	64.1	↘ ↗	
6. 부모 동거 비율(% , 19-34세)	-	57.5	-	54.4	↘	
7. 부모 독립 계획(% , 19-34세)	-	32.3	-	38.0	↗	
8. 독립하지 않는 이유(% , 19-34세)	직장, 학교, 학원이 통학통근하기에 가까워서	-	21.0	-	14.1	↘
	독립할 경제적 여건을 갖추지 못해서	-	56.6	-	60.5	↗
	생계, 가사 등을 도와야 하거나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이 있어서	-	1.2	-	1.9	↗
	자녀 양육을 하는 데에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싶어서	-	0.4	-	0.3	↘
	기타	-	0.8	-	0.2	↘
	특별한 이유 없음	-	20.0	-	22.9	↗
9. 청년거주 주거점유형태(% , 19-34세)	자가	46.8	46.5	45.8	-	↘
	전세	19.9	20.5	19.5	-	↗ ↘
	보증부 월세	27.9	27.3	28.9	-	↘ ↗
	보증금 없는 월세	2.3	2.8	2.7	-	↗ ↘
	무상	3.1	2.8	3.1	-	↘ ↗

* 출처: 표 III-17 참조

표 III-19. 연도별 자립 핵심지표 추이(2021-2024) (2)

지표 영역(안)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추세
10.	지옥고 거주 여부(% , 19-34세)	1.1	0.9	1.0	-	↘
11.	주거비 과부담 비율(% , 19-34세)	24.0	25.5	27.5	-	↗
12.	생애 최초 주거 마련 (19-34세)	7.7	7.4	7.5	-	↘ ↗
	소요기간(개월)					
	연령(세)	37.5	37.1	37.2	-	↘ ↗
13.	기초생활수급 여부(% , 19-34세)	-	0.9	-	1.6	↗
14.	보통은 집에 있지만, 자신의 취미생활만을 위해 외출한다	-	1.4	-	2.5	↗
	보통은 집에 있지만, 인근 편의점 등에 외출한다	-	1.3	-	3.1	↗
	자기 방에서 나오지만 집 밖으로는 나가지 않는다	-	0.1	-	0.5	↗
	자기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다	-	0.0	-	0.4	↗
15.	가족돌봄 청년 비율(% , 19-34세)	-	0.6	-	1.5	↗
16.	가처분 소득	10.6	9.9	9.5	-	↘
	청년 상대 빈곤율 (% , 19-34세)	시장소득	8.2	8.0	7.6	-

* 출처: 표 III-17 참조

향후 결혼 의사가 있다는 응답은 소폭 감소하였으며, 결혼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결혼자금 비용이 2년 전보다 높아졌고 결혼생활과 일을 동시에 잘하기 어려워서라는 응답도 증가하였다. 향후 결혼 의사가 있다는 응답은 소폭 증가했다. 출산과 관련하여 합계출산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지다가 반등에 성공했는데 향후 지속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청년 삶 실태조사에서 자녀 출산 의향의 경우 낮아졌기 때문이다. 이상적인 자녀수는 1.6명이었다.

표 III-20. 연도별 가족 형성 핵심지표 출처

지표 영역(안)	출처
1. 조혼율	인구동향조사(국가데이터처, 2025, https://kosis.kr/)
2. 초혼 연령	인구동향조사(국가데이터처, 2025, https://kosis.kr/)
3. 결혼에 대한 견해	사회조사(국가데이터처, 2025, https://kosis.kr/)
4. 결혼 문화에 대한 태도	사회조사(국가데이터처, 2025, https://kosis.kr/)
5. 향후 결혼 계획	청년 삶 실태조사(국가데이터처, 2025, https://kosis.kr/)
6. 1인가구 비율	인구동향조사(국가데이터처, 2025, https://kosis.kr/)
7. 출산연령(세)	인구동향조사(국가데이터처, 2025, https://kosis.kr/)
8. 합계출산율	인구동향조사(국가데이터처, 2025, https://kosis.kr/)
9. 향후 자녀 출산의향	청년 삶 실태조사(국가데이터처, 2025, https://kosis.kr/)
10. 이상적인 자녀수	청년 삶 실태조사(국가데이터처, 2025, https://kosis.kr/)
11. 결혼하지 않는 이유	사회조사(국가데이터처, 2025, https://kosis.kr/)
12. 이혼에 대한 견해	사회조사(국가데이터처, 2025, https://kosis.kr/)
13. 입양에 대한 견해	사회조사(국가데이터처, 2025, https://kosis.kr/)

* 출처: 각 지표별 출처 참조

1인가구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미혼이나 비혼 경향과 더불어 수도권 청년 유입인구 증가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출산연령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증가폭은 0.1%p로 크지 않았다.

합계출산율은 지난 수십 년간 감소했는데 2024년 처음으로 0.75명으로 2023년보다 증가하였다. 합계출산율 증가는 코로나19의 종식으로 인해 미루어두었던 결혼이 증가한 이후 출생으로 이어진 결과로 보인다.

동시에 다문화 가정의 증가한 것도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최근 비혼 출산의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출산과 동시에 늦게 혼인신고를 하는 경향과 부동산 관련 이유로 혼인신고를 늦추는 경향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표 III-21. 연도별 가족 형성 지표 추이(2021-2024) (1)

지표 영역(안)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추세	
1. 조혼율(명, 천명당)		3.8	3.7	3.8	4.4	↘↗	
2. 초혼 연령(세)	남편	33.4	33.7	34.0	33.9	↗↘	
	아내	31.1	31.3	31.5	31.6	↗	
3. 결혼에 대한 견해 (% 20-29세)	반드시 해야 한다	-	7.5	-	8.5	↗	
	하는 것이 좋다	-	27.6	-	31.2	↗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	53.5	-	50.4	↘	
	하지 않는 것이 좋다	-	5.1	-	3.5	↘	
	하지 말아야 한다	-	1.3	-	1.3	-	
	잘 모르겠다	-	5.1	-	5.0	↘	
4. 결혼 문화에 대한 태도 (% 20-29세)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	전적으로 동의	-	31.1	-	30.2	↘
		약간 동의	-	50.6	-	50.8	↗
		약간 반대	-	13.3	-	13.8	↗
	결혼생활은 부부보다 가족 간의 관계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전적으로 반대	-	5.1	-	5.1	-
		전적으로 동의	-	9.4	-	7.7	↘
		약간 동의	-	31.9	-	32.1	↗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	약간 반대	-	43.5	-	44.9	↗
		전적으로 반대	-	15.3	-	15.3	-
		전적으로 동의	-	37.7	-	37.6	↘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	외국인과 결혼할 수 있다	-	45.0	-	46.2	↗
		약간 동의	-	12.4	-	11.7	↘
		약간 반대	-	4.9	-	4.5	↘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	전적으로 동의	-	12.8	-	14.2	↗	
	약간 동의	-	26.2	-	28.6	↗	
	약간 반대	-	36.2	-	35.0	↘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	전적으로 반대	-	24.9	-	22.2	↘	
	전적으로 동의	-	9.4	-	11.1	↗	
	약간 동의	-	34.6	-	40.2	↗	
5. 향후 결혼 계획 (% 19-34세)	있다	-	75.0	-	63.1	↘	
	없다	-	25.0	-	36.9	↗	
	전적으로 반대	-	22.3	-	16.7	↘	
6. 1인가구 비율(% 19-34세)		64.4	65.9	67.4	-	↗	
7. 출산연령(세)		33.4	33.5	33.6	-	↗	
8. 합계출산율(명)		0.81	0.78	0.72	0.75	↘↗	

* 출처: 표 III-20 참조

표 III-22. 연도별 가족 형성 지표 추이(2021-2024) (2)

지표 영역(안)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추세
9. 향후 자녀 출산의향(% 19-34세)	있다	-	63.3	-	59.3	↘
	없다	-	36.7	-	40.7	↗
10. 이상적인 자녀수 (명, 20-29세, 평균)		-	-	-	1.6	-
11. 결혼하지 않는 이유 (% 20-29세)	결혼자금(혼수 비용, 주거 마련 등)이 부족해서	-	32.7	-	35.4	↗
	직업이 없거나 고용상태가 불안정해서	-	10.6	-	10.6	-
	결혼 생활과 일을 동시에 잘하기 어려워서	-	6.9	-	9.0	↗
	출산과 양육이 부담되어서	-	11.1	-	13.0	↗
	결혼하고 싶은 상대를 만나지 못해서	-	8.1	-	7.6	↘
	결혼할 시기를 놓쳐서	-	0.6	-	0.9	↗
	행동과 삶의 자유를 포기할 수 없어서	-	9.4	-	7.8	↘
	배우자 가족과의 관계가 부담되어서	-	0.9	-	0.4	↘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	19.3	-	14.6	↘
	기타	-	0.4	-	0.7	↗
12. 이혼에 대한 견해 (% 20-29세)	어떤 이유라도 이혼해서는 안된다	-	2.8	-	1.8	↘
	이유가 있더라도 가끔씩 이혼해서는 안된다	-	10.7	-	11.2	↗
	경우에 따라 이혼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	54.3	-	53.0	↘
	이유가 있으면 이혼을 하는 것이 좋다	-	25.3	-	27.5	↗
	잘 모르겠다	-	6.9	-	6.4	↘
13. 입양에 대한 견해(% 20-29세)		-	-	-	3.5	-

* 출처: 표 III-20 참조

지금까지 청년의 성인기 이행 지표(안)에 대한 4년 동안의 추세를 국가데이터처 승인통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다음 절에서는 성인기 이행 지표에 대한 연구 결과에 대한 요약 및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4. 연구 결과 요약 및 시사점

이 연구에서는 선행 청년 지표체계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청년 성인이 이행지표 체계(안)를 마련하였다. 청년 성인지 이행지표 체계(안)은 ① 학습과 진학, ② 학교-일자리 이행, ③ 자립, ④ 가족 형성 등 4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이 연구에서는 학습과 진학을 “정규 교육기관 혹은 비형식기관에서 학습하거나, 혼자서 지식, 기술 등을 습득하는 과정(무형식)”으로 정의했다. 학교-일자리 이행에 대해서 “정규 교육기관에서 졸업(중퇴 포함) 전이나 후에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과정”으로 정의했다. 자립은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꾸려나갈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상태 또는 능력을 갖추어 나가는 과정”으로 정의되었다. 마지막으로 가족 형성은 “개인이 다른 사람과 결혼, 동거를 하거나 출산이나 입양을 통해 자녀를 두는 등 새로운 가족관계를 만드는 과정”으로 정의되었다.

각 영역별 세부지표들을 살펴보면, 학습과 진학은 직업계고 대학 진학률, 직업계고 취업률, 일반고 취업자 비율, 수능 졸업생 응시율, 대학 미진학 이유, 대학 진학률, 대학생 학업중단률, 대학생 휴학률, 대학 졸업 소요기간, 학자금 대출비율, 취업목적 사교육 경험, 대학 취업률, 직장체험 비율, 학생 교육기대 수준 등이 포함되었다.

학교-일자리 이행은 세부지표로 첫 취업소요기간, 초기 취업비율, 청년 경제활동참여율, 청년 고용률, 청년 실업률, 청년 구직단념자비율, 쉬는 청년 비율, 청년 니트(NEET) 비율, 청년 소진 경험 비율, 첫 직장 근속기간, 현직 업무자율성 정도, 이직/구직 가장 큰 이유, 복수일자리(N잡러) 비율, 청년대표 법인 비율 등이 포함되었다. 청년 창업 관련 지표가 상대적으로 부족한데 이에 대한 보완은 차년도 연구에서 진행하고자 한다.

자립에 대한 세부지표로는 자신의 삶 결정 정도, 본인 일 가치 정도, 미래 실현 가능성, 미래 실현 요소, 본인 세대 계층이동, 부모 동거 비율, 부모 독립 계획, 독립하지 않는 이유, 청년거주 주거점유형태, 지옥고 거주 여부, 주거비 과부담 비율, 생애 최초 주거 마련, 기초생활수급 여부, 고립은둔청년 비율, 가족돌봄 청년 비율, 상대빈곤율 등이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가족 형성의 세부지표로는 조혼율, 초혼 연령, 결혼에 대한 견해, 결혼 문화에 대한 태도, 향후 결혼 계획, 1인가구 비율, 출산연령(세), 합계출산율, 향후 자녀 출산의향, 이상적인 자녀수, 결혼하지 않는 이유, 이혼에 대한 견해, 입양에 대한 견해 등이 포함되었다.

성인기 이행 지표별로 결과를 학습과 진학, 학교-일자리 이행을 중심으로 요약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3개년도에 이르는 장기 연구로 올해 학습과 진학, 학교-일자리 이행에 대한 분석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자립과 가족형성에 대한 분석을 시도할 예정이다. 마지막 해에는 종합적으로 청년의 성인기 이행에 대한 청년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

먼저 학습과 진학의 경우 대학 진학률은 매우 높은 대신 고졸 취업이나 대학원 진학을 선택하는 비율은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를 보여준다. 다만, 교육기대 결과를 보면, 향후 고등학교 졸업이나 대학원 진학을 희망하는 경우가 소폭 증가해 이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성인 이행기에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두 번째로 대학을 가기 위해 재수생활을 하거나 대학에 진학한 후 휴학이나 졸업유예를 선택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 성인기 이행 지연은 학교에서 일자리로의 이행 과정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이행 단계에서도 나타나 최소 1년이 넘는 기간이 지연되고 있다. 사회 진출을 서둘러서 하는 것이 항상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사회 진출 시기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국가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중요해 보인다.

학교-일자리 이행과 관련하여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에 이르는 기간이 갈수록 길어지고 있다. 졸업이나 중퇴 후 첫 취업 소요기간은 2021년 10개월에서 2024년 12개월로 늘어났고 3개월 미만 조기 취업비율 역시 2022년 49.0%까지 상승했으나 2024년 47.7%로 낮아졌다. 학교-일자리를 재학단계에서부터 연결해 조기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절실해 보인다.

경제활동참여율, 고용률, 실업률과 같은 전통적인 고용지표는 2023년까지 좋아졌으나 2024년들어 다시 나빠지는 추세로 돌아섰다. 청년 고용률은 2023년 48.0%에서 2024년 46.9%로 낮아졌고 청년 실업률은 같은 기간 6.0%에서 6.7%로 상승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쉬는 청년 비율을 보면, 2022년 4.5%였으나 2024년 5.2%로 크게 증가하였다. 2025년 들어서 증가세가 계속되어 2025년 2월 전체 청년 중 6.3%로 50만 명을 넘어섰다.

학교-일자리 이행 지표가 이처럼 좋지 않은 이유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따른 일자리 쏠림과 장기 대기열 현상을 비롯하여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서 신규나 정식 채용 대신 졸업예정자나 졸업생에게 불리한 경력이나 수시 해용을 확대해 왔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공공기관과 중소기업 간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처방과 함께 단기적으로 조기 개입을 통해 고등학교와 대학 재학 단계에서 취업을 연계하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 ————— 제4장 청년의 성인기 이행
종단분석: KCYPS2010 중1패널
추적조사

- 1. KCYPS 2010 중1패널 추적조사 개요
- 2. 조사 항목 및 방법
- 3. 조사 추진 과정 및 응답자 특성
- 4. 주요 결과

1. KCYP2010 중1패널 추적조사 개요⁵⁾

최근에는 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적 대응의 중요성 역시 부각되고 있다. 이에 효과적인 청년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 과정을 실증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장기적·체계적 조사에 대한 기반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그러나, 그동안의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된 패널조사는 아동·청소년기부터 청소년 후기(청년 초기)까지 조사가 이루어지거나, 청소년 후기부터 조사대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왔다. 이에 청소년기부터 성인기 이행까지의 종단적 변화 양상을 파악하기 어렵고, 생애주기를 고려한 연속적 정책제언보다는 분절적 정책 수립으로 이어지는 한계를 가져왔다. 따라서, 성인 이행기에 있는 우리나라 청년들을 위해 설계된 체계적인 종단 데이터 구축이 필요한 상태이다.

한편,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는 아동 및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 양상을 개인적·환경적 요인과 함께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된 패널조사로, 정책개발 및 학문적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는 청년 이행기 변화를 지속적으로 살펴볼 가능성을 타진하고자, 접촉 유지를 주된 목적으로 ‘KCYP2010’(2010~2016년)으로 설계된 패널조사에서 중학교 1학년 코호트 유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중1 코호트의 조사 종료 시점인 2016년 당시 연령은 20세(대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나이)로, 청년기에 진입하는 시기로 KCYP2010 중1 코호트를 대상으로 유지조사를 2017년 이후 매년 진행했으며, 패널 유지를 위한 유지조사

4) 본 장은 김윤희 부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5) 2024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사업보고서(하형석, 김기현, 최인재, 한지형, 2024, pp.1, pp.137-138)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정·보완하였음.

는 2025년 제9차 유지조사를 끝으로 종료되었다.

KCYPS 2010의 중1 코호트는 2025년 현재 평균 27 - 28세에 해당하는 연령으로, 2024년까지는 접촉 유지 목적에 따라 간단한 수준의 설문조사가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이미 제시한 것과 같이, 우리나라 청년들의 건강한 성인기 이행을 돕기 위한 데이터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2025년부터는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여 성인기 이행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주요한 문항들을 추가 구성하여 “추적조사”를 실시하였다. KCYPS 2010 중1패널 추적조사는 2025년부터 총 3년간 매년 진행될 예정이며, 성인기 이행에 양상을 종합적으로 파악함에 따라 청년의 성인기 이행에 대한 기초 데이터를 구축하는데 목적을 갖는다.

표 IV-1. KCYPS 2010 중1 코호트 본조사 및 유지조사의 표본 유지율

구분	중1 코호트
제1차조사 (2010)	원패널 수 2,351
제2차조사 (2011)	조사성공 패널 수(패널 유지율) 2,280 (97.0%)
제3차조사 (2012)	조사성공 패널 수(패널 유지율) 2,259 (96.1%)
제4차조사 (2013)	조사성공 패널 수(패널 유지율) 2,108 (89.7%)
제5차조사 (2014)	조사성공 패널 수(패널 유지율) 2,091 (88.9%)
제6차조사 (2015)	조사성공 패널 수(패널 유지율) 2,056 (87.5%)
제7차조사 (2016)	조사성공 패널 수(패널 유지율) 1,881 (80.0%)
유지 1차 (2017)	유지 패널 수(패널 유지율) 1,623 (69.0%)
유지 2차 (2018)	유지 패널 수(패널 유지율) 1,833 (78.0%)
유지 3차 (2019)	유지 패널 수(패널 유지율) 1,591 (67.7%)
유지 4차 (2020)	유지 패널 수(패널 유지율) 1,619 (68.9%)
유지 5차 (2021)	유지 패널 수(패널 유지율) 1,622 (69.0%)
유지 6차 (2022)	유지 패널 수(패널 유지율) 1,656 (70.4%)
유지 7차 (2023)	유지 패널 수(패널 유지율) 1,416 (60.2%)
유지 8차 (2024)	유지 패널 수(패널 유지율) 1,109 (47.2%)
유지 9차 (2025)	유지 패널 수(패널 유지율) 1,139 (48.4%)

본 조사는 성인 이행기 청년들의 개인 및 사회적 속성과 관련 요인 간의 상호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물론 아동·청소년기에 조사한 동일한 문항을 일부 반복 조사 진행함에 따라 시간에 따른 인과관계 분석 및 설명할 수 있다. 이는 아동·청소년기의 성장과 발달에 있어서 정책 추진이 성인기 이행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동시에 파악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진다.

이에 더해 추적조사에서는 유지조사를 통해 청년기 동안 누적 되어온 과거 경험에 대한 문항을 포함하고 있어, 청년들의 성인기 이행에 대한 변화 양상 및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본 추적조사를 통한 데이터 구축은 추후 정책을 수립하고 학술적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CYPS 2010 중1패널의 2024년까지 유지조사에 응답한 중1패널 응답자들은 1,109명이 응답한 상태이다. 2025년 추적조사의 모집단은 28세 내외로, 유지조사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 이외에 2010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중1 패널에 참여하였던 응답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중 전체 코호트 중 연락이 가능한 응답자(유지조사 참여 가능자) 중 추적조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본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추적조사 조사 응답 현황은 4장 3절에 작성하였다.

2. 조사 항목 및 방법

청년의 삶은 개인의 특성 뿐만 아니라 가족, 또래집단, 교육 및 노동 환경, 지역사회, 사회·문화적 구조 등 다양한 수준의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된다. 이에 따라 KCYPS 2010 중1 코호트 추적조사는 청년 삶의 복합적인 요인들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분석 틀로 생태학적 관점과 생애과정 관점을 적용하였다.

생태학적 관점(Bronfenbrenner, 1979)은 개인을 둘러싼 환경을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 시간체계로 구분함으로써, 청년의 삶을 다층적이고 맥락적으로 조망할 수 있게 한다. 생애과정 관점은 개인의 삶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전개되며 전환점(transition)과 궤적(trajecory)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관점이다. 생애과정 관점에서 청년기는 특정한 생애주기로 이 시기에서 겪는 다양한 경험을 시간적 맥락에서 분석한다.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삶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 소득, 주거 등 사회적 결정요인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였다. 이러한 조사 항목을 바탕으로 다양한

삶의 조건이 청년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총체적인 맥락에서 포괄적으로 청년의 삶을 이해하고자 한다.

조사 항목 및 문항 구성 시 1) KCYPS 2010 중1패널 자료와 연속성을 고려하고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문항을 일부 활용하였으며, 2) 연령과 성장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표준화된 척도를 추가 3) 신규 문항을 개발하였다. 또한,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타 패널 연구의 결과와도 추이를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주요한 성인 이행기 해당 문항을 활용 및 수정·보완하였다. 조사 항목의 출처는 본 보고서의 부록에 제시하였다.

1) 조사 영역 및 항목

(1) 조사 영역

KCYPS 2010 중1패널 추적조사의 조사 영역은 청년지표 중에서 청년의 성인기 이행을 다룬 지표체계를 별도로 구축하고자 하는 목적을 기반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추적조사 항목은 일반 사항 영역(거주지, 출생지, 병역사항 등) 이외에 크게 ① 학습과 진학, ② 학교-일자리 이행, ③ 자립과 주거, ④ 삶의 질과 참여 등 4가지로 구분하였다.

학습과 진학은 대학교 및 대학원과 관련된 문항(소재지, 유형, 성적 만족도, 진학 동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교-일자리 이행에 관한 문항의 내용은 성인으로서의 첫 출발 상징, 일을 시작하는 연령에 대한 의견, 가장 선호하는 일자리 유형, 취업 경험 여부, 향후 직업 훈련/ 일 경험 받을 계획 여부 등을 포함한다. 다음으로 자립과 주거영역에서는 미래희망 거주지, 부모 동거 여부, 현재 주거 형태, 가족으로부터의 경제적 지원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삶의 질과 참여 영역은 현재 삶의 질, 건강 상태, 은둔 상태, 필요한 지원 정책 등을 포함하였다. 이 조사의 세부 문항들은 부록에 제시되어 있다.

(2) 조사 항목 구성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는 성인기 이행에 있는 청년(27~28세)을 대상으로 「학습과 진학」, 「학교-일자리 이행」, 「자립과 주거」, 「삶의 질과 참여」, 「일반 사항」에 관해 조사함에 따라 성인기 이행 현황 및 실태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추적조사에 사용된 조사 문항은 크게 “1) 기존 패널 및 실태 조사의 지표의 일부를 수정·보완, 2) 성인기 이행 경로를

살펴보는 데 필요한 문항 및 척도 선행연구에서 도출, 3) 자체작성” 세 가지 방법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 활용한 기존 연구의 조사문항의 출처는 KCYPS 2010 중1패널 유지조사, KEEP(교육고용패널조사), 한국교육총단연구 2023,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KCYPS 2010 중1패널 유지조사, KLIPS(한국노동패널조사), 청년용 부가조사, KCYPS 2018 중1패널이다. 기존 조사문항은 선행연구를 통해 문항의 신뢰도가 검증되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조사 결과 분석 및 정책제언 도출에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는 문항을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목적에 맞는 문항을 연구진이 1차적으로 검토 및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문항을 토대로 전문가 3인의 2차 검토를 통해 문항을 확정하였다. 이처럼 기존 문항의 활용하는 것은 타 조사 분석결과와 비교분석이 가능하며, 본 연구에서 추가로 구성한 문항들을 통해 기존 연구에서 발견하지 못한 결과를 도출함에 따라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본 연구의 활용성을 높이고자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해외척도를 활용하여 조사 문항을 추가하였다. 「학교-일자리 이행」의 “일 자유의지”와 “진로 적응성”, 그리고 「삶의 질과 참여」의 “현재 삶의 질”, “주관적 정신건강상태”, “물질적 결핍”, “대비되는 가치관 선호 정도”, “자아존중감”, “우울”에 해당한다(표 IV-2).

각 영역의 구성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일 자유의지”는 Duffy 등(2012)이 개발한 일 자유의지 척도(Work Volition Scale: 이하 WVS)를 김민선(2020)이 번역해서 타당성을 검증한 한국판 일 자유의지 척도를 사용하였다. 원척도에서는 총 14문항을 포함하고 있으나, 타당화 연구를 통한 한국판 일 자유의지 척도는 자유의지(4문항), 구조적 제약(4문항), 경제적 제약(3문항) 총 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유의지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문항의 예시로는 “나는 내가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 “나는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직업을 바꿀 수 있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7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며(1 = 전혀 그렇지 않다. 7 = 매우 그렇다), 점수가 높을수록 일 자유의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진로 적응성” 문항은 최옥현, 김봉환(2006)이 Rottinghaus, Day와 Borgen(2005)의 진로미래검사(Career Futures Inventory: CFI)를 타당화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진로적응성 검사는 진로적응성은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는 새로운 직업 환경에 잘 적응할 것이다”, “나는 내 진로에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장벽들을 극복할 수 있다” 등 미래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긍정적인 방향에서 고려하며 예상하지

못한 돌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를 고려해 진로계획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한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며(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 적응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현재 삶의 질” 문항은 International Wellbeing Group(2013)이 전 세계적으로 삶의 질과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을 측정하고 비교하기 위해 개발한 Personal Wellbeing Index (PWI)로, 어제 응답자가 행복, 걱정, 우울에 대해 어느 정도로 생각하는지, 요즘 삶에 얼마나 만족하고,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생각하는 구성되어 있으며, 본 지표는 OECD 주관적 행복지수로도 사용되고 있다.

“주관적 정신상태”는 European Union (2016) 자료에서 사용된 주관적 정신건강 상태(Subjective Mental Well-being) 설문지에 포함된 것으로, 이는 영국에서 개발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Warwick-Edinburgh Mental Well-being Scale (WEMWBS)의 축약 버전인 다섯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문항은 European Union (2016)의 유럽 연합 공식 사회통계 조사인 EU-SILC (European Union 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에서 사용된 문항으로, 개인의 정신적 웰빙(mental well-being), 특히 긍정적 정서(positive affect) 및 심리적 기능(psychological functioning)을 측정한다. 문항의 예시로는 지난 2주간 일상생활을 보내면서, “밝고 즐거운 기분, 차분하고 편안함, 활동적이고 활동적임을 얼마나 느끼는지” 등에 대해 질문하며, 각 문항은 6점(0-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한다(0 =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5 = 항상 그렇다).

“물질적 결핍” 또한, European Union (2016)의 척도를 활용하였으며, 이는 빈곤 및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유럽 연합 공식 사회조사 통계에 해당한다. 본 연구에서는 물질적 결핍(Material Deprivation) 문항을 사용하여, 경제적 제약 때문에 주거, 난방, 식사, 휴가, 가전/통신 기기 등의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일반적인 생활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상태를 측정한다. 이는 단순한 소득 수준보다 삶의 실제 조건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생활비 관련 결핍을 측정하는 문항의 예로는 “돈이 없어서 임대료, 대출금, 관리비 등 주거관련 비용을 지불하지 못했다.”, “돈이 없어서 집의 냉/난방을 유지하지 못했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적인 결핍과 관련된 문항으로는 “TV를 가지고 있지 않다.”, “냉장고를 가지고 있지 않다.” 등이 있다. 본 문항은 “예, 아니오”로 평정하도록 되어있으며, 총 9개 문항 중 4개 이상 해당 시 “심각한 결핍”수준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대비되는 가치관 선호정도는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s Survey: WVS)를 활용하여 측정한다. 본 지표는 대비되는 항목(일-여가, 현실-이상, 결과-과정, 개인-집단, 타인의 이목-자신의 주관)의 선호정도를 선택하도록 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문항을 포함하여, 현재 삶의 질, 주관적 정신건강상태, 물질적 결핍은 청년사회·경제실태 조사에서도 사용된 바 있다.

자아존중감(self-esteem)을 측정하기 위해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저작권없이 세계 모든 연구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다른 국가에서도 널리 사용되는 척도이다. 이에 국가 간 비교가 용이하다는 특징을 가지며, KCYPS 2010 중1패널, KCYPS 2018 중1패널에서도 사용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의 추적조사에 자아존중감 문항을 포함시킴에 따라 대상자들의 시간변화에 따른 자아존중감 수준 차이 및 세대 간 비교가 가능하다는 강점이 있다. 본 척도는 긍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과 부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 등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정적 자아존중감 문항인 2번, 5번, 6번, 8번, 9번은 역채점된다. 각 문항의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8번 문항(나는 나를 좀 더 존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의 경우, Rosenberg의 자아존중감 척도의 문항수준 타당도분석 연구에서 본 문항이 자아존중감의 전체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문항인 것으로 판명됨에 따라, 사용시 주의해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이자영 외, 2009).

표 IV-2. 해외척도 활용 조사 항목

영역	항목	지표	비고
학교-일자리 이행	일 자유의지	개인이 직업 선택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할 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인식 정도, 자신의 직업을 외부 제약 없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느끼는지를 평가하는 척도	자유의지(4문항) 사용
	진로 적응성	미래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긍정적인 방향에서 고려하며 예상하지 못한 돌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를 고려해 진로계획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
삶의 질과 참여	현재 삶의 질	삶의 질과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을 측정하고 비교하기 위해 개발한 개인적 웰빙 지표(Personal Wellbeing Index)	-
	주관적 정신건강상태	개인의 정신적 웰빙(mental well-being), 특히 긍정적 정서 및 심리적 기능을 측정	-
	물질적 결핍	경제적 제약 때문에 주거, 난방, 식사, 휴가, 가전/통신 기기 등 사회적으로 일반적인 생활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상태를 측정	4가지 이상 결핍한 경우, 심각한 결핍상태에 해당
	대비되는 가치관 선호 정도	세계가치조사를 활용하여 대비되는 가치관 중 더 선호하는 정도 측정	일-여가, 현실-이상, 결과-과정, 개인-집단, 타인의 이목-자신의 주관
	자아존중감	자신에 대한 주관적 평가, 자아존중감(자신감, 자기가치,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 등) 수준 측정	긍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 *부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 (2번, 5번, 6번, 8번, 9번) *역채점 8번 문항 사용시 주의
	우울	우울 정도 측정	최근 일주일 간 며칠이나 문항에 해당하는 우울감을 느꼈는지 응답

* 출처: 김민선(2020), 최옥현, 김봉환(2006), International Wellbeing Group(2013), European Union (2016), 이자영 외(2009).

본 연구에서 우울에 대한 측정도구는 한국복지패널에서 사용한 Radloff(1977)의 CESD-11(Center for Epideminological Studied Depression Scale)를 활용하였다. CESD-11는 전체적으로 11개의 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지난 일주일 간을 기준으로 얼마

나 우울감을 느끼는지를 0점에서 3점까지 응답하도록 하고 있다. 문항 중에서 반대 문항이 2번과 7번 문항에 포함되어 있다. 이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심함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살펴본 한국판 해외 지표들은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문항으로, 국가 간 수준 비교가 가능하며, 정책적 제안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2) 조사방법⁶⁾

기존의 KCYPS 2010 중1패널 조사는 인쇄된 설문지로 면접을 통해 조사(PAPI, Pap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로 이루어졌고 유지조사는 온라인 방식으로 조사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PC나 휴대폰을 통해 응답할 수 있는 조사(CAWI: Computer Assisted Web Interview)로 이루어졌다. KCYPS 2010 중1패널 추적조사에서도 조사방법은 유지조사와 동일하게 조사 참여에 동의했던 응답자를 대상으로 CAWI 시스템 방식을 사용하였다.



그림 IV-1. 온라인 조사 시스템

CAWI 시스템은 응답자가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 설문지에 직접 응답하는 조사 방법으로 조사원이 개입하지 않고,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응답자가 자율적으로 설문에 참여하는 자기기입식(self-administered) 조사 방식이다. CAWI 프로그램 내에는 설문

6) 2024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사업보고서(하형석 외, 2024, pp.140)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정·보완하였음.

문항을 온라인(PC/모바일) 상으로 구현하는 Web 질문지 프로그램과 실사 진행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Web 모니터링 프로그램이 함께 구축되어 있다.

이러한 CAWI 방식은 시간·장소 제약 없고, 익명을 보장할 수 있어 청년들이 선호하는 방법으로, 높은 응답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선택하게 되었다. 또한, 응답에 따른 로직 설계가 가능한 웹 설문 프로그래밍 작업으로 응답의 품질을 높일 수 있으며, 데이터 입력 및 코딩 오류 확률은 낮출 수 있어 본 조사의 정확성과 효율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3. 조사 추진 과정 및 응답자 특성

1) 조사 추진 과정

(1) 준비 단계

사전 준비 단계로 KCYPS 2010 유지조사의 조사표를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청년 성인기 이행 추적조사」의 초안을 개발하였다. 조사표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사전조사를 실시하였으며(면접조사 30명), 그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조사표를 확정하였다. 연구진 및 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최종 조사표를 확정하고, 연구윤리심의(IRB)를 완료하였다.

다음으로 실사 준비를 위해, 조사 수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조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표본 관리 및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확정된 조사표를 온라인조사 시스템에 적용하였으며, 조사 담당자 검토 및 원활한 진행을 위한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KCYPS 2010 표본 리스트를 정리하였으며, 전화 및 현장 컨택을 담당할 조사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2) 실사 진행 및 데이터 처리

본조사는 온라인으로 실시되었으며, KCYPS 2010 중1패널에 참여하였던 응답자를 대상으로 추적조사는 2025년 7월부터 9월까지 진행되었다. 실시기간 동안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전체 표본 대상에 대한 사전 전화 컨택 및 참여 독려를 실시하였다. 최종적으로 수집된 자료는 정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데이터 클리닝과 검증 절차를 거쳤으며, 전화 검증을 실시하여, 필요시 재조사를 수행하였다. 또한, 문항 간 논리적 일관성을 검토하고, 수치 응답의 이상치를 점검하였다.

(3) 실사 결과 요약

KCYPs 2010의 중1 코호트는 2024년까지 '접촉 유지'를 목적으로 수행된 유지조사에 총 1,109명(남 536명, 48.3%; 여 573명, 51.7%)이 응답하여, 원패널 대비 응답률은 47.1%였다.

본 연구에서는 유지조사 응답자뿐 아니라, 「2010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중1 코호트 전체 2,351명(남 1,176명, 50.0%; 여 1,175명, 50.0%)을 대상으로 연락을 시도하여 참여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다. 전체 2,351명 중 494명은 '당사자가 아니라고 응답한 경우(번호 변경 등 포함)', '결번', '연락처 정보 부재' 등으로 인해 패널 정보 확인이 불가능하였다. 유지조사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연락이 가능했던 대상자는 총 1,857명(남 958명, 51.6%; 여 899명, 48.4%)이었으며, 이 중 718명(남 369명, 51.4%; 여 349명, 48.6%)은 조사 거절, 응답 미완료, 비수신 등으로 최종 응답자 명단에서 제외되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1차 조사에는 총 1,139명(남 589명, 51.7%; 여 550명, 48.3%)이 응답하였으며, 이는 추적 조사 응답 대상자 1,857명 중 61.3%에 달한다.

청년 성인기 이행 1차 추적조사	빈도	조사 대상자 대비 비율(%)	중1 패널 전체 대비 비율(%)
(중1패널) 전체 코호트	2,351		100.00
조사 불가	494		21.01
당사자 아님(번호 변경 등)	251		10.68
번호 오류(결번 등)	74		3.15
추적불가(유효 연락처 없음)	169		7.19
추적 조사 응답 대상자	1,857	100.00	78.99
조사 성공	1,139	61.34	48.45
조사 미참여	718	38.66	30.54
거절	205	11.04	8.72
조사 미완료	170	9.15	7.23
비수신 등 확인불가	343	18.47	14.59

그림 IV-2. 추적 조사 1차 응답 대상자 및 제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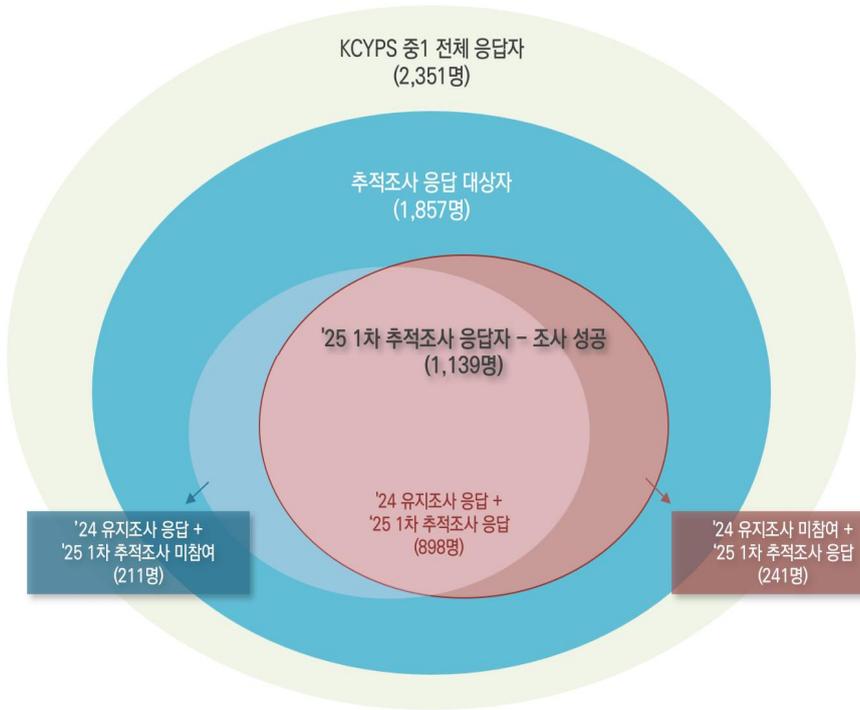


그림 IV-3. 추적 조사 1차 조사 응답 현황

(4) 심층면접 진행

청년 성인기 이행 추적조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 대상자를 선별하여, 추적조사를 통해 수집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각 대상자는 성별 및 2개 권역(수도권, 비수도권), 교육수준(고졸, 대졸, 대학원)별로 세분화하여 조사 대상 선정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세 가지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본 조사시에 그룹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참여 의향을 확인 후 참여 동의를 확보, 향후 진행 일정을 안내하였다. 최종적으로 해당 기간 동안 면접이 가능한 대상자를 각 그룹별 7명, 총 21명을 섭외하였으며, 질적연구 전문가가 직접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심층 면접은 동일한 장소에서 진행하였으며,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들은 온라인으로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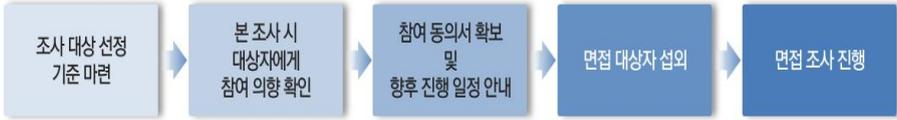


그림 IV-4. 심층 면접 진행 과정



그림 IV-5. 심층 면접 진행 장소

2) 응답자 특성

추적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기본 특성은 다음과 같다. 응답자는 1995년 5월생부터 1998년 7월생까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사 기준시점(2025년 7월) 기준으로 만 27세에서 만 30세에 해당한다.

표 IV-3. 응답자 특성

응답자 특성		사례 수(명)	%
전 체		(1,139)	100.0
생년	1995	(2)	0.2
	1996	(6)	0.5
	1997	(1,006)	88.3
	1998	(125)	11
만 나이*	27	(575)	50.5
	28	(561)	49.3
	29	(2)	0.2
	30	(1)	0.1
성별	남성	(589)	51.7
	여성	(550)	48.3
수도권/ 비수도권	수도권	(514)	45.1
	비수도권	(625)	54.9
장래희망 교육수준	고졸	(61)	5.4
	전문대졸	(203)	17.8
	대졸	(554)	48.6
	석·박사학위 취득	(194)	17.0
	결정하지 않음/무응답	(127)	11.2
대학 진학 여부	전문대학 진학	(257)	22.6
	4년제 이상 대학 진학	(754)	66.2
	대학 미진학	(128)	11.2
대학원 진학 여부	대학원 진학	(90)	7.9
	대학원 미진학	(1,049)	92.1
현재 취업 여부	취업자	(855)	75.1
	미취업자	(284)	24.9

* 만 나이는 조사시작 시점인 2025년 7월 기준으로 계산함.

성별 구성은 남성 51.7%, 여성 48.3%로, 두 집단 간 비율 차이는 크지 않았다. 지역에 따른 결과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45.1%, 비수도권 54.9%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학력 관련 특성을 살펴보면, 응답자의 66.2%가 4년제 이상 대학에 진학하였으며, 전문대학 진학자는 22.6%, 대학 미진학자는 11.2%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대상자의 대다수가 고등교육을 경험한 집단임을 시사한다. 고등학교 3학년 시점의 장래희망 교육 수준에서는

‘대졸’ 응답이 48.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석·박사 학위 취득’이 17.0%, ‘전문대졸’이 17.8%, ‘고졸’이 5.4%, ‘결정하지 않음/무응답’이 11.2%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기 교육적 기대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대학원 진학 여부를 보면 응답자의 7.9%가 대학원에 진학하였고, 92.1%는 진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대체로 학부 수준에서 학업을 마무리하는 경향이 나타남을 의미한다.

고3 시기의 희망 교육수준과 실제 학력 수준을 비교해 보면, 당시 전문대학 또는 대학교 진학을 희망했던 비율에 비해 실제 대학 진학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졸’ 또는 ‘대학원 진학’을 희망했던 일부 집단이 결과적으로 대학 진학을 선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현재 취업 여부를 보면 전체의 75.1%가 취업 상태에 있으며, 24.9%는 미취업 상태로 조사되었다. 이는 조사대상 집단이 전반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한 시점에 도달했음을 반영한다.

4. 주요 결과

추적조사 항목은 일반 사항 영역 이외에 크게 ① 학습과 진학, ② 학교-일자리 이행, ③ 자립과 주거, ④ 삶의 질과 참여 등 4가지로 구분하였다. 본 절에서는 추적 조사 4가지 항목에 대한 조사 결과를 1차 년도 주요 주제인 ① 학습과 진학, ② 학교-일자리 이행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1) 학습과 진학

전체 응답자 1,139명 중 ‘대학에 진학하였다’는 응답은 88.8%로, 다수의 청년이 고등학교 이후 대학 교육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진학 후 졸업하였다’는 77.1%, ‘현재 재학 중이다’는 5.0%, ‘중퇴하였다’는 6.7%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의 ‘진학 후 졸업’ 비율은 69.3%로 여성(85.5%)보다 낮았고, ‘미진학’(15.4%)과 ‘중퇴’(9.8%)는 여성(6.7%, 3.3%)보다 높았다. 수도권 청년은 ‘진학 후 졸업’(81.7%) 비율이 비수도권(73.3%)보다 높았으며, 비수도권의 ‘미진학’(14.2%)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취업자의 ‘진학 후 졸업’(78.5%) 비율은 미취업자(72.9%)보다 다소 높았다.

표 IV-4. 대학 진학 여부

구분	사례 수(명)	아니오	예, 진학 후 졸업하였다	예, 현재 재학 중이다	예, 진학 하였으나 중퇴하였다	계	
전체	(1,139)	11.2	77.1	5.0	6.7	100.0	
성별	남성	(589)	15.4	69.3	5.4	9.8	100.0
	여성	(550)	6.7	85.5	4.5	3.3	100.0
거주지	수도권*	(514)	7.6	81.7	4.5	6.2	100.0
	비수도권	(625)	14.2	73.3	5.4	7.0	100.0
대학 진학 여부	전문대학 진학	(257)	0.0	83.3	4.7	12.1	100.0
	4년제 대학 진학	(754)	0.0	88.1	6.0	6.0	100.0
	대학 미진학	(128)	100.0	0.0	0.0	0.0	100.0
현재 취업 여부	취업자	(855)	11.3	78.5	3.7	6.4	100.0
	미취업자	(284)	10.9	72.9	8.8	7.4	100.0

*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요약하면, 본 연구에 응답한 청년의 대학 진학률은 매우 높으나 성별·지역 간 차이가 존재하였다. 여성과 수도권 청년의 진학 및 졸업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남성과 비수도권 청년은 미진학 또는 중퇴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는 성인 이행기 청년의 교육 이행 경로가 사회적·지역적 요인에 따라 상이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IV-5. 대학(교) 입학 시 선택 기준 평균 (1점~7점)

구분	사례 수 (명)	대학 vs 전공	취업 vs 학문	적성 vs 흥미	주변의견 vs 본인의견	
전체	(1,011)	(4.98)	(3.37)	(4.30)	(4.95)	
성별	남성	(498)	(5.10)	(3.22)	(4.34)	(5.03)
	여성	(513)	(4.87)	(3.52)	(4.26)	(4.88)
거주지	수도권	(475)	(4.86)	(3.42)	(4.30)	(5.02)
	비수도권	(536)	(5.09)	(3.33)	(4.30)	(4.89)
대학 진학 여부	전문대학 진학	(257)	(5.15)	(3.00)	(4.06)	(4.88)
	4년제 대학 진학	(754)	(4.93)	(3.50)	(4.38)	(4.98)
	대학 미진학	-	-	-	-	-
현재 취업 여부	취업자	(758)	(5.00)	(3.29)	(4.31)	(4.94)
	미취업자	(253)	(4.94)	(3.64)	(4.27)	(5.00)

* 중시정도: 1-7점 1점에 가까울수록 대학, 취업, 적성, 주변의견, 7점에 가까울수록 전공, 학문, 흥미, 본인의견 중시

본 연구 응답자 1,011명의 평균 점수를 보면, '대학 vs 전공' 항목은 4.98점, '취업 vs 학문'은 3.37점, '적성 vs 흥미'는 4.30점, '주변의견 vs 본인의견'은 4.95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공과 본인의견을 다소 더 중시하면서도, 취업보다는 학문보다는 실질적 요인을 함께 고려한 경향을 보여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대학 vs 전공'(5.10점)과 '주변의견 vs 본인의견'(5.03점)에서 여성(4.87점, 4.88점)보다 약간 높아 전공 선택과 본인의견을 상대적으로 중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여성은 '취업 vs 학문'(3.52점)이 남성(3.22점)보다 높아 학문적 요인보다 취업 가능성을 약간 더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별로는 수도권 청년의 '주변의견 vs 본인의견' 평균(5.02점)이 비수도권(4.89점)보다 높았고, 비수도권은 '대학 vs 전공' 항목(5.09점)이 수도권(4.86점)보다 높아 전공 중심의 선택 경향이 조금 더 강했다.

대학 진학 여부별로 보면, 전문대학 진학자는 '대학 vs 전공'(5.15점) 점수가 4년제 대학 진학자(4.93점)보다 높아 전공 선택의 중요성을 더 두는 경향이 있었고, 4년제 대학 진학자는 '적성 vs 흥미'(4.38점)와 '주변의견 vs 본인의견'(4.98점) 항목에서 조금 더 높았다.

취업 상태에 따라서는 취업자와 미취업자 간 큰 차이는 없으나, 미취업자는 '취업 vs 학문'(3.64점)이 취업자(3.29점)보다 높아 학문적 요인보다 현실적 취업 가능성을 다소 더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 응답자들은 대학 진학 시 전공과 본인의 의견을 비교적 중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성별과 지역, 대학유형에 따라 세부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전공 중심'과 '자기결정 중심' 경향이 확인되었다. 이는 본 연구 대상 청년의 성인 이행기에서 진학 선택이 개인적 흥미와 실질적 경로 간 균형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표 IV-6. 휴학 경험 여부 및 이유 (복수응답)

(단위: %)

구분	휴학함 사례 수(명)	병역의무 이행(군입대 대기)	자격시험 준비	공공부문 취업시험 준비	학비(생활비) 마련	인턴 등 현장 취업 경험	
전체	(540)	55.9	11.7	11.3	7.2	5.6	
성별	남성	(352)	85.8	6.8	8.8	6.3	2.3
	여성	(188)	0.0	20.7	16.0	9.0	11.7
거주지	수도권	(254)	52.0	14.6	6.7	7.1	5.9
	비수도권	(286)	59.4	9.1	15.4	7.3	5.2
대학 진학 여부	전문대학 진학	(83)	75.9	6.0	3.6	8.4	3.6
	4년제 대학 진학	(457)	52.3	12.7	12.7	7.0	5.9
	대학 미진학	-	-	-	-	-	-
현재 취업 여부	취업자	(394)	54.1	11.2	11.9	6.9	6.3
	미취업자	(146)	61.0	13.0	9.6	8.2	3.4

(계속)

구분	어학연수	민간부문 취업시험 준비	병간호 등 가족적 이유	기타*	
전체	3.5	2.6	1.1	21.7	
성별	남성	0.9	1.7	0.3	10.5
	여성	8.5	4.3	2.7	42.6
거주지	수도권	4.7	3.1	1.2	26.0
	비수도권	2.4	2.1	1.0	17.8
대학 진학 여부	전문대학 진학	1.2	1.2	0.0	15.7
	4년제 대학 진학	3.9	2.8	1.3	22.8
	대학 미진학	-	-	-	-
현재 취업 여부	취업자	3.6	3.0	0.8	23.6
	미취업자	3.4	1.4	2.1	16.4

* 휴학 경험이 있는 응답자만 응답

* 휴학하지 않음 471명(46.6%), 휴학함 540명(53.4%)

* 기타: 개인사유, 건강상의 이유, 다양한 경험, 여행, 재입시 준비, 진로 고민, 편입학 준비, 해보고 싶어서 등

본 연구 응답자 1,011명 중 휴학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540명(53.4%)으로, 절반 이상이 대학 재학 중 한 번 이상 휴학한 경험이 있었다. 주요 사유는 '병역의무 이행(군입대 대기 포함)'이 55.9%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자격시험 준비'(11.7%), '공공부문 취업시험 준비'(11.3%), '학비 또는 생활비 마련'(7.2%), '인턴 등 현장취업 경험'(5.6%)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병역의무 이행'(85.8%)이 압도적으로 높아 제도적 요인 중심의 휴학 경향이 뚜렷했으며, 여성은 '자격시험 준비'(20.7%)와 '공공부문 취업시험 준비'(16.0%), '가족적 이유(병간호 등)'(42.6%) 비율이 높았다. 남성의 경우 '기타' 사유는 10.5%에 불과한 반면, 여성은 개인적 또는 진로 탐색 목적의 휴학을 다수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별로는 수도권 청년의 '자격시험 준비'(14.6%)와 '어학연수'(4.7%) 비율이 비수도권(9.1%, 2.4%)보다 높았으며, 비수도권 청년은 '공공부문 취업시험 준비'(15.4%)와 '병역의무 이행'(59.4%)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지역별 취업전략 및 학업·병역 구조 차이를 일부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대학 진학 여부별로 보면, 전문대학 진학자의 경우 '병역의무 이행'(75.9%) 비율이 높았고, 4년제 대학 진학자는 '자격시험 준비'(12.7%)와 '공공부문 취업시험 준비'(12.7%), '가족적 이유'(22.8%)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인턴 경험'은 두 집단 모두 5% 안팎으로 유사하였다.

취업 상태에 따라 보면, 취업자는 '병역의무 이행'(54.1%)과 '공공부문 취업시험 준비'(11.9%)를 주요 사유로, 미취업자는 '병역의무 이행'(61.0%)과 '자격시험 준비'(13.0%)를 주요 사유로 응답하였다. '가족적 이유'로 인한 휴학은 취업자(23.6%)가 미취업자(16.4%)보다 다소 높았다.

요약하면, 본 연구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이 휴학 경험을 보였으며, 남성은 병역 등 제도적 요인, 여성은 진로 탐색·가족적 이유 중심의 휴학이 두드러졌다. 수도권은 자격시험·어학연수 중심, 비수도권은 병역·공공부문 시험 중심으로 휴학 사유가 구분되었다. 이는 본 연구 응답자의 성인 이행기에서 휴학이 단순한 학업 중단이 아니라, 제도적 상황과 진로 준비가 교차하는 과도기적 선택으로 나타난 경향으로 이해된다.

표 IV-7. 대학 전공 계열

(단위: %)

구분	사례 수(명)	인문계열	경제·경영 계열	법률계열	사회과학 계열	교육계열
전체	(1,011)	10.0	9.2	1.4	8.3	6.2
성별	남성 (498)	7.0	9.4	1.6	5.6	3.2
	여성 (513)	12.9	9.0	1.2	10.9	9.2
거주지	수도권 (475)	9.7	9.7	1.1	9.1	4.4
	비수도권 (536)	10.3	8.8	1.7	7.6	7.8
대학 진학 여부	전문대학 진학 (257)	7.0	7.8	0.0	4.7	5.4
	4년제 대학 진학 (754)	11.0	9.7	1.9	9.5	6.5
	대학 미진학 -	-	-	-	-	-
현재 취업 여부	취업자 (758)	10.0	8.6	1.5	7.7	7.3
	미취업자 (253)	9.9	11.1	1.2	10.3	3.2

(계속)

구분	공학계열	자연계열	의료·보건 계열	예·체능 계 열	자유전공	계
전체	30.0	8.1	13.6	12.3	1.0	100.0
성별	남성 45.8	9.6	6.8	9.8	1.0	100.0
	여성 14.6	6.6	20.1	14.6	1.0	100.0
거주지	수도권 29.7	5.9	13.1	16.4	1.1	100.0
	비수도권 30.2	10.1	14.0	8.6	0.9	100.0
대학 진학 여부	전문대학 진학 31.5	5.8	14.4	21.0	2.3	100.0
	4년제 대학 진학 29.4	8.9	13.3	9.3	0.5	100.0
	대학 미진학 -	-	-	-	-	-
현재 취업 여부	취업자 29.4	7.3	13.9	13.5	1.1	100.0
	미취업자 31.6	10.7	12.6	8.7	0.8	100.0

본 연구 응답자 1,011명의 전공 분포를 보면, ‘공학계열’이 30.0%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의료·보건계열’(13.6%), ‘예·체능계열’(12.3%), ‘인문계열’(10.0%), ‘경제·경영계열’(9.2%), ‘사회과학계열’(8.3%)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공학 및 보건 관련 전공의 비중이 높고, 인문·사회계열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공학계열’(45.8%) 비중이 매우 높고, 여성은 ‘의료·보건계열’(20.1%), ‘예·체능계열’(14.6%), ‘인문계열’(12.9%) 비율이 높았다. 즉 남성은 산업·기

술 중심 전공, 여성은 인문·돌봄·예술 중심 전공에 분포하는 양상이 뚜렷했다.

거주지별로는 수도권 응답자의 '예·체능계열'(16.4%) 비율이 비수도권(8.6%)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았고, 비수도권은 '자연계열'(10.1%) 비율이 수도권(5.9%)보다 높았다. 이는 수도권의 문화·예술 분야 접근성, 비수도권의 이공계 진학 비중을 반영한 결과일 수 있다.

대학 진학 여부별로는 전문대학 진학자의 '예·체능계열' 비율이 21.0%로 높았으며, 4년제 대학 진학자는 '공학계열'(29.4%)과 '사회과학계열'(9.5%) 비중이 높았다. 특히 전문대학은 직업·기능 중심, 4년제 대학은 전공 다양성 중심의 구조가 확인되었다.

취업 상태에 따라서는 취업자의 '의료·보건계열'(13.9%)과 '공학계열'(29.4%) 비율이 높은 반면, 미취업자는 '자연계열'(10.7%)과 '공학계열'(31.6%) 비중이 다소 높았다. 전공 별 취업률의 차이는 크지 않으나, 자연·공학계열의 미취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요약하자면, 본 연구 응답자들은 공학 및 보건 분야 전공 비중이 높고, 성별·지역별 전공 분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남성은 기술 중심, 여성은 돌봄·예술 중심의 전공 선택 경향이 확인되며, 이는 본 연구 응답자의 성인 이행기에서 전공 선택이 직업 전망과 성별 역할 기대가 결합된 형태로 나타난 경향으로 이해된다.

표 IV-8. 졸업 유예 경험 여부 및 사유

구분	졸업 유예함 사례 수 (명)	취업 준비를 위해	졸업해도 취업 안 될 것 같아서	진로 결정 못해서	문화 및 여가 생활 누리기 위해	경제적으로 학비나 생활비 벌기 위해	기타*	계 (%)	
전체	(75)	54.7	21.3	9.3	2.7	1.3	10.7	100.0	
성별	남성	(30)	56.7	16.7	6.7	3.3	0.0	16.7	100.0
	여성	(45)	53.3	24.4	11.1	2.2	2.2	6.7	100.0
거주지	수도권	(40)	55.0	20.0	12.5	2.5	2.5	7.5	100.0
	비수도권	(35)	54.3	22.9	5.7	2.9	0.0	14.3	100.0
대학 진학 여부	전문대학 진학	(3)	0.0	0.0	0.0	33.3	0.0	66.7	100.0
	4년제 대학 진학	(72)	56.9	22.2	9.7	1.4	1.4	8.3	100.0
	대학 미진학	-	-	-	-	-	-	-	-
현재 취업 여부	취업자	(55)	60.0	16.4	7.3	1.8	0.0	14.5	100.0
	미취업자	(20)	40.0	35.0	15.0	5.0	5.0	0.0	100.0

* 졸업 유예하지 않음 936명 (82.2%), 졸업 유예함 75명 (7.4%)

* 기타: 다른 길 배우는 중, 유급, 인턴십 프로젝트에 전념하느라 졸업 시험 낙방, 졸업의 의미를 딱히 모르겠어서 창업을 준비하기 위해, 코로나, 학교를 더 이상 다니지 못했음, 학점을 높이기 위해

본 연구 응답자 1,011명 가운데 졸업 유예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75명(7.4%)으로 나타났다. 다수(82.6%)는 졸업 유예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졸업 유예 사유를 보면 '취업 준비를 위해'가 54.7%로 가장 많았고, 이어 '졸업해도 취업이 안 될 것 같아서'(21.3%), '진로 결정을 못해서'(9.3%), '문화 및 여가 생활을 누리기 위해'(2.7%) 순이었다. '기타' 사유는 10.7%로, 인턴십 집중, 창업 준비, 편입 대비 등 다양한 이유가 포함되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취업 준비' (56.7%) 가장 높고, '졸업 불안' (16.7%)과 '기타' (16.7%) 비율도 높았다. 여성은 '졸업해도 취업이 안 될 것 같아서' (24.4%)와 '진로 결정 미확정' (11.1%) 비중이 높아, 진로 탐색 단계에서의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별로는 수도권 청년이 '진로 결정 못함' (12.5%) 과 '경제적 이유' (2.5%) 비율이 비수도권(5.7%, 0.0%)보다 높았으며, 비수도권은 '기타' 사유 (14.3%)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는 지역별 노동시장 여건 및 졸업 후 전망 차이가 영향을 시사한다.

대학 진학 여부에 따라 살펴보면 전문대학 진학자는 표본 수는 적지만 '문화·여가' 목적(33.3%) 및 '기타' 사유(66.7%)로 졸업을 유예한 비율이 높았으며, 4년제 대학 진학자는 '취업 준비'(56.9%)와 '졸업 불안'(22.2%)이 주요 이유였다.

취업 상태에 따라서는 취업자가 '취업 준비'(60.0%) 비율이 높고, 미취업자는 '졸업 불안'(35.0%) 과 '진로 미결정'(15.0%) 비율이 높았다. '기타' 사유는 취업자(14.5%) 가 미취업자(0.0%)보다 높았다.

요약하면, 본 연구 응답자 중 일부 청년은 졸업 시기를 조정하며 취업 경쟁력 강화 또는 진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시간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즉, 졸업 유예는 주로 취업 불확실성과 진로 미결정 등 '이행기적 불안정성'을 완충하기 위한 선택으로 기능하고 있는 결과일 수도 있다. 남성은 취업 준비, 여성은 진로 탐색 및 졸업 불안 중심으로 졸업 유예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본 연구 응답자의 성인 이행기 과정에서 졸업이 고용 전환의 전략적 단계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IV-9. 대학(교) 등록금 (한 학기 평균)

구분	사례 수 (명)	등록금 (만 원)	200만 원 미만	200~ 299만 원	300~ 399만 원	400~ 499만 원	500~ 599 만 원	600 만 원 이상	
		평균							
전체	(1,011)	(314.59)	13.4	25.7	34.6	20.7	3.6	2.1	
성별	남성	(498)	(316.71)	15.1	28.1	29.9	21.5	3.2	2.2
	여성	(513)	(312.54)	11.7	23.4	39.2	19.9	3.9	1.9
거주지	수도권	(475)	(346.88)	9.7	17.9	36.4	26.1	6.5	3.4
	비수도권	(536)	(285.98)	16.6	32.6	33.0	15.9	0.9	0.9
대학 진학 여부	전문대학 진학	(257)	(284.00)	11.7	32.3	43.6	8.6	2.3	1.6
	4년제 대학 진학	(754)	(325.02)	13.9	23.5	31.6	24.8	4.0	2.3
	대학 미진학	-	-	-	-	-	-	-	-
현재 취업 여부	취업자	(758)	(324.53)	13.1	25.7	34.6	20.4	3.7	2.5
	미취업자	(253)	(275.17)	14.2	25.7	34.8	21.3	3.2	0.8

* 계 : 100%

본 연구 응답자 1,011명의 대학(교) 등록금은 한 학기 평균 314.59만 원으로 나타났다. 구간별로 보면 '300~399만 원'이 34.6%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400~499만 원'(20.7%), '200~299만 원'(25.7%), '200만 원 미만'(13.4%) 순이었다. '600만 원 이상' 고액 등록금은 2.1%에 불과했다.

성별로는 남성의 평균 등록금이 316.71만 원으로 여성(312.54만 원)보다 약간 높았다. 남성은 '300~399만 원'(29.9%) 구간보다 '400~499만 원'(21.5%) 이상 비중이 조금 더 높았고, 여성은 '300~399만 원'(39.2%) 구간에 집중되어 있었다. 즉, 여성의 등록금 분포는 상대적으로 중간 구간에 몰린 반면, 남성은 상·하위 구간 모두 분포가 다소 넓었다.

거주지별로 보면 수도권의 평균 등록금은 346.88만 원으로 비수도권(285.98만 원)보다 높았으며, '400~499만 원' 구간 비율이 수도권 26.1%, 비수도권 15.9%로 차이가 뚜렷했다. 반면 비수도권은 '200~299만 원'(32.6%) 비율이 수도권(17.9%)의 약 두 배로, 지역 간 교육비 부담 격차가 존재하였다.

대학 진학 여부에 따라 살펴보면, 전문대학 진학자의 평균 등록금은 284만 원, 4년제 대학 진학자는 325만 원으로 4년제 대학의 등록금이 더 높았다. 전문대학은 '300~399만 원'(43.6%) 구간이 가장 많았고, 4년제 대학은 '400~499만 원'(24.8%)이 두 번째로 높았다.

취업 상태별로는 취업자의 평균 등록금이 324.53만 원, 미취업자는 275.17만 원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모두 '300~399만 원'(약 35%) 비율이 비슷했으나, 취업자의 경우 '600만 원 이상' 구간(2.5%) 비율이 약간 높았다.

정리하면, 본 연구 응답자의 평균 등록금은 약 315만 원 수준으로, 수도권·4년제 대학·남성 집단의 등록금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 응답자의 성인 이행기에 서 교육비 부담이 지역과 대학 진학에 따라 상이하게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IV-10. 등록금 마련 방법 평균 비율

(단위: %)

구분	사례 수 (명)	가족 지원	국가 장학금	학자금 대출	아르 바이트 등 스스로 마련	민간 장학금	기타*	
전체	(1,011)	49.4	34.2	6.0	3.9	2.8	3.8	
성별	남성	(498)	46.5	34.6	6.1	5.4	4.0	3.4
	여성	(513)	52.1	33.8	5.8	2.4	1.7	4.2
거주지	수도권	(475)	50.1	32.7	7.5	3.6	2.9	3.2
	비수도권	(536)	48.7	35.5	4.6	4.1	2.8	4.3
대학 진학 여부	전문대학 진학	(257)	51.1	31.9	5.8	5.4	2.4	3.3
	4년제 대학 진학	(754)	48.8	34.9	6.0	3.4	3.0	4.0
	대학 미진학	-	-	-	-	-	-	-
현재 취업 여부	취업자	(758)	49.4	33.6	5.9	4.4	3.2	3.6
	미취업자	(253)	49.3	35.8	6.2	2.4	1.8	4.4
장래희망 교육수준	고졸	(23)	38.0	41.3	5.0	12.6	3.0	0.0
	전문대졸	(167)	45.8	35.8	7.0	5.3	2.7	3.4
	대졸	(530)	50.5	34.9	5.6	3.2	2.2	3.5
	석·박사학위 취득	(189)	51.7	31.2	6.2	2.6	3.7	4.6
	결정 안함/무응답	(102)	47.3	31.5	5.7	5.2	4.7	5.5

* 기타: 교내 장학금, 군 장학금, 농어촌 장학금, 모름/기억나지 않음, 보훈대상자 면제, 부모님 회사 지원 시 장학금, 예술체육비전 장학금, 직장 내 학자금 지원제도, 창업 장학금, 체육 특기생

응답자들은 대학 등록금 마련 시 '가족 지원'(49.4%)과 '국가 장학금'(34.2%)에 가장 크게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자금 대출'(6.0%), '아르바이트 등 스스로 마련'(3.9%), '민간 장학금'(2.8%)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즉, 등록금 재원의 주요 출처가 여전히 가족과 공적 장학금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성별에 따라 보면, 남성은 '스스로 마련'(5.4%)과 '민간 장학금'(4.0%)의 비율이 여성(각

각 2.4%, 1.7%)보다 높았다. 반면 여성은 '가족 지원'(52.1%)의 비율이 남성(46.5%)보다 높아, 여성 응답자의 경우 가족 의존도가 더 높은 경향이 나타났다.

거주지별로는 수도권(50.1%)과 비수도권(48.7%) 모두 '가족 지원'이 절반가량을 차지했으나, 세부 구성을 보면 수도권은 '학자금 대출'(7.5%) 비율이, 비수도권은 '국가 장학금'(35.5%)과 '스스로 마련'(4.1%) 비율이 높았다. 이는 지역별로 등록금 조달 방식이 다소 상이함을 시사한다.

대학 진학 여부에 따라 보면, 전문대학 진학자는 '가족 지원'(51.1%)과 '스스로 마련'(5.4%)의 비율이 높고, 4년제 대학 진학자는 '국가 장학금'(34.9%)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두 집단 모두 '학자금 대출' 활용은 6% 내외로 비슷했으나, 4년제 대학의 경우 공적 지원 활용 비중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취업자와 미취업자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다만 취업자는 '스스로 마련'(4.4%) 비율이, 미취업자는 '국가 장학금'(35.8%)과 '기타 지원'(4.4%) 비율이 조금 더 높았다. 이는 소득활동 여부에 따라 등록금 마련 방식이 달라질 수 있음을 반영한다.

장래희망 교육수준에 따라 보면, 고졸 희망 집단은 '스스로 마련'(12.6%) 비율이 높고, 석·박사 희망 집단은 '가족 지원'(51.7%)과 '기타 장학금'(4.6%) 의존이 높았다. 특히 고졸 집단에서의 자력 부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종합하면, 응답자들은 성인 이행기의 교육비 마련을 주로 가족과 국가의 재정적 지원에 의존하고 있었으며, 자력 충당 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 등록금 구조가 개인의 경제적 자립보다는 가족과 제도적 지원망에 기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IV-11. 대학 시절 평균 성적(100점 기준)

구분		사례 수 (명)	20점 미만	20~40 점 미만	40~60 점 미만	60~80 점 미만	80~ 100점	계	(평균)
전체		(1,011)	0.1	0.7	4.5	38.6	56.2	100.0	(79.63)
성별	남성	(498)	0.2	1.0	7.0	38.8	53.0	100.0	(78.52)
	여성	(513)	0.0	0.4	1.9	38.4	59.3	100.0	(80.71)
거주지	수도권	(475)	0.2	1.3	4.2	36.6	57.7	100.0	(79.28)
	비수도권	(536)	0.0	0.2	4.7	40.3	54.9	100.0	(79.94)
대학 진학 여부	전문대학 진학	(257)	0.0	1.6	5.4	37.0	56.0	100.0	(79.39)
	4년제 대학 진학	(754)	0.1	0.4	4.1	39.1	56.2	100.0	(79.71)
	대학 미진학	-	-	-	-	-	-	-	-
현재 취업 여부	취업자	(758)	0.1	0.4	4.7	37.1	57.7	100.0	(79.87)
	미취업자	(253)	0.0	1.6	3.6	43.1	51.8	100.0	(78.92)

본 연구 응답자의 대학 시절 평균 성적은 100점 기준 79.63점으로 나타났다. 점수 구간별로는 '80~100점'이 56.2%, '60~80점 미만'이 38.6%로 대부분 중상위권에 분포하였다.

성별로는 여성의 평균 성적(80.71점)이 남성(78.52점)보다 높았으며, '80점 이상' 비율도 여성(59.3%)이 남성(53.0%)보다 높았다. 남성은 '40~60점 미만' 구간(7.0%) 비율이 여성(1.9%)보다 높아 성적 분포가 더 넓었다. 거주지별로 살펴보면, 수도권(79.28점)과 비수도권(79.94점)의 평균 점수 차이는 크지 않았으나, 비수도권의 '60~80점 미만' 비율(40.3%)이 수도권(36.6%)보다 높았다. 대학 진학 여부에 따라 살펴보면 전문대학(79.39점)과 4년제 대학(79.71점)의 평균 점수는 유사하였으며, 두 집단 모두 '80점 이상'이 약 56% 수준이었다. 취업자(79.87점)와 미취업자(78.92점)의 차이도 크지 않았으나, 미취업자는 '60~80점 미만' 비율(43.1%)이 다소 높았다.

요약하면, 본 연구 응답자의 대학 성적은 전반적으로 80점 내외의 중상위권 수준으로, 여성과 취업자 집단이 상대적으로 높은 학업 성취를 보였다. 이는 성인 이행기 청년의 학업 수행이 성별과 진로 기대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경향으로 이해된다.

표 IV-12. 대학 생활 만족도

구분		사례 수 (명)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평균)
전체		(1,011)	3.9	11.4	36.1	40.4	8.3	(3.38)
성별	남성	(498)	5.8	10.6	36.7	37.1	9.6	(3.34)
	여성	(513)	1.9	12.1	35.5	43.5	7.0	(3.42)
거주지	수도권	(475)	4.2	9.9	34.9	42.3	8.6	(3.43)
	비수도권	(536)	3.5	12.7	37.1	38.6	8.0	(3.36)
대학 진학 여부	전문대학 진학	(257)	6.6	15.6	42.8	30.4	4.7	(3.41)
	4년제 대학 진학	(754)	2.9	9.9	33.8	43.8	9.5	(3.13)
	대학 미진학	-	-	-	-	-	-	(3.21)
현재 취업 여부	취업자	(758)	2.9	11.1	37.2	40.9	7.9	(3.25)
	미취업자	(253)	6.7	12.3	32.8	38.7	9.5	(3.10)

* 계 : 100%

*1점: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5점: 매우 만족한다.

응답자들의 대학 생활 만족도는 평균 3.38점(5점 만점 기준)으로, 전반적으로 보통 이상 수준의 만족도를 보였다. 응답 분포를 보면 '보통이다'(36.1%)와 '만족한다'(40.4%)가 전체의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매우 만족한다'는 8.3%로 나타났다. 즉, 성인 이행기의 대학 경험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었다.

성별에 따라 보면, 여성의 평균 점수(3.42점)가 남성(3.34점)보다 다소 높았다. 여성은 '만족한다'(43.5%)의 비율이 남성(37.1%)보다 높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1.9%)의 응답은 남성(5.8%)보다 낮아,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남성은 '매우 만족한다'의 비율(9.6%)이 여성(7.0%)보다 약간 높아, 만족도가 양극화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거주지별로는 수도권(3.43점)이 비수도권(3.36점)보다 평균 만족도가 높았다. 수도권 응답자는 '만족한다'(42.3%)와 '매우 만족한다'(8.6%) 응답이 많았으며, 비수도권에서는 '보통이다'(37.1%)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중간 수준 만족이 두드러졌다. 이는 지역별 대학 생활 환경이나 활동 기회의 차이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대학 진학 여부에 따라 보면, 전문대학 진학자의 평균은 3.41점, 4년제 대학 진학자는 3.13점으로 나타났다. 전문대학 진학자는 '보통이다'(42.8%) 응답이 높고, 4년제 대학 진학자는 '만족한다'(43.8%)와 '매우 만족한다'(9.5%) 비율이 높았다. 즉, 전문대학 집단은 안정적 만족감을, 4년제 대학 집단은 긍정적 만족을 보이는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취업자(3.25점)가 미취업자(3.10점)보다 만족도가 다소 높았다. 취업자는 '만족한다'(40.9%) 응답이 많았던 반면, 미취업자는 '보통이다'(32.8%)와 '불만족'(12.3%)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요약하면, 응답자들은 전반적으로 대학 생활에 대해 긍정적인 만족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여성과 수도권 거주자, 취업자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성인 이행기의 대학 경험이 개인의 진로 안정성과 지역적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IV-13. 대학원 진학 여부 및 진학 동기

구분	사례 수(명)	학문(전공 심화)에 대한 관심 때문에	대학원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학교 교수님의 권유로	
전체	(90)	51.1	33.3	5.6	
성별	남성	(50)	56.0	30.0	6.0
	여성	(40)	45.0	37.5	5.0
거주지	수도권	(43)	48.8	37.2	4.7
	비수도권	(47)	53.2	29.8	6.4
대학 진학 여부	전문대학 진학	(3)	0.0	66.7	0.0
	4년제 대학 진학	(86)	53.5	31.4	5.8
	대학 미진학	(1)	0.0	100.0	0.0
현재 취업 여부	취업자	(55)	41.8	36.4	5.5
	미취업자	(35)	65.7	28.6	5.7

(계속)

구분	부모님의 권유로	선배, 동기, 친구들의 권유로	졸업할 당시 취업이 어려워서	기타*	계	
전체	2.2	2.2	1.1	4.4	100.0	
성별	남성	2.0	0.0	0.0	6.0	100.0
	여성	2.5	5.0	2.5	2.5	100.0
거주지	수도권	2.3	4.7	0.0	2.3	100.0
	비수도권	2.1	0.0	2.1	6.4	100.0
대학 진학 여부	전문대학 진학	33.3	0.0	0.0	0.0	100.0
	4년제 대학 진학	1.2	2.3	1.2	4.7	100.0
	대학 미진학	0.0	0.0	0.0	0.0	100.0
현재 취업 여부	취업자	3.6	3.6	1.8	7.3	100.0
	미취업자	0.0	0.0	0.0	0.0	100.0

* 진학하지 않음 1,049명(92.16%), 진학함 90명(7.9%)

* 기타: 목회자 필수과정이어서, 임용시험을 응시하고자 군대를 연기하기 위해, 직장에서 승진에 유리할거 같아서, 창업을 위한 기술개발을 위해

본 연구 응답자 1,139명 중 대학원에 진학한 비율은 7.9%(90명)로, 다수(92.1%)는 대학원에 진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원 진학 동기를 살펴보면, ‘학문(전공 심화)에 대한 관심’이 51.1%로 가장 높았으며, ‘대학원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33.3%), ‘학교 교수님의 권유로’(5.6%)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사유(4.4%)에는 직장 내 승진, 임용시험 준비, 창업 준비 등이 포함되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의 경우 ‘학문(전공 심화)’ 동기가 56.0%로 여성(45.0%)보다 높았고, 여성은 ‘학력 필요성’(37.5%) 응답이 남성(30.0%)보다 높았다. 또한 남성은 ‘기타’ 사유(6.0%) 비율이 여성(2.5%)보다 약간 높았다. 한편, 여성은 ‘선배·동기 권유’(5.0%)가 남성

(0.0%)보다 높아 주변 관계의 영향을 더 받는 경향을 보였다.

거주지별로는 수도권 응답자의 '학력 필요성'(37.2%)이 비수도권(29.8%)보다 높았고, 비수도권은 '학문 심화'(53.2%) 비율이 수도권(48.8%)보다 높았다. 또한 비수도권은 '기타' 사유(6.4%)가 수도권(2.3%)보다 높아 개인적 진학 동기의 다양성이 다소 더 컸다.

대학 진학 여부에 따라서는 4년제 대학 졸업자의 '학문 심화'(53.5%) 비율이 전문대학 졸업자(0.0%)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전문대학 졸업자는 표본 수가 매우 적지만, '학력 필요성'(66.7%)을 주된 이유로 제시했다.

취업 상태에 따라 보면 취업자의 주요 동기는 '학문 심화'(41.8%)와 '학력 필요성'(36.4%)이었으며, 미취업자는 '학문 심화'(65.7%) 비율이 높아 학문적 이유로 진학하는 경향이 더 강했다. 반면 취업자는 '기타' 사유(7.3%)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직장 내 승진이나 자격 요건 충족 등 실질적 이유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종합하면, 본 연구 응답자 중 대학원 진학자는 소수에 불과했으나, 진학 이유는 주로 전공 심화와 학력 필요성에 기반하고 있었다. 성별·거주지·취업 상태에 따라 학문적 동기와 실질적 동기가 교차하였으며, 이는 본 연구 응답자의 성인 이행기에서 교육의 연속성이 개인의 진로 확장 전략으로 나타난 경향으로 이해된다.

표 IV-14. 대학/대학원 진학 위한 경험 비율 (예/아니오)

구분	사례 수(명)	학원 통학을 통한 교육	인터넷 강의, 어플, 동영상 등을 활용한 교육	재수생 개인 간의 스터디
전체	(61)	8.2	49.2	3.3
성별	남성 (29)	10.3	58.6	3.4
	여성 (32)	6.3	40.6	3.1
거주지	수도권 (27)	11.1	63.0	0.0
	비수도권 (34)	5.9	38.2	5.9
대학 진학 여부	전문대학 진학 (17)	5.9	64.7	0.0
	4년제 대학 진학 (39)	7.7	35.9	2.6
	대학 미진학 (5)	20.0	100.0	20.0
현재 취업 여부	취업자 (49)	8.2	53.1	2.0
	미취업자 (12)	8.3	33.3	8.3

* 항목별 "예" 응답자 비율

대학/대학원 진학 여부에서 대학/대학원 진학 준비를 하고 있는 응답자는 총 61명(전체의 5.4%)였다. 이들 중 대학 또는 대학원 진학을 위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인터넷 강의·어플·동영상 등 온라인 교육 활용'이 49.2%로 가장 높았으며, '학원 통학'(8.2%), '재수생 간 스터디 참여'(3.3%)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기반 학습 경험이 주된 진학 준비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성별로는 남성의 온라인 교육 활용 비율(58.6%)이 여성(40.6%)보다 높았고, 학원 통학 비율도 남성(10.3%)이 여성(6.3%)보다 높았다. 반면, 여성은 모든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참여율을 보여, 진학 준비 시 온라인·오프라인 학습 모두 남성의 활용도가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거주지별로 보면 수도권 응답자의 온라인 교육 활용률(63.0%)이 비수도권(38.2%)보다 높았으며, 학원 통학 경험도 수도권(11.1%)이 비수도권(5.9%)보다 약 두 배가량 높았다. 반대로 비수도권에서는 '재수생 간 스터디'(5.9%) 참여율이 수도권(0.0%)보다 다소 높았다. 이는 지역별 학습 인프라 접근성 차이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대학 진학 여부에 따라 보면 전문대학 진학자의 온라인 교육 활용률(64.7%)이 4년제 대학 진학자(35.9%)보다 높았으며, 학원 통학 비율은 전문대학(5.9%)보다 4년제 대학(7.7%)에서 약간 높았다. 특히 대학 미진학 집단의 온라인 교육 활용률은 100.0%로 나타나, 정규 진학 경로 외 청년층에서 비공식적 학습경험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취업 상태에 따라 보면 취업자의 온라인 교육 활용률(53.1%)이 미취업자(33.3%)보다 높았으며, 미취업자는 '재수생 간 스터디'(8.3%)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직업을 가진 응답자들이 비대면 방식의 자기주도 학습을 선호하는 반면, 미취업자는 소규모 학습집단 중심의 상호 지원 형태를 경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본 연구 응답자의 진학 관련 학습 경험은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성별·지역·진학유형·취업상태에 따라 접근성과 학습 형태가 뚜렷이 구분되었다. 이는 본 연구 응답자의 성인 이행기에서 학습이 개인 상황에 따라 다양한 경로로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표 IV-15. 월 평균 진학 관련 사설학원 지불 비용

구분		사례 수 (명)	50만 원 미만	50~ 99만 원	100~ 149만 원	계	(평균)
전체		(31)	83.9	12.9	3.2	100.0	(18.00)
성별	남성	(17)	88.2	11.8	0.0	100.0	(12.24)
	여성	(14)	78.6	14.3	7.1	100.0	(25.00)
거주지	수도권	(18)	77.8	16.7	5.6	100.0	(24.06)
	비수도권	(13)	92.3	7.7	0.0	100.0	(9.62)
대학 진학 여부	전문대학 진학	(12)	83.3	8.3	8.3	100.0	(19.00)
	4년제 대학 진학	(14)	85.7	14.3	0.0	100.0	(16.79)
	대학 미진학	(5)	80.0	20.0	0.0	100.0	(19.00)
현재 취업 여부	취업자	(27)	81.5	14.8	3.7	100.0	(19.26)
	미취업자	(4)	100.0	0.0	0.0	100.0	(9.50)

본 연구 응답자 31명의 월 평균 사설학원 비용은 약 18.0만 원으로 나타났다. 비용 구간별로는 '50만 원 미만'이 83.9%로 가장 많았으며, '50~99만 원'(12.9%), '100~149만 원'(3.2%) 순이었다. 고액(100만 원 이상) 지출 응답은 일부에 불과해, 사설학원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수준임을 보여준다.

성별로는 남성의 평균 지출액(12.24만 원)이 여성(25만 원)보다 낮았으며, 여성은 '100만 원 이상' 비율(7.1%)이 남성(0.0%)보다 높았다. 즉, 여성 응답자 중 일부는 보다 집중적인 학원 이용을 선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거주지별로는 수도권의 평균 비용(24.06만 원)이 비수도권(9.62만 원)의 두 배를 넘었으며, '100만 원 이상' 비율 또한 수도권(5.6%)에서만 나타났다. 이는 지역 간 사교육비 수준의 차이를 반영한다.

대학 진학 여부별로 보면 전문대학 진학자의 평균 비용은 19만 원, 4년제 대학 진학자는 16.79만 원으로 큰 차이는 없었다. 한편, 대학 미진학 응답자의 평균은 19만 원으로, 정규 교육 체계 밖에서도 사교육 형태의 학습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취업 상태별로는 취업자의 평균 지출이 19.26만 원으로 미취업자(9.50만 원)보다 높았으며, 취업자의 14.8%가 '50~99만 원' 구간에 속했다. 이는 일정 소득이 있는 응답자일수록 사설학원 투자가 가능함을 시사한다.

표 IV-16. 사설학원 비용 제외 월 평균 진학 준비 비용

구분		사례 수 (명)	50만 원 미만	50~ 99만 원	100~ 149만 원	150~ 199만 원	계	(평균)
전체		(61)	90.2	3.3	4.9	1.6	100.0	(13.25)
성별	남성	(29)	100.0	0.0	0.0	0.0	100.0	(5.24)
	여성	(32)	81.3	6.3	9.4	3.1	100.0	(20.50)
거주지	수도권	(27)	81.5	3.7	11.1	3.7	100.0	(22.74)
	비수도권	(34)	97.1	2.9	0.0	0.0	100.0	(5.71)
대학 진학 여부	전문대학 진학	(17)	88.2	5.9	5.9	0.0	100.0	(12.59)
	4년제 대학 진학	(39)	89.7	2.6	5.1	2.6	100.0	(14.59)
	대학 미진학	(5)	100.0	0.0	0.0	0.0	100.0	(5.00)
현재 취업 여부	취업자	(49)	91.8	2.0	4.1	2.0	100.0	(13.14)
	미취업자	(12)	83.3	8.3	8.3	0.0	100.0	(13.67)

전반적으로 볼 때, 본 연구 응답자의 사설학원비 지출은 대부분 저비용 수준에 머물렀으며, 수도권·여성·취업자 집단의 지출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성인 이행기 진학 준비 과정에서 경제적 여건이 학습 접근성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설학원을 제외한 기타 진학 준비 비용은 월평균 13.25만 원으로, 응답자의 90.2%가 '50만 원 미만' 구간에 속했다. '50~99만 원'(3.3%)과 '100~149만 원'(4.9%) 이상은 극히 소수에 그쳤다.

성별로는 남성의 평균 비용이 5.24만 원으로 여성(20.50만 원)보다 훨씬 낮았고, 여성은 '100만 원 이상' 비율(9.4%)이 높아 교육 투자에 더 적극적인 경향을 보였다.

거주지별로는 수도권의 평균 비용(22.74만 원)이 비수도권(5.71만 원)보다 약 네 배 높았으며, '100만 원 이상' 비율도 수도권(11.1%)에서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지역별 학습 환경 접근성과 정보 비용의 차이를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대학 진학 여부에 따라 살펴보면, 전문대학 진학자(12.6만 원)와 4년제 대학 진학자(14.6만 원)의 평균 지출이 유사했고, 대부분 50만 원 미만 구간에 속했다. 대학 미진학자의 평균 비용은 5만 원으로 가장 낮았다.

취업 상태에 따라 보면 취업자(13.1만 원)와 미취업자(13.7만 원)의 평균이 거의 비슷했으며, 미취업자의 '100만 원 이상' 비율(8.3%)이 약간 높았다.

표 IV-17. 진학 준비를 위한 하루 평균 투자 시간

구분	사례 수(명)	2시간 미만	2~4시간 미만	4~6시간 미만	6~8시간 미만	8~10시간 미만	10시간 이상	계	(평균)	
전체	(61)	34.4	32.8	21.3	1.6	1.6	8.2	100.0	(3.20)	
성별	남성	(29)	13.8	41.4	27.6	3.4	3.4	10.3	100.0	(3.97)
	여성	(32)	53.1	25.0	15.6	0.0	0.0	6.3	100.0	(2.50)
거주지	수도권	(27)	40.7	33.3	11.1	3.7	3.7	7.4	100.0	(3.11)
	비수도권	(34)	29.4	32.4	29.4	0.0	0.0	8.8	100.0	(3.26)
대학 진학 여부	전문대학 진학	(17)	35.3	35.3	17.6	5.9	0.0	5.9	100.0	(2.94)
	4년제 대학 진학	(39)	33.3	30.8	25.6	0.0	2.6	7.7	100.0	(3.28)
	대학 미진학	(5)	40.0	40.0	0.0	0.0	0.0	20.0	100.0	(3.40)
현재 취업 여부	취업자	(49)	36.7	32.7	20.4	2.0	2.0	6.1	100.0	(2.98)
	미취업자	(12)	25.0	33.3	25.0	0.0	0.0	16.7	100.0	(4.08)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응답자들의 진학 준비는 사설학원 이외의 영역에서도 낮은 비용 구조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수도권과 여성 집단의 투자 비중이 높았으며, 이는 성인 이행기 청년의 학습 기회가 지역·성별에 따라 경제적 제약을 다르게 받는다는 점을 시사한다.

응답자 61명의 하루 평균 진학 준비 시간은 3.2시간으로 나타났다. 시간대별로는 ‘2시간 미만’(34.4%)과 ‘2~4시간 미만’(32.8%)이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10시간 이상’ 집중 학습자는 8.2%에 불과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의 평균 투자시간(3.97시간)이 여성(2.50시간)보다 길었으며, 남성은 ‘4~6시간 미만’(27.6%) 비율이 높았다. 반면 여성은 ‘2시간 미만’(53.1%)이 과반으로, 비교적 단시간 학습이 중심이었다.

거주지별로는 수도권(3.11시간)과 비수도권(3.26시간)의 평균이 비슷했으나, 수도권은 ‘6시간 이상’ 장시간 학습 비율이 조금 더 높았다.

대학 진학 여부에 따라 살펴보면 4년제 대학 진학자의 평균 시간은 3.28시간, 전문대학 진학자는 2.94시간으로 나타났으며, 두 집단 모두 ‘2~4시간 미만’ 구간 비율이 약 30%로 유사했다. 대학 미진학 응답자는 평균 3.40시간으로 비교적 높았으나, 표본 수가 적어 해석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취업 상태에 따라서는 미취업자의 평균 학습시간(4.1시간)이 취업자(3.0시간)보다 약 1시간 정도 길었고, 미취업자는 ‘10시간 이상’ 집중형 학습자 비율(16.7%)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2) 학교-일자리 이행

표 IV-18. 성인으로서의 첫 출발 상징

구분	사례 수(명)	첫 일자리를 갖게 되는 것	경제적 독립	성인으로서 권리를 갖게 되는 것	학교 졸업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는 것	
전체	(1,139)	38.5	34.2	9.0	5.1	4.5	
성별	남성	(589)	39.7	30.2	7.6	3.9	6.5
	여성	(550)	37.1	38.4	10.4	6.4	2.4
거주지	수도권	(514)	40.1	35.6	7.8	5.6	4.1
	비수도권	(625)	37.1	33.0	9.9	4.6	4.8
대학 진학 여부	전문대학 진학	(257)	40.9	30.7	8.9	5.1	5.8
	4년제 대학 진학	(754)	38.3	36.1	8.2	5.0	3.6
	대학 미진학	(128)	34.4	29.7	13.3	5.5	7.0
현재 취업 여부	취업자	(855)	38.5	34.7	9.2	5.1	4.1
	미취업자	(284)	38.4	32.4	8.1	4.9	5.6

(계속)

구분	결혼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것	자녀 출산	주택 구입	타인에 대한 배려심 커지는 것	기타*	계	
전체	2.8	1.9	1.0	0.8	0.4	2.0	100.0	
성별	남성	4.6	1.9	1.4	0.5	0.5	3.2	100.0
	여성	0.9	2.0	0.5	1.1	0.2	0.7	100.0
거주지	수도권	2.7	1.6	0.8	0.6	0.4	0.8	100.0
	비수도권	2.9	2.2	1.1	1.0	0.3	3.0	100.0
대학 진학 여부	전문대학 진학	3.9	1.6	0.8	0.4	0.4	1.6	100.0
	4년제 대학 진학	2.7	2.1	0.9	0.8	0.4	1.9	100.0
	대학 미진학	1.6	1.6	1.6	1.6	0.0	3.9	100.0
현재 취업 여부	취업자	2.5	2.1	0.8	0.6	0.4	2.0	100.0
	미취업자	3.9	1.4	1.4	1.4	0.4	2.1	100.0

* 기타: 내 결정과 언행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 정신적으로 성장한 것, 군대를 제대한 것, 돈을 버는 것, 본인의 생각을 자신이 판단할 수 있는 것, 부모와 심적으로 독립하는 것, 삶의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 성인의 마음가짐을 갖추는 것, 어느 정도의 인격적 성숙과 분별력을 기르는 것, 정신적으로 자립하는 것 등

응답자들은 ‘첫 일자리를 갖게 되는 것’(38.5%)과 ‘경제적 독립’(34.2%)을 성인으로서의 첫 출발로 가장 많이 인식하였다. 그 다음으로 ‘성인으로서 권리를 갖게 되는 것’(9.0%), ‘학교 졸업’(5.1%),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는 것’(4.5%) 순이었다. 즉, 성인됨을 주로 경제활동과 자립을 통해 실감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성은 ‘첫 일자리’(39.7%)와 ‘감정 조절’(6.5%)을, 여성은 ‘경제적 독립’(38.4%)과 ‘성인 권리’(10.4%)를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특히 여성은 경제적 자립을 성인의 핵심 징표로 보는 경향이 강한 반면, 남성은 ‘결혼’(4.6%)을 성인의 상징으로 인식한 비율이 여성(0.9%)보다 높았다.

거주지별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첫 일자리’와 ‘경제적 독립’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였다. 다만 ‘성인으로서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은 수도권(7.8%)보다 비수도권(9.9%)에서 더 높아, 비수도권 응답자들이 제도적 권리나 사회적 지위를 성인됨의 조건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뚜렷했다.

대학 진학 여부에 따라 보면, 전문대학 진학자(40.9%)와 4년제 대학 진학자(38.3%) 모두 ‘첫 일자리’를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반면 대학 미진학 집단은 ‘성인 권리’(13.3%)와 ‘경제적 독립’(29.7%)의 비율이 높아, 제도적 권리나 실질적 자립을 중심으로 성인 이행을 이해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했다.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취업자(38.5%)와 미취업자(38.4%) 모두 ‘첫 일자리’와 ‘경제적 독립’의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두 집단 간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요약하면, 응답자들은 성인으로서의 첫 출발을 주로 ‘노동시장 진입’과 ‘경제적 자립’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비수도권에서는 ‘권리 획득’의 상징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인 이행기의 의미가 단순한 경제적 독립을 넘어 사회적 시민성의 획득과도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IV-19. 일을 시작해야 하는 나이

구분		사례 수 (명)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세 이상	일을 해야 하는 연령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전체		(1,139)	5.4	12.4	18.3	1.0	0.4	62.6
성별	남성	(589)	6.6	10.2	19.2	1.4	0.5	62.1
	여성	(550)	4.2	14.7	17.3	0.5	0.2	63.1
거주지	수도권	(514)	5.6	14.0	17.7	0.4	0.6	61.7
	비수도권	(625)	5.3	11.0	18.7	1.4	0.2	63.4
대학 진학 여부	전문대학 진학	(257)	7.8	16.3	19.1	0.0	0.8	56.0
	4년제 대학 진학	(754)	3.8	10.9	19.9	1.3	0.3	63.8
	대학 미진학	(128)	10.2	13.3	7.0	0.8	0.0	68.8
현재 취업 여부	취업자	(855)	5.3	13.3	19.6	0.7	0.1	60.9
	미취업자	(284)	6.0	9.5	14.1	1.8	1.1	67.6

응답자들은 ‘일을 해야 하는 연령이 정해져 있지 않다’(62.6%)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반면, 구체적인 연령대를 제시한 응답 중에서는 ‘25~29세’(18.3%)와 ‘20~24세’(12.4%)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층이 노동시장 진입 시기를 획일적으로 인식하기 보다, 개인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보는 경향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성별에 따라 보면, 남성은 ‘25~29세’(19.2%)를, 여성은 ‘20~24세’(14.7%)를 주요 시기로 인식하였다. 특히 남성의 경우 병역 등 제도적 요인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늦은 시기를 응답한 비율이 높았던 반면, 여성은 조기 진입 인식이 다소 강하게 나타났다.

거주지별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정해진 연령이 없다’는 응답이 각각 61.7%, 63.4%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세부적으로는 수도권에서 ‘20~24세’(14.0%) 비율이 높고, 비수도권에서는 ‘25~29세’(18.7%) 비율이 더 높았다. 즉, 수도권 청년은 상대적으로 빠른 진입을, 비수도권 청년은 안정적 시점 이후의 진입을 이상적인 시기로 보는 경향이 있었다.

대학 진학 여부에 따라 보면, 전문대학 진학자의 경우 '20~24세'(16.3%)와 '25~29세'(19.1%) 응답이 모두 높게 나타나 조기 진입과 준비 기간이 혼재된 양상을 보였다. 반면, 4년제 대학 진학자는 '25~29세'(19.9%)에 집중되었으며, 대학 미진학자는 '정해진 연령이 없다'(68.8%)는 응답이 뚜렷하게 높아, 노동시장 진입 시기를 보다 유동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취업자(60.9%)와 미취업자(67.6%) 모두 '정해진 연령이 없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나, 미취업자 집단에서 그 비율이 더 높았다.

요약하면, 응답자들은 성인 이행기의 일 시작 시점을 획일적인 연령 기준보다 개인의 상황과 준비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남성과 비수도권 응답자는 다소 늦은 진입을, 여성과 수도권 응답자는 비교적 빠른 진입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노동시장 진입을 생애 전환의 고정된 시점이 아닌, '자율적 선택의 과정'으로 인식하는 성인 이행기의 변화된 현실을 반영한다.

표 IV-20. 소득 구분별 선호도 평균

구분	사례 수 (명)	근로소득 ¹⁾	금융소득 ²⁾	사업소득 ³⁾	이전소득 ⁴⁾	기타소득 ⁵⁾
전체	(1,139)	3.39	2.79	2.66	2.75	3.00
성별	남성 (589)	3.34	2.88	2.72	2.66	2.86
	여성 (550)	3.44	2.69	2.59	2.84	3.14
거주 지	수도권 (514)	3.41	2.82	2.69	2.70	3.01
	비수도권 (625)	3.37	2.76	2.64	2.70	2.98
대학 진학 여부	전문대학 진학 (257)	3.34	2.64	2.70	2.72	3.03
	4년제 대학 진학 (754)	3.42	2.84	2.65	2.78	3.00
	대학 미진학 (128)	3.30	2.78	2.69	2.61	2.94
현재 취업 여부	취업자 (855)	3.40	2.81	2.66	2.74	2.99
	미취업자 (284)	3.33	2.75	2.67	2.77	3.02

* 1: 전혀 선호하지 않는다 ~ 4: 매우 선호한다.

- 1) 근로소득(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받는 모든 소득)
- 2) 금융소득(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운용하면서 발생한 소득)
- 3) 사업소득(사업, 임대 등을 통해 얻은 소득)
- 4) 이전소득(정부, 단체나 부모, 자녀 간에 이전받은 소득)
- 5) 기타소득(상금, 당첨금, 원고료, 사례비 등 일시적으로 얻는 소득)

응답자들의 소득 형태별 선호도를 살펴보면, '근로소득'(3.39점)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기타소득'(3.00점), '금융소득'(2.79점), '이전소득'(2.75점), '사업소득'(2.66점) 순으로 나타났다. 즉, 성인 이행기 청년들은 일의 대가로 얻는 정당한 소득에 대한 선호가 가장 뚜렷하며, 투기적·수동적 성격의 소득보다는 노동 기반 소득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성별에 따라 보면, 남성(3.34점)과 여성(3.44점) 모두 '근로소득'을 가장 선호하였으나, 여성은 '이전소득'(2.84점)과 '기타소득'(3.14점)에 대한 선호가 남성보다 다소 높았다. 반면 남성은 '금융소득'(2.88점)과 '사업소득'(2.72점)의 선호가 여성보다 높아, 남성은 적극적 자산운용이나 자영적 활동을 통한 수익을, 여성은 생활 안정적·보완적 소득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거주지별로 보면, 수도권(3.41점)과 비수도권(3.37점) 모두 '근로소득' 선호가 가장 높았으며, 그 외 항목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다만 수도권에서는 '금융소득'(2.82점) 선호가, 비수도권에서는 '이전소득'(2.70점)의 선호가 약간 더 높아, 지역별 경제 환경과 기회 구조의 차이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대학 진학 여부에 따라 보면, 전문대학 진학자(3.34점)와 4년제 대학 진학자(3.42점) 모두 근로소득을 가장 선호하였으며, 대학 미진학 집단(3.30점) 역시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다만 4년제 대학 진학자의 '금융소득'(2.84점) 선호가 전문대학(2.64점)보다 높아,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자산 기반 소득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양상이 나타났다.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취업자(3.40점)와 미취업자(3.33점) 모두 '근로소득'을 가장 선호하였으나, 미취업자는 '이전소득'(2.77점)과 '기타소득'(3.02점)에 대한 선호가 다소 높았다. 이는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않은 청년층이 사회적 지원이나 일시적 수입원을 일정 부분 선호하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요약하면, 응답자들은 전반적으로 '근로를 통한 정당한 소득'을 가장 이상적인 소득 형태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성별·거주지·학력 수준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나타났으며, 이는 성인 이행기 청년이 경제적 자립을 '노동을 통한 성취'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IV-21. 선호하는 일자리 유형

(단위: %)

구분	사례 수(명)	급여가 높은 회사	직무가 적성에 맞는 회사	안정적인 회사	분위기 좋은 회사	
전체	(1,139)	21.5	21.1	19.9	16.9	
성별	남성	(589)	24.1	20.0	19.0	16.5
	여성	(550)	18.7	22.2	20.9	17.5
거주지	수도권	(514)	25.3	22.4	16.3	16.1
	비수도권	(625)	18.4	20.0	22.9	17.6
대학 진학 여부	전문대학 진학	(257)	22.2	16.3	21.8	20.2
	4년제 대학 진학	(754)	22.1	22.3	19.6	14.7
	대학 미진학	(128)	16.4	23.4	18.0	23.4
현재 취업 여부	취업자	(855)	21.8	19.8	20.0	16.7
	미취업자	(284)	20.8	25.0	19.7	17.6

(계속)

구분	발전 가능성이 높은 회사	복지 수준이 좋은 회사	퇴근이 빠른 회사	유명한 회사	기타	
전체	7.8	6.8	3.2	1.8	1.0	
성별	남성	10.2	4.9	2.9	1.4	1.0
	여성	5.3	8.9	3.5	2.2	0.9
거주지	수도권	8.8	4.1	3.9	2.5	0.6
	비수도권	7.0	9.1	2.6	1.1	1.3
대학 진학 여부	전문대학 진학	5.4	6.6	4.7	1.9	0.8
	4년제 대학 진학	8.9	7.0	2.9	1.7	0.7
	대학 미진학	6.3	6.3	1.6	1.6	3.1
현재 취업 여부	취업자	8.4	7.0	3.4	1.9	1.1
	미취업자	6.0	6.3	2.5	1.4	0.7

응답자들은 일자리 선택 시 ‘급여가 높은 회사’(21.5%)와 ‘직무가 적성에 맞는 회사’(21.1%)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안정적인 회사’(19.9%)와 ‘분위기 좋은 회사’(16.9%)가 뒤를 이었으며, ‘발전 가능성이 높은 회사’(7.8%)와 ‘복지 수준이 좋은 회사’(6.8%)의 응답도 일부 확인되었다. 전반적으로 청년층은 성인 이행기의 일자리 선택에서 ‘경제적 보상’과 ‘직무 적합성’을 핵심 요인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성별에 따라 보면, 남성은 '급여가 높은 회사'(24.1%)와 '발전 가능성이 높은 회사'(10.2%)의 응답 비율이 높아, 성취 중심의 직업 가치관이 두드러졌다. 반면 여성은 '직무가 적성에 맞는 회사'(22.2%)와 '복지 수준이 좋은 회사'(8.9%) 응답이 높아, 일과 삶의 조화 및 근무 환경의 질적 요인을 상대적으로 더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별로는 수도권 응답자들이 '급여가 높은 회사'(25.3%)와 '적성에 맞는 회사'(22.4%)를, 비수도권 응답자들은 '안정적인 회사'(22.9%)와 '복지 수준이 좋은 회사'(9.1%)를 상대적으로 더 선호했다. 즉, 수도권은 성취·경력 중심, 비수도권은 안정·지속성 중심의 일자리 선호 경향이 나타났다.

대학 진학 여부에 따라 보면, 전문대학 진학자는 '안정적인 회사'(21.8%)와 '분위기 좋은 회사'(20.2%) 비율이 높고, 4년제 대학 진학자는 '급여가 높은 회사'(22.1%)와 '직무가 적성에 맞는 회사'(22.3%) 응답이 높았다. 한편 대학 미진학 집단은 '직무 적성'(23.4%)과 '분위기 좋은 회사'(23.4%)의 비율이 동일하게 높아, 조직문화나 개인 적합성 중심의 직업 가치가 강조되는 특징을 보였다.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취업자(21.8%)와 미취업자(20.8%) 모두 '급여가 높은 회사'를 가장 선호하였으나, 미취업자는 '직무 적성'(25.0%)의 응답 비율이 높아, 현재 노동시장 진입 전 단계에서 '직무 일치' 중심의 선호 경향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졌다.

요약하면, 응답자들은 성인 이행기의 일자리 선택에서 '경제적 보상'과 '직무 적합성'을 가장 중시하였으며, 거주 지역과 성별에 따라 '성취 중심' 대 '안정 중심'으로 구분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층의 일자리 선택이 단일 요인에 기반하기보다는, 경제적 현실과 개인의 가치지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IV-22. 중소기업 취업 의사 없는 이유

구분	사례 수(명)	낮은 급여 수준	고용 불안정	개인의 발전 가능성이 없음	사회적으로 낮은 인지도	대기업보다 낮은 복지 수준	대기업보다 낮은 성취감	기타*	계	
전체	(358)	31.0	23.7	18.2	7.5	7.3	6.7	5.6	100.0	
성별	남성	(197)	33.5	24.9	19.8	4.6	3.6	7.1	6.6	100.0
	여성	(161)	28.0	22.4	16.1	11.2	11.8	6.2	4.3	100.0
거주지	수도권	(158)	38.0	17.1	17.1	10.1	3.8	7.6	6.3	100.0
	비수도권	(200)	25.5	29.0	19.0	5.5	10.0	6.0	5.0	100.0
대학 진학 여부	전문대학 진학	(59)	35.6	20.3	25.4	3.4	3.4	6.8	5.1	100.0
	4년제 대학 진학	(266)	30.8	24.8	16.2	8.6	7.5	7.1	4.9	100.0
	대학 미진학	(33)	24.2	21.2	21.2	6.1	12.1	3.0	12.1	100.0
현재 취업 여부	취업자	(279)	34.1	21.9	16.8	8.2	6.5	6.5	6.1	100.0
	미취업자	(79)	20.3	30.4	22.8	5.1	10.1	7.6	3.8	100.0

* 중소기업 취업 의사 유무: 취업의사 있음 781명 (68.6%), 취업 의사 없음 358명 (31.4%), 남성 392명(50.2%) 여성 398명 (49.8%)

* 기타: 적성에 맞지 않음, 같이 일하게 될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 6개 전부 해당, 체계적이지 못한 조직 등

응답자 중 중소기업 취업 의사가 없는 이유로는 ‘낮은 급여 수준’(31.0%)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고용 불안정’(23.7%)과 ‘개인의 발전 가능성 부족’(18.2%)이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적으로 낮은 인지도’(7.5%)와 ‘대기업보다 낮은 복지 수준’(7.3%), ‘낮은 성취감’(6.7%)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이는 청년층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임금과 고용 안정성의 문제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성별에 따라 보면, 남성은 ‘낮은 급여 수준’(33.5%)과 ‘개인의 발전 가능성 부족’(19.8%)을 주된 이유로 들었으며, 여성은 ‘낮은 급여 수준’(28.0%) 외에도 ‘복지 수준의 낮음’(11.8%)과 ‘사회적 인지도 부족’(11.2%)을 상대적으로 더 높게 응답하였다. 즉, 남성은 성장성과 직무 발전 기회를, 여성은 근로환경과 사회적 인식 요인을 더 민감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거주지별로 보면, 수도권 응답자는 ‘낮은 급여 수준’(38.0%)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으며, 비수도권 응답자는 ‘고용 불안정’(29.0%)의 비율이 높았다. 이는 수도권에서는 임금 격차에 대한 인식이, 비수도권에서는 일자리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중소기업 취업

기피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대학 진학 여부에 따라 보면, 전문대학 진학자는 ‘낮은 급여 수준’(35.6%)과 ‘개인의 발전 가능성 부족’(25.4%) 비율이 높았으며, 4년제 대학 진학자는 ‘낮은 급여 수준’(30.8%)과 ‘고용 불안정’(24.8%)을 주요 이유로 들었다. 한편, 대학 미진학 집단은 ‘복지 수준의 낮음’(12.1%)과 ‘사회적 인지도 부족’(6.1%)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아, 조직 구조나 근로환경 측면에서의 불만족이 두드러졌다.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취업자는 ‘낮은 급여 수준’(34.1%)과 ‘고용 불안정’(21.9%)을, 미취업자는 ‘고용 불안정’(30.4%)과 ‘발전 가능성 부족’(22.8%)을 주요 이유로 응답하였다. 즉, 취업자는 경제적 조건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미취업자는 경력 전망과 성장 기회 부족을 중시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요약하면, 응답자들은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로 임금 수준과 고용 안정성을 꼽았으며, 특히 수도권과 남성 집단에서는 경제적 요인, 비수도권과 여성 집단에서는 안정성과 근로환경 요인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이는 성인 이행기의 청년층이 일자리 선택에서 단순한 고용 여부보다 근로조건 질과 향후 성장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IV-23. 창업 경험 및 창업 의사 여부

구분	사례 수(명)	해본 적이 있다	생각해 보았으나 해본 적이 없다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계	
전체	(1,139)	8.6	39.1	52.3	100.0	
성별	남성	(589)	9.8	38.4	51.8	100.0
	여성	(550)	7.3	39.8	52.9	100.0
거주지	수도권	(514)	8.4	40.9	50.8	100.0
	비수도권	(625)	8.8	37.6	53.6	100.0
대학 진학 여부	전문대학 진학	(257)	11.7	40.5	47.9	100.0
	4년제 대학 진학	(754)	7.4	36.2	56.4	100.0
	대학 미진학	(128)	9.4	53.1	37.5	100.0
현재 취업 여부	취업자	(855)	9.5	40.0	50.5	100.0
	미취업자	(284)	6.0	36.3	57.7	100.0

응답자 중 ‘창업에 해본 적이 있다’는 비율은 8.6%로 나타났으며, ‘생각해 본 적은 있으나 해본 적이 없다’는 39.1%,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52.3%였다. 즉, 성인 이행기의 청년 중 다수는 창업에 대해 관심은 있으나 실제로 행동으로 옮긴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보면, 남성은 ‘창업 경험 있음’(9.8%)이 여성(7.3%)보다 높고, ‘창업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응답은 여성(52.9%)이 남성(51.8%)보다 다소 높았다. 이는 남성이 여성보다 창업 활동에 다소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을 반영한다.

거주지별로 보면, 수도권(8.4%)과 비수도권(8.8%)의 창업 경험 비율은 큰 차이가 없었다. 다만 수도권에서는 ‘생각해 본 적은 있으나 해본 적이 없다’(40.9%)가 비수도권(37.6%)보다 높아, 상대적으로 창업 의향은 높으나 실행으로 이어지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창업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53.6%)는 응답이 많아, 지역 내 창업 기회 접근성이나 인식의 차이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대학 진학 여부에 따라 보면, 전문대학 진학자의 창업 경험 비율이 11.7%로 가장 높았으며, 4년제 대학 진학자는 7.4%로 다소 낮았다. 특히 대학 미진학 집단의 경우 ‘생각해 본 적은 있으나 해본 적이 없다’(53.1%) 응답이 두드러져, 창업 의향은 높지만 실제 실행으로 이어지지 못한 경향이 나타났다.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취업자(9.5%)의 창업 경험이 미취업자(6.0%)보다 높았다. 반면, 미취업자는 ‘창업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57.7%)의 비율이 더 높아, 노동시장 참여 여부가 창업 활동의 가능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요약하면, 응답자들은 창업에 대한 관심은 비교적 높았으나, 실제 시도율은 10% 미만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특히 전문대학 진학자와 취업자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창업 경험이 나타났으며, 이는 성인 이행기 청년들이 고용 구조의 제약 속에서 대안적 경로로써 창업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IV-24. 첫 일자리 기준 인식

구분	사례 수 (명)	비율(%)	구분	사례 수(명)	비율 (%)
졸업후-12개월-주35h	(227)	19.9	졸업무관-12개월-주1h	(11)	1
졸업무관-6개월-주35h	(210)	18.4	졸업후-1일-주35h	(8)	0.7
졸업무관-12개월-주35h	(189)	16.6	졸업후-6개월-주1h	(8)	0.7
졸업후-6개월-주35h	(151)	13.3	졸업무관-1일-주35h	(7)	0.6
졸업후-24개월-주35h	(82)	7.2	졸업후-1개월-주1h	(6)	0.5
졸업무관-1개월-주35h	(65)	5.7	졸업무관-1주-주1h	(5)	0.4
졸업무관-24개월-주35h	(44)	3.9	졸업무관-24개월-주1h	(5)	0.4
졸업후-1개월-주35h	(35)	3.1	졸업후-24개월-주1h	(5)	0.4
졸업무관-6개월-주1h	(26)	2.3	졸업무관-1주-주35h	(4)	0.4
졸업무관-1개월-주1h	(20)	1.8	졸업후-1주-주35h	(2)	0.2
졸업무관-1일-주1h	(15)	1.3	졸업후-1주-주1h	(1)	0.1
졸업후-12개월-주1h	(13)	1.1	전체	1,139	100

* 학교 졸업 여부 2가지 x 근로기간 6가지 x 주당 근로시간 2가지 = 총 24가지 유형을 비율이 높은 순서로 정리함

응답자들이 인식하는 ‘첫 일자리’의 기준을 보면, ‘졸업 후 12개월 이내 주 35시간 근로’(19.9%)와 ‘졸업과 무관하게 6개월 이내 주 35시간 근로’(18.4%)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어 ‘졸업과 무관하게 12개월 이내 주 35시간 근로’(16.6%), ‘졸업 후 6개월 이내 주 35시간 근로’(13.3%) 순으로 나타났다. 즉, 다수의 응답자가 졸업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기간 내 상근 근로(주 35시간 이상)를 ‘첫 일자리’의 핵심 기준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달리, ‘졸업 후 24개월 이내 주 35시간 근로’(7.2%)나 ‘졸업과 무관하게 1개월 이내 주 35시간 근로’(5.7%)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으며, 근로시간이 주 1시간 인 단시간 근로형태(예: ‘졸업무관-12개월-주1h’, 1.0%)는 매우 낮았다. 이는 응답자들이 정규직에 준하는 근로시간과 일정한 경력기간을 갖춘 상태를 ‘첫 일자리’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전체적으로 보면, 응답자의 인식은 ‘졸업 직후 단기 근로’보다는 ‘졸업 후 일정 기간의 안정된 근무 경험’을 첫 일자의 기준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특히 ‘졸업 후 또는 졸업과 무관하게 6~12개월 이내 주 35시간 근로’를 중심으로 응답이 집중되었다.

요약하면, 응답자들은 성인 이행기의 첫 일자를 단기 근로나 시간제보다는 정규적·안

정적 근로 형태를 기반으로 한 사회진입의 출발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층이 첫 일자리의 의미를 단순한 취업 경험이 아닌, '경제적 독립과 경력 형성의 시작'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IV-25. 일자리 경험 횟수

구분		사례 수 (명)	일자리 가진 적 없음	1번	2번	3번	4번 이상	χ^2/G^2
전체		(1,139)	5.6	29.2	23.5	16.0	25.6	100.0
성별	남성	(589)	8.5	33.3	21.7	12.6	23.9	100.0
	여성	(550)	2.5	24.9	25.5	19.6		
거주지	수도권	(514)	4.3	28.2	24.7	16.9	25.9	
	비수도권	(625)	6.7	30.1	22.6	15.2		
대학 진학 여부	전문대학 진학	(257)	2.7	21.0	23.7	17.5	35.0	
	4년제 대학 진학	(754)	7.3	34.2	25.7	15.0		
	대학 미진학	(128)	1.6	16.4	10.2	18.8		
현재 취업 여부	취업자	(855)	0.0	31.0	25.6	17.3	26.1	100.0
	미취업자	(284)	22.5	23.9	17.3	12.0		

응답자들의 일자리 경험을 살펴보면, '1번'(29.2%)과 '4번 이상'(25.6%)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어 '2번'(23.5%)과 '3번'(16.0%) 순으로, 다수의 응답자가 한두 번 이상의 일자리 이동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 '일자리 경험 없음'은 5.6%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응답자가 한 차례 이상 노동시장에 진입한 경험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별에 따라 보면, 남성은 '1번'(33.3%) 비율이 높고 '일자리 경험 없음'(8.5%)의 응답도 여성(2.5%)보다 많았다. 여성은 '2번'(25.5%)과 '3번'(19.6%)의 응답이 높아, 남성보다 다양한 근로 형태를 경험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거주지별로 보면, 수도권(28.2%)과 비수도권(30.1%) 모두 '1번'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4번 이상' 경험자는 수도권(25.9%)이 비수도권보다 소폭 높았다. 반면 '일자리 경험 없음'은 비수도권(6.7%)이 수도권(4.3%)보다 높아, 수도권 청년의 노동시장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우세함을 보여준다.

대학 진학 여부에 따라 보면, 전문대학 진학자는 '4번 이상'(35.0%) 비율이 가장 높아, 상대적으로 잦은 직업 이동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4년제 대학 진학자는 '1

번’(34.2%) 응답이 가장 높아, 첫 일자리를 일정 기간 유지하는 경향이 있었다. 대학 미진학 집단은 ‘3번’(18.8%) 비율이 높고, ‘1번’(16.4%) 응답은 낮아, 불안정한 고용 환경 속에서 반복적인 일자리 전환을 경험한 것으로 해석된다.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취업자의 ‘1번’(31.0%)과 ‘4번 이상’(26.1%) 비율이 높고, 미취업자의 경우 ‘일자리 경험 없음’(22.5%)이 두드러졌다. 이는 노동시장 내 진입 경험이 현재 취업 상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요약하면, 응답자들은 대부분 한 차례 이상 일자리를 경험하였으며, 일부 집단에서는 반복적인 일자리 이동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특히 전문대학 진학자와 비수도권, 미취업자 집단에서의 이동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성인 이행기 청년층의 노동시장 경로가 안정적 정착보다는 탐색과 전환의 과정으로 구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IV-26. 첫 일자리 관련 상황 1

첫 일자리...		응답 결과 (%)						
..시작 시기	N	2010~2014년	2015~2019년	2020~2024년	2025년 이후			
전체		(1,075)	0.7	30.9	65.7	2.8		
성별	남성	(539)	0.9	29.9	65.9	3.3		
	여성	(536)	0.4	31.9	65.5	2.2		
거주지	수도권	(492)	0.6	31.7	64.8	2.8		
	비수도권	(583)	0.7	30.2	66.4	2.7		
대학 진학 여부	전문대학 진학	(250)	1.2	54.4	43.2	1.2		
	4년제 대학 진학	(699)	0.1	13.3	82.8	3.7		
	대학 미진학	(126)	2.4	81.7	15.1	0.8		
현재 취업여부	취업자	(855)	0.8	30.2	65.8	3.2		
	미취업자	(220)	0.0	33.6	65.0	1.4		
..일자리 근속년수	N	1년 미만	1년~2년 미만	2년~3년 미만	3년~4년 미만	4년 이상	평균	
전체		(1,075)	22.1	25.2	16.5	12.1	24.1	(2.63)
성별	남성	(539)	23.9	26.0	16.9	11.9	21.3	(2.55)
	여성	(536)	20.3	24.4	16.0	12.3	26.9	(2.71)
거주지	수도권	(492)	22.8	27.4	15.2	13.2	21.3	(2.52)
	비수도권	(583)	21.6	23.3	17.5	11.1	26.4	(2.72)

대학 진학 여부	전문대학 진학	(250)	22.0	23.2	11.6	13.2	30.0	(2.92)
	4년제 대학 진학	(699)	23.5	25.3	19.5	12.6	19.2	(2.35)
	대학 미진학	(126)	15.1	28.6	9.5	7.1	39.7	(3.60)
현재 취업여부	취업자	(855)	20.7	23.7	17.0	11.9	26.7	100.0
	미취업자	(220)	27.7	30.9	14.5	12.7	14.1	100.0
..종사상 지위		N	임금 근로자			비임금 근로자		
전체		(1,075)	96.5			3.5		
성별	남성	(539)	95.2			4.8		
	여성	(536)	97.8			2.2		
거주지	수도권	(492)	97.4			2.6		
	비수도권	(583)	95.7			4.3		
대학 진학 여부	전문대학 진학	(250)	96.0			4.0		
	4년제 대학 진학	(699)	97.0			3.0		
	대학 미진학	(126)	94.4			5.6		
현재 취업여부	취업자	(855)	97.2			2.8		
	미취업자	(220)	93.6			6.4		
..근로시간 유형		N	전일제			시간제		
전체		(1,075)	76.7			23.3		
성별	남성	(539)	74.4			25.6		
	여성	(536)	78.9			21.1		
거주지	수도권	(492)	76.8			23.2		
	비수도권	(583)	76.5			23.5		
대학 진학 여부	전문대학 진학	(250)	73.2			26.8		
	4년제 대학 진학	(699)	79.4			20.6		
	대학 미진학	(126)	68.3			31.7		
현재 취업여부	취업자	(855)	78.8			21.2		
	미취업자	(220)	68.2			31.8		
..직업 (계속)		N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관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단순 노무 종사자	
전체		(1,075)	37.6	18.3	15.3	8.9	4.7	
성별	남성	(539)	31.5	18.4	10.4	8.0	6.9	
	여성	(536)	43.7	18.3	20.1	9.9	2.6	
거주지	수도권	(492)	43.7	18.1	16.5	7.7	3.7	

	비수도권	(583)	32.4	18.5	14.2	9.9	5.7
대학 진학 여부	전문대학 진학	(250)	27.6	21.6	11.6	16.0	5.6
	4년제 대학 진학	(699)	45.5	17.3	17.6	5.9	3.4
	대학 미진학	(126)	13.5	17.5	9.5	11.9	10.3
현재 취업여부	취업자	(855)	39.1	17.4	15.7	9.4	3.5
	미취업자	(220)	31.8	21.8	13.6	7.3	9.5
	..직업	N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판매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군인
	전체	(1,075)	4.6	4.2	3.8	0.6	2.0
성별	남성	(539)	8.3	5.4	6.7	0.7	3.7
	여성	(536)	0.7	3.0	0.9	0.4	0.4
거주지	수도권	(492)	2.6	2.6	3.3	0.2	1.6
	비수도권	(583)	6.2	5.5	4.3	0.9	2.4
대학 진학 여부	전문대학 진학	(250)	7.2	3.6	3.2	0.4	3.2
	4년제 대학 진학	(699)	1.9	3.3	2.7	0.7	1.7
	대학 미진학	(126)	14.3	10.3	11.1	0.0	1.6
현재 취업여부	취업자	(855)	4.8	3.6	4.0	0.5	2.1
	미취업자	(220)	3.6	6.4	3.2	0.9	1.8

* 계: 영역별 계 100%

첫 일자리의 시작 시기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다수(65.7%)가 '2020~2024년' 사이에 첫 일자리를 시작했다고 응답하였다. '2015~2019년'은 30.9%, '2025년 이후'는 2.8%로 나타났으며, '2010~2014년'은 0.7%에 불과했다. 이는 조사대상 청년들이 최근 5년 내 본격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한 세대임을 보여준다.

성별로 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비슷한 시기 분포를 보였으나, 남성은 '2025년 이후'(3.3%) 응답이 여성(2.2%)보다 소폭 높았다. 거주지별로는 수도권(64.8%)과 비수도권(66.4%) 모두 '2020~2024년'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대학 진학 여부에 따라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전문대학 진학자는 '2015~2019년'(54.4%)이, 4년제 대학 진학자는 '2020~2024년'(82.8%)이, 대학 미진학자는 '2015~2019년'(81.7%)이 각각 가장 높아, 학제에 따라 노동시장 진입 시점이 다르게 형성되었음을 보여준다.

근속연수를 보면 전체 평균은 2.63년으로, '1년 미만'(22.1%)과 '1~2년 미만'(25.2%)이 가장 많았다. '4년 이상' 근속자는 24.1%로 나타나, 일부는 장기 근속을 유지하고

있었다. 특히 전문대학 진학자(평균 2.92년)와 대학 미진학자(3.60년)는 근속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었으며, 4년제 대학 진학자(2.35년)는 짧았다. 이러한 차이는 4년제 대학 졸업자의 비교적 최근 노동시장 진입 시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는 전체의 96.5%가 임금근로자이며, 비임금근로자는 3.5%에 불과했다. 여성(97.8%)이 남성(95.2%)보다 임금근로자 비율이 다소 높았고, 대학 미진학자(5.6%)와 미취업자(6.4%) 집단에서 비임금근로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근로시간 유형은 전일제가 76.7%, 시간제가 23.3%로, 다수의 응답자가 정규 근로형태에서 첫 직장 경험을 쌓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시간제 근로 비율(25.6%)이 여성(21.1%)보다 높고, 대학 미진학자(31.7%)와 미취업자(31.8%)에서도 시간제 근로 비중이 높았다.

직업 유형별로 보면,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37.6%)가 가장 많고, '관리자'(18.3%), '사무 종사자'(15.3%)가 뒤를 이었다. 반면 '서비스 종사자'(8.9%)와 '단순노무 종사자'(4.7%)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특히 여성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43.7%) 비율이 남성(31.5%)보다 높았고, 남성은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8.3%)와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6.7%) 비율이 높았다.

요약하면, 첫 일자리는 대체로 최근 5년 내 형성되었으며, 대부분 임금근로자 중심의 전일제 근무 형태로 나타났다. 대학 진학 여부에 따라 근속기간과 진입 시기가 상이했고, 성별에 따라 직종 분포에도 차이가 존재했다. 이는 청년층의 첫 일자리 경험이 학제와 성별, 지역 요인에 따라 다양하게 구조화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IV-27. 첫 일자리 관련 상황 2

첫 일자리...		응답 결과 (%)						
..직장 유형	N	민간회사/ 개인 사업체	정부 기관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공기업	법인 단체	특정 소속 없음	외국인회사	
전체	(1,075)	66.8	11.6	5.3	8.4	6.2	1.7	
성별	남성 (539)	67.5	11.5	5.0	7.2	6.7	2.0	
	여성 (536)	66.0	11.8	5.6	9.5	5.8	1.3	
거주지	수도권 (492)	71.5	7.7	4.7	7.7	6.3	2.0	
	비수도권 (583)	62.8	14.9	5.8	8.9	6.2	1.4	
대학 진학 여부	전문대학 진학 (250)	76.0	6.4	2.0	6.0	8.4	1.2	
	4년제 대학 진학 (699)	60.5	15.3	7.0	10.3	5.0	1.9	
	대학 미진학 (126)	83.3	1.6	2.4	2.4	8.7	1.6	
현재 취업 여부	취업자 (855)	65.6	12.7	5.8	8.0	6.0	1.9	
	미취업자 (220)	71.4	7.3	3.2	10.0	7.3	0.9	
..사업체 종사자 수	N	1-4인	5-9인	10-29 인	30-99인	100- 299인	300- 499인	500인 이상
전체	(1,075)	12.8	14.9	16.6	15.9	10.7	5.3	23.8
성별	남성 (539)	13.5	13.0	17.6	16.1	9.3	5.4	25.0
	여성 (536)	12.1	16.8	15.5	15.7	12.1	5.2	22.6
거주지	수도권 (492)	11.0	14.0	15.7	15.7	10.8	4.9	28.0
	비수도권 (583)	14.4	15.6	17.3	16.1	10.6	5.7	20.2
대학 진학 여부	전문대학 진학 (250)	14.8	18.4	18.0	18.0	10.4	6.0	14.4
	4년제 대학 진학 (699)	10.6	12.0	15.2	15.9	11.0	6.0	29.3
	대학 미진학 (126)	21.4	23.8	21.4	11.9	9.5	0.0	11.9
현재 취업 여부	취업자 (855)	11.7	14.0	16.3	16.5	10.4	6.0	25.1
	미취업자 (220)	17.3	18.2	17.7	13.6	11.8	2.7	18.6
..주당 근로시간	N	10시간 미만	10~19 시간	20~29 시간	30~39 시간	40~49 시간	50시간 이상	평균
전체	(1,075)	1.5	4.4	4.2	7.5	68.4	14.0	40.16
성별	남성 (539)	1.1	4.1	4.1	6.3	66.2	18.2	41.35
	여성 (536)	1.9	4.7	4.3	8.8	70.5	9.9	38.96

거주지	수도권	(492)	2.0	2.6	3.7	9.1	69.9	12.6	40.17	
	비수도권	(583)	1.0	5.8	4.6	6.2	67.1	15.3	40.15	
대학 진학 여부	전문대학 진학	(250)	2.0	2.4	4.0	8.4	64.4	18.8	41.16	
	4년제 대학 진학	(699)	1.1	4.6	4.9	7.4	70.8	11.2	39.60	
	대학 미진학	(126)	2.4	7.1	0.8	6.3	62.7	20.6	41.26	
현재 취업 여부	취업자	(855)	1.1	3.7	4.0	6.8	69.5	15.0	40.66	
	미취업자	(220)	3.2	6.8	5.0	10.5	64.1	10.5	38.19	
..월소득		N	50만 원 미만	50~ 99만 원	100~149 만 원	150~ 199만 원	200~ 249만 원	250~ 299만 원	300만 원 이상	평균
전체		(1,075)	0.7	2.7	6.4	11.1	27.5	20.8	30.8	254.33
성별	남성	(539)	0.6	2.2	5.9	9.1	25.4	19.1	37.7	267.91
	여성	(536)	0.7	3.2	6.9	13.1	29.7	22.6	23.9	240.68
거주지	수도권	(492)	0.4	2.6	5.9	11.6	25.0	19.9	34.6	263.92
	비수도권	(583)	0.9	2.7	6.9	10.6	29.7	21.6	27.6	246.24
대학 진학 여부	전문대학 진학	(250)	0.4	2.0	6.4	16.4	32.4	22.0	20.4	235.28
	4년제 대학 진학	(699)	0.9	3.0	5.7	9.2	26.5	19.6	35.2	262.17
	대학 미진학	(126)	0.0	2.4	10.3	11.1	23.8	25.4	27.0	248.65
현재 취업 여부	취업자	(855)	0.5	2.1	6.0	10.3	25.7	22.6	32.9	262.17
	미취업자	(220)	1.4	5.0	8.2	14.1	34.5	14.1	22.7	223.86

*계: 영역별 계 100%

첫 일자리의 직장 유형을 살펴보면, 응답자의 약 3분의 2인 66.8%가 ‘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에서 첫 근로를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정부기관’(11.6%), ‘법인단체’(8.4%), ‘정부투자기업·공기업’(5.3%) 순이었으며, ‘특정 소속 없음’(6.2%)과 ‘외국인 회사’(1.7%)는 비교적 낮았다. 남녀 간 차이는 크지 않으나, 여성은 ‘법인단체’(9.5%) 비율이 남성(7.2%)보다 높았고, 남성은 ‘민간회사’(67.5%)와 ‘외국계 기업’(2.0%) 비율이 다소 높았다.

거주지별로는 수도권(71.5%)이 비수도권(62.8%)보다 민간 부문 비율이 높고, 비수도권은 ‘정부기관’(14.9%) 응답이 많아 공공부문 비중이 상대적으로 컸다.

대학 진학 여부에 따라, 4년제 대학 진학자는 ‘정부기관’(15.3%)과 ‘공기업’(7.0%) 비율이 높아 공공 영역 진입 경향이 두드러졌으며, 전문대학 진학자(76.0%)와 대학 미진학자

(83.3%)는 대부분 민간 부문에 집중되어 있었다.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전체의 23.8%가 '5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에 종사하며, '10~29인'(16.6%)과 '30~99인'(15.9%) 규모의 중소기업도 비중이 높았다. 반면 '1~4인'(12.8%)과 '5~9인'(14.9%) 소규모 사업장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대기업(25.0%) 근무 비율이 여성(22.6%)보다 높았으며, 여성은 '5~9인'(16.8%) 및 '100~299인'(12.1%) 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한 비율이 높았다.

수도권에서는 대규모 기업(28.0%) 비율이 비수도권(20.2%)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대학 진학 여부별로 보면 4년제 대학 진학자의 29.3%가 500인 이상 기업에서 근무한 반면, 전문대학 진학자는 14.4%, 대학 미진학자는 11.9%에 그쳤다.

주당 근로시간은 평균 40.16시간으로, 전체의 68.4%가 '40~49시간' 근무하며, '50시간 이상' 근무도 14.0%에 달했다. 남성의 주당 근로시간(41.35시간)이 여성(38.96시간)보다 길었고, 전문대학 및 대학 미진학자는 각각 41시간을 넘어 상대적으로 장시간 근무하는 경향이 있었다. 반면 4년제 대학 진학자는 39.6시간으로 다소 짧았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평균 근로시간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첫 월소득의 평균은 254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300만 원 이상'이 30.8%, '250~299만 원'이 20.8%로 상대적으로 고소득 구간 비율이 높았다. 반면 '150만 원 미만'은 9.8% 수준이었다.

성별로 보면 남성(267.91만 원)이 여성(240.68만 원)보다 평균소득이 약 27만 원가량 높았다. 또한 수도권(263.92만 원)이 비수도권(246.24만 원)보다 약 18만 원 높아 지역별 격차가 존재했다.

대학 진학 여부별로는 4년제 대학 진학자의 평균이 262.17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전문대학(235.28만 원), 대학 미진학자(248.65만 원) 순이었다. 취업자의 경우 평균 262.17만 원으로, 미취업자(223.86만 원)보다 약 40만 원가량 높았다.

종합적으로 볼 때, 첫 일자리는 대체로 민간부문 중심이며, 다수는 전일제 형태로 주 40시간 내외의 근로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근속기간과 월소득에서는 학력과 성별, 지역에 따른 뚜렷한 차이가 존재하여, 첫 직장 진입단계에서부터 구조적 격차가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IV-28. 첫 일자리 관련 상황 3

첫 일자리...		응답 결과 (%)									
..소재지 (계속)	N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전체	(1,075)	24.2	5.1	4.4	5.2	2.1	4.8	3.0	0.4	17.5	
성별	남성	(539)	18.9	5.4	4.6	4.1	2.4	4.8	3.0	0.2	18.4
	여성	(536)	29.5	4.9	4.1	6.3	1.9	4.9	3.0	0.6	16.6
거주지	수도권	(492)	47.6	0.6	1.4	10.4	0.2	1.2	0.2	0.2	33.9
	비수도권	(583)	4.5	8.9	6.9	0.9	3.8	7.9	5.3	0.5	3.6
대학 진학 여부	전문대학 진학	(250)	25.2	4.8	3.6	5.6	1.2	2.8	2.8	0.0	23.2
	4년제 대학 진학	(699)	26.8	4.7	4.6	3.6	2.1	5.4	2.0	0.6	16.9
	대학 미진학	(126)	7.9	7.9	4.8	13.5	4.0	5.6	8.7	0.0	9.5
현재 취업여부	취업자	(855)	24.2	5.1	4.8	5.4	1.9	4.4	2.9	0.5	17.2
	미취업자	(220)	24.1	5.0	2.7	4.5	3.2	6.4	3.2	0.0	18.6
..소재지	N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해외	
전체	(1,075)	3.6	5.7	3.4	3.4	3.5	3.3	5.9	4.2	0.2	
성별	남성	(539)	3.9	6.1	4.5	3.3	2.8	3.9	8.3	5.2	0.2
	여성	(536)	3.4	5.2	2.4	3.5	4.3	2.8	3.4	3.2	0.2
거주지	수도권	(492)	0.6	1.4	0.2	0.0	0.4	0.4	0.6	0.6	0.0
	비수도권	(583)	6.2	9.3	6.2	6.3	6.2	5.8	10.3	7.2	0.3
대학 진학 여부	전문대학 진학	(250)	3.6	6.0	2.8	2.8	3.2	1.6	4.8	6.0	0.0
	4년제 대학 진학	(699)	3.7	6.0	3.1	3.3	3.6	3.7	6.2	3.4	0.3
	대학 미진학	(126)	3.2	3.2	6.3	5.6	4.0	4.8	6.3	4.8	0.0
현재 취업여부	취업자	(855)	3.7	5.7	3.2	3.3	3.4	3.3	6.3	4.4	0.2
	미취업자	(220)	3.2	5.5	4.5	4.1	4.1	3.6	4.1	3.2	0.0
요구 vs 실제 교육수준비교	N	요구 교육수준보다 낮음			요구 교육수준 같음			요구 교육수준보다 높음			
전체	(1,075)	19.5			55.8			24.7			
성별	남성	(539)	22.1			52.9			25.0		
	여성	(536)	17.0			58.8			24.3		
거주지	수도권	(492)	19.7			57.5			22.8		
	비수도권	(583)	19.4			54.4			26.2		

대학 진학 여부	전문대학 진학	(250)	20.0	57.6	22.4			
	4년제 대학 진학	(699)	18.2	55.5	26.3			
	대학 미진학	(126)	26.2	54.0	19.8			
현재 취업여부	취업자	(855)	18.8	57.9	23.3			
	미취업자	(220)	22.3	47.7	30.0			
..만족도		N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만족 한다	매우 만족한다	평균
전체		(1,075)	8.3	14.0	37.4	31.4	8.9	(3.19)
성별	남성	(539)	9.5	12.4	35.3	32.8	10.0	(3.22)
	여성	(536)	7.1	15.5	39.6	30.0	7.8	(3.16)
거주지	수도권	(492)	7.5	14.4	35.6	33.9	8.5	(3.22)
	비수도권	(583)	8.9	13.6	38.9	29.3	9.3	(3.16)
대학 진학 여부	전문대학 진학	(250)	9.6	18.0	37.6	26.4	8.4	(3.06)
	4년제 대학 진학	(699)	6.9	12.7	35.9	35.3	9.2	(3.27)
	대학 미진학	(126)	13.5	12.7	45.2	19.8	8.7	(2.98)
현재 취업여부	취업자	(855)	8.0	13.5	35.7	33.6	9.4	(3.23)
	미취업자	(220)	9.5	15.9	44.1	23.2	7.3	(3.03)

* 계: 영역별 계 100%

첫 일자리의 소재지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 중 약 4분의 1(24.2%)이 '서울'에 소재한 일자리에서 첫 근무를 시작했으며, 이어 '경기'(17.5%), '인천'(5.2%), '부산'(5.1%), '대전'(4.8%), '대구'(4.4%) 순으로 나타났다. 광주(2.1%)나 울산(3.0%) 등 기타 광역시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았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모두 포함하면 전체의 절반 이상(약 47%)이 수도권 지역에서 첫 일자리를 경험한 셈이다.

성별로 보면, 여성(29.5%)이 남성(18.9%)보다 서울 소재 일자리 비율이 뚜렷하게 높았다. 반대로 남성은 경기(18.4%) 비율이 여성(16.6%)보다 약간 높았다. 거주지별로는 수도권 거주자의 첫 일자리 역시 수도권 내(특히 서울·경기)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비수도권 거주자는 대체로 해당 권역 내 주요 도시(부산·대구·전북 등)에 분포하였다.

대학 진학 여부별로 보면, 4년제 대학 진학자는 '서울'(26.8%)과 '경기'(16.9%)에서 첫 일자리를 가진 비율이 높았으며, 전문대학 진학자는 '경기'(23.2%) 중심, 대학 미진학자는 '인천'(13.5%) 등 수도권 주변이나 지방 중소도시의 분포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졌다.

비수도권 세부 지역을 보면, '경남'(5.9%), '충북'(5.7%), '전남'(3.5%), '전북'(3.4%)

등이 주요 분포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해외 근무 경험은 극히 소수(0.2%)에 불과했다.

첫 일자리의 요구 교육수준 대비 실제 학력을 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55.8%)이 '요구 수준과 같았다'고 답했고, '요구 수준보다 낮았다'는 응답이 19.5%, '높았다'는 응답이 24.7%였다. 즉, 응답자 중 약 4분의 1은 자신의 학력 수준이 일자리 요구 수준을 상회한다고 인식한 셈이다.

남성(22.1%)은 여성(17.0%)보다 '요구 수준보다 낮음' 응답이 많았고, 반대로 여성은 '같음' 응답(58.8%)이 높았다. 대학 진학 여부별로는 4년제 대학 진학자의 '요구 수준보다 높음' 비율(26.3%)이 가장 높았고, 대학 미진학자는 '낮음'(26.2%) 비율이 두드러졌다. 미취업자 집단에서도 '요구 수준보다 높음' 응답(30.0%)이 상대적으로 많아, 과잉학력 상태가 일자리 미매칭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첫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3.19점(5점 척도)으로, 전반적으로 '보통'과 '만족' 사이의 수준을 보였다. 응답의 분포를 보면 '보통이다'(37.4%)와 '만족한다'(31.4%)가 다수를 차지했고, '매우 만족한다'는 8.9%였다. 성별 차이는 크지 않지만, 남성이 약간 높은 평균(3.22점)을 보였다.

수도권(3.22점)이 비수도권(3.16점)보다 만족도가 약간 높았고, 대학 유형별로는 4년제 대학 진학자의 만족도(3.27점)가 가장 높았다. 반면 대학 미진학자는 평균 2.98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또한 미취업자(3.03점)는 취업자(3.23점)에 비해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낮았다.

요약하면, 첫 일자리는 수도권 중심의 분포를 보이며, 특히 여성과 4년제 대학 진학자의 서울 근무 비율이 높았다. 일자리의 요구 학력과 실제 학력 간에는 일정한 미스매치가 존재하고, 이로 인한 만족도 격차가 일부 관찰된다. 이러한 결과는 첫 일자리의 질적 수준과 고용 안정성, 교육·고용 연계성 강화의 필요성을 함께 시사한다.

표 IV-29. 퇴사 및 해고 경험

구분		사례 수 (명)	스스로 그만둔 적이 있다	해고를 당한 적이 있다 (계약기간 만료 포함)	둘 다 경험한 적이 있다	둘 다 경험한 적이 없다	계 (%)
전체		(1,075)	51.6	7.2	6.3	34.9	100.0
성별	남성	(539)	50.6	6.3	5.6	37.5	100.0
	여성	(536)	52.6	8.0	7.1	32.3	
거주지	수도권	(492)	52.8	6.9	6.5	33.7	100.0
	비수도권	(583)	50.6	7.4	6.2	35.8	
대학 진학 여부	전문대학 진학	(250)	65.6	7.2	5.2	22.0	100.0
	4년제 대학 진학	(699)	44.2	7.6	5.9	42.3	
	대학 미진학	(126)	65.1	4.8	11.1	19.0	
현재 취업 여부	취업자	(855)	48.7	6.7	6.4	38.2	100.0
	미취업자	(220)	63.2	9.1	5.9	21.8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51.6%)은 ‘스스로 그만둔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해고 또는 계약만료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7.2%, ‘둘 다 경험했다’는 6.3%였다. 반면 ‘퇴사나 해고 모두 경험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34.9%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성(37.5%)이 여성(32.3%)보다 ‘퇴사·해고 경험 없음’ 응답이 다소 높았고, 여성은 ‘해고 또는 계약만료 경험’(8.0%)과 ‘둘 다 경험’(7.1%)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거주지별로는 수도권(52.8%)이 비수도권(50.6%)보다 자발적 퇴사 경험이 조금 더 많았다.

대학 진학 여부에 따라서는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전문대학 진학자(65.6%)와 대학 미진학자(65.1%)는 ‘스스로 퇴사 경험 있음’ 응답이 매우 높았던 반면, 4년제 대학 진학자는 44.2%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직업 안정성과 근속 지속성이 학력 수준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현재 취업 상태별로 보면, 미취업자(63.2%)의 퇴사 경험이 취업자(48.7%)보다 높았으며, 해고 경험(9.1%) 또한 미취업자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30. 실업급여 수령 경험 여부

구분		사례 수(명)	그렇다	아니다	계
전체		(700)	31.6	68.4	100.0
성별	남성	(337)	27.9	72.1	100.0
	여성	(363)	35.0	65.0	100.0
거주지	수도권	(326)	31.3	68.7	100.0
	비수도권	(374)	31.8	68.2	100.0
대학 진학 여부	전문대학 진학	(195)	32.3	67.7	100.0
	4년제 대학 진학	(403)	29.0	71.0	100.0
	대학 미진학	(102)	40.2	59.8	100.0
현재 취업 여부	취업자	(528)	29.7	70.3	100.0
	미취업자	(172)	37.2	62.8	100.0

전체 응답자 중 실업급여를 받은 경험이 있는 비율은 31.6%로 나타났다. 여성(35.0%) 이 남성(27.9%)보다 수급 경험이 많았으며, 대학 미진학자(40.2%) 역시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 반면 4년제 대학 진학자는 29.0%로 다소 낮았다.

표 IV-31. 실업급여 받지 못한 이유

구분		사례 수 (명)	지원 대상이 아니 어서	절차가 복잡 해서, 요구 사항이 많아서	신청 도중에 취업이 되어서	기타*	실업 급여 제도가 있는지 몰라서	받을 수 있는 실업 급여 혜택이 크지 않아서	계
전체		(479)	74.9	7.7	5.8	5.4	4.6	1.5	100.0
성별	남성	(243)	72.4	9.1	5.8	4.5	6.6	1.6	100.0
	여성	(236)	77.5	6.4	5.9	6.4	2.5	1.3	100.0
거주지	수도권	(224)	78.1	5.8	5.4	5.4	4.0	1.3	100.0
	비수도권	(255)	72.2	9.4	6.3	5.5	5.1	1.6	100.0
대학 진학 여부	전문대학 진학	(132)	81.8	6.8	3.8	2.3	5.3	0.0	100.0
	4년제 대학 진학	(286)	74.1	7.7	7.3	7.0	2.4	1.4	100.0
	대학 미진학	(61)	63.9	9.8	3.3	4.9	13.1	4.9	100.0
현재 취업 여부	취업자	(371)	72.5	7.3	7.5	6.2	5.4	1.1	100.0
	미취업자	(108)	83.3	9.3	0.0	2.8	1.9	2.8	100.0

* 기타: 퇴사 후 바로 이직함, 받을 생각도 하지 않음, 사업자 거절, 나중에 받고 싶어서 등

거주지별로는 수도권(31.3%)과 비수도권(31.8%)의 차이가 거의 없었으며, 미취업자(37.2%)가 취업자(29.7%)보다 실업급여 수령 경험이 더 많았다. 이는 최근까지 노동시장에서의 이탈이나 전직 경험이 있었던 응답자가 적지 않음을 보여준다.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이유로는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가 압도적으로 많아 전체의 74.9%를 차지하였다. '절차가 복잡하거나 요구사항이 많아서'(7.7%), '신청 도중 취업'(5.8%), '제도를 몰라서'(4.6%) 등의 이유가 뒤를 이었다.

성별로는 여성(77.5%)이 남성(72.4%)보다 '지원 대상이 아님'을 더 많이 이유로 들었으며, 남성은 '제도를 몰랐다'(6.6%)는 응답이 여성(2.5%)보다 높았다.

대학 진학 여부에 따라, 전문대학 진학자는 81.8%가 '지원 대상이 아니었다'고 응답한 반면, 대학 미진학자는 '실업급여 제도를 몰랐다'(13.1%)는 응답이 뚜렷하게 많았다.

현재 취업 여부별로 보면 미취업자의 83.3%가 '지원 대상이 아니었다'고 답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표 IV-32. 플랫폼 노동 경험 여부

	구분	사례 수(명)	예	아니오	계
	전체	(1,139)	7.2	92.8	100.0
성별	남성	(589)	9.0	91.0	100.0
	여성	(550)	5.3	94.7	100.0
거주지	수도권	(514)	7.2	92.8	100.0
	비수도권	(625)	7.2	92.8	100.0
대학 진학 여부	전문대학 진학	(257)	8.6	91.4	100.0
	4년제 대학 진학	(754)	5.7	94.3	100.0
	대학 미진학	(128)	13.3	86.7	100.0
현재 취업 여부	취업자	(855)	6.9	93.1	100.0
	미취업자	(284)	8.1	91.9	100.0

응답자의 7.2%가 '플랫폼 노동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전체 중 일부만이 배달·대리·프리랜서 플랫폼 등과 같은 형태의 비정형 노동을 경험했음을 보여준다.

성별로는 남성(9.0%)이 여성(5.3%)보다 플랫폼 노동 참여율이 높았으며, 대학 미진학자(13.3%)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는 학력 수준이 낮을수록 플랫폼 노동으로의 진입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거주지별 차이는 거의 없었으며, 현재 취업자(6.9%)와 미취업자(8.1%) 간의 격차도 크지 않았다. 다만, 전문대학 진학자(8.6%)가 4년제 대학 진학자(5.7%)보다 플랫폼 노동 경험이 조금 더 많았다.

표 IV-33. 지난 1주일간 플랫폼 노동 경험 여부

구분		사례 수(명)	그렇다	아니다	계
전체		(82)	15.9	84.1	100.0
성별	남성	(53)	17.0	83.0	100.0
	여성	(29)	13.8	86.2	100.0
거주지	수도권	(37)	16.2	83.8	100.0
	비수도권	(45)	15.6	84.4	100.0
대학 진학 여부	전문대학 진학	(22)	22.7	77.3	100.0
	4년제 대학 진학	(43)	11.6	88.4	100.0
	대학 미진학	(17)	17.6	82.4	100.0
현재 취업 여부	취업자	(59)	16.9	83.1	100.0
	미취업자	(23)	13.0	87.0	100.0

플랫폼 노동을 경험한 응답자 중 15.9%가 지난 1주일 동안 플랫폼 노동을 수행했다고 답했으며, 84.1%는 해당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즉, 전체적으로는 플랫폼 노동이 주된 경제활동 형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성별로 보면 남성(17.0%)이 여성(13.8%)보다 근소하게 플랫폼 노동 경험 비율이 높았다. 거주지별 차이는 크지 않았으며, 수도권(16.2%)과 비수도권(15.6%) 모두 비슷한 수준이었다.

대학 진학 여부에 따라서는 전문대학 진학자의 플랫폼 노동 경험 비율이 22.7%로 가장 높았다. 반면 4년제 대학 진학자는 11.6%로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대학 미진학자는 17.6%로 중간 수준을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학력 수준에 따라 노동시장 진입경로와 일자리 안정성이 다르게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현재 취업 여부별로 보면 취업자(16.9%)가 미취업자(13.0%)보다 약간 높은 플랫폼 노동 참여율을 보였다. 이는 일정 부분 취업자들이 추가적인 부수입원으로 플랫폼 노동을 병행하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요약하면, 지난 1주일간 플랫폼 노동 참여는 전체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전문대학 진학

자나 남성, 그리고 취업자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플랫폼 노동이 안정적 일자리의 대체라기보다 보조적·병행적 경제활동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IV-34. 지난 1주일간 플랫폼 노동의 주업 여부

구분		사례 수(명)	그렇다(주업임)	아니다(부업임)	계
전체		(13)	46.2	53.8	100.0
성별	남성	(9)	33.3	66.7	100.0
	여성	(4)	75.0	25.0	100.0
거주지	수도권	(6)	33.3	66.7	100.0
	비수도권	(7)	57.1	42.9	100.0
대학 진학 여부	전문대학 진학	(5)	60.0	40.0	100.0
	4년제 대학 진학	(5)	60.0	40.0	100.0
	대학 미진학	(3)	0.0	100.0	100.0
현재 취업 여부	취업자	(10)	50.0	50.0	100.0
	미취업자	(3)	33.3	66.7	100.0

플랫폼 노동을 수행한 응답자 중 약 절반(46.2%)은 이를 ‘주업’으로, 53.8%는 ‘부업’으로 응답하였다. 즉, 플랫폼 노동은 단순한 부수입 활동으로만 국한되지 않고, 일정 비율의 응답자에게는 주요 생계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었다.

성별로 보면 여성(75.0%)의 주업 응답 비율이 남성(33.3%)보다 뚜렷하게 높았다. 남성은 대체로 ‘부업’(66.7%)으로 플랫폼 노동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았고, 여성은 생계 중심의 주업 형태로 수행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거주지별로는 비수도권(57.1%)이 수도권(33.3%)보다 ‘주업’ 비율이 높아, 지역 경제 여건이나 일자리 구조 차이에 따라 플랫폼 노동의 의존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학 진학 여부별로 보면, 전문대학 진학자(60.0%)와 4년제 대학 진학자(60.0%) 모두 절반 이상이 플랫폼 노동을 주업으로 하고 있었다. 반면 대학 미진학자의 경우 모두(100.0%) ‘부업’이라고 응답하여, 해당 집단에서는 플랫폼 노동이 부수입의 성격을 지니는 경향이 강했다.

현재 취업 여부별로는 취업자(50.0%)와 미취업자(33.3%) 간 큰 차이는 없었으나, 전체적으로 플랫폼 노동이 ‘보조적 부업’의 역할을 하는 경향이 조금 더 뚜렷했다.

표 IV-35.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경험 여부

구분		사례 수(명)	예	아니오	계
전체		(1,080)	11.0	89.0	100.0
성별	남성	(544)	6.6	93.4	100.0
	여성	(536)	15.5	84.5	100.0
거주지	수도권	(496)	10.7	89.3	100.0
	비수도권	(584)	11.3	88.7	100.0
대학 진학 여부	전문대학 진학	(252)	12.3	87.7	100.0
	4년제 대학 진학	(701)	10.7	89.3	100.0
	대학 미진학	(127)	10.2	89.8	100.0
현재 취업 여부	취업자	(855)	10.9	89.1	100.0
	미취업자	(225)	11.6	88.4	100.0

응답자의 11.0%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전체적으로는 소수에 해당하지만, 특정 집단에서 피해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여성(15.5%)이 남성(6.6%)보다 약 2.5배 이상 높은 비율로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별로는 수도권(10.7%)과 비수도권(11.3%) 간의 차이는 미미하였으며, 지역에 따른 특이한 경향은 관찰되지 않았다.

대학 진학 여부별로는 전문대학 진학자의 피해 경험 비율이 12.3%로 가장 높았으며, 4년제 대학 진학자(10.7%)와 대학 미진학자(10.2%)는 비슷한 수준이었다.

현재 취업 여부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었으며, 취업자(10.9%)와 미취업자(11.6%) 모두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보면,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은 전체적으로는 낮은 수준이나, 여성과 전문대학 진학자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조직 내 관계적 스트레스나 고용형태의 차이, 직무 지위 구조 등과 관련된 맥락적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표 IV-36. 직장 내 산업안전 위험 노출 경험 여부

구분		사례 수(명)	예	아니오	계
전체		(1,080)	11.4	88.6	100.0
성별	남성	(544)	14.3	85.7	100.0
	여성	(536)	8.4	91.6	100.0
거주지	수도권	(496)	8.5	91.5	100.0
	비수도권	(584)	13.9	86.1	100.0
대학 진학 여부	전문대학 진학	(252)	9.5	90.5	100.0
	4년제 대학 진학	(701)	11.1	88.9	100.0
	대학 미진학	(127)	16.5	83.5	100.0
현재 취업 여부	취업자	(855)	11.5	88.5	100.0
	미취업자	(225)	11.1	88.9	100.0

전체 응답자의 11.4%가 '직장 내 산업안전 위험에 노출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즉, 대다수(88.6%)는 해당 경험이 없다고 답했지만, 여전히 약 10명 중 1명은 근로 환경 내 안전사고 위험 요인을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14.3%)이 여성(8.4%)보다 산업안전 위험 노출 경험이 높았다. 이는 남성이 상대적으로 물리적·현장 중심 직종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거주지별로는 비수도권(13.9%)이 수도권(8.5%)보다 위험 노출 비율이 높게 나타나, 산업 구조나 업종 분포의 지역적 차이를 반영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대학 진학 여부별로 보면, 대학 미진학자의 위험 노출 경험(16.5%)이 가장 높았고, 4년제 대학 진학자(11.1%), 전문대학 진학자(9.5%)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비교적 안전한 근로 환경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큼을 시사한다.

현재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취업자(11.5%)와 미취업자(11.1%) 간 차이가 거의 없었다.

표 IV-37. 지난주 취업 여부

구분		사례 수(명)	일을 하였음	휴가 및 일시 휴직	일을 하지 않았음	계
전체		(1,139)	71.6	3.4	24.9	100.0
성별	남성	(589)	66.9	3.2	29.9	100.0
	여성	(550)	76.7	3.6	19.6	100.0
거주지	수도권	(514)	74.9	3.1	22.0	100.0
	비수도권	(625)	69.0	3.7	27.4	100.0
대학 진학 여부	전문대학 진학	(257)	73.2	3.1	23.7	100.0
	4년제 대학 진학	(754)	71.1	3.4	25.5	100.0
	대학 미진학	(128)	71.9	3.9	24.2	100.0
현재 취업 여부	취업자	(855)	95.4	4.6	0.0	100.0
	미취업자	(284)	0.0	0.0	100.0	100.0

전체 응답자의 71.6%가 '지난주에 일을 하였다'고 답했으며, 24.9%는 '일을 하지 않았다', 3.4%는 '휴가 또는 일시적 휴직 중이었다'고 응답했다.

성별로는 여성(76.7%)이 남성(66.9%)보다 '일을 하였다'는 응답이 높았고, 반대로 남성의 '일을 하지 않았다'는 비율(29.9%)이 여성(19.6%)보다 높았다.

거주지별로는 수도권(74.9%)이 비수도권(69.0%)보다 근로 참여율이 높았으며, 대학 진학 여부에 따라서는 전문대학 진학자(73.2%)와 대학 미진학자(71.9%)가 4년제 대학 진학자(71.1%)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현재 취업 여부별 비교에서는 예상대로 취업자는 거의 모두(95.4%) 지난주에 일을 했다고 답했으며, 미취업자는 100%가 일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표 IV-38. 부업 여부 및 갯수

구분		사례 수(명)	1개	2개	3개	4개 이상	계
전체		(855)	93.7	5.6	0.5	0.2	100.0
성별	남성	(413)	93.5	5.8	0.5	0.2	100.0
	여성	(442)	93.9	5.4	0.5	0.2	100.0
거주지	수도권	(401)	93.5	5.7	0.7	0.0	100.0
	비수도권	(454)	93.8	5.5	0.2	0.4	100.0
대학 진학 여부	전문대학 진학	(196)	93.4	5.6	0.5	0.5	100.0
	4년제 대학 진학	(562)	93.6	5.7	0.5	0.2	100.0
	대학 미진학	(97)	94.8	5.2	0.0	0.0	100.0

취업자(855명) 중 대부분(93.7%)은 하나의 일자리만 가지고 있었으며, 2개 이상 부업을 병행하는 응답자는 6.3%로 소수였다.

‘2개 부업’을 가진 응답자가 5.6%로 가장 많았고, ‘3개’는 0.5%, ‘4개 이상’은 0.2%에 불과했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었으며, 남성과 여성 모두 비슷한 비율로 하나의 주업만을 유지하고 있었다.

거주지별로는 수도권(5.7%)과 비수도권(5.5%) 간 차이가 없었으며, 대학 진학 여부별 로도 큰 차이는 없었다. 전문대학 진학자(93.4%), 4년제 대학 진학자(93.6%), 대학 미진학자(94.8%) 모두 유사한 분포를 보였다.

요약하면, 전체적으로 응답자의 다수는 단일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으며, 부업을 병행하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이는 응답자 대부분이 하나의 안정적 주업 중심으로 노동활동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IV-39. [취업자] 현재 일자리 관련 상황 1

현재 일자리...		사례수 (명)	응답 결과 (%)					
			2010~2014년	2015~2019년	2020~2024년	2025년 이후		
..시작시기								
전체		(855)	0.2	6.5	70.5	22.7		
성별	남성	(413)	0.5	6.1	70.5	23.0		
	여성	(442)	0.0	7.0	70.6	22.4		
거주지	수도권	(401)	0.0	6.7	71.3	21.9		
	비수도권	(454)	0.4	6.4	69.8	23.3		
대학 진학 여부	전문대학 진학	(196)	0.0	11.2	63.8	25.0		
	4년제 대학 진학	(562)	0.0	2.8	75.4	21.7		
	대학 미진학	(97)	2.1	18.6	55.7	23.7		
..일자리 근속년수		N	1년 미만	1년~2년 미만	2년~3년 미만	3년~4년 미만	4년 이상	평균
전체		(855)	29.1	20.4	18.4	12.9	19.3	(2.44)
성별	남성	(413)	28.1	24.9	18.2	11.9	16.9	(2.38)
	여성	(442)	30.1	16.1	18.6	13.8	21.5	(2.50)
거주지	수도권	(401)	29.9	20.0	17.5	14.0	18.7	(2.42)
	비수도권	(454)	28.4	20.7	19.2	11.9	19.8	(2.47)
대학 진학 여부	전문대학 진학	(196)	32.7	17.3	13.3	12.8	24.0	(2.58)
	4년제 대학 진학	(562)	28.1	21.5	20.5	13.9	16.0	(2.26)
	대학 미진학	(97)	27.8	19.6	16.5	7.2	28.9	(3.24)

..종사상 지위		N	임금 근로자		비임금 근로자	
전체		(855)	94.7		5.3	
성별	남성	(413)	93.9		6.1	
	여성	(442)	95.5		4.5	
거주지	수도권	(401)	95.3		4.7	
	비수도권	(454)	94.3		5.7	
대학 진학 여부	전문대학 진학	(196)	92.9		7.1	
	4년제 대학 진학	(562)	95.4		4.6	
	대학 미진학	(97)	94.8		5.2	

..근로시간 유형		N	전일제		시간제	
전체		(855)	81.4		18.6	
성별	남성	(413)	78.9		21.1	
	여성	(442)	83.7		16.3	
거주지	수도권	(401)	83.0		17.0	
	비수도권	(454)	80.0		20.0	
대학 진학 여부	전문대학 진학	(196)	76.0		24.0	
	4년제 대학 진학	(562)	85.1		14.9	
	대학 미진학	(97)	71.1		28.9	

..직업 (계속)		N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관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장차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전체		(855)	39.5	18.1	16.4	9.0	4.4
성별	남성	(413)	32.9	18.2	11.4	9.2	9.0
	여성	(442)	45.7	18.1	21.0	8.8	0.2
거주지	수도권	(401)	46.4	16.5	17.0	7.5	
	비수도권	(454)	33.5	19.6	15.9	10.4	
대학 진학 여부	전문대학 진학	(196)	29.1	18.9	11.2	16.8	
	4년제 대학 진학	(562)	46.8	18.3	19.2	5.2	
	대학 미진학	(97)	18.6	15.5	10.3	15.5	

..직업		N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단순 노무 종사자	판매 종사자	군인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전체		(855)	4.1	3.3	3.0	1.8	0.4
성별	남성	(413)	7.5	5.1	3.4	2.9	0.5
	여성	(442)	0.9	1.6	2.7	0.7	0.2
거주지	수도권	(401)	2.5	3.5	2.7	1.2	0.0
	비수도권	(454)	5.5	3.1	3.3	2.2	0.7
대학 진학 여부	전문대학 진학	(196)	4.6	4.6	4.1	2.6	0.0
	4년제 대학 진학	(562)	2.5	2.1	2.0	1.6	0.5
	대학 미진학	(97)	12.4	7.2	7.2	1.0	0.0

*계: 모두 100%

현재 취업자의 일자리 특성을 살펴보면, 일자리 시작 시점은 '2020~2024년'이 70.5%로 가장 많고, 이어서 '2025년 이후'가 22.7%로 나타났다. 즉, 응답자의 다수가 최근 5년 내에 현 직장에 입사한 것으로, 비교적 근속 기간이 짧은 경향을 보인다.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 모두 비슷한 분포를 보였으며, 여성의 2020~2024년 입사 비율(70.6%)이 남성(70.5%)과 거의 동일하였다. 거주지별로는 수도권(71.3%)이 비수도권(69.8%)보다 약간 높아, 수도권에서의 직장 이동이 다소 활발함을 시사한다.

대학 진학 여부별로는 4년제 대학 진학자의 75.4%가 2020년 이후 입사한 반면, 전문대학 진학자는 63.8%, 대학 미진학자는 55.7%로 나타났다. 이는 학력이 높을수록 최근에 진입한 안정적 직장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의미할 수 있다.

근속년수를 보면, 전체적으로 '1년 미만'이 29.1%, '1~2년 미만'이 20.4%로 단기 근속자가 절반가량을 차지하였다. 평균 근속기간은 약 2.4년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다소 길게 근속하는 경향을 보였다(여 2.50년, 남 2.38년).

대학 미진학자의 평균 근속년수(3.24년)가 가장 길었으며, 이는 해당 집단이 상대적으로 조기 취업 후 동일 직장에 오래 근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는 임금근로자가 94.7%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이는 응답자의 일자리가 주로 고용관계 기반의 구조임을 보여준다. 남성(93.9%)보다 여성(95.5%)의 임금근로자 비율이 다소 높았으며, 대학 진학 여부에 따른 차이는 미미하였다.

근로시간 유형을 보면, 전일제 근로자가 81.4%, 시간제 근로자가 18.6%였다. 남성(78.9%)보다 여성(83.7%)이 전일제 근로 비율이 높았으나, 대학 미진학자는 71.1%로 상대적으로 시간제 근로가 많았다.

직업유형별로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39.5%)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관리자'(18.1%), '사무 종사자'(16.4%), '서비스 종사자'(9.0%) 순이었다. 남성은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9.0%) 비율이 높았고, 여성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45.7%) 비율이 두드러졌다.

거주지별로는 수도권에서 전문직 비율이 46.4%로 비수도권(33.5%)보다 높았으며, 4년제 대학 진학자의 전문직 비율(46.8%) 또한 두드러졌다. 반면 대학 미진학자는 '서비스'와 '단순노무' 중심의 직업 구조가 확인되었다.

기능직·단순노무직 비율은 전체의 7% 미만으로 낮았으며, '군인'(1.8%)과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0.4%)는 극히 소수였다. 이는 응답자 집단이 전반적으로 사무·전문직 중심의

고용 구조에 속해 있음을 시사한다.

요약하면, 현직 취업자의 다수는 최근 입사한 임금근로자로서, 비교적 짧은 근속기간과 전일제 근무 형태를 보였다. 특히 4년제 대학 진학자와 수도권 근로자의 경우 전문직 종사 비율이 높아, 학력과 지역이 직업유형의 수준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V-40. [취업자] 현재 일자리 관련 상황 2

현재 일자리...	응답 결과 (%)							
	N	민간회사/ 개인 사업체	정부 기관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공기업	법인 단체	특정 소속 없음	외국인회사	
전체	(855)	66.8	12.6	5.5	8.7	4.6	1.9	
남성	(413)	70.5	11.1	3.9	7.3	4.6	2.7	
여성	(442)	63.3	14.0	7.0	10.0	4.5	1.1	
수도권	(401)	71.6	7.5	4.7	8.5	5.0	2.7	
비수도권	(454)	62.6	17.2	6.2	8.8	4.2	1.1	
전문대학 진학	(196)	79.1	7.1	1.5	3.6	7.7	1.0	
4년제 대학 진학	(562)	59.4	16.5	7.5	11.0	3.4	2.1	
대학 미진학	(97)	84.5	1.0	2.1	5.2	5.2	2.1	
..사업체 종사자 수	N	1-4인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인 이상
전체	(855)	12.7	13.0	15.6	15.6	10.3	6.2	26.7
남성	(413)	11.9	12.8	15.0	14.0	9.7	6.5	30.0
여성	(442)	13.6	13.1	16.1	17.0	10.9	5.9	23.5
수도권	(401)	12.2	12.5	13.0	14.5	9.0	6.5	32.4
비수도권	(454)	13.2	13.4	17.8	16.5	11.5	5.9	21.6
전문대학 진학	(196)	16.8	19.4	17.3	14.3	10.2	6.1	15.8
4년제 대학 진학	(562)	10.5	9.6	14.2	16.4	10.7	6.8	31.9
대학 미진학	(97)	17.5	19.6	19.6	13.4	8.2	3.1	18.6
..주당 근로시간	N	10시간 미만	10~19 시간	20~29 시간	30~39 시간	40~49 시간	50시간 이상	평균
전체	(855)	0.5	2.7	4.3	8.4	69.0	15.1	(40.92)
남성	(413)	0.2	3.1	3.1	6.5	66.3	20.6	(42.09)

여성	(442)	0.7	2.3	5.4	10.2	71.5	10.0	(39.83)	
수도권	(401)	0.7	2.5	4.5	8.5	69.6	14.2	(40.64)	
비수도권	(454)	0.2	2.9	4.2	8.4	68.5	15.9	(41.17)	
전문대학 진학	(196)	1.0	3.1	6.1	9.7	61.7	18.4	(40.44)	
4년제 대학 진학	(562)	0.4	2.5	4.4	7.8	71.9	13.0	(40.77)	
대학 미진학	(97)	0.0	3.1	0.0	9.3	67.0	20.6	(42.74)	
..월소득	N	50만 원 미만	50~99만원	100~149만 원	150~199만 원	200~249만원	250~299만 원	300만 원 이상	평균
전체	(855)	0.8	1.8	3.5	4.1	20.9	26.1	42.8	(309.92)
남성	(413)	1.0	1.7	3.6	3.1	17.2	22.8	50.6	(313.76)
여성	(442)	0.7	1.8	3.4	5.0	24.4	29.2	35.5	(306.33)
수도권	(401)	0.5	1.7	1.5	3.2	18.2	23.9	50.9	(343.19)
비수도권	(454)	1.1	1.8	5.3	4.8	23.3	28.0	35.7	(280.53)
전문대학 진학	(196)	0.0	2.6	3.1	6.1	23.0	26.0	39.3	(330.20)
4년제 대학 진학	(562)	1.2	1.8	3.9	3.7	19.9	24.7	44.7	(305.07)
대학 미진학	(97)	0.0	0.0	2.1	2.1	22.7	34.0	39.2	(297.05)

* 계: 영역별 계 100%

현재 취업자의 일자리 유형을 보면, ‘민간회사·개인사업체’가 66.8%로 가장 많았으며, ‘정부기관’(12.6%), ‘정부투자기관·공기업’(5.5%), ‘법인단체’(8.7%)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업자의 약 3분의 2가 민간 부문에 종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성별로는 남성(70.5%)이 여성(63.3%)보다 민간 부문 종사 비율이 높고, 여성은 ‘정부기관’(14.0%)과 ‘공기업’(10.0%)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거주지별로는 수도권의 민간회사 종사 비율이 71.6%로 비수도권(62.6%)보다 높았으며, 비수도권은 ‘정부기관’ 종사 비율(17.2%)이 두드러졌다.

대학 진학 여부별로는 전문대학 진학자의 민간회사 비율(79.1%)이 가장 높았으며, 4년제 대학 진학자는 공공기관 및 공기업(18.5%) 종사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5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가 26.7%로 가장 많았고, ‘10~99인 규모’ 사업체가 31.2%(10~29인 15.6%, 30~99인 15.6%)를 차지하였다.

수도권의 대규모 사업체(500인 이상) 비율은 32.4%로, 비수도권(21.6%)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 전문대학 진학자나 대학 미진학자는 ‘중소규모(1~29인)’ 사업체 종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주당 근로시간은 '40~49시간'이 69.0%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평균 근로시간은 약 40.9시간이었다. 남성(42.1시간)이 여성(39.8시간)보다 근로시간이 길었으며, '50시간 이상 근로' 비율 역시 남성이 20.6%로 여성(10.0%)보다 두 배 수준이었다.

대학 미진학자의 근로시간 평균(42.7시간)이 가장 길었으며, 전문대학 진학자(40.4시간), 4년제 대학 진학자(40.8시간)가 그 뒤를 이었다.

월소득을 보면, 전체 평균은 약 310만 원이며, '300만 원 이상'이 42.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남성의 평균 월소득(313.8만 원)이 여성(306.3만 원)보다 약간 높았으며, 남성의 '300만 원 이상' 비율(50.6%)은 여성(35.5%)보다 뚜렷하게 높았다.

수도권의 평균 소득(343.2만 원)은 비수도권(280.5만 원)보다 월 60만 원 이상 높게 나타나 지역 간 소득 격차가 확인되었다.

전문대학 진학자의 평균 소득(330.2만 원)이 가장 높았고, 4년제 대학 진학자(305.1만 원), 대학 미진학자(297.1만 원)가 뒤를 이었다.

요약하면, 취업자의 대부분은 민간회사에 근무하며, 주당 40시간 내외의 전일제 근로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수도권과 고학력 집단일수록 대규모 사업체 및 공공기관 종사 비율이 높고, 소득 수준 또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학력·지역·성별이 고용 구조와 소득 수준에 모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IV-41. [취업자] 현재 일자리 관련 상황 3

현재 일자리... ..소재지 (계속)	사려수(명) N	응답 결과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전체	(855)	26.0	5.0	4.2	4.6	2.0	3.5	2.9	0.8	17.5	
남성	(413)	19.6	4.1	4.4	3.9	2.2	3.9	2.4	0.2	20.3	
여성	(442)	31.9	5.9	4.1	5.2	1.8	3.2	3.4	1.4	14.9	
수도권	(401)	52.4	0.2	0.2	9.2	0.0	0.5	0.0	0.0	34.9	
비수도권	(454)	2.6	9.3	7.7	0.4	3.7	6.2	5.5	1.5	2.2	
전문대학 진학	(196)	24.0	5.6	4.6	5.6	1.0	1.5	3.1	0.5	25.5	
4년제 대학 진학	(562)	29.0	4.3	4.1	3.6	2.0	3.7	2.0	1.1	16.0	
대학 미진학	(97)	12.4	8.2	4.1	8.2	4.1	6.2	8.2	0.0	10.3	

..소재지	N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해외
전체	(855)	4.3	5.7	3.4	3.0	3.5	3.0	5.8	4.3	0.2
남성	(413)	5.3	5.1	3.9	3.4	2.7	3.4	9.2	5.6	0.5
여성	(442)	3.4	6.3	2.9	2.7	4.3	2.7	2.7	3.2	0.0
수도권	(401)	0.5	0.5	0.5	0.0	0.5	0.0	0.5	0.0	0.0
비수도권	(454)	7.7	10.4	5.9	5.7	6.2	5.7	10.6	8.1	0.4
전문대학 진학	(196)	3.1	5.6	4.1	2.0	5.1	1.5	2.6	4.6	0.0
4년제 대학 진학	(562)	4.8	6.0	2.8	3.2	2.8	3.4	6.8	4.1	0.4
대학 미진학	(97)	4.1	4.1	5.2	4.1	4.1	4.1	7.2	5.2	0.0
교육수준 비교 (요구 vs 실제)	N	요구 교육수준보다 낮음		요구 교육수준 같음		요구 교육수준보다 높음				
전체	(855)	16.8		61.6		21.5				
남성	(413)	18.2		58.8		23.0				
여성	(442)	15.6		64.3		20.1				
수도권	(401)	17.7		61.3		20.9				
비수도권	(454)	16.1		61.9		22.0				
전문대학 진학	(196)	16.3		61.7		21.9				
4년제 대학 진학	(562)	16.2		62.8		21.0				
대학 미진학	(97)	21.6		54.6		23.7				
..만족도	N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평균			
전체	(855)	2.3	11.0	34.7	41.5	10.4	(3.47)			
남성	(413)	2.9	9.9	35.1	40.4	11.6	(3.48)			
여성	(442)	1.8	12.0	34.4	42.5	9.3	(3.45)			
수도권	(401)	1.5	11.2	33.2	43.4	10.7	(3.51)			
비수도권	(454)	3.1	10.8	36.1	39.9	10.1	(3.43)			
전문대학 진학	(196)	1.0	11.7	35.7	40.3	11.2	(3.49)			
4년제 대학 진학	(562)	2.8	10.9	32.6	44.5	9.3	(3.46)			
대학 미진학	(97)	2.1	10.3	45.4	26.8	15.5	(3.43)			
..스트레스 주요 원인 (계속)	N	낮은 연봉/ 보상	과도한 업무량/야근	상사 및 동료와 갈등/인간관계	성과 압박	상사·고객· 거래처 갑질				
전체	(855)	27.3	16.6	15.6	11.0	8.0				
남성	(413)	26.2	15.3	15.0	13.3	5.3				

여성	(442)	28.3	17.9	16.1	8.8	10.4
수도권	(401)	26.9	16.2	16.7	11.0	7.0
비수도권	(454)	27.5	17.0	14.5	11.0	8.8
전문대학 진학	(196)	27.6	15.3	18.4	10.2	8.2
4년제 대학 진학	(562)	27.6	17.8	14.4	11.9	7.7
대학 미진학	(97)	24.7	12.4	16.5	7.2	9.3
..스트레스 주요 원인	N	지금 마련 및 재정 관리	인력 채용 및 관리	직장 내 괴롭힘	기타	-
전체	(855)	6.7	5.3	0.2	9.5	-
남성	(413)	8.2	7.3	0.2	9.2	-
여성	(442)	5.2	3.4	0.2	9.7	-
수도권	(401)	7.0	5.2	0.2	9.7	
비수도권	(454)	6.4	5.3	0.2	9.3	
전문대학 진학	(196)	5.6	5.1	0.5	9.2	
4년제 대학 진학	(562)	6.4	4.8	0.2	9.3	
대학 미진학	(97)	10.3	8.2	0.0	11.3	

*계: 모두 100%

현재 취업자의 일자리 소재지는 '서울'(26.0%)과 '경기'(17.5%)가 가장 높아 수도권 집중 현상이 뚜렷하다. 수도권 근무 비율을 합치면 43% 이상으로, 응답자의 상당수가 수도권 내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의 서울 근무 비율(31.9%)이 남성(19.6%)보다 높았고, 남성은 '경기'(20.3%) 지역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비수도권에서는 '부산'(9.3%)과 '대구'(7.7%)가 주요 근무지로 나타났다.

대학 진학 여부에 따라서는 4년제 대학 진학자의 서울 근무 비율(29.0%)이 가장 높았으며, 대학 미진학자의 경우 '부산'(8.2%)과 '광주·울산·경남권'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지역 산업 기반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추가 지역 분포를 보면, '강원'(4.3%), '충북'(5.7%), '경남'(5.8%) 순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거주자의 근무지는 대부분 수도권 내에 집중된 반면, 비수도권 응답자는 다양한 지역에 분포하였다.

응답자의 61.6%가 현재 일자리에서 '요구된 교육수준과 실제 수준이 같다'고 답했으며,

‘요구 수준보다 높다’는 응답은 21.5%, ‘요구 수준보다 낮다’는 16.8%였다.

남성이 ‘요구보다 높다’는 비율(23.0%)이 여성(20.1%)보다 다소 높았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차이는 크지 않았다. 대학 미진학자의 경우 ‘요구 수준보다 낮음’(21.6%)이 상대적으로 많아, 해당 집단이 학력 요건이 높은 직무에 진입한 경우가 제한적임을 보여준다.

현재 일자리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편으로, ‘만족한다’(41.5%)와 ‘매우 만족한다’(10.4%)를 합한 긍정 응답이 절반 이상이었다. 평균 만족도는 3.47점으로, 남성(3.48)과 여성(3.45) 간 차이는 거의 없었다.

수도권(3.51)이 비수도권(3.43)보다 만족도가 다소 높았으며, 전문대학 진학자(3.49)와 4년제 대학 진학자(3.46)는 유사한 수준이었다. 반면 대학 미진학자는 ‘보통’(45.4%) 비율이 가장 높고 ‘만족한다’(26.8%)가 낮아 상대적으로 직무 만족도가 낮은 경향을 보였다.

현재 일자리 스트레스 주요 원인은 ‘낮은 연봉·보상’(27.3%)이 가장 많았으며, ‘과도한 업무량·야근’(16.6%), ‘인간관계 갈등’(15.6%), ‘성과 압박’(11.0%)이 뒤를 이었다.

성별 비교에서 여성은 ‘상사·고객·거래처의 갑질’(10.4%) 비율이 남성(5.3%)보다 높아, 관계적 스트레스 요인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비수도권은 ‘업무량·야근’(17.0%)이, 수도권은 ‘인간관계 갈등’(16.7%)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보조 스트레스 요인을 보면 ‘지금 마련 및 재정 관리’(6.7%), ‘인력 채용 및 관리’(5.3%)도 일부 응답자에게 부담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직장 내 괴롭힘’을 직접 언급한 비율은 매우 낮았다(0.2%).

요약하면, 현재 취업자의 일자리는 수도권 집중이 뚜렷하며, 교육수준과 직무 요구 간의 불일치는 비교적 낮은 편이었다. 전반적 직무 만족도는 긍정적인 수준이지만, 보상 및 업무량 문제는 여전히 주요 스트레스 요인으로 나타나 향후 근로환경 개선의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

표 IV-42. [취업자] 구직활동별 경험 비율

구분	사례 수 (명)	고용주에 직접 연락 (방문)하여 면접	정부 취업 /창업지원 기관에 연락(방문)	민간 취업 /창업지원 기관에 연락(방문)	친구, 선배 친척에 연락	기업정보 제공 기관 통해 기업정보 확인	
전체	(855)	49.8	17.2	14.3	21.3	6.2	
성별	남성	(413)	46.7	18.9	15.7	25.7	4.4
	여성	(442)	52.7	15.6	12.9	17.2	7.8
거주지	수도권	(401)	51.9	12.0	13.2	20.7	5.3
	비수도권	(454)	48.0	21.8	15.2	21.8	7.0
대학 진학 여부	전문대학 진학	(196)	55.1	12.8	14.8	14.8	3.4
	4년제 대학 진학	(562)	47.5	18.9	13.2	22.4	7.5
	대학 미진학	(97)	52.6	16.5	19.6	27.8	4.8

(계속)

구분	사례 수 (명)	정부 취업지원 기관에 연락(방문)	대학교 또는 대학교 취업지원 기관 연락(방문)	직업훈련 프로그램 과정 참여	민간 취업지원 기관 연락(방문)	구직 광고	
전체	(855)	4.1	3.7	2.0	1.3	1.2	
성별	남성	(413)	5.0	3.6	1.9	1.4	1.7
	여성	(442)	3.3	3.8	2.0	1.3	0.8
거주지	수도권	(401)	2.8	3.9	1.7	1.1	1.1
	비수도권	(454)	5.3	3.5	2.3	1.5	1.3
대학 진학 여부	전문대학 진학	(196)	4.5	5.1	1.7	1.7	2.8
	4년제 대학 진학	(562)	4.2	3.8	1.6	1.0	0.6
	대학 미진학	(97)	2.4	0.0	4.8	2.4	1.2

* 다음의 구직활동을 하였음 “예” 응답자 비율

취업자의 구직활동 경험을 보면, ‘고용주에 직접 연락(방문)하여 면접 본 경험’이 49.8%로 가장 높았다. 즉, 절반가량의 응답자가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일자리를 탐색한 경험이 있었다. 그다음으로 ‘친구·선배·친척 등 개인 네트워크를 통한 구직’이 21.3%, ‘정부 취업·창업지원기관 방문’이 17.2%, ‘민간 취업·창업지원기관 이용’이 14.3%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정보 제공기관을 통해 기업정보를 확인한 경험’은 6.2%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친구·선배·친척을 통한 구직’(25.7%)이 여성(17.2%)보다 높고, 여성은 ‘고용주 직접 방문’(52.7%)과 ‘기업정보 제공기관 이용’(7.8%) 비율이 높았다.

거주지별로는 비수도권에서 '정부 취업지원기관 이용'(21.8%)이 수도권(12.0%)보다 두드러졌으며, 수도권은 '고용주 직접 방문'(51.9%) 비율이 높았다.

대학 진학 여부별로는 전문대학 진학자의 '고용주 직접 방문'(55.1%)이 가장 높고, 4년제 대학 진학자는 '친구·선배·친척 활용'(22.4%)이 많았다. 대학 미진학자는 '민간기관 이용'(19.6%) 및 '비공식 네트워크 의존'(27.8%)이 비교적 높았다.

추가 구직활동 항목을 보면, '정부 취업지원기관 연락(방문)'이 4.1%, '대학교 취업지원기관 이용'이 3.7%,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는 2.0%로 나타났다. '민간 취업지원기관 방문'(1.3%)과 '구직 광고를 통한 응시'(1.2%)는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성별 비교에서 남성은 정부 취업지원기관 이용(5.0%)이 여성(3.3%)보다 높았으며, 여성은 대학교 취업지원기관 이용(3.8%) 비율이 근소하게 높았고, 거주지별로는 비수도권의 정부 취업지원기관 이용(5.3%)이 수도권(2.8%)보다 활발했다.

대학 진학 여부별로는 전문대학 진학자가 '대학교 취업지원기관 이용'(5.1%)과 '구직 광고 활용'(2.8%)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을 보였다.

요약하면, 청년 취업자들의 구직경로는 여전히 비공식적 네트워크와 직접 접촉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공·민간 취업지원체계의 활용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특히 비수도권과 전문대학 졸업자의 경우 정부기관을 통한 구직 경험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전체적으로 제도적 경로의 활용률은 낮아 청년층 맞춤형 취업지원 인프라 접근성 강화의 필요성이 시사된다.

표 IV-43. [취업자] 현재 직장에서의 설치 여부

		사례 수(명)	있다	없다	모른다	계 (%)
노동조합	전체	(855)	30.3	37.0	32.7	100.0
	남성	(413)	28.8	38.0	33.2	100.0
	여성	(442)	31.7	36.0	32.4	100.0
	수도권	(401)	30.4	37.2	32.4	100.0
	비수도권	(454)	30.2	36.8	33.0	100.0
	전문대학 진학	(196)	20.9	36.2	42.9	100.0
	4년제 대학 진학	(562)	36.3	36.8	26.9	100.0
대학 미진학	(97)	14.4	39.2	46.4	100.0	
노사협의회	전체	(596)	3.4	46.1	50.5	100.0
	남성	(294)	3.7	47.3	49.0	100.0
	여성	(302)	3.0	45.0	52.0	100.0
	수도권	(279)	3.9	45.5	50.5	100.0
	비수도권	(317)	2.8	46.7	50.5	100.0
	전문대학 진학	(155)	1.3	40.6	58.1	100.0
	4년제 대학 진학	(358)	4.7	49.7	45.5	100.0
대학 미진학	(83)	1.2	41.0	57.8	100.0	
업무 관련 제안제도	전체	(855)	25.4	29.6	45.0	100.0
	남성	(413)	26.6	29.8	43.6	100.0
	여성	(442)	24.2	29.4	46.4	100.0
	수도권	(401)	27.2	28.4	44.4	100.0
	비수도권	(454)	23.8	30.6	45.6	100.0
	전문대학 진학	(196)	19.4	30.1	50.5	100.0
	4년제 대학 진학	(562)	28.8	29.7	41.5	100.0
대학 미진학	(97)	17.5	27.8	54.6	100.0	
조직적응 프로그램	전체	(855)	28.8	29.5	41.8	100.0
	남성	(413)	30.0	28.6	41.4	100.0
	여성	(442)	27.6	30.3	42.1	100.0
	수도권	(401)	31.4	29.4	39.2	100.0
	비수도권	(454)	26.4	29.5	44.1	100.0
	전문대학 진학	(196)	17.9	30.6	51.5	100.0
	4년제 대학 진학	(562)	34.2	29.2	36.7	100.0
대학 미진학	(97)	19.6	28.9	51.5	100.0	

현재 취업자의 직장 내 제도적 환경을 살펴보면, 노동조합이 설치되어 있는 직장은 전체의 30.3%로 나타났으며, '없다'가 37.0%, '모른다'가 32.7%로 분포하였다. 즉, 응답자의 약 3분의 1만이 노동조합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근로자 대표조직의 제도적 기반이 비교적 약한 편으로 보인다.

성별로는 여성(31.7%)이 남성(28.8%)보다 노동조합 설치 여부를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간 높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차이는 크지 않았다.

대학 진학 여부별로는 4년제 대학 진학자의 인지율이 36.3%로 가장 높았으며, 전문대학 진학자(20.9%)나 대학 미진학자(14.4%)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조직 규모나 고용 형태의 차이에 따른 영향일 가능성이 있다.

노사협의회의 설치 여부를 보면, '있다'는 응답이 3.4%에 불과하며, 절반 이상이 '모른다'(50.5%)고 답하였다. 이는 중소기업 중심의 고용 구조 속에서 공식적 협의기구가 거의 작동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특히 4년제 대학 진학자의 노사협의회 인지율(4.7%)이 가장 높고, 전문대학 진학자(1.3%)와 대학 미진학자(1.2%)는 낮았다.

업무 관련 제안제도는 전체의 25.4%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45.0%는 '모른다'고 답해 제도 활용이 낮은 수준이었다.

수도권(27.2%)이 비수도권(23.8%)보다 약간 높았고, 4년제 대학 진학자(28.8%)가 전문대학 진학자(19.4%)보다 제도 존재를 더 인지하고 있었다.

조직적응 프로그램(예: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 멘토링 등)은 전체의 28.8%만이 '있다'고 답했으며, 절반에 가까운 41.8%가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4년제 대학 진학자의 응답률이 34.2%로 가장 높았고, 전문대학 진학자(17.9%)와 대학 미진학자(19.6%)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수도권 근무자의 프로그램 인지율(31.4%)이 비수도권(26.4%)보다 높았다.

요약하면, 취업자의 직장 내 제도적 기반은 전반적으로 미흡한 수준이다. 노동조합이나 노사협의회 설치 비율이 낮고, 조직 내 참여제도(제안제도·적응 프로그램) 역시 절반 이상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중·소규모 민간사업체 중심의 고용 구조에서 제도적 참여 기회가 제한된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IV-44. [취업자] 현재 노동조합 가입 여부

구분		사례 수(명)	가입했다	가입하지 않았다	계
전체		(855)	15.6	84.4	100.0
성별	남성	(413)	14.0	86.0	100.0
	여성	(442)	17.0	83.0	100.0
거주지	수도권	(401)	13.7	86.3	100.0
	비수도권	(454)	17.2	82.8	100.0
대학 진학 여부	전문대학 진학	(196)	12.8	87.2	100.0
	4년제 대학 진학	(562)	17.3	82.7	100.0
	대학 미진학	(97)	11.3	88.7	100.0

현재 취업자의 노동조합 가입률은 15.6%로 나타났다. 즉, 응답자 10명 중 1~2명 정도만이 노동조합에 가입해 있으며, 대부분(84.4%)은 미가입 상태였다.

성별로는 여성(17.0%)의 가입률이 남성(14.0%)보다 다소 높았으며, 거주지별로는 비수도권(17.2%)이 수도권(13.7%)보다 노동조합 가입 비율이 높았다. 이는 비수도권의 일부 공공기관 및 대기업 계열 사업장의 비중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대학 진학 수준별로는 4년제 대학 진학자의 노동조합 가입률이 17.3%로 가장 높았고, 전문대학 진학자(12.8%)와 대학 미진학자(11.3%)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즉,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노동조합에 가입할 가능성이 다소 높은 경향이 있었다.

요약하면, 취업자의 노동조합 가입률은 전반적으로 낮으며, 특히 전문대학 이하 학력층과 수도권 근무자의 가입률이 더 낮은 특징을 보였다. 이는 전체 고용구조에서 비정규직·중소기업 근로자의 비중이 높고, 노조 접근성이 제한된 현실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표 IV-45. [미취업자] 지난 1주일간 구직 활동 여부

구분		사례 수(명)	일자리 (취업/창업)를 구해보았다	일자리 (취업/창업)를 구해보지 않았다	계
전체		(284)	33.8	66.2	100.0
성별	남성	(176)	34.7	65.3	100.0
	여성	(108)	32.4	67.6	100.0
거주지	수도권	(113)	34.5	65.5	100.0
	비수도권	(171)	33.3	66.7	100.0
대학 진학 여부	전문대학 진학	(61)	34.4	65.6	100.0
	4년제 대학 진학	(192)	35.4	64.6	100.0
	대학 미진학	(31)	22.6	77.4	100.0

미취업자의 33.8%가 최근 1주일 동안 ‘일자리(취업·창업)를 구해보았다’고 응답했으며, 나머지 66.2%는 구직 활동을 하지 않았다. 즉, 미취업자 중 약 3분의 2는 단기간 내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있었다.

성별 차이는 크지 않았으며, 남성(34.7%)과 여성(32.4%) 모두 비슷한 수준이었다. 거주지별로도 수도권(34.5%)과 비수도권(33.3%) 간 큰 차이는 없었다.

대학 진학 수준별로 보면, 4년제 대학 진학자의 구직활동 비율이 35.4%로 가장 높았으며, 전문대학 진학자(34.4%)도 유사한 수준이었다. 반면, 대학 미진학자의 구직활동 비율은 22.6%로 상대적으로 낮아, 미취업자의 학력 수준이 낮을수록 구직 시도 비율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요약하면, 미취업자의 다수는 단기간 내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대학 미진학층에서 그 비율이 두드러졌다. 이는 경제활동 진입의 동거나 정보 접근성 측면에서의 격차가 반영된 결과일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취업유도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표 IV-46. [미취업자] 지난 1주일간 구직 활동하지 않은 이유 (예/아니오)

구분	사례 수 (명)	시간적 여유를 즐기기 위해서	일할 욕구를 느끼지 못해서	학원/기관에 다니지 않고 취업 준비 중이어서	여행이나 문화에 몰입, 취미활동을 위해서
전체	(188)	36.2	25.5	23.4	22.3
성별	남성 (115)	36.5	27.8	22.6	20.9
	여성 (73)	35.6	21.9	24.7	24.7
거주지	수도권 (74)	28.4	23.0	0.0	20.3
	비수도권 (114)	41.2	27.2	4.4	23.7
대학 진학 여부	전문대학 진학 (40)	37.5	30.0	2.5	30.0
	4년제 대학 진학 (124)	29.8	19.4	2.4	15.3
	대학 미진학 (24)	66.7	50.0	4.2	45.8
구분	사례 수 (명)	진로를 정하지 못해서	학교(정규 교육기관)에 다니고 있어서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계속 취업에 실패해서
전체	(188)	20.2	18.1	17.0	12.2
성별	남성 (115)	18.3	18.3	17.4	11.3
	여성 (73)	23.3	17.8	16.4	13.7

거주지	수도권	(74)	16.2	16.2	13.5	10.8
	비수도권	(114)	22.8	19.3	19.3	13.2
대학 진학 여부	전문대학 진학	(40)	20.0	12.5	25.0	7.5
	4년제 대학 진학	(124)	19.4	22.6	12.1	12.9
	대학 미진학	(24)	25.0	4.2	29.2	16.7
구분	사례 수 (명)	질병이나 자병 때문에 휴식을 취하기 위해	육아나 돌봄, 가사 활동으로 시간을 보내야 해서	인간 관계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취업을 위한 학원/직업훈련 기관에 통학 중이 어서	
전체	(188)	10.1	9.0	8.5	4.8	
성별	남성	(115)	8.7	2.6	7.8	6.1
	여성	(73)	12.3	19.2	9.6	2.7
거주지	수도권	(74)	12.2	8.1	6.8	5.4
	비수도권	(114)	8.8	9.6	9.6	4.4
대학 진학 여부	전문대학 진학	(40)	10.0	22.5	12.5	2.5
	4년제 대학 진학	(124)	7.3	5.6	7.3	5.6
구분	사례 수 (명)	학교와 학원 입학 혹은 직업훈련기관 통학 대기 중이어서	학원에 다니지 않고 진학 준비 중 이어서	입시 학원에 다니고 있어서	군 입대 대기 중이 어서	
전체	(188)	2.7	2.7	1.6	1.6	
성별	남성	(115)	3.5	3.5	2.6	2.6
	여성	(73)	1.4	1.4	0.0	0.0
거주지	수도권	(74)	2.7	0.0	1.4	1.4
	비수도권	(114)	2.6	4.4	1.8	1.8
대학 진학 여부	전문대학 진학	(40)	0.0	2.5	2.5	2.5
	4년제 대학 진학	(124)	3.2	2.4	1.6	0.8

*항목별 "예" 응답자 비율

지난 1주일 동안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미취업자들의 사유를 살펴보면, 가장 높은 응답은 '시간적 여유를 즐기기 위해서'로 전체의 36.2%였다. 즉, 약 3명 중 1명 이상이 일시적인 휴식이나 여유를 이유로 구직활동을 중단하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는 '일할 욕구를 느끼지 못해서'(25.5%), '학원·기관에 다니지 않고 취업 준비 중이어서'(23.4%), '여행이나 문화예술·취미활동을 위해서'(22.3%)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이 '일할 욕구를 느끼지 못함'(27.8%) 비율이 여성(21.9%)보다 높았고, 여성은 '여행이나 취미활동'(24.7%)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거주지별로는 비수도권에서 '시간적 여유를 즐기기 위해서'(41.2%)와 '일할 욕구를 느끼지 못해서'(27.2%) 응답이 높게 나타나, 수도권(28.4%, 23.0%)보다 구직의욕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다.

특히 대학 미진학자의 응답에서 '시간적 여유를 즐기기 위해서'(66.7%)와 '일할 욕구를 느끼지 못해서'(50.0%)가 매우 높아, 학력이 낮을수록 구직활동 비활성화가 두드러졌다.

'진로를 정하지 못해서'(20.2%), '학교에 다니고 있어서'(18.1%),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17.0%), '계속 취업에 실패해서'(12.2%)와 같은 사유도 적지 않았다.

비수도권(19.3%)과 대학 미진학자(29.2%)는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의 응답률이 높았으며, 이는 고용기회에 대한 체감 부족을 시사한다.

또한 '질병이나 지병 때문에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10.1%), '육아·돌봄 등 가사활동으로 시간을 보내야 해서'(9.0%), '인간관계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8.5%)와 같은 개인적·심리적 이유도 일정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육아·돌봄 부담'(19.2%)과 '건강 문제'(12.3%)로 인한 구직 중단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기타 항목을 보면, '학교나 직업훈련기관 통학 대기 중'(2.7%), '진학 준비 중'(2.7%), '군 입대 대기 중'(1.6%) 등 향후 진학·병역과 관련된 사유도 일부 존재했다.

요약하면, 미취업자의 구직활동 중단에는 '일시적 휴식'과 '구직 의욕 저하'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특히 비수도권·대학 미진학자층에서 이러한 경향이 뚜렷했으며, 여성은 돌봄·가사책임 등 구조적 제약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순한 '의욕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 사정·지역 격차·사회적 여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IV-47. [미취업자] 지난 1주일간 구직 활동하지 않은 가장 주된 이유 (1가지 응답)

구분	사례 수 (명)	학교(정규교육 기관)에 다니고 있어서	학원/기관에 다니지 않고 취업 준비 중이어서	시간적 여유를 즐기기 위해서	진로를 정하지 못해서
전체	(155)	18.7	14.8	13.5	9.0
성별	남성 (94)	18.1	16.0	11.7	9.6
	여성 (61)	19.7	13.1	16.4	8.2
거주지	수도권 (57)	21.1	8.8	5.3	10.5
	비수도권 (98)	17.3	18.4	18.4	8.2
대학 진학 여부	전문대학 진학 (31)	6.5	12.9	6.5	12.9
	4년제 대학 진학 (102)	26.5	16.7	11.8	9.8
	대학 미진학 (22)	0.0	9.1	31.8	0.0

구분	여행이나 문화 예술, 취미활 동을 위해서	일할 욕구를 느끼지 못해서	계속 취업에 실패해서	육아나 돌봄, 가사 활동으로 시간을 보내야 해서
전체	(155) 8.4	7.7	5.8	5.2
성별	남성 (94) 9.6	9.6	4.3	0.0
	여성 (61) 6.6	4.9	8.2	13.1
거주지	수도권 (57) 12.3	8.8	5.3	8.8
	비수도권 (98) 6.1	7.1	6.1	3.1
대학 진학 여부	전문대학 진학 (31) 19.4	9.7	0.0	16.1
	4년제 대학 진학 (102) 4.9	3.9	8.8	2.9
	대학 미진학 (22) 9.1	22.7	0.0	0.0

구분	취업을 위한 학원 /직업 훈련기관에 통학 중이어서	질병이나 지병 때 문에 휴식을 취하 기 위해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인간관계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전체	(155) 5.2	3.9	2.6	1.9
성별	남성 (94) 7.4	3.2	2.1	3.2
	여성 (61) 1.6	4.9	3.3	0.0
거주지	수도권 (57) 5.3	7.0	1.8	3.5
	비수도권 (98) 5.1	2.0	3.1	1.0
대학 진학 여부	전문대학 진학 (31) 3.2	0.0	6.5	3.2
	4년제 대학 진학 (102) 5.9	2.9	2.0	2.0
	대학 미진학 (22) 4.5	13.6	0.0	0.0

구분		입시학원에 다니고 있어서	학원에 다니지 않고 진학 준비 중이어서	군 입대 대기 중이어서	학교와 학원 입학 혹은 직업훈련 기관 통학 대기 중이어서	
전체	(155)	1.3	0.6	0.6	0.6	
성별	남성	(94)	2.1	1.1	1.1	1.1
	여성	(61)	0.0	0.0	0.0	0.0
거주지	수도권	(57)	1.8	0.0	0.0	0.0
	비수도권	(98)	1.0	1.0	1.0	1.0
대학 진학 여부	전문대학 진학	(31)	3.2	0.0	0.0	0.0
	4년제 대학 진학	(102)	1.0	1.0	0.0	0.0
	대학 미진학	(22)	0.0	0.0	4.5	4.5

미취업자 중 지난 1주일 동안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가장 주된 이유'를 묻은 결과, '학교(정규교육기관)에 다니고 있어서'가 18.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학원이나 기관에 다니지 않고 취업 준비 중이어서'(14.8%), '시간적 여유를 즐기기 위해서'(13.5%), '진로를 정하지 못해서'(9.0%) 순이었다.

성별로 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학교 재학 중'이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으나, 남성은 '학원·기관에 다니지 않고 취업 준비 중'(16.0%)과 '일할 욕구 부족'(9.6%)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여성은 '시간적 여유를 즐기기 위해서'(16.4%)와 '육아·돌봄 및 가사활동'(13.1%)이 두드러졌다. 이는 남성의 구직지연이 '준비 과정의 연장' 성격이 강한 반면, 여성의 경우 '일·가정 병행의 부담'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거주지별로는 수도권 응답자 중 '학교 재학 중'(21.1%)이 가장 높았으며, 비수도권에서는 '학원·기관에 다니지 않고 취업 준비 중'(18.4%)과 '시간적 여유를 즐기기 위해서'(18.4%)가 동일한 비율로 높게 나타났다.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은 진로 불확실성과 일시적 구직단절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있다.

대학 진학 수준별로 보면, 4년제 대학 진학자는 '학교 재학 중'(26.5%)이 가장 높았고, 전문대학 진학자는 '진로를 정하지 못함'(12.9%)과 '육아·돌봄 등 가사활동'(16.1%)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대학 미진학자는 '시간적 여유를 즐기기 위해서'(31.8%)가 압도적으로 높아, 구직단절의 원인이 학업·준비보다는 생활적 여유나 동기 저하와 더 관련되어 있었다.

그 외 응답으로는 '여행·문화·취미활동'(8.4%), '일할 욕구를 느끼지 못함'(7.7%), '계속 취업에 실패함'(5.8%) 등이 있었다. 특히 남성의 '학원·직업훈련기관 통학 중'(7.4%)과 여성의 '질병·지병으로 인한 휴식'(4.9%)도 눈에 띄는 항목이었다.

소수 응답으로는 '입시 학원에 다니고 있어서'(1.3%), '군 입대 대기 중'(0.6%) 등이 확인되었다.

종합적으로 보면, 미취업자의 주요 비구직 사유는 학업 지속, 준비기 연장, 또는 일시적 휴식으로 구분된다. 특히 여성의 돌봄 부담, 비수도권의 구직기회 한계, 대학 미진학자의 낮은 구직동기가 구조적으로 작용하는 양상이다. 이는 단순한 '의욕 결여'보다는 진로 불확실성·생활여건·사회적 제약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IV-48. [미취업자] 학교를 다니지 않고 일자리도 갖지 않은 상태 지속 기간

구분		사례 수 (명)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계
전체		(188)	34.6	31.9	12.2	21.3	100.0
성별	남성	(115)	35.7	33.9	8.7	21.7	100.0
	여성	(73)	32.9	28.8	17.8	20.5	100.0
거주지	수도권	(74)	39.2	33.8	8.1	18.9	100.0
	비수도권	(114)	31.6	30.7	14.9	22.8	100.0
대학 진학 여부	전문대학 진학	(40)	25.0	35.0	10.0	30.0	100.0
	4년제 대학 진학	(124)	40.3	30.6	14.5	14.5	100.0
	대학 미진학	(24)	20.8	33.3	4.2	41.7	100.0

미취업자 중 학교에 다니지 않으면서 일자리도 없는 상태가 얼마나 지속되고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1개월 미만'이 34.6%로 가장 많았다. 이어 '1개월 이상 1년 미만'(31.9%), '2년 이상'(21.3%), '1년 이상 2년 미만'(12.2%) 순으로 나타났다. 즉, 단기간(1년 미만) 미활동 상태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지만, 2년 이상 지속되는 장기 미취업자도 다섯 명 중 한 명꼴로 존재했다.

성별로 보면, 남성(35.7%)과 여성(32.9%) 모두 '1개월 미만'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여성은 '1년 이상 2년 미만'(17.8%) 비율이 남성(8.7%)보다 높아, 남성보다 장기 미취업 상태가 다소 더 많이 나타났다.

거주지별로는 수도권이 '1개월 미만'(39.2%) 비율이 높고, 비수도권은 '2년 이

상'(22.8%)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수도권에서는 상대적으로 구직 기회가 많아 단기 미취업 상태가 많고, 비수도권에서는 미취업이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대학 진학 여부별로 보면, 4년제 대학 진학자는 '1개월 미만'(40.3%) 비율이 높아 비교적 빠른 기간 내 활동 전환을 시도하는 반면, 전문대학 진학자는 '2년 이상'(30.0%), 대학 미진학자는 '2년 이상'(41.7%)으로 장기 미취업자의 비중이 두드러졌다.

이는 학력 수준이 낮을수록 미활동 상태가 장기화되는 경향을 보여주며, 특히 대학 미진학층에서는 경제활동 복귀의 지연이 구조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표 IV-49. 구직활동 지속 기간

구분		사례 수 (명)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계
전체		(96)	21.9	56.3	13.5	8.3	100.0
성별	남성	(61)	24.6	50.8	16.4	8.2	100.0
	여성	(35)	17.1	65.7	8.6	8.6	100.0
거주지	수도권	(39)	12.8	66.7	15.4	5.1	100.0
	비수도권	(57)	28.1	49.1	12.3	10.5	100.0
대학 진학 여부	전문대학 진학	(21)	23.8	57.1	9.5	9.5	100.0
	4년제 대학 진학	(68)	14.7	60.3	16.2	8.8	100.0
	대학 미진학	(7)	85.7	14.3	0.0	0.0	100.0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미취업자들의 활동 지속 기간을 보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이 56.3%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1개월 미만'(21.9%), '1년 이상 2년 미만'(13.5%), '2년 이상'(8.3%) 순이었다.

즉, 구직 중인 미취업자의 다수는 1년 이내의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구직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1개월 미만'(24.6%)이 여성(17.1%)보다 높고, 여성은 '1개월 이상 1년 미만'(65.7%)의 비율이 높아 구직활동이 비교적 장기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거주지별로는 수도권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66.7%)으로 집중되어 있는 반면, 비수도권은 '1개월 미만'(28.1%)과 '2년 이상'(10.5%)이 상대적으로 높아, 구직활동의 지속성이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대학 진학 여부별로 보면, 4년제 대학 진학자는 '1개월 이상 1년 미만'(60.3%)이 가장

높고, 전문대학 진학자도 유사한 수준(57.1%)이었다. 반면 대학 미진학자는 ‘1개월 미만’이 85.7%로 압도적으로 높아, 단기간 내 구직활동을 중단하거나 지속하기 어려운 경향이 있었다.

종합하면, 구직 중인 미취업자의 절반 이상이 1년 이내 단기 구직활동을 유지하고 있으나, 학력이 낮을수록 구직 지속성이 낮고 미취업 상태가 장기화되는 경향이 뚜렷했다. 특히 비수도권과 대학 미진학자층에서 구직 단절 및 장기 미활동의 비율이 높아, 지역·학력 격차가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의 중요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IV-50. 취업/창업 위한 준비 경험 비율 (예/아니오)

구분	사례 수 (명)	취업, 창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	인터넷 강의, 어 플, 동영상 등을 활용한 교육이나 훈련	영어회화, 제2외국어, 한 자능력, 토익, 토플 등 준비	학원이나 직업훈련기관, 창업교육기관을 통한 교육이나 훈련	자소서 작성 훈련
성별	남성 (144)	50.7	45.8	47.9	23.6	22.9
	여성 (108)	61.1	52.8	44.4	41.7	34.3
거주 지	수도권 (96)	45.8	49.0	44.8	31.3	30.2
	비수도권 (156)	60.9	48.7	47.4	31.4	26.3
대학 진학 여부	전문대학 진학 (61)	50.8	42.6	27.9	29.5	32.8
	4년제 대학 진학 (168)	59.5	54.2	55.4	32.7	27.4
	대학 미진학 (23)	34.8	26.1	30.4	26.1	17.4
현재 취업 여부	취업자 (121)	53.7	39.7	37.2	31.4	24.8
	미취업자 (131)	56.5	57.3	55.0	31.3	30.5
구분	사례 수 (명)	일 경험	희망하는 일자리 관련 아르바이트 경험	현장실습 경험	면접 훈련	취업, 창업전 문회사 자문 이나 컨설팅
전체	(252)	27.0	18.7	18.3	17.1	14.7
성별	남성 (144)	25.7	15.3	18.8	16.0	15.3
	여성 (108)	28.7	23.1	17.6	18.5	13.9

거주지	수도권	(96)	24.0	16.7	16.7	16.7	17.7
	비수도권	(156)	28.8	19.9	19.2	17.3	12.8
대학진학여부	전문대학 진학	(61)	24.6	18.0	27.9	16.4	18.0
	4년제 대학 진학	(168)	28.0	17.9	13.1	19.0	14.9
	대학 미진학	(23)	26.1	26.1	30.4	4.3	4.3
현재취업여부	취업자	(121)	35.5	26.4	24.8	14.9	14.9
	미취업자	(131)	19.1	11.5	12.2	19.1	14.5
구분			봉사활동 경험	동아리, 스터디 활동 경험	해외 연수, 어학 연수 경험	-	-
전체		(252)	14.3	13.9	4.0	-	-
성별	남성	(144)	11.1	11.8	3.5	-	-
	여성	(108)	18.5	16.7	4.6		
거주지	수도권	(96)	11.5	15.6	7.3		
	비수도권	(156)	16.0	12.8	1.9		
대학진학여부	전문대학 진학	(61)	13.1	13.1	4.9		
	4년제 대학 진학	(168)	14.9	15.5	3.6		
	대학 미진학	(23)	13.0	4.3	4.3		
현재취업여부	취업자	(121)	14.9	11.6	0.0		
	미취업자	(131)	13.7	16.0	7.6		

* 항목별 "예" 응답자 비율

취업이나 창업을 위해 수행한 준비 활동을 살펴본 결과, 전체 응답자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항목은 '자격증 취득'(55.2%)이었다. 이어 높게 나타난 응답 중심으로 살펴보면,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48.8%), '영어회화 등 어학 관련 준비'(46.4%), '학원이나 직업훈련기관, 창업교육기관을 통한 교육'(31.3%), '자기소개서 작성 훈련'(27.8%)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층의 취업·창업 준비가 대체로 비공식적·비정규형 학습과 자기계발 중심의 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성별로 보면 여성의 참여율이 전반적으로 높았다.

여성은 특히 '학원 및 직업훈련기관 교육'(41.7%)과 '자기소개서 작성 훈련'(34.3%) 비율이 높았으며, 남성은 '어학 준비'(47.9%)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즉, 여성은 체계적이고 실무 중심의 준비를, 남성은 개인적 역량 강화 중심의 준비를 주로 하는 경향을 보였다.

거주지별로는 비수도권의 '자격증 취득'(60.9%) 비율이 수도권(45.8%)보다 높았으나, 수도권은 '온라인 교육'(49.0%)과 '자기소개서 작성 훈련'(30.2%) 등 정보 접근성이 높은 활동에서 비교적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이는 지역별 교육 인프라와 정보 접근성의 차이가 준비 활동의 형태에도 영향을 미친 결과로 해석된다.

대학 진학 여부에 따라 보면, 4년제 대학 진학자는 '자격증 취득'(59.5%)과 '어학 준비'(55.4%)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전문대학 진학자는 '자기소개서 작성 훈련'(32.8%)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대학 미진학자는 전반적으로 모든 항목에서 낮은 참여율을 보여, 체계적 취업 준비 경험의 기회가 제한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취업 여부별로 보면, 미취업자는 취업자보다 준비활동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았다. 특히 '온라인 교육'(57.3%)과 '자격증 취득'(56.5%) 비율이 높아, 구직 과정에서 자기개발형 준비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종합하면, 청년층의 취·창업 준비는 자격증 취득과 온라인 학습 중심의 자기주도적 형태가 주류이며, 여성과 4년제 대학 진학자의 참여도가 높았다. 반면 대학 미진학자층과 일부 비수도권 청년은 제도적 지원 및 접근성의 한계로 인해 준비 기회가 상대적으로 제한되는 양상을 보였다.

표 IV-51. 취/창업 준비 관련 도움 받은 경험

		사례 수(명)	예	아니오	
학교	전체	(252)	21.0	79.0	
	성별	남성	(144)	21.5	78.5
		여성	(108)	20.4	79.6
	거주지	수도권	(96)	18.8	81.3
		비수도권	(156)	22.4	77.6
	대학 진학 여부	전문대학 진학	(61)	26.2	73.8
		4년제 대학 진학	(168)	19.6	80.4
		대학 미진학	(23)	17.4	82.6
	현재 취업 여부	취업자	(121)	23.1	76.9
		미취업자	(131)	19.1	80.9

		사례 수(명)	예	아니오	
공공기관 (고용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	전체	(252)	22.6	77.4	
	성별	남성	(144)	20.8	79.2
		여성	(108)	25.0	75.0
	거주지	수도권	(96)	18.8	81.3
		비수도권	(156)	25.0	75.0
	대학 진학 여부	전문대학 진학	(61)	21.3	78.7
		4년제 대학 진학	(168)	24.4	75.6
		대학 미진학	(23)	13.0	87.0
	현재 취업 여부	취업자	(121)	10.7	89.3
		미취업자	(131)	33.6	66.4
사설기관 (사설학원, 인터넷 취업 사이트 등)	전체	(252)	31.0	69.0	
	성별	남성	(144)	23.6	76.4
		여성	(108)	40.7	59.3
	거주지	수도권	(96)	28.1	71.9
		비수도권	(156)	32.7	67.3
	대학 진학 여부	전문대학 진학	(61)	34.4	65.6
		4년제 대학 진학	(168)	29.8	70.2
		대학 미진학	(23)	26.4	73.6
	현재 취업 여부	취업자	(121)	26.4	73.6
		미취업자	(131)	35.1	64.9
부모님이나 친인척	전체	(252)	25.4	74.6	
	성별	남성	(144)	29.2	70.8
		여성	(108)	20.4	79.6
	거주지	수도권	(96)	26.0	74.0
		비수도권	(156)	25.0	75.0
	대학 진학 여부	전문대학 진학	(61)	27.9	72.1
		4년제 대학 진학	(168)	25.0	75.0
		대학 미진학	(23)	21.7	78.3
	현재 취업 여부	취업자	(121)	26.4	73.6
		미취업자	(131)	24.4	75.6
친구, 선후배	전체	(252)	37.3	62.7	
	성별	남성	(144)	44.4	55.6
		여성	(108)	27.8	72.2
	거주지	수도권	(96)	44.8	55.2
		비수도권	(156)	32.7	67.3
	대학 진학 여부	전문대학 진학	(61)	41.0	59.0
		4년제 대학 진학	(168)	36.9	63.1
		대학 미진학	(23)	30.4	69.6
	현재 취업 여부	취업자	(121)	42.1	57.9
		미취업자	(131)	32.8	67.2

* 계: 100

취업이나 창업 준비 과정에서 도움을 받은 경험을 살펴본 결과, '친구 또는 선후배'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는 응답이 전체의 37.3%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사설기관(학원, 인터넷 취업사이트 등)' 31.0%, '부모님이나 친인척' 25.4%, '공공기관(고용센터 등)' 22.6%, '학교' 21.0% 순으로 나타났다. 즉, 청년층의 취·창업 지원은 제도권보다 비공식적 인적 네트워크나 민간 정보 채널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친구 또는 선후배'(44.4%)와 '부모님이나 친인척'(29.2%)을 통한 비공식 도움을 주로 활용한 반면, 여성은 '사설기관'(40.7%) 이용 비율이 높았다. 거주지 기준으로는 수도권 청년이 '친구·선후배'(44.8%) 및 '사설기관'(28.1%)을 더 활용하였고, 비수도권은 '공공기관'(25.0%)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학력별로는 전문대학 진학자의 '사설기관'(34.4%)과 '친구·선후배'(41.0%) 활용률이 가장 높았으며, 4년제 대학 진학자는 전반적으로 모든 항목에서 중간 수준을 보였다. 대학 미진학자는 모든 항목에서 비율이 낮아, 공식 및 비공식 지원망 양쪽에서 접근성이 제한된 양상을 보였다.

취업 여부에 따라 보면, 미취업자는 '공공기관'(33.6%)과 '사설기관'(35.1%)을 통한 지원 경험이 높아 구직활동과 직접 연결된 제도적 지원 활용이 활발했다. 반면 취업자는 '친구·선후배'(42.1%) 비율이 높아 직장 내외 관계망을 통한 비공식 정보 교류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종합하면, 청년층의 취·창업 준비 지원은 학교나 공공기관 등의 공식 체계보다는 사설 기관과 인적 네트워크에 의존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는 특히 남성, 수도권, 전문대학 진학자 집단에서 강하게 나타나며, 반대로 대학 미진학자나 비수도권 청년층의 경우 공식 지원 접근성 강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IV-52. 월 평균 취/창업 관련 사설학원 지출 비용

구분		사례 수 (명)	50만 원 미만	50 ~99 만 원	100 ~149 만 원	150 ~199 만 원	250 ~299 만 원	계	평균 (만 원)
전체		(78)	75.6	15.4	3.8	3.8	1.3	100.0	(30.45)
성별	남성	(34)	85.3	11.8	0.0	0.0	2.9	100.0	(24.12)
	여성	(44)	68.2	18.2	6.8	6.8	0.0	100.0	(35.34)
거주지	수도권	(27)	66.7	22.2	3.7	7.4	0.0	100.0	(31.78)
	비수도권	(51)	80.4	11.8	3.9	2.0	2.0	100.0	(29.75)
대학 진학 여부	전문대학 진학	(21)	81.0	0.0	4.8	9.5	4.8	100.0	(39.29)
	4년제 대학 진학	(50)	74.0	22.0	2.0	2.0	0.0	100.0	(25.90)
	대학 미진학	(7)	71.4	14.3	14.3	0.0	0.0	100.0	(36.43)
현재 취업 여부	취업자	(32)	68.8	12.5	6.3	9.4	3.1	100.0	(42.44)
	미취업자	(46)	80.4	17.4	2.2	0.0	0.0	100.0	(22.11)

사설학원을 통한 취·창업 준비 비용을 살펴본 결과, '50만 원 미만'이 75.6%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평균 비용은 약 30.5만 원이었다. 50만 원 이상 지출한 응답은 24.4%로 비교적 소수에 해당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의 평균 지출(24.1만 원)이 여성(35.3만 원)보다 낮았으며, 여성은 '100만 원 이상' 구간 비율이 높았다.

거주지별로는 수도권(31.8만 원)과 비수도권(29.8만 원)의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수도권 청년의 고비용 투자(150만 원 이상)가 다소 높은 편이었다.

대학 진학 여부로 보면, 전문대학 진학자의 평균 지출액이 39.3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대학 미진학자(36.4만 원)가 그 뒤를 이었다. 현재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취업자(42.4만 원)가 미취업자(22.1만 원)보다 지출 규모가 약 두 배 가까이 높아, 재직 중인 청년이 직무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학원 교육에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IV-53. 사설학원 비용 제외 월 평균 취/창업 준비 비용

구분		사례 수(명)	50만 원 미만	50~99만 원	100~149만 원
전체		(195)	86.7	9.2	1.0
성별	남성	(110)	87.3	7.3	1.8
	여성	(85)	85.9	11.8	0.0
거주지	수도권	(75)	90.7	8.0	0.0
	비수도권	(120)	84.2	10.0	1.7
대학 진학 여부	전문대학 진학	(49)	83.7	10.2	0.0
	4년제 대학 진학	(129)	90.7	7.0	0.8
	대학 미진학	(17)	64.7	23.5	5.9
현재 취업 여부	취업자	(90)	83.3	11.1	1.1
	미취업자	(105)	89.5	7.6	1.0

(계속)

구분		사례 수 (명)	150~199 만 원	200~249 만 원	250~299 만 원	계	(평균)
전체		(195)	0.5	2.1	0.5	100.0	(19.87)
성별	남성	(110)	0.0	2.7	0.9	100.0	(21.88)
	여성	(85)	1.2	1.2	0.0	100.0	(17.27)
거주지	수도권	(75)	0.0	1.3	0.0	100.0	(13.75)
	비수도권	(120)	0.8	2.5	0.8	100.0	(23.70)
대학 진학 여부	전문대학 진학	(49)	0.0	4.1	2.0	100.0	(23.98)
	4년제 대학 진학	(129)	0.8	0.8	0.0	100.0	(16.12)
	대학 미진학	(17)	0.0	5.9	0.0	100.0	(36.47)
현재 취업 여부	취업자	(90)	1.1	2.2	1.1	100.0	(22.63)
	미취업자	(105)	0.0	1.9	0.0	100.0	(17.50)

사설학원을 제외한 나머지 준비 비용의 월평균 지출은 19.9만 원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대다수(86.7%)가 '50만 원 미만' 구간에 속해, 고비용 지출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성별 비교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평균 지출이 높았으며(남 21.9만 원, 여 17.3만 원), 거주지별로는 비수도권(23.7만 원)이 수도권(13.8만 원)에 비해 약 10만 원가량 많았다.

학력별로는 전문대학 진학자(23.9만 원)가 4년제 대학 진학자(16.1만 원)보다 높았고, 대학 미진학자(36.5만 원)가 가장 높은 평균 지출을 보였다. 이는 비공식적 준비 활동이나 개별 비용 부담의 비율이 대학 미진학자에게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미취업자(17.5만 원)보다 취업자(22.6만 원)의 지출이 다소 높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표 IV-54. 취/창업 준비를 위한 하루 평균 투자 시간

구분	사례 수(명)	2	2~4	4~6	6~8	8~10	10	계	(평균)	
		시간 미만	시간 이상							
전체	(252)	17.1	29.0	15.5	12.7	12.7	13.1	100.0	(4.83)	
성별	남성	(144)	16.0	25.0	18.1	13.2	12.5	15.3	100.0	(5.11)
	여성	(108)	18.5	34.3	12.0	12.0	13.0	10.2	100.0	(4.46)
거주지	수도권	(96)	19.8	32.3	14.6	10.4	10.4	12.5	100.0	(4.49)
	비수도권	(156)	15.4	26.9	16.0	14.1	14.1	13.5	100.0	(5.04)
대학 진학 여부	전문대학 진학	(61)	27.9	34.4	13.1	9.8	6.6	8.2	100.0	(3.79)
	4년제 대학 진학	(168)	10.1	29.2	17.3	14.3	14.3	14.9	100.0	(5.26)
	대학 미진학	(23)	39.1	13.0	8.7	8.7	17.4	13.0	100.0	(4.48)
현재 취업 여부	취업자	(121)	20.7	33.9	14.9	8.3	9.9	12.4	100.0	(4.37)
	미취업자	(131)	13.7	24.4	16.0	16.8	15.3	13.7	100.0	(5.26)

취업 또는 창업 준비를 위해 하루 평균 투자하는 시간을 살펴본 결과, 전체 평균은 약 4.83시간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2~4시간 미만'(29.0%)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2시간 미만'(17.1%), '4~6시간 미만'(15.5%), '6~8시간 미만'(12.7%), '8~10시간 미만'(12.7%), '10시간 이상'(13.1%) 순이었다. 즉, 대체로 하루 2~6시간 정도를 준비에 투입하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하였으나, 일부 응답자는 하루 8시간 이상 투자하는 등 시간 투입의 편차가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성의 평균 투자 시간(5.11시간)이 여성(4.46시간)보다 길었으며, 여성은 '2~4시간 미만'(34.3%)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거주지별로는 비수도권(5.04시간)이 수도권(4.49시간)에 비해 평균 투자 시간이 다소 길었으며, 수도권 청년은 '2~4시간 미만'(32.3%)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비수도권은 다소 고루 분포하였다.

대학 진학 여부에 따라 보면, 4년제 대학 진학자의 평균 투자 시간(5.26시간)이 가장 길었으며, 전문대학 진학자(3.79시간)는 상대적으로 짧았다. 대학 미진학자는 4.48시간으로 중간 수준이었으나, '2시간 미만'(39.1%)의 비율이 가장 높아, 취·창업 준비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현재 취업 여부별로 보면, 미취업자의 평균 투자 시간(5.26시간)이 취업자(4.37시간)보다 길었다. 취업자는 미취업자는 '6~8시간 미만'(16.8%)과 '8~10시간 미만'(15.3%) 비율

이 높았으며, 이는 구직 활동에 집중적으로 시간을 투입하는 경향을 반영한다. 반면 취업자는 '2시간 미만(20.7%)'과 '2~4시간 미만'(33.9%) 비율이 미취업자보다 높았고, 이 보다 더 긴 시간은 미취업자가 모두 높았다.

종합하면, 취·창업 준비에 투입되는 하루 평균 시간은 약 5시간 내외로, 남성·비수도권·4년제 대학 진학자·미취업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투자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현재 고용상태, 지역, 학력에 따른 시간적 여건의 격차가 취·창업 준비 노력에도 직접적으로 반영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IV-55. 향후 직업 훈련 수강 계획 여부

구분		사례 수(명)	있다	없다	이미 받고 있다	계
전체		(1,139)	24.6	72.2	3.2	100.0
성별	남성	(589)	21.7	74.0	4.2	100.0
	여성	(550)	27.6	70.2	2.2	100.0
거주지	수도권	(514)	21.4	75.9	2.7	100.0
	비수도권	(625)	27.2	69.1	3.7	100.0
대학 진학 여부	전문대학 진학	(257)	20.6	77.0	2.3	100.0
	4년제 대학 진학	(754)	25.7	70.6	3.7	100.0
	대학 미진학	(128)	25.8	71.9	2.3	100.0
현재 취업 여부	취업자	(855)	22.7	75.1	2.2	100.0
	미취업자	(284)	30.3	63.4	6.3	100.0

향후 직업훈련을 받을 계획에 대해 살펴본 결과, 전체 응답자의 24.6%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미 받고 있다'는 3.2%였다. 반면 '없다'는 응답이 72.2%로 나타나, 청년층의 직업훈련 참여 의향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성별로 보면 여성(27.6%)이 남성(21.7%)보다 향후 수강 계획 비율이 높았다. 남성은 '이미 받고 있다'(4.2%) 응답이 여성(2.2%)보다 높았는데, 이는 남성이 현재 직업훈련에 실질적으로 참여 중인 비율이 조금 더 높음을 의미한다. 반면 여성은 향후 계획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았다.

거주지별로는 비수도권 청년의 직업훈련 계획 비율(27.2%)이 수도권(21.4%)보다 높았다. 이는 비수도권 청년이 상대적으로 일자리 접근성이 낮은 대신, 직업훈련을 통해 취업역

량을 보완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대학 진학 여부에 따라 보면, 4년제 대학 진학자(25.7%)와 대학 미진학자(25.8%)는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전문대학 진학자(20.6%)가 가장 낮았다. 이는 4년제 대학 및 비진학 청년이 각각 취업경쟁력 확보 또는 진입보완의 필요성을 더 강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 취업 여부별로는 미취업자(30.3%)가 취업자(22.7%)보다 '직업훈련을 받을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반면 '이미 받고 있다'는 응답도 미취업자(6.3%)가 취업자(2.2%)보다 높아, 미취업층에서 직업훈련 참여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종합하면, 청년층의 직업훈련 참여 의향은 아직 제한적이지만, 여성·비수도권·미취업자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참여 의지가 나타났다. 이는 직업훈련이 단순한 기술습득을 넘어, 지역·고용상태별 격차 해소와 진입 지원의 주요 경로로 작동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표 IV-56. 직업 훈련 받지 않으려는 이유

구분		사례 수 (명)	시간이 없어서	필요 없어서	관심 분야가 없어서	정보가 없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접근성이 떨어져서	심리 정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전체		(822)	68.7	68.2	60.9	56.4	55.8	53.8	15.3
성별	남성	(436)	66.7	70.0	57.6	53.0	60.3	54.8	16.3
	여성	(386)	71.0	66.3	64.8	60.4	50.8	52.6	14.2
거주지	수도권	(390)	70.0	69.2	60.3	57.9	57.2	51.8	14.6
	비수도권	(432)	67.6	67.4	61.6	55.1	54.6	55.6	16.0
대학 진학 여부	전문대학 진학	(198)	75.3	66.2	63.6	59.1	56.1	63.1	18.7
	4년제 대학 진학	(532)	65.8	68.4	56.6	53.9	54.3	48.5	12.4
	대학 미진학	(92)	71.7	71.7	80.4	65.2	64.1	64.1	25.0
현재 취업 여부	취업자	(642)	75.9	70.7	64.5	61.1	57.0	57.2	16.7
	미취업자	(180)	43.3	59.4	48.3	40.0	51.7	41.7	10.6

직업훈련을 받지 않으려는 이유를 살펴본 결과, 전체 응답자 중에서는 '시간이 없어서'(68.7%)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68.2%)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어 '관심 분야가 없어서'(60.9%), '정보가 없어서'(56.4%),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55.8%),

‘접근성이 떨어져서’(53.8%) 순으로 나타났으며, ‘심리·정서적인 어려움’(15.3%)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이는 청년층이 시간적 제약과 낮은 효용 인식을 주요 비참여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필요 없음’(70.0%)과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60.3%) 항목이 높았으며, 여성은 ‘시간 부족’(71.0%)과 ‘관심 분야 부재’(64.8%)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즉, 남성은 실효성 부족을, 여성은 여건상의 제약을 주요 이유로 인식하고 있었다.

거주지별로는 수도권(70.0%)과 비수도권(67.6%) 모두 ‘시간 부족’이 가장 큰 이유였으나, 비수도권의 경우 ‘접근성 부족’(55.6%)과 ‘정보 부족’(55.1%) 비율이 수도권보다 높았다. 이는 지방 청년층의 경우 직업훈련 인프라의 물리적·정보적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현실을 반영한다.

대학 진학 여부로 보면, 대학 미진학자의 비참여 이유 응답률이 전반적으로 가장 높았다. 특히 ‘관심 분야 부재’(80.4%), ‘필요 없음’(71.7%), ‘심리·정서적 어려움’(25.0%) 항목에서 두드러졌다. 이는 비진학 청년이 직업훈련을 자신의 진로 전략과 직접 연결짓지 못하거나, 참여 과정에서 심리적 부담을 느끼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4년제 대학 진학자는 전반적으로 낮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전문대학 진학자는 ‘시간 부족’(75.3%)과 ‘접근성 부족’(63.1%) 항목에서 높은 응답을 보였다.

현재 취업 여부별로 보면, 취업자의 응답률이 전반적으로 미취업자보다 높았다. 특히 ‘시간 부족’(75.9%)과 ‘필요 없음’(70.7%) 항목에서 두드러졌으며, 이는 직장 생활로 인한 시간 제약과 훈련 필요성의 낮은 인식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미취업자는 전반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으며, ‘시간 부족’(43.3%)보다는 ‘정보 부족’(40.0%)이나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51.7%) 항목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종합하면, 직업훈련 비참여의 핵심 요인은 시간적 제약과 필요성 인식 부족으로 요약되며, 특히 취업자·전문대학 진학자·비수도권 청년층은 현실적 여건의 제약이, 비진학 청년층은 심리적 요인과 정보 접근의 부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직업훈련 참여 확대를 위해 단순한 프로그램 제공을 넘어, 시간·정보·심리 접근성 개선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지원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IV-57. 향후 일 경험 계획 여부

구분		사례 수(명)	있다	없다	이미 받고 있다	계
전체		(1,139)	33.6	63.4	3.0	100.0
성별	남성	(589)	31.9	64.7	3.4	100.0
	여성	(550)	35.5	62.0	2.5	100.0
거주지	수도권	(514)	34.0	64.4	1.6	100.0
	비수도권	(625)	33.3	62.6	4.2	100.0
대학 진학 여부	전문대학 진학	(257)	30.4	66.9	2.7	100.0
	4년제 대학 진학	(754)	34.9	61.8	3.3	100.0
	대학 미진학	(128)	32.8	65.6	1.6	100.0
현재 취업 여부	취업자	(855)	30.9	66.7	2.5	100.0
	미취업자	(284)	41.9	53.5	4.6	100.0

향후 일 경험(인턴십, 현장실습, 아르바이트 등)을 가질 계획에 대해 살펴본 결과, 전체 응답자의 33.6%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미 받고 있다’는 3.0%였다. 반면 ‘없다’는 응답이 63.4%로, 향후 일 경험을 계획하지 않은 비율이 과반을 차지하였다. 이는 청년층 다수가 단기적 근로 경험보다 학업이나 구직 준비 등 다른 활동을 우선시키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성별로 보면, 여성(35.5%)이 남성(31.9%)보다 ‘있다’ 응답 비율이 다소 높았다. 남성은 ‘이미 받고 있다’(3.4%) 비율이 여성(2.5%)보다 높아, 여성은 향후 참여 의향이, 남성은 현재 참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별로는 수도권(34.0%)과 비수도권(33.3%) 간 큰 차이는 없었으나, 비수도권의 ‘이미 받고 있다’ 비율(4.2%)이 수도권(1.6%)보다 높았다. 이는 수도권 청년이 향후 계획 위주로 응답한 반면, 비수도권 청년은 지역 내 실습·아르바이트 등 실제 경험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학 진학 여부별로 보면, 4년제 대학 진학자의 ‘있다’ 응답(34.9%)이 가장 높았으며, 전문대학 진학자(30.4%)가 가장 낮았다. 대학 미진학자는 32.8%로 중간 수준이었다. 이는 4년제 대학 진학자의 경우 인턴십이나 경력 연계형 활동을 통해 경력 형성 기회를 탐색하는 경향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현재 취업 여부별로 보면, 미취업자(41.9%)가 취업자(30.9%)보다 향후 일 경험 계획을

가진 비율이 높았다. 또한 '이미 받고 있다' 응답도 미취업자(4.6%)가 취업자(2.5%)보다 높아, 미취업자가 구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무 경험 확보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종합하면, 청년층의 향후 일 경험 계획은 약 3명 중 1명 수준으로 확인되며, 여성·4년제 대학 진학자·미취업자 집단에서 참여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취업 준비 단계에서 실무 경험을 경력자산으로 축적하려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전문대학 진학자와 취업자의 참여 의향은 낮아, 이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현장경험 프로그램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IV-58. 일 경험 받지 않으려는 이유 (예/아니오)

구분	사례 수 (명)	필요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관심 분야가 없어서	정보가 없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접근성이 떨어져서	심리 정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전체	(722)	70.6	68.8	59.7	56.2	55.3	53.5	13.0	
성별	남성	(381)	70.6	66.7	60.9	54.1	56.4	54.3	13.6
	여성	(341)	70.7	71.3	58.4	58.7	54.0	52.5	12.3
거주지	수도권	(331)	72.2	69.5	57.7	53.8	57.1	50.8	11.8
	비수도권	(391)	69.3	68.3	61.4	58.3	53.7	55.8	14.1
대학 진학 여부	전문대학 진학	(172)	68.0	74.4	61.0	65.1	57.0	65.1	15.1
	4년제 대학 진학	(466)	70.0	66.5	56.0	50.6	53.0	47.0	10.5
	대학 미진학	(84)	79.8	70.2	77.4	69.0	64.3	65.5	22.6
현재 취업 여부	취업자	(570)	74.2	76.8	63.0	58.4	57.0	56.8	13.7
	미취업자	(152)	57.2	38.8	47.4	48.0	48.7	40.8	10.5

*항목별 "예" 응답자 비율

일 경험(인턴십, 현장체험 등)을 받지 않으려는 이유를 살펴본 결과, 전체 응답자 중에서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70.6%)와 '시간이 없어서'(68.8%)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하였다. 이어 '관심 분야 부재'(59.7%), '정보 부족'(56.2%),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55.3%), '접근성 부족'(53.5%) 순으로 나타났다.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이유로 든 응답은 13.0%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다수의 청년들이 '시간 제약'과 '효용성 부족'으로 인해 실질적인 일 경험 참여를 주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성별로 보면 남성과 여성의 응답 경향은 대체로 유사하나, 여성은 '시간 부족'(71.3%)과

‘정보 부족’(58.7%)을 다소 더 많이 선택하였다. 남성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56.4%)와 ‘접근성 부족’(54.3%) 항목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즉, 여성은 참여 여건상의 제약을, 남성은 제도나 기회의 효용성에 대한 의심을 주된 이유로 꼽는 경향이 있었다.

거주지별로는 수도권 청년이 ‘필요 없음’(72.2%)과 ‘시간 부족’(69.5%)을, 비수도권 청년은 ‘관심 분야 부재’(61.4%)와 ‘정보 부족’(58.3%)을 더 많이 응답하였다. 이는 수도권 청년의 기회는 상대적으로 많으나 참여 여유가 부족하고, 비수도권은 정보 접근과 선택의 폭이 좁은 구조적 차이를 반영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대학 진학 여부로 보면, 대학 미진학자의 응답률이 전반적으로 가장 높았다. 특히 ‘필요 없음’(79.8%), ‘관심 분야 부재’(77.4%), ‘정보 부족’(69.0%) 등의 항목에서 두드러졌으며, ‘심리·정서적 어려움’(22.6%) 비율도 다른 집단보다 현저히 높았다. 반면 4년제 대학 진학자는 전반적으로 낮은 응답률을 보여, 상대적으로 일 경험 기회와 접근성이 보장된 것으로 보인다. 전문대학 진학자는 ‘시간 부족’(74.4%)과 ‘접근성 부족’(65.1%) 비율이 높아, 실습 중심 교육환경 내에서도 시간·접근 여건의 제약이 여전히 존재함을 시사한다.

현재 취업 여부별로 보면, 취업자는 ‘필요 없음’(74.2%)과 ‘시간 부족’(76.8%) 응답이 높아 이미 근로 중인 상황에서 추가적인 일 경험의 필요성을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반면 미취업자는 전반적으로 낮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특히 ‘시간 부족’(38.8%)과 ‘정보 부족’(48.0%) 항목이 낮아, 시간 제약보다는 정보 접근이나 기회 부족이 주요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종합하면, 일 경험 비참여의 주요 원인은 ‘시간 부족’과 ‘효용성 인식 부족’으로 요약되며, 이는 현재 고용상태와 학력, 지역에 따른 접근성과 필요 인식의 격차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특히 대학 미진학자와 비수도권 청년의 ‘정보 접근성’과 ‘심리적 부담’ 문제는 실질적인 지원정책 설계 시 중점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 — 제5장 청년의 성인기 이행 횡단분석: 국제 비교

- 1. 학습·진학, 학교-일자리
이행 국제 비교
- 2. 교육과 직업 위험 인식
영향요인: WVS 결과
- 3. 분석 결과
- 4. 연구 결과 요약 및 시사점

1. 학습진학, 학교-일자리 이행 국제 비교

1) 청년의 성인기 이행 국제 비교 자료

이 절에서는 청년의 성인기 이행 지표 중에서 국제 비교가 가능한 데이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국제연합(U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노동기구(ILO) 등은 전세계 혹은 회원국에 대한 비교 통계를 제공해 오고 있다. 청년의 성인기 이행 지표 중에서 여기에서는 학습과 진학을 비롯해 학교-일자리 이행에 관한 자료들을 먼저 다루었다.

교육에 관한 국제 비교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는 대표적인 보고서는 OECD(2025a)에서 매년 발간하고 있는 「한눈에 보는 교육」(*Education at a Glance*)이다. 이 보고서는 교육의 효과에 관한 자료와 교육 재정,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비롯해 학습환경과 교육기관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이 교육통계서비스(KESS)를 통해 국제통계 결과를 제공해 오고 있다.

학교-일자리 이행에 관한 국제 비교 자료는 앞서서 소개한 교육보고서를 비롯하여 국제노동기구(ILO)의 보고서, 그리고 OECD(2025b)에서 발간하는 「고용전망(*Employment Outlook*)」 등이 있다. OECD(2025c)에서 발간하는 「한국에 보는 사회(*Society at a Glance*)」에서 분석 시에 사용되고 있는 OECD 중요한 위험에 대한 조사(RTM: Risk that Matter Survey) 등이 있다. RTM 조사는 OECD에서 2020년부터 2년 주기로 실시 중인데 2020년에는 코로나19에 대해서, 2022년에는 환경과 과학기술 변화에 대해서, 2024년에는 인구 변화에 대해서 다루어졌다. 위험 인식 중에는 일자리나 자영업 소득을 잃을까 하는 걱정이 9개 중에 하나로 포함되어 있다.

7) 본 장은 김기현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표 V-1. 청년 성인기 이행 지표 국제비교 자료 출처

영역체계	지표 영역(안)	출처
학습과 진학	청년 고등교육 이수율	OECD(2025). <i>Education at a Glance</i>
	청년 석사 학위자 비율	OECD(2025). <i>Education at a Glance</i>
	청년 고등교육 입학율	국제통계(교육통계서비스, https://kess.kedi.re.kr/)
	고등교육 학생 1인당 공교육비	국제통계(교육통계서비스, https://kess.kedi.re.kr/)
	고등교육 정부지출 공교육비 비중	국제통계(교육통계서비스, https://kess.kedi.re.kr/)
	연평균 대학등록금 추정치	국제통계(교육통계서비스, https://kess.kedi.re.kr/)
학교-일자리 이행	청년 고용률 변화	OECD(2025). <i>Employment Outlook</i>
	청년 교육수준별 고용률	OECD(2025). <i>Education at a Glance</i>
	청년 니트 비율	ILO(2024). <i>Global Employment Trends for Youth 2024</i> .
	청년 노동시장 밖의 비율	OECD(2025). <i>Education at a Glance</i>
	청년의 실직에 대한 위험인식	OECD(2024). <i>Risks that matter for young people</i>

* 출처: 각 지표별 출처 참조

해당 자료 중에서 청년의 성인기 이행 지표와 관련된 부분은 먼저 학습과 진학의 경우 25-34세 청년의 고등교육 이수율과 석사 학위자 비율, 25세 미만 청년의 고등교육 입학률 등이 있다. 먼저 25-3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해당 인구 중에 해당 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인구의 비율을 의미한다. 고등교육 과정은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석사, 박사를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다른 국가들은 중등 후 교육과정(post secondary education)을 별도로 두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OECD에 해당 사례가 없다고 보고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했던 직업전문학교가 이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고등교육기관인 폴리텍으로 전환된 뒤에 해당 유형이 없어졌다.

이는 우리나라가 OECD에 니트(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통계를 제출하지 않는 문제와도 연결된다. OECD에서는 공식적인 교육 및 훈련(formal education or training)에 한해 니트 정의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중등 후 교육과정이 없는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니트가 과잉 추정될 우려가 있다. 과거 청년 취업성공패키지나 현재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도전지원 사업 등은 공공사업이나 추진 주체는 민간 교육 및 훈련기관으로 이 역시 니트에서 제외될 필요가 있는데 공식 교육 및 훈련이 아니어서 “교육도, 일도, 훈련도 받지 않는 젊은이”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한국과 더불어 일본 역시 니트에 대한 공식통계를 현재 내고 있지 않는데 일본은 가사를 주로 하거나 결혼 준비하는 여성을 니트에서 제외하고 통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어서 25-34세 중 석사학위자 비율은 해당 인구 중에서 대학원 석사학위를 받은 인구의 비율을 의미한다. OECD 보고서에는 박사학위자 비율도 제시했는데 2025년 보고서에는 제외되었다.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교육통계서비스 중에서 국제통계 항목 중에서 25세 미만 고등교육 입학률이 있다. 이것은 2022년까지만 OECD의 「한눈에 보는 교육」에 수록되었으며 25세 미만 중 학사, 석사, 박사 수준에서 입학 비율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교육 재정과 관련하여 청년기에 속하는 고등교육 과정에서 학생 1인당 공교육비와 국민 1인당 GDP 대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비율이 있다. 공교육비 단위는 비교를 위해 미국 달러로 환산한 것(PPP)이며 수집 과정의 어려움으로 보고서 발간 전년도보다 늦은 시기에 통계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1인당 공교육비가 재정 규모를 알 수 있는 지표라면 공교육비의 정부지출 비율은 정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교육 투자를 위해 예산을 지출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정부지출 비율은 전체 교육기관 직접 지출 예산 중 정부재원 교육기관 직접 지원 지출 예산의 비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대학 등록금 추정치는 미국 달러의 구매력지수로 환산한 금액으로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결과가 모두 제시되어 있다. 다만,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마다 편차가 크고 자료 수집에 어려움이 있어 OECD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국가들이 많아 여기에서는 국공립학교에 한 해 살펴보고자 한다.

학교-일자리 이행 지표로는 먼저 OECD의 「고용전망(*Employment Outlook*)」에서 청년 고용률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고용률은 해당 인구 중에서 취업자의 비율을 의미한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2023년 1분기(1-3월)와 2025년 1분기(1-3월)의 청년 고용률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 청년(youth)은 15세에서 24세로 국제기구 등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청년 정의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다만, OECD에서는 니트 통계를 낼 때 15세에서 29세까지로 연령을 확대해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성인 이행기가 지연되고 유럽연합에서 니트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청년보장제(youth guarantee)가 정책 대상을 폭넓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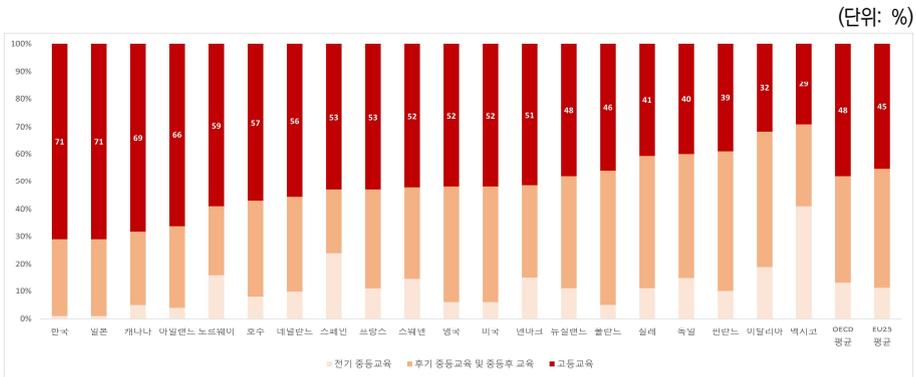
이어서 25-34세 청년의 교육수준별 고용률은 OECD의 교육보고서에서 제공되고 있다. 이는 교육의 효과를 다루는 장에서 소개되고 있어 학습과 진학 관련 지표로 다룰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이행의 결과를 다루는 것이므로 학교-일자리 이행 지표로 다루었다.

청년 니트는 국제적으로 청년 고용률 다루는 핵심 지표로 주로 OECD 「한눈에 보는 교육」에서 매년 새로운 결과를 담고 있다. 다만, 한국과 일본처럼 주요 국가에서 이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서 2025년 교육보고서에서는 청년 실업자와 더불어 노동시장 밖의 청년 비율을 제시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거의 모든 국가들이 통계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OECD의 RTM 조사에서 청년들의 실직에 대한 위험인식 결과를 살펴볼 수 있다. 청년을 다룬 해당 보고서는 2024년에 발간되었으며 이 보고서가 분석한 조사 자료는 2022년에 이루어진 것이다.

2) 청년의 학습진학에 대한 국제 비교

이 절에서는 청년의 학습진학에 대한 국제 비교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고등교육 이수율을 살펴보면, 고등교육 이수율은 해당 인구 중에서 2년제 학위과정(전문대), 4년제 학위과정(대학)을 비롯해 대학원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한 인구의 비율을 의미한다. OECD 국가들은 25-34세 중 평균적으로 48%가 고등교육 이상을 이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OECD 국가 중에서 고등교육 이수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한국으로 71%로 나타나고 있다. 70% 이상을 보여준 또 다른 국가는 일본이었고 캐나다와 아일랜드가 65% 이상의 높은 이수율을 보여주었다. 이같은 결과는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대학을 많이 가는 곳임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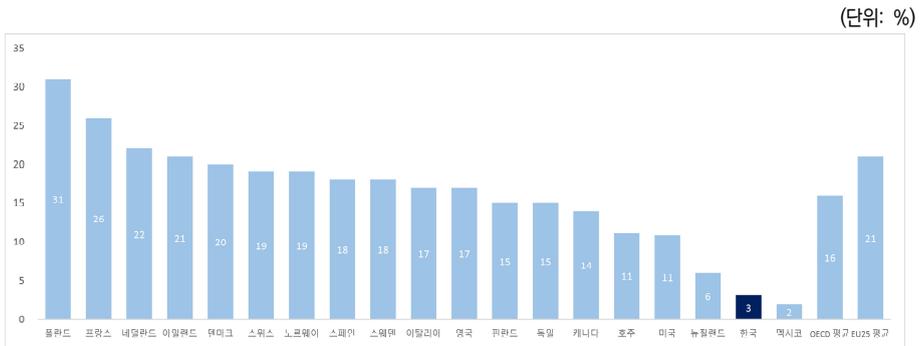


* 출처: OECD(2025a). *Education at a Glance*(<https://doi.org/10.1787/1c0d9c79-en>)에서 2025년 9월 30일 인출.

주: 제시된 백분율은 반올림한 값임.

그림 V-1. OECD 국가별 청년(25-3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2024)

이번에는 대학원 석사 학위자 비율을 좁혀서 살펴보고자 한다. 2024년 OECD 교육보고서에서는 박사학위자 비율도 같이 제시했으나 2025년 교육보고서에서는 석사 학위자에 대해서만 결과를 제시하였다. 먼저 OECD 평균을 보면, 25-34세 청년 중 16%가 대학원 석사 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OECD 국가 중 전문대, 대학, 대학원을 포함해 고등교육 이수율이 가장 높았던 우리나라는 석사 학위자로 좁혀 볼 때 3%에 그쳐 최하위 수준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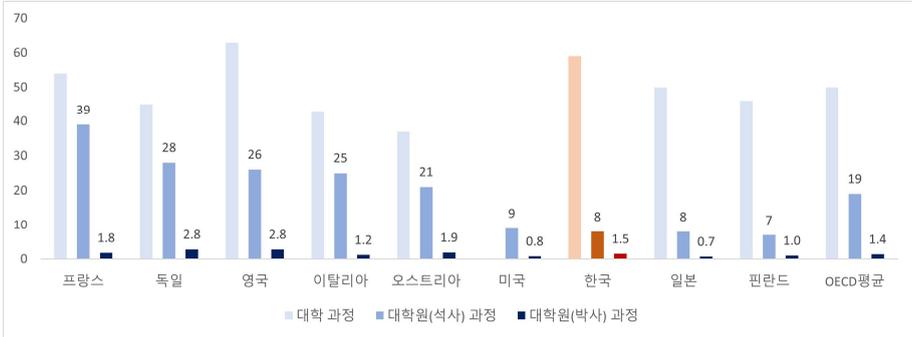
* 출처: OECD(2025a). *Education at a Glance*(<https://doi.org/10.1787/1c0d9c79-en>)에서 2025년 9월 30일 인출.
 주: 제시된 백분율은 반올림한 값임.

그림 V-2. OECD 국가별 청년(25-34세)의 대학원 석사 학위자 비율 국제비교(2024년)

2022년까지 OECD 교육보고서에서는 25세 미만 청년의 고등교육 입학률을 제시한 바 있다. 여기에서는 대학과 대학원 석사, 대학원 박사 과정 입학률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대학원 박사의 경우 25세 이상에 입학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석사과정을 중심으로 비교하는 게 필요하다.

OECD 평균을 살펴보면, 25세 미만 청년 중 19%가 대학원 석사 과정에 입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순수하게 대학을 마치고 대학원에 진학하는 비율로 볼 수 있다. 고등교육 이수율이 가장 높았던 우리나라의 경우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8%만이 석사 과정에 입학 것으로 나타났다. 20%가 넘는 유럽국가들에 비해 대학원 진학률이 높지 않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국가 경쟁력을 고려해 볼 때 대학원 진학을 보다 높이는 노력이 필요해 보이며 대학원 진학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단위: %)



*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25),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에서 2025년 10월 6일 인출. 미국은 대학 과정의 수치가 제공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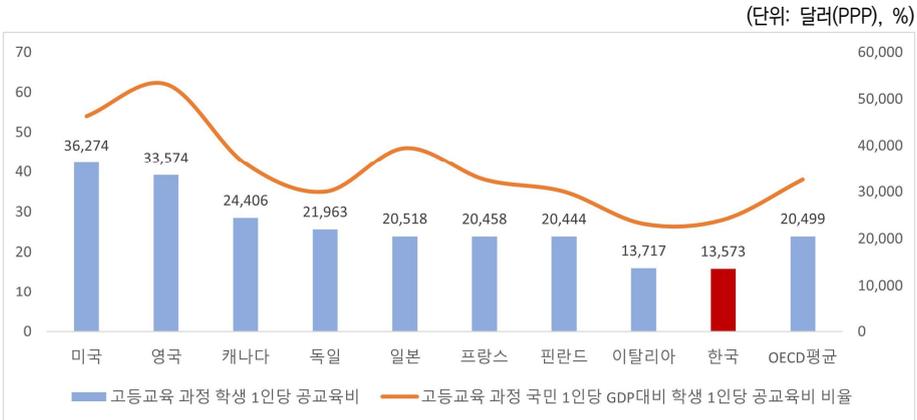
주: 제시된 백분율은 반올림한 값임.

그림 V-3. OECD 국가별 청년(25세 미만) 고등교육 입학률(2020년)

다음으로 고등교육에 대한 공교육비의 규모를 살펴보고자 한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학생수로 교육기관의 직접 지출액을 나누어준 값이며 이를 미국 달러로 환산해 비교 가능하도록 제시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과정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13,573달러로 OECD 평균액(20,499달러)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었다. 이를 국민 1인당 GDP 대비로 살펴보면 28% 수준이다. OECD 평균은 38% 수준이었다. 공교육비 규모 자체는 미국이 36,274달러로 가장 높았고 GDP 대비 비율은 영국이 62%로 가장 높았다. 고등교육 이수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는데 고등교육 과정의 공교육비는 평균 이하여서 고등교육의 질적 측면에서 우려스러운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다른 한편, 초등교육 과정과 중등교육 과정은 모두 OECD 평균 보다 높았다. 우선 초등교육 과정을 보면, 우리나라는 14,873달러로 11,902달러에 그친 OECD 평균보다 높았다. 전기 중등교육 과정(중학교)은 한국이 16,337달러, OECD 평균이 13,528달러로 이 역시 우리나라가 높았다. 후기 중등교육 과정(고등학교) 역시 각각 22,383달러, 13,719달러로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경우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해준다. 국민 1인당 GDP의 경우에도 초등, 전기 중등, 후기 중등교육 과정이 각각 31%, 34%, 46%로 OECD 평균인 22%, 25%, 25%보다 높았다. 고등교육의 국민1인당 GDP가 이처럼 가장 낮은 사례는 한국이 유일했다.



*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25).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에서 2025년 10월 6일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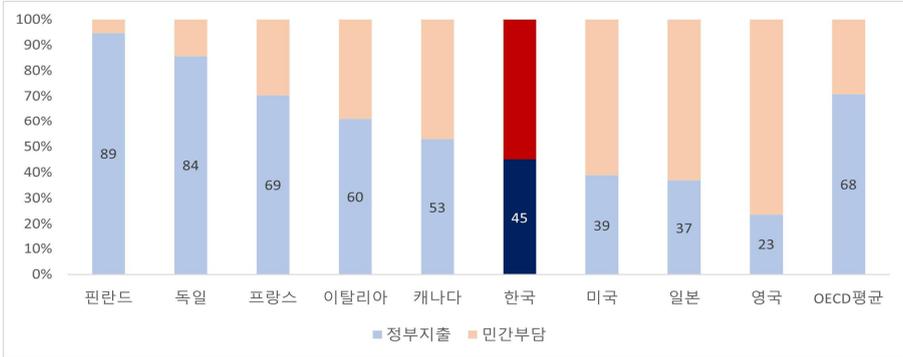
그림 V-4. OECD 국가별 고등교육 연간 학생 1인당 공교육비(2021년)

다음으로 공교육비 중에서 정부가 부담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정부지출 비중은 정부와 가계, 민간 자원 전체에 대한 교육기관 직접 지출액 중에서 정부가 재원을 직접적으로 지출한 금액의 비율을 의미한다. 나머지는 가계와 민간에서 재원을 마련한 금액의 비중이다. 한국과 캐나다는 민간 부담에 해외에서 마련한 재원을 포함하고 있다.

고등교육의 공교육비에 대한 정부지출은 OECD 평균 68%였으나 우리나라는 45%에 그쳐 매우 낮은 수준을 보여주었다. 우리나라는 영미 국가들에 비해 정부지출 비중이 높았으나 유럽 국가들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었다. 정부지출 비중이 가장 높은 핀란드는 89%였고 독일 역시 80%가 넘는 높은 비율을 보여주었다. 유럽 국가들에서는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군에 입대하는 것처럼 국가에 복무하는 측면이 강조되고 있어 정부지출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 독일의 경우 아동수당은 18세 미만까지 제공되나, 군 입대와 대학 진학의 경우 25세 미만까지 아동수당이 당사자에게 제공되고 있다.

고등교육과는 달리 초등교육 과정에서 한국의 정부 지출은 95%로 OECD 평균(93%)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제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지출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단위: %)



*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25).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에서 2025년 10월 6일 인출.
미국은 대학 과정의 수치가 제공되지 않음.

주: 제시된 백분율은 반올림한 값임.

그림 V-5. OECD 국가별 고등교육 정부지출 공교육비 상대적 비중(2021년)

마지막으로 대학 등록금을 살펴보고자 한다. OECD 통계보고서에서는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에 대한 결과를 모두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사립학교의 등록금은 학교마다 차이가 존재하고 이를 취합해 통계를 내기 어려운 여건이어서 OECD에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국가들이 많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여기에서는 국공립학교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단위: 달러, PPP)



*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25).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에서 2025년 10월 6일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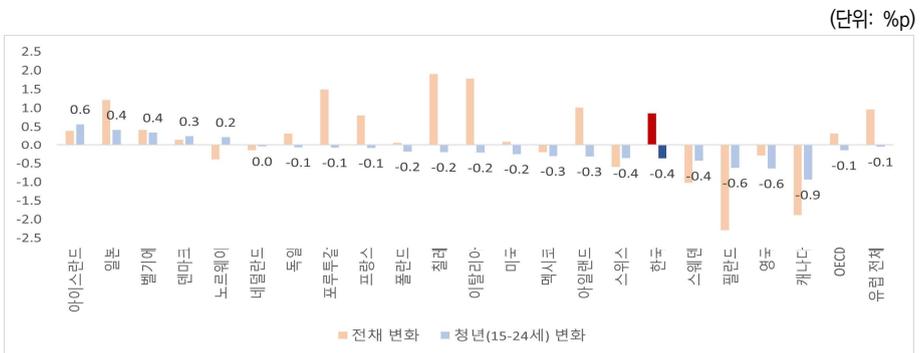
그림 V-6. OECD 국가별 국공립대학 등록금 규모(2022/2023년)

여기에서 제시한 금액은 미국 달러로 구매력지수(PPP)를 통해 국제 비교가 가능하도록 환산한 값이다. 국가마다 자료를 제공한 연도가 다른데 우리나라는 2022년 기준이며 2023년을 기준으로 제공한 국가들도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국립학교의 대학 등록금은 2022년 기준을 5,171달러로 독일(157달러)이나 프랑스(252달러)를 비롯하여 오스트리아(5,108달러)보다 높고 영국 잉글랜드(13,135달러)나 미국(9,596달러), 일본(5,645달러)보다 낮다. 2010년 이후 반값 등록금 시행으로 등록금을 10년 넘게 억제한 결과, 등록금을 받고 있는 국가 중 중간 정도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3) 청년의 학교-일자리 이행에 대한 국제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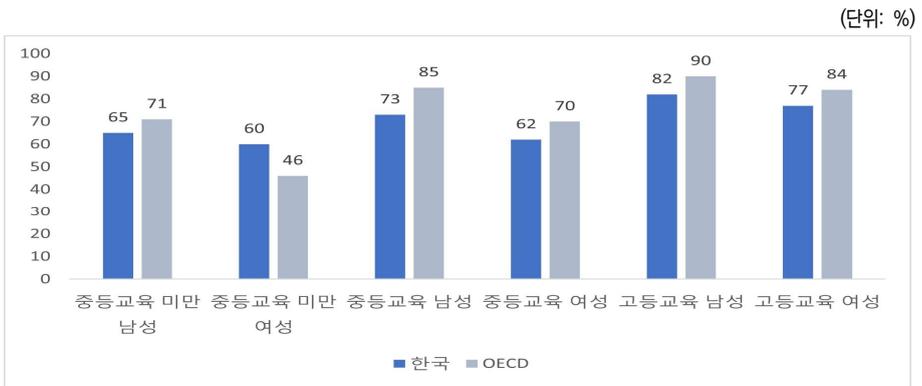
청년의 학교-일자리 이행과 관련하여 여기에서는 우선 고용지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지표인 고용률을 살펴보고자 한다. OECD(2025)의 「고용전망(*Employment Outlook*)」에서는 2023년 1분기와 2025년 1분기를 비교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OECD 전체 평균을 보면, 2023년 1분기 대비 2025년 1분기에 전체 고용률은 소폭 상승했으나 청년(15-24세) 고용률은 같은 기간 -0.1%p 낮아졌다. 우리나라 역시 청년 고용률이 낮아졌는데 감소폭은 -0.4%p로 평균보다 더 떨어졌다. 전체 고용률보다 청년 고용률이 더 높게 증가한 곳은 아이슬란드와 유일했고 일본과 벨기에의 경우 0.4%p로 증가폭이 컸다.



* 출처: OECD(2025b). *Employment Outlook*(<https://doi.org/10.1787/194a947b-en>)에서 2025년 9월 30일 인출.

그림 V-7. OECD 국가별 2023년 대비 2025년 1분기 고용률 변화(2025)

이어서 고용률을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고용률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여주는데 우리나라 역시 동일한 경향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청년 남성의 경우 우리나라 중등교육 미만의 고용률은 65%였고 중등교육의 고용률은 73%, 마지막으로 고등교육의 고용률은 82%였다. 성별로는 여성의 불이익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로 결과를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고등교육 남성의 고용률은 82%인데 반해서 여성의 고용률은 77%에 그쳤다. OECD 평균 고용률이 대부분 한국보다 높았는데 중등교육 미만의 여성 청년의 고용률은 46%인 OECD 평균보다 14%p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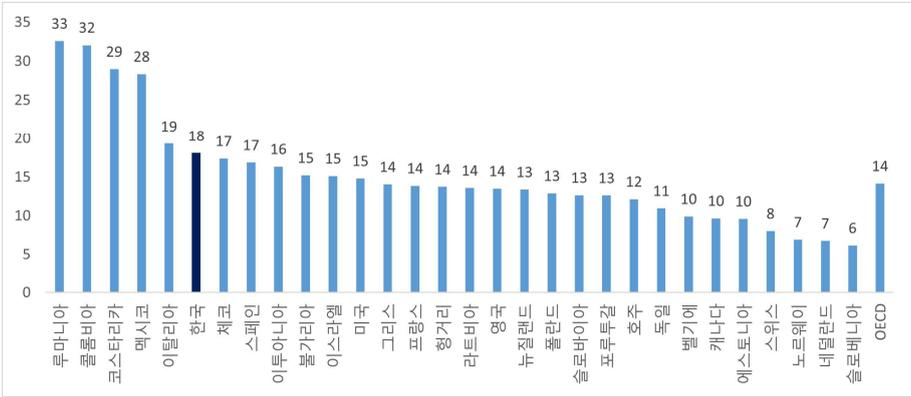
* 출처: OECD(2025a). *Education at a Glance*(<https://doi.org/10.1787/1c0d9c79-en>)에서 2025년 9월 30일 인출.

주: 제시된 백분율은 반올림한 값임.

그림 V-8. 25-34세 청년의 성별에 따른 교육수준별 고용률(2024년)

이어서 청년 니트(NEET)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니트는 교육도, 고용도 혹은 훈련도 받지 않는 젊은이의 비율을 의미한다. 연령은 15-24세 통계가 별도로 제시되기는 하나 주로 15-29세의 니트 비율이 제시되고 있다. ILO 보고서에서 니트 비율을 살펴보면, 2023년 기준으로 OECD 평균은 14%인데 우리나라의 니트 비율은 18%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니트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우선 중등 후 교육과정으로 분류되는 학위 과정이 없고 민간 교육 및 훈련기관을 통해 공공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외국과는 달리 재수생과 공시생의 비율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이러한 요인들을 제외하더라도 한국의 니트 비율은 높은 수준인데 아직까지 공식 통계로 집계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해석상 한계가 존재한다.

(단위: %)



* 출처: ILO(2024). *Global Employment Trends for Youth 2024*. 한국은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로 분석한 결과임.

주: 제시된 백분율은 반올림한 값임.

그림 V-9. 15-29세 청년의 니트(NEET) 비율(2023년)

청년 니트 통계를 매년 제시했던 OECD 교육보고서에서는 2025년부터 청년 실업률과 더불어 노동시장 밖에 있는 청년 비율을 추산해 제시하고 있다. 니트 비율에 대한 공식 통계를 내고 있지 않는 한국과 일본의 경우에도 이에 대한 통계가 제시되어 있다. OECD 교육보고서에서는 주로 25-34세의 통계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교육의 효과를 보기 위한 지표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일자리의 이행 기간을 충분히 고려했기 때문이다.

OECD 평균을 보면, 노동시장 밖의 청년(25-34세) 비율은 9%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해당 비율은 17%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수치를 해석할 때 고등교육 이수율이 높고 25세 이상의 나이에도 대학을 다닐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OECD 국가 중 한국보다 높은 노동시장 밖의 청년 비율을 보여주는 곳은 이탈리아(20%), 체코(20%), 튀르키예(18%) 정도였다.

여러 가지 해석상 고려사항이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청년 고용 여건이 좋지 않은 않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동시에 청년 고용 문제를 접근할 때 학교-일자리 이행 지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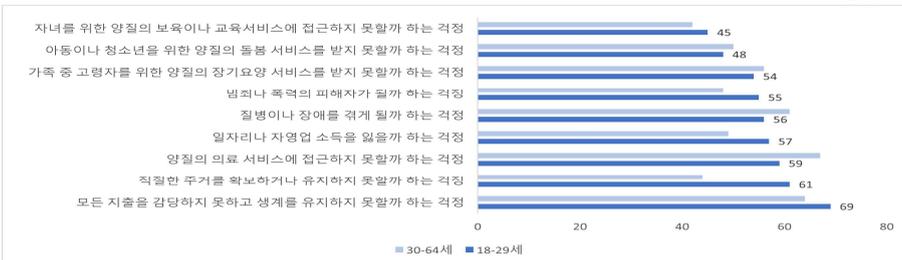
* 출처: OECD(2025a). *Education at a Glance*(<https://doi.org/10.1787/1c0d9c79-en>)에서 2025년 9월 30일 인출.

주: 제시된 백분율은 반올림한 값임.

그림 V-10. 25-34세 청년의 실업 및 노동시장 밖의 비율(2024년)

OECD에서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위험에 대한 인식 조사로 RTM 조사를 2020년부터 2년 주기로 실시 중이다. RTM 조사에서는 어떤 위험을 가장 걱정하는지를 9가지 유형별로 질문하였다. 18세에서 29세 청년 중 가장 크게 걱정하고 있는 위험은 생계 문제로 “모든 지출을 감당하지 못하고 생계를 유지하지 못할까 하는 걱정”(69%)이었다. 30세 이상 응답의 결과는 이보다는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할까 하는 걱정”이었다. 청년 중 두 번째 걱정거리는 “적절한 주거를 확보하거나 유지하지 못할까 하는 걱정”(61%) 이었고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걱정(59%)이 뒤를 이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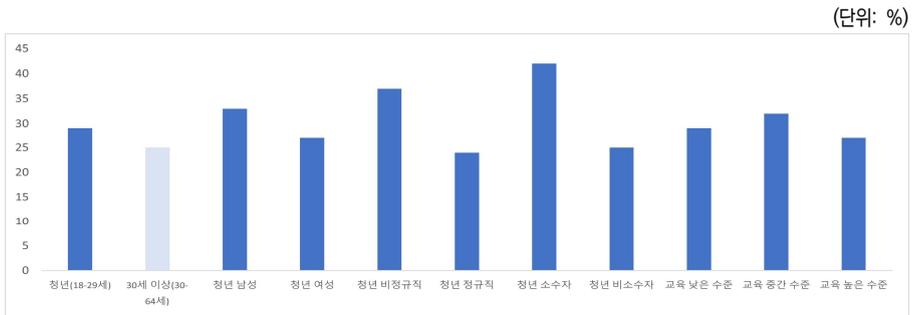
* 출처: OECD(2024: 7). *Risk That Matter for Young People*(<https://doi.org/10.1787/62b44423-en>). 한국을 포함하여 27개 국가에 대한 조사 결과임.

주: 제시된 백분율은 반올림한 값임.

그림 V-11. 향후(1, 2년) 걱정되는 변화에 대한 인식 결과 비교(2022년)

“일자리나 자영업 소득을 잃을까 하는 걱정”은 59%로 네 번째 걱정거리였다. 이에 대한 걱정은 30세 이상 응답자 중에서 6번째여서 청년이 더 위험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응답과 관련하여 실제 실직 위험을 겪고 있는지 물어본 결과, 18-29세 청년 응답자 중 29%가 그렇다고 답변했다. 30세 이상 응답 결과는 25%여서 청년들이 더 큰 실직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출처: OECD(2024: 7). *Risk That Matter for Young People*(<https://doi.org/10.1787/62b44423-en>). 한국을 포함하여 27개 국가에 대한 조사 결과이며 실직 위험에 대해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결과임.

그림 V-12. 청년(18-29세)의 실직 위험 응답 결과 국제비교(2022년)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실직 위험에 대한 응답 비중이 높았다. 비정규직 청년이 정규직 청년보다 실직 위험에 대한 응답 비중이 높았고 장애인, 성소수자 등 소수자인 경우, 교육수준이 낮을 경우 실직 위험에 대한 응답 비중이 높았다. 교육수준의 경우 고등 교육 수준이 가장 낮았으나 중등교육 수준이 중등교육 미만 수준보다 실직 위험에 대한 응답 비중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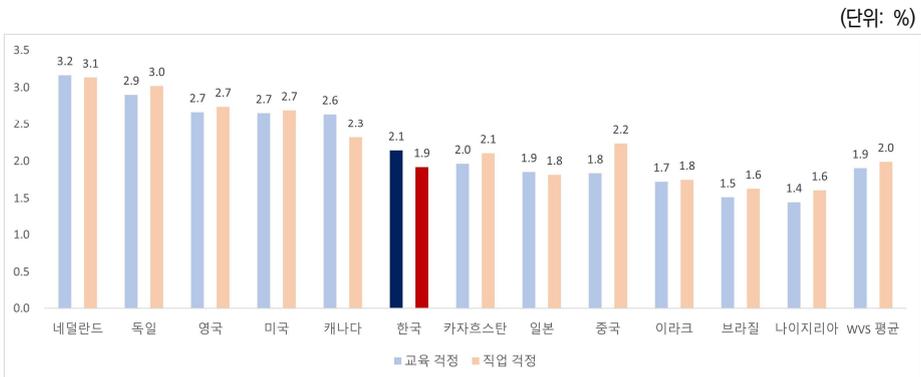
2. 교육과 직업 위험 인식 영향요인: WVS 결과

1) 분석 내용

이 연구에서는 학습진학과 학교-일자리 이행과 관련하여 국제 비교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국가 수준의 집계 자료가 아닌 개인 수준의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원자료(raw data)를 제공하고 있는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s Survey)를 활용하였다.

WVS 조사는 가치관에 대한 다양한 질문들을 담고 있는데 OECD의 RTM 조사와 마찬가지로 위험에 대한 인식 조사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먼저 학습진학과 관련하여 “자녀가 좋은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걱정”을 질문하고 있다. RTM 조사에서는 없는 유형의 질문이다. 이 문항은 교육에 대한 위험 인식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과 국가 수준의 영향 요인을 분석해 볼 수 있다.

이어서 RTM 조사와 유사하게 WVS 조사에서는 학교-일자리 이행에 관한 위험 인식을 묻고 있다. 이 질문은 “실직이나 구직실패에 대한 걱정”으로 취업자만이 아니라 미취업자를 포괄해서 분석이 가능하도록 묻고 있다. 이 문항은 직업에 대한 위험 인식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해 볼 수 있다. 위험 인식에 대한 질문은 6차 주기 조사(2010-2014)부터 포함되었고 가장 최근 조사인 7차 조사 주기(2017-2022)에서도 포함되었다.



* 출처: World Values Survey 7 Wave(2017-2022) 원자료 분석 결과. 4점 척도 결과이며 값이 낮을수록 걱정이 높은 것임.

그림 V-13. 국가별 교육 및 직업 위험 인식 응답 결과(2017-2022)

국가별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19세에서 34세 청년인 경우 교육과 직업에 대한 걱정 정도는 세계가치조사 참여 국가 평균 1.9점과 2.0점으로 나타났다. 이 항목은 4점 척도이며 점수가 낮을수록 걱정하는 정도가 높다. 우리나라는 평균과 유사한 수준으로 교육 걱정은 2.1점, 직업 걱정은 1.9점으로 나타났다. 네덜란드의 경우 교육과 직업 모두 걱정하는 정도가 가장 낮았다. 나이지리아(1.4점, 1.6점)와 같은 아프리카 국가에서 걱정하는 정도가 가장 높았다. 영미와 유럽 국가가 전반적으로 걱정하는 정도가 낮았고 일본과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걱정하는 정도가 높았다.

이 연구에서는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다루어진 개인 및 국가 변수들을 고려하였다(이용해, 김기현, 신동훈, 2023; 김기현, 김형주, 강영배, 오선정, 2024). 우선 개인 수준 변수들로 성별과 연령을 비롯하여 교육수준, 건강상태, 혼인이나 자녀 유무와 같은 인구사회적 배경 요인을 고려하였다. 청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분석이기 때문에 가족 배경 요인들도 중요하게 다루었다. 부모의 교육수준과 아버지의 직업을 비롯해 가구원 수, 부모와 동거 여부 등이었다.

국가 차원의 요인들로는 세 가지 측면의 변수들을 고려하였다. 경제적 불평등이 심할수록 교육이나 직업에 대한 불안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경제 규모가 크다면 그만큼 불안을 느낄 가능성이 낮을 것이다. 합계출산율은 자녀 양육의 부담으로 교육이나 직업에 대한 불안을 느낄 가능성이 존재한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국가 수준의 변수들과 교육, 직업 걱정에 대한 상관분석을 시도하였다. 먼저, 경제적 불평등도는 지니계수(GINI Index)를 사용하였는데 18세에서 34세 청년 응답자를 대상으로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교육과 직업 걱정 모두 부(-)의 관계를 보여주었다. 불평등이 심할수록 교육이나 직업에 대한 걱정이 커진다고 볼 수 있다. 합계출산율 역시 마찬가지로 부(-)의 관계를 보여주었다. 자녀가 있다면 그만큼 생계를 책임져야 하므로 걱정이 클 수 있다. 반면, 경제 규모는 두 변수와 정(+)의 관계를 보여주었다. 경제규모가 클수록 교육과 직업에 대한 걱정이 줄어드는 결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국가 변수들의 결과는 다른 요인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준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 상관관계로 분석한 것이어서 단정할 수 없다. 이 연구에서는 개인 수준과 국가 수준을 분해해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위계선형모형(HLM: Hierarchical Linear Model)을 이용하여 교육과 직업 걱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2) 분석 자료 및 방법

이 연구는 세계가치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세계가치조사는 5년 단위로 100여개 국가를 대상으로 국제비교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이루어져 왔다. 가장 최근 조사 주기는 7차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 조사에는 한국을 포함하여 100개 국가들이 참여했고 중요한 국가 수준변수 및 무응답 사례를 제외하고 52개 국가 21,834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모형인 위계선형모형에서 1수준 모형은 개인 수준의 변수들이 교육과 직업 걱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2수준 모형은 경제적 불평등도, 경제 규모, 그리고 합계출산율 등 국가 수준 변수들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모형1은 독립변수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모형이다. 모형2는 1수준 모형에 해당하는 개인 수준 변수들까지 포함한 모형이다. 마지막으로 모형 3은 국가 수준 변수까지를 포함한 최종모형이다.

종속변수는 위협 인식 중에서 교육과 직업에 대한 걱정이다. 이 변수는 “자녀가 좋은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걱정”과 “실직이나 구직실패에 대한 걱정”에 대해서 “매우 그렇다(very much)”, “그런 편이다(a good deal)”, “그렇지 않다(not much)”, “전혀 그렇지 않다(Not at all)”로 답변한 것이다. 점수가 낮을수록 걱정에 대한 동의가 높아지고 높을수록 걱정을 하지 않는 정도가 커진다.

국가 수준 변수로 경제적 불평등도와 경제규모는 지니계수와 1인당 국민총생산(GDP per capital)이며 후자는 로그 값을 활용하였다. 세계가치조사에서는 원자료를 제공할 때 중요한 국가 수준 변수를 포함해 제공하고 있는데 경제적 불평등도와 경제규모는 원자료에 포함되어 있어 이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반면 합계출산율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세계은행(World Bank)의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자료를 가져와 세계가치조사 원자료와 연계해 사용하였다.

개인 수준 변수 중 성별은 여성인 경우 1값을, 남성인 경우 0값을 부여하였다. 자녀 여부나 결혼 여부 등은 해당되면 1값을, 해당되지 않으면 0값을 부여하였다. 부모 동거와 부모 이민자 여부 등도 해당되면 1값을, 해당되지 않으면 0값을 부여하였다. 연령이나 가구원 수는 그대로 사용하였고 본인과 부모의 교육수준은 대학 이상인 경우 1값을, 미만인 경우 0값을 부여하였다. 개인의 건강상태는 1값이 “매우 좋다”이고 4값이 “안 좋다”인 4점 척도인데 값을 역순(reverse)해서 값이 높을수록 건강이 좋은 상태로 변경하였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직업은 관리직이거나 전문직인 경우 1값을 부여하였다.

3. 분석 결과

1) 교육에 대한 위험 인식 영향요인

이 연구에서는 교육에 대한 위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과 국가 수준의 요인을 살펴보았다. 국가 수준의 분산비율인 ICC는 0.240으로 국가 수준변수들이 설명하고 있는 비율은 약 24.0%로 나타나고 있다.

표 V-2. 청년의 교육 위험 인식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HLM)

변수		모델 1(무조건)	모델 2(개인)	모델 3(개인+국가)
개인 수준	성별(여성=1)		-.042(.012)**	-.043(.012)**
	본인 교육수준(대학 이상=1)		-.005(.014)	-.005(.014)
	본인의 건강상태		.019(.007)**	.019(.007)*
	연령		-.001(.001)	.001(.001)
	부모 중 이민자(있음=1)		-.146(.028)***	-.148(.028)***
	가구원 수		-.002(.003)	-.002(.003)
	부모 동거 여부(예=1)		.012(.015)	.013(.020)
	결혼 여부(예=1)		-.022(.017)	-.022(.017)
	자녀 여부(예=1)		-.207(.018)***	-.207(.018)***
	모의 교육수준(대학 이상=1)		.068(.021)**	.067(.021)**
	부의 교육수준(대학 이상=1)		-.014(.021)	-.014(.021)
	부의 직업(관리전문직=1)		.034(.020) [†]	.035(.020) [†]
	국가 수준	경제적 불평등		
국가 경제 규모				.273(.088)**
합계출산율				-.014(.088)
잔여항		1.921(.070)***	1.933(.087)***	0.009(1.115)
ICC(Intra-class correlation)			0.240	
표본수	개인		21,840	
	국가		52	

개인 수준 결과부터 살펴보면, 여성인 경우 남성보다 교육에 대한 위험 인식이 높게 추정되었다. 본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교육에 대한 걱정이 컸고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교육에 대한 위험 인식이 높게 추정되었다.

가족배경 요인들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준 변수들을 살펴보면, 부모 중 이민자 여부와 어머니의 교육, 아버지의 직업 등이었다. 부모 중 이민자가 있는 경우 교육에 대한 걱정이 컸고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교육에 대한 위험 인식이 높게 추정되었다. 아버지의 직업이 관리직이거나 전문직일 때 10%의 유의수준에서 교육에 대한 위험 인식이 낮게 추정되었다.

마지막으로 국가 수준의 변수들의 결과를 살펴보면, 합계출산율은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제적 불평등도는 높을수록 교육에 대한 위험 인식이 높게 추정되었고 반대로 경제 규모는 클수록 교육에 대한 위험 인식이 낮게 추정되었다.

2) 실직과 구직에 대한 위험 인식 영향요인

이 연구에서는 직업에 대한 위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 수준과 국가 수준을 나누어 살펴보았다. ICC는 0.163으로 국가 수준에서 설명되는 비율은 약 16.3%로 나타나고 있다. 앞선 교육에 대한 위험 인식보다는 낮은 수준을 보여주었다.

개인 수준에서 교육 걱정과 관련된 결과와는 달리 여성이나 자녀 유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지 않았다. 본인의 건강상태는 이 경우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는데 건강이 나쁠수록 직업 걱정 수준이 높게 추정되었다.

가족배경과 관련하여 부모 중 이민자가 있는 경우 직업 걱정 수준이 높게 추정되었고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직업 걱정 수준이 낮게 추정되었다. 아버지의 직업은 이 경우에도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는데 아버지의 직업이 관리직이거나 전문직인 경우 직업 걱정 수준이 낮게 추정되었다. 교육 걱정과는 달리 부모와의 동거할 경우 직업 걱정 수준이 낮게 추정되었다.

국가 수준 변수를 살펴보면, 앞서 교육 걱정과 마찬가지로 경제 불평등도는 직업 걱정을 높이는 대신 경제 규모는 낮추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 V-3. 청년의 취업 및 실직 위험 인식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HLM)

변수		모델 1(무조건)	모델 2(개인)	모델 3(개인+ 국가)
개인 수준	성별(여성=1)		-.008(.013)	-.009(.013)
	본인 교육수준(대학 이상=1)		.010(.015)	.010(.015)
	본인의 건강상태		.036(.007)***	.036(.007)***
	연령		-.000(.001)	-.000(.001)
	부모 중 이민자(있음=1)		-.185(.030)***	-.187(.030)***
	가구원 수		.011(.003)**	.011(.003)**
	부모 동거 여부(예=1)		-.027(.016) [†]	-.027(.016) [†]
	결혼 여부(예=1)		.019(.018)	.019(.018)
	자녀 여부(예=1)		-.032(.019) [†]	-.031(.019)
	모의 교육수준(대학 이상=1)		.051(.022)*	.050(.022)*
	부의 교육수준(대학 이상=1)		.012(.023)	.011(.023)
	부의 직업(관리전문직=1)		.040(.022) [†]	.041(.022) [†]
국가 수준	경제적 불평등			-.022(.007)**
	국가 경제 규모			.176(.078) [†]
	합계출산율			-.031(.077)
	잔여항	1.996(.058)***	1.817(.082)***	1.817(.082)***
ICC(Intra-class correlation)			0.163	
표본수	개인		21,840	
	국가		52	

주: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4. 연구 결과 요약 및 시사점

이 연구에서는 3장에서 이루어진 청년의 성인기 이행 지표와 관련하여 학습과 진학, 학교-일자리 이행과 관련된 국제 비교 지표들을 선정하고 분석하였다. 우선 학습과 진학에 대한 지표로는 청년 고등교육 이수율, 청년 석사 학위자 비율, 청년 고등교육 입학율, 고등교육 학생 1인당 공교육비, 고등교육 정부지출 공교육비 비중, 연평균 대학등록금 추정치 등이 포함되었다. 자료는 OECD(2025)의 「한눈에 보는 교육(*Education at a Glance*)」과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국제통계 등에서 제공되는 데이터 들이 활용되었다.

학교-일자리 이행 지표로는 청년 고용률 변화, 청년 교육수준별 고용률, 청년 니트 비율, 청년 노동시장 밖의 비율, 청년의 실직에 대한 위험인식 등이 포함되었다. 이에 대한 자료로는 OECD(2025b)의 「고용전망(*Employment Outlook*)」과 OECD(2025a)의 「한눈에 보는 교육(*Education at a Glance*)」을 비롯하여 ILO(2024)에서 발간한 2024년 「국제 청년 고용동향(*Global Employment Trends for Youth*)」이 활용되었다. 동시에 OECD(2024)에서 발간한 「청년의 위험 인식 보고서(*Risks that matter for young people*)」 역시 활용되었다.

학습과 진학에 대한 지표 분석 결과, 우리나라 청년(25-3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이 OECD 중 가장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청년(25-34세)의 대학원 석사 학위자 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첨단 산업 분야에서 인재 양성이 시급한 상황에서 고급인재 양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초과학과 공학 분야에서 대학원 석사와 박사 학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대학 재정 부분에서도 나타나는데 고등교육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13,573달러로 OECD 평균액(20,499달러)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었다. 반면, 초등교육 과정과 중등교육 과정은 모두 OECD 평균보다 높았다. 고등교육의 공교육비에 대한 정부 지출 역시 45%로 OECD 평균(68%)에 크게 못 미쳤다. 우리나라 국공립학교의 대학 등록금은 무상으로 제공되는 국가들을 제외하고 중간 수준 정도로 이는 2010년 이후 반값 등록금 정책에 따라 등록금 인상률이 억제된 결과로 보인다. 다만, 올해부터 각 대학들이 대학 등록금 인상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해 보인다.

학교-일자리 이행 지표 결과를 보면, OECD 전체적으로 2023년 1분기 대비 2025년

1분기에 청년(15-24세) 고용률은 -0.1%p 낮아졌는데 우리나라는 이 보다 감소폭이 커서 -0.4%p나 떨어졌다. 이는 한국의 청년 고용여건이 더 좋지 않은 상황임을 보여준다. 2010년 이후 국제적으로 핵심적인 청년 고용지표로 등장한 청년 니트(NEET) 비율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공식 집계하고 있지 않다. 중등 후 교육과정이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과잉 추정 문제를 정부에서는 제기했으나 OECD에서 이를 수용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청년 니트 통계를 매년 제시했던 OECD 「한눈에 보는 교육」에서는 2025년부터 노동시장 밖에 있는 청년 비율을 추산해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더불어 여성 주부와 결혼준비자를 니트에서 제외하는 문제로 인해 공식통계를 내고 있지 않는 일본 역시 이 통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집계한 결과를 제출하였다. OECD 평균은 9%였는데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밖의 청년(25-34세) 비율은 17%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이 매우 높고 가장 왕성해야 할 시기에 유휴인력으로 빠지는 문제여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최근 정부에서 쉬었음 청년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한 것도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위험 인식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29세 이하 청년들 중에서 "일자리나 자영업 소득을 잃을까 하는 걱정"을 한다는 비중은 59%로 네 번째로 높았다. 30세 이상 응답자들은 6번째 걱정거리로 나타나서 청년이 더 위험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가치조사 자료를 활용해 교육이나 직업 위험인식에 영향 요인을 살펴보았다. 7차 주기 조사(2017-2022년)에 참여한 19-34세 청년 21,834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시도했으며 분석 대상은 52개 국가였다. 위계선형모형으로 분석을 시도했는데 1수준은 개인의 영향 요인, 2수준은 국가 수준의 영향 요인을 분석하였다.

국가 수준의 영향 요인을 살펴보면, 교육에 대한 위험 인식의 경우 경제적 불평등이 높을수록, 경제 규모가 작을수록 높게 추정되었다. 직업에 대한 위험 인식 역시 제 불평등도는 직업 걱정을 높이는 대신 경제 규모는 낮추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 교육이나 직업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불평등을 낮추고 경기회복을 통해 경제 규모를 키우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 제6장 청년의 성인기 이행 정책 현황 및 문제점: 학습과 일자리

- 1. 법률 현황 및 문제점
- 2. 기본계획과 대책 현황 및 문제점
- 3. 정책사업 현황 및 문제점
- 4. 해외 사례와 정책적 시사점

1. 법률 현황 및 문제점

1) 청년의 학습과 진학 관련 법률 현황 및 문제점

여기에서는 청년의 성인기 이행과 관련된 정책을 살펴보기에 앞서 법률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청년의 성인기 이행 중에서 학습과 진학, 학교-일자리 이행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우선 이 절에서는 학습과 진학 관련 법률 현황을 살펴보았다.

청년정책의 근간이 되는 법률인 「청년기본법」을 먼저 살펴보면, 청년정책 시책으로 제19조에 청년 능력개발 지원이 포함되었다. 해당 조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능력·재능·기술 등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에서는 5가지의 정책 분야가 나누어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육분야이다. 교육분야는 4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지는데 고른 교육기회 보장, 청년의 미래역량 강화, 교육-일자리연계 강화, 그리고 온택트 교육기반 구축 등이다(관계부처 합동, 2020: 7).

표 VI-1. 청년기본법의 학습과 진학 관련 관련 조항

법률조항	내용
제19조 (청년 능력개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능력·재능·기술 등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검색일 2025년 9월 25일.

8) 본 장은 김기현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고용노동부에서 관장하는 법률 중에서도 청년의 학습과 진학을 다루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은 제일 먼저 제정된 청년 관련 법률로 청년 고용 문제 해소를 위해 마련되었는데 이 법률에는 산·학·연 협력과 교육훈련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우선 제4조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산·학·연 협력이 포함되었다. 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프로그램이나 직업지도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8조의 2와 3을 통해 기업이나 경제단체, 대학 등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는 기업이 경제단체, 대학의 교육 및 고용서비스 지원 근거로 활용 되어 왔다.

표 VI-2.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의 학습과 진학 관련 조항

법률조항	내용
제4조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설치 등)	② 특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산·학·관 협력에 관한 사항
제8조의2 (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 제공)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이 직업을 선택하기 전에 기업등에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기업등이나 경제단체 또는 대학등이 제1항에 따른 직장체험 기회 제공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의3 (직업지도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및 제공)	① 정부는 청년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직업적성검사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 기관을 통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대학등이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검색일 2025년 9월 25일.

22대 국회에서 올라온 법안 중 해당 조항에 대한 개정내용이 포함된 것은 박성훈 의원 대표발의 법안이다. 이 법안에는 제8조의 3에 대학 등만이 언급되어 있어 민간 등에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제8조의 5를 신설해 직업지도 프로그램 만이 아니라 취업역량 강화 및 취업 알선 등의 고용지원서비스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손을춘 전문위원은 현행 법률이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상황에서 개정 필요성이 인정되며 고용노동부에서도 이를 수용하는 입장을 갖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손을춘, 2024: 6-7).

이어서 손을춘 전문위원은 대학 등에서 고용서비스 제공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부분은 현재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와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나 고용노동부에서는 현행 법 조항만으로 대학에 지원할 근거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손을춘, 2024: 8-9).

표 VI-3.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법률(안) 중 학습과 진학 관련 조항

의안	현행	개정안
박성훈의원 대표발의 (2024. 6. 24.)	(신 설)	제8조의3(직업지도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및 제공) ③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정부 및 민간 등은 각 직능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직업지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의5(대학등의 고용서비스 제공에 대한 지원) 정부는 대학등이 직업지도 프로그램 운영, 취업역량 강화 및 취업 알선 등의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청년고용촉진 특별법률안. 검색일 2025년 10월 16일.

다음으로 특정 청년 대상에 대한 지원에 관한 법률로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다. 이 법률에는 학교와 전문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실습교육이나 농어업 창업교육, 현장연수를 지원과 후계농어업인에 대한 교육 지원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표 VI-4.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의 학습과 진학 관련 조항

법률조항	내용
제9조 (학교 등의 농어업 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래 농어업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농업 및 수산업 계열학교 또는 전문교육기관이 실시하는 농어업 관련 실습교육 또는 농어업창업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한 농어업경영체와 협력하여 농어업에 종사하려는 자의 농어업현장연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후계농어업인 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후계농어업인에 대한 교육을 하는 농어업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농어업 관련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후계농어업인에 대한 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후계농어업인에 대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후계농어업 교육전문가의 양성, 교육과정의 개발, 교육장소의 제공 또는 후계농어업교육전문가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검색일 2025년 9월 25일.

다음으로 2025년 새롭게 제정된 청년 관련 법률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위기아동청년법)」이다. 이 법률은 1년 뒤인 2026년에 시행될 예정으로 위기 상태에 놓은 청년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기아동청년법에는 위기 청년에 대한 자립 지원 중 교육에 대한 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무에 대한 조항과 제17조에 학업지원서비스, 장학금 지급, 직업훈련 프로그램 연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표 VI-5. 위기아동청년법의 학습과 진학 관련 조항

법률조항	내용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아동·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이들이 주체적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 (학업 및 취업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자에게 적성과 능력에 맞는 학업 및 취업 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전담조직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업 및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시 민·관 장학금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과 연계하여야 한다.

*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검색일 2025년 9월 25일.

마지막으로 청년 관련 법률은 아니지만 청년의 학습과 진학 관련 내용을 다루는 법률로 「진로교육법」이 있다. 이 법률의 제14조에는 대학의 진로교육 실시와 대학에 대한 지원이 명시되어 있다.

표 VI-6. 진로교육법의 학습과 진학 관련 조항

법률조항	내용
제14조 (대학의 진로교육)	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장은 진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진로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검색일 2025년 9월 25일.

지금까지 청년 법률을 중심으로 학습과 진학에 관한 조항을 살펴보았는데 몇 가지 문제점이 존재한다.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에는 학교-일자리 연계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으나, 어느 법률에도 이를 담고 있지 않다. 정부 부처가 교육부, 고용노동부로 나누어져

있듯이 교육에 대한 지원과 고용에 대한 지원이 구분되어 제시되어 있을 뿐 학교 이행이나 학교-일자리 이행을 명시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다.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에서처럼 교육 영역에서 이를 제시하거나 일자리 영역에서 학교와 일자리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이는 박성훈 의원 대표 발의 법안의 개정사항과도 연결되는데 대학 등 학교에서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명문화하는 작업도 진행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진로교육법의 경우 제1조에 학생만을 지원하게 되어 있고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에는 학교밖 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학생이 아닌 청년에 관한 지원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다수가 대학에 진학하고 있으나 대학을 가지는 않는 청년이 있고 대학을 중퇴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진로교육법에 대학생이 아닌 청년에 대한 진로교육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2) 청년의 학교-일자리이행 관련 법률 현황 및 문제점

「청년기본법」에서 학교-일자리 이행에 관한 조항은 별도로 없으며 일자리와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먼저 제2조 기본이념에 청년의 경제 참여 촉진이 포함되었고 청년정책 시책 중 하나로 제17조에 일자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표 VI-7. 청년기본법의 학교-일자리 이행 관련 조항

법률조항	주요내용
제2조 (기본이념)	② 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종합적 청년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참여 촉진
제17조 (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 질 향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청년 일자리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과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검색일 2025년 9월 25일.

세부적으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 제시된 사업 근거 조항 모두 학교-일자리 이행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미취업자의 취업을 돕는 것은 학교-일자리 이행에 있어서 징검다리와 같은 역할로 볼 수 있다. 다만, 취업 이후 이직이나 이직 이후 재취업 과정 등도 미취업자에서 취업자로의 이행에 해당하므로 초기 사회 진출을 넘어서는 지원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법률의 핵심 조항인 공공기관의 청년 고용의무제와 중소기업 고용 지원, 취업으로 청년에 대한 지원 등이 포함되었다.

표 VI-8.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의 학교-일자리 이행 관련 조항

법률조항	내용
제4조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설치 등)	② 특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채용실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매년 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조 (국민생활안정 관련 공공부문에서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	① 정부는 안보·국방·차안·소방·사회복지서비스 및 환경보전 등 국민생활의 안정과 불편 해소를 위하여 인력수요가 큰 공공부문에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교육·보건·환경 및 문화 등의 사회서비스 분야에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① 정부는 인건비 등 경비 과중으로 인한 중소기업체의 경영 애로를 타개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체가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의4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학력, 경력 및 직업기술의 부족 등을 이유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개인별 심층상담을 통한 직업경로 설계, 직장체험·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한 취업의욕과 능력 증진, 취업 알선 등의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참여를 유도하고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검색일 2025년 9월 25일.

22대 국회에서 다양한 법안이 해당 법률 개정안으로 올라온 상태이다. 박성훈 의원 대표발의 법안에는 청년 내일채움공제와 같이 중소기업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사업의 법적 근거와 현재 추진 중인 청년친화강소기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국회 손을춘 전문위원의 검토 내용을 보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좋으나 불이익 처분에 관한 사항도 법률에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손을춘, 2024: 12).

표 VI-9.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법률(안) 중 학교-일자리 이행 관련 개정안1

의안	현행	개정안
박성훈의원 대표발의 (2024. 6. 24.)	제7조(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① ~ ③ (생략)	제7조(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설>	④ 정부는 청년이 중소기업체에 취업하여 장기근속하여 경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체 및 해당 청년에게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제8조의6(청년친화강소기업의 선정 및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청년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에서 매년 청년 고용실적, 임금 수준, 일생활 균형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청년친화강소기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년친화강소기업의 선정은 해당 기업의 사업장 단위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년친화강소기업의 선정 및 취소,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청년고용촉진 특별법률안. 검색일 2025년 10월 16일.

이어서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 법안을 보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현행 월 50만 원 지원하는 것을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40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과 공공기관 의무고용제를 100분의 3에서 100분의 5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확대는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서가 올라오지 않은 상태인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부분이다. 이재명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중 89번 과제가 청년정책 과제이며 이 중에서 청년 맞춤형 취업 지원 강화로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활동지원금 확대가 포함되었다(대한민국정부, 2025: 141). 어떻게 구직활동지원금을 확대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담겨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이 법안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매년 특정할 필요없이 최저임금에 연동해 지급액을 정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VI-10.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법률(안) 중 학교-일자리 이행 관련 개정안2

의안	현행	개정안
박해철의원 대표발의 (2025. 6.13.)	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매년 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① ----- ----- ----- ----- ----- ----- ----- ----- ----- ----- -----
박해철의원 대표발의 (2025. 6.16.)	<신 설>	제8조의5(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지급)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구직 중인 청년의 취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금(이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해당 연도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월(月) 단위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③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지급 대상·금액·기간·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강대식의원 대표발의 (2025. 9.30.)	법률 제11792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유효기간)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법률 제11792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유효기간) ----- ----- 2029년 12월 31일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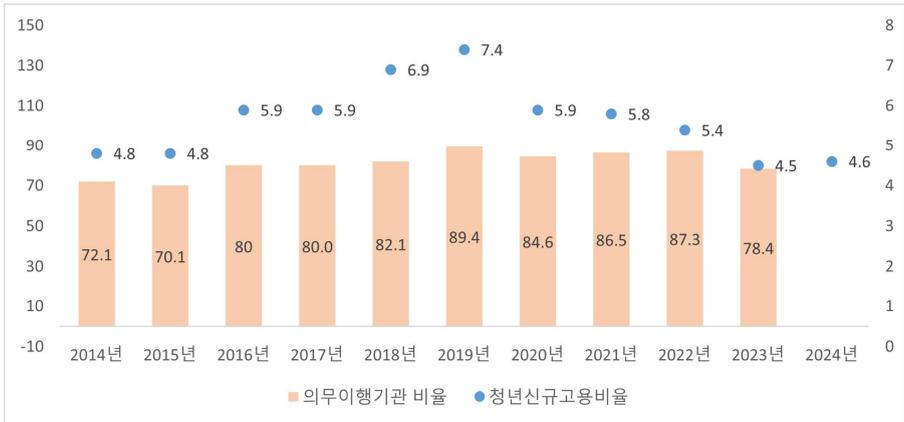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청년고용촉진 특별법률안. 검색일 2025년 10월 16일.

공공기관 의무제 확대는 손술 의원 대표발의 법안(2025. 9. 24.)에도 동일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청년정책시행계획에 따르면, 청년 의무고용제를 준수하는 기관의 비율은 2023년 들어 78.4%로 낮아졌다. 제도 도입 초기보다는 높지만 2019년에 89.4%까지 상승했던 것과 비교해 보면 매우 낮아진 상황이다.

청년고용의무제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 제정 이전에 노무현 정부에서 「청년실업해소 특별법」으로 시작해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이 청년을 신규 채용하도록 권고하는 형태로 시작되었다. 박근혜 정부 시기에 청년고용의무제가 도입되었고 2014년부터 시행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법률에 따라서 정원이 30명 이상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만 15세에서 34세 청년으로 신규 채용해야 한다. 각 기관과 기업들은 매년 해당 실적으로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하고 고용노동부에서는 이행기관과

미이행기관에 대한 명단을 공표하도록 되어 있다.

손сол 의원실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제 공공기관과 공기업에서 청년을 신규채용한 비율을 보면, 2019년에 7.4%에서 2023년에 4.5%로 낮아졌고 2024년에도 비슷한 수준인 4.5%에 그쳤다. 이는 의무제 전환 첫 해인 2014년도의 4.8%보다 낮아진 수준이다.



* 출처: 관계부처 합동(2025a); 손솔의원실 보도자료(2025.7.14.). 신규고용비율은 기관 전체 정원 대비 신규로 고용된 청년의 비율임.

그림 VI-1. 청년 고용의무제 적용대상 기관 의무이행기관 비율 및 청년 신규고용비율(%)

최근 청년 고용 문제가 심각하고 성인기 이행과정에서 청년의 어려움이 가중된 이유로 공공부문에서 신규 채용을 줄이는 것도 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규제 법률로 기한을 정해 한시법으로 적용되고 있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을 일반법으로 전환하고 공공부문에서 신규 채용을 확대하는 노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2. 기본계획과 대책 현황 및 문제점

1)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의 과제 현황 및 문제점

청년의 성인기 이행을 지원하는 정책에 대해서 2020년에 수립된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적용되며 제2차 청년정책기본계획은 2025년에 수립되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제2차 기본계획에 따른 결과를 살펴볼 수 없는데 다만,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2025년 9월에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방향」이 발표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해당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성인기 이행 관련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기본계획에서 청년정책의 영역은 모두 5가지로 구성된다. 첫 번째는 일자리며 두 번째는 주거, 세 번째는 교육, 네 번째는 복지문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참여권리이다. 각 영역별로 중점 및 세부과제 중에서 성인기 이행을 지원하는 정책 과제는 6가지 정도로 추려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성인기 이행 관련 정책 중에서 학습과 진학, 학교-일자리이행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표 VI-11.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2021-2025)의 청년 성인기 이행 관련 과제 현황

방향	중점과제	세부과제	부처
청년의 일할 권리를 보장합니다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역량강화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	고용부/기재부
청년의 주거부담이 줄어듭니다	청년 친화형 주거모델 보급	생애 첫 청년 주거 패키지 지원	국토부
청년이 스스로의 삶을 그려갑니다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	고졸 청년 취업 및 사회 안착 지원	교육부/고용부
		대학생 및 청년의 진로 지원 강화	교육부/고용부/국방부
청년의 생활이 나아집니다	사회출발자산 형성 및 재기 지원	저소득 청년 자산형성 지원 제도 개편	복지부/국방부
청년의 삶을 청년이 직접 결정합니다	청년 권익보호 및 청년 교류 활성화	노동·금융·주거 청년권익 보호	고용부/여가부/금융위/교육부/공정위

*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0:9-12).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 **굵은색**은 학습과 진학, 학교-일자리이행 관련 과제임.

먼저 일자리분야를 보면, 중점과제로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역량강화 과제에 세부과제로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 과제가 있다. 2020년 수립 당시 제언된 정책 사업 중 성인기 이행과 관련성이 높은 과제는 구직을 포기한 청년 발굴 및 고용서비스 연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운영과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국민내일배움카드와 청년의 지역안착유도를 위한 지역기업 인식개선 및 취업연계 지원 사업이 있다. 물론 이 과제들도 직접적으로 성인기 이행을 지원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업들 중에서 졸업예정자나 사회초년생을 특정해서 지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중에서 가장 관련성이 높은 사업은 구직을 포기한 청년 발굴 및 고용서비스 연계 사업이다. 이 사업은 최근까지 확대 개편되었고 세부사업으로는 청년도전지원사업과 청년성장프로젝트가 있다.

학교-일자리 이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은 2023년부터 새롭게 추진 중인 대학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이 있으며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에 대한 종합대책에서 제시된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도 이에 해당한다(관계부처 합동, 2024b). 이 대책에서는 청년의 학교-일자리 이행에 관한 대책이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3대 정책 방향 중 양질의 일자리를 통한 소득 상향기회 확충과 관련하여 청년 고용 인프라가 강화 및 전주기 맞춤형 지원 강화를 제시하였다.

교육영역에서 추진 중인 중점과제 중에서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는 가장 직접적으로 성인기 이행 지원과 관련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 중점과제의 세부과제로는 고졸 청년 취업 및 사회 안착 지원과 대학생 및 청년의 진로를 지원하는 과제가 있다.

고졸 청년의 취업과 사회적 안착을 지원하는 과제는 직업계고 학생의 현장실습 내실화와 고교취업 연계 장려금의 단계적 확대, 중앙취업지원센터 신설 및 취업지원관 확대 배치 등이 세부과제로 포함되어 있다.

이 과제 추진과 관련하여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취업지원센터에 이어 중앙취업지원센터가 새롭게 설치되었고 현장실습생 17,000명에게 현장실습 지원금이 지급되었으며 기업현장교사 12,000명을 통해 기업현장교육이 실시되었다(관계부처 합동, 2024a). 이러한 사업 추진에도 현재 직업계고 졸업자의 취업은 줄어들고 있으며 현장실습 사망사고 발생과 코로나19 이후 대학에 진학하는 청년이 늘고있는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2)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대책의 과제 현황

고용노동부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이후 청년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발표하였다. 기본적인 틀은 기획재정부 주도로 2023년에 발표되었던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과 쉬었음 청년에 대한 대책 마련의 대상별 접근 방식을 차용하고 있다.



* 출처: 관계부처 합동(2025b: 5).

그림 VI-2.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방향」 목표, 정책방향과 대책

이 대책에서는 3가지 핵심 지원체계로 쉬었음 청년에 대한 발굴과 회복시스템 구축, 구직 청년에 대한 AI시대 맞춤형 역량 강화, 마지막으로 재직 청년에 대한 기본 노동여건 보장이 제시되었다.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에서는 쉬었음 청년을

중심으로 예방적 차원에서 재학 단계의 개입 확대와 재직 단계에서 직장 적응과 조직문화 개선 등을 제시하고 현재 쉬고 있는 청년에 대한 집중적인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을 제안한 바 있다.

이번에 제시된 첫걸음 보장제는 쉬었음 청년을 하나의 유형으로 돌리고 구직 청년과 일하는 청년에 대한 맞춤형 접근 형태로 세분화하고 있다. 이 대책이 첫걸음을 보장한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최근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이행기 청년의 첫 출발을 집중적으로 돕는 방식이라고보다는 목표에서 알 수 있듯 모든 청년에 대한 일자리 지원 방식이어서 기존 접근법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보장이라는 표현은 선언적인 구호가 아니라 실제로 보장성을 담보하는 정책적인 접근을 시도할 때 사용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번에도 최저생계비 보장과 같이 실질적인 보장을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지 않다. 2015년 이후 가장 많이 언급된 유럽연합의 청년보장제(youth guarantee) 처럼 1년간 취업, 진학 혹은 직업훈련을 반복적으로 국가가 보장하는 방식을 제대로 도입한 지자체를 포함하여 국내 사례는 없는 상태이다. 최근 청년의 성인기 이행 상황으로 볼 때 유럽에서 시도한 청년보장제를 제대로 도입해 시도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3) 「국민주권 정부 청년정책 추진방향」 과제 현황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가 나온 시점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민주권 정부 청년정책 추진방향」이 발표되었다(관계부처 합동c, 2025). 이 대책은 비전으로 “첫걸음부터 함께, 모든 청년이 만들어가는 미래”를 제시하고 단계별 추진과제로 사회진입(사회 첫걸음), 자립기반 마련(안정적 자립), 사회 참여(정책·사회의 주체), 인프라제도 등으로 나누어 세부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 대책은 현재 국무조정실에서 추진 중인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밑그림 중에서 각 중앙행정기관이 함께 모여 가능한 방향에서 추진과제를 모아 발표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제2차 청년정책기본계획 수립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진행 중이며 올해 12월까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된 과제 중에서 청년 성인기 이행 중 학습과 진학, 성인기 이행과 관련된 과제들은 주로 사회 진입에 포함된 과제들이다. 이 대책에서는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들의 연착륙을 위해 채용연계형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AI 등 미래역량 중심으로 청년 대상

교육훈련을 개편하며 청년 일경험의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밖에 계약학과 및 정원을 늘리고 현장실습을 활성화하며 산업계 맞춤형 공학인재 양성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동시에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전 청년 고용올케어 플랫폼)을 통한 쉬는 청년 맞춤형 지원 등이 포함되었다.

비전	“첫걸음부터 함께, 모든 청년이 만들어가는 미래”
추진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정책 체감도 제고 ❖ 지역 역할 강화 및 민간 연계 확산 ❖ 청년 눈높이 소통 및 홍보 강화
핵심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회보장)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자산형성의 기회를 보장 ❖ (기본생활 지원) 청년들의 생애주기 전반의 기본생활 지원 ❖ (권리확대) 청년들의 실질적 정책 참여 및 당사자성 강화
단계별 추진 과제	<p>1 [사회진입] 모든 청년의 사회 첫걸음 보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본과 상식을 지키는 ‘괜찮은 일터’ 확산 2 ‘삼’에서 ‘회복’으로, ‘회복’에서 ‘재진입’으로의 기회 마련 3 노동시장 진입 연착륙을 위한 직업훈련·일경험·교육의 질 제고 4 청년층이 안심하고 도전하는 창업생태계 구축 5 청년의 다양한 도전 및 조기 진로탐색 지원 강화 6 청년의 지역일자리 및 정착 기회 확대
	<p>2 [자립기반 마련] 안정적 자립·정착을 위한 기본생활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초 자산형성 기회 보장 2 살만한 청년주택 공급 및 지속 가능한 주거 안정 보장 3 청년 생활비 부담 완화 및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4 복지 사각지대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 5 ‘일상에서 위기까지’ 마음건강 상호연계 지원체계 구축
	<p>3 [사회참여] 청년이 주체가 되는 사회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년 주도 참여 모델 확산 2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 정비와 체감도 강화 3 청년 공동체 및 교류 활성화

* 출처: 관계부처 합동(2025c).

그림 VI-3.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목표, 정책방향과 대책

3. 정책사업 현황 및 문제점

여기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이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한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토대로 청년의 성인기 이행 관련 정책 사업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2025년에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국무조정실로 제출한 시행계획 과제는 총 339개이며 전체 예산은 28조 원에 이른다.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으로 성인기 이행 과제를 선별하였다. 우선 전체 성인기 이행 과제를 다루지 않고 학습과 진학, 학교-일자리 이행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에 따라 자립이나 가족형성에 관한 정책 사업들은 다루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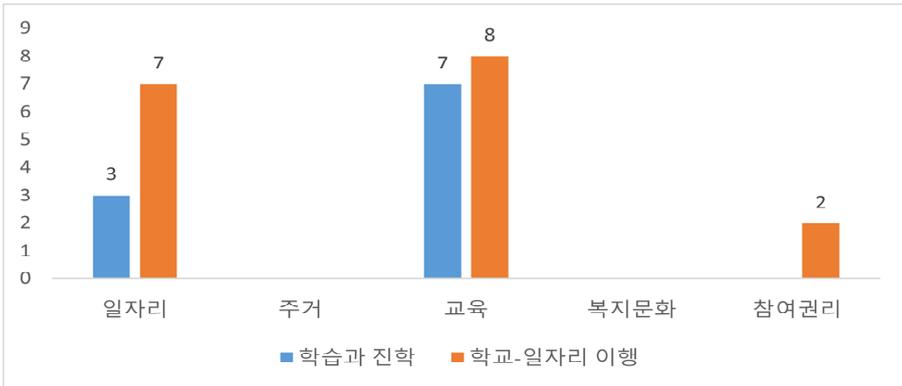
다음으로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거나 지원을 받는 경우로 한정했으며 전달체계나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비롯하여 기업이나 대학, 직업훈련기관을 통해 청년을 간접 지원하는 경우를 제외하였다. 예를 들어 학습과 진학의 경우 청년의 평생학습 지원이 포함될 필요가 있는데 교육부의 관련한 시행계획 과제는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운영이나 온국민평생배움터 구축 등이어서 제외했다. 다만, 계약학과나 현장실습과 같이 성인기 이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은 학교를 통해 이루어지나 제외하지 않고 해당 과제로 다루었다.

마지막으로 특정 기능부처의 특정 대상을 지원하는 사업 역시 제외하였다. 특히 교육분야 과제들로 문화체육관광부의 E스포츠 전문인력 양성이나 농림축산식품부의 청년귀농장기교육, 국토교통부의 제로에너지건축 전문인력 양성, 산림청의 청년임업인 특성화교육,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전문인력 양성 등이다. 이러한 정책사업들은 전체 청년의 성인기 이행을 지원하는 과제를 산출할 때 포함될 필요가 있으나 정책적인 방향을 정할 때 검토 대상이 되거나 핵심사업으로 다룰만한 사업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기준을 토대로 청년들의 성인기 이행과 관련된 과제들을 추려본 결과, 중앙행정기관이 추진 중인 성인기 이행 과제들은 27개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학습과 진학에 해당되는 과제들은 10개였고 학교-일자리 이행에 관한 과제들은 17개로 나타났다.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의 정책 영역별로 보면, 일자리 분야가 10개로 이 중에서 학습과 진학에 대한 과제는 3개, 학교-일자리 이행에 대한 과제는 7개였다. 주거와 복지문화에 해당하는 과제는 없었고 교육 분야는 총 15개로 이 중에서 7개가 학습과 진학, 8개가 학교-일자리 이행 관련 과제였다. 27개 과제 중에서 교육이나 일자리 분야가 아닌 학교에

서 일자리로의 이행에 좀 더 초점을 맞춘 과제들은 고용노동부의 청년도전지원사업과 청년성장프로젝트,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청년 첫걸음 플랫폼(전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 등이 있었다. 교육부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과제들은 현장실습과 희망사다리(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모델 개발과 계약학과 사업 등이 있었다.



* 출처: 관계부처합동(2025a). 2025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그림 VI-4.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 정책분야별 청년 학습일자리 관련 사업 수(2025년)

먼저 학교이행과 관련하여 학습과 진학을 살펴보면, 일자리분야 과제로 제시된 것은 민관협업을 통해서 청년의 일경험을 활성화하는 사업(청년일경험지원),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를 양성하는 훈련(K-디지털 트레이닝), 국민내일배움카드 등이다.

이 사업들은 모두 고용노동부가 추진 중인데 우리나라는 정규교육과 직업훈련을 학습이라는 맥락에서 통합적으로 다루지 않고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분할해서 다루고 있는 상황에 따라 포함된 과제들이다. 이 사업들은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측면이 강하지만 취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교육훈련이라는 맥락에서 학습과 진학에 해당되는 과제로 분류하였다.

표 VI-12. 2025년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 일자리분야 학습과 진학 정책과제

과제명	사업내용	사업예산 (백만 원)	소관부처
민관협업을 통한 청년 일경험 활성화 (청년일경험지원)	청년의 수요를 고려하여 인턴형, 프로젝트형, ESG지원형, 기업탐방형 등 다양한 유형의 일 경험 프로그램 제공	214,090	고용노동부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K-디지털 트레이닝)	신기술 분야 선도기업 등이 직접 기업의 실제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훈련과정을 설계·운영하는 직업훈련사업	478,116	고용노동부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생에게 1인당 300~500만 원 한도내에서 훈련비를 지원하고,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장려금 월 최대 11.6만 원 지급(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	1,183,359	고용노동부

* 출처: 관계부처합동(2025a). 2025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청년정책기본계획의 정책영역 중 교육분야에서 다루어진 정책과제는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등과 일학습병행제 등이 포함되었다. 장학금 자체는 직접적으로 성인기 이행 관련 과제는 아닐 수 있으나 학업을 지속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해당과제로 분류하였다. 교육부의 고졸자 후학습 장학금 지원이 고용노동부의 일학습병행제와 유사한 측면이 있는데 이는 과거 선취업 후학습이 제기되면서 추진되었던 사업들이다.

일학습병행제는 과거 재직자 훈련 과정으로 일종으로 학습으로 자격이나 학력 인정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된 사업으로 직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도제식현장교육훈련과 직장 밖에서 교육훈련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외교육훈련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이 정책은 박근혜 정부에서 처음 시도되었는데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 사회를 만들기 위해 현장 수요에 맞는 교육훈련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마련되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고숙련 일학습병행제(P-Tech)가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첨단 기술산업을 중심의 교육훈련인데 2023년 이후 사업 운영기관 통합으로 별도의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

일학습병행제에 대한 성과 평가가 사업 초기인 2016년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이루어진 바 있는데, 기존 직업훈련 사업보다 중도탈락률이 높고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이 우려되며 훈련 종료 이후 고용유지율도 높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 바 있다(강세욱, 2016). 이러한 평가에 대한 반론이나 긍정적인 평가 결과(진성준, 2022)도 존재하는데 청년의 성인기 이행과정에서 유의미한 정책적인 대안이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표 VI-13. 2025년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 교육분야 학습과 진학 정책과제

과제명	사업내용	사업예산 (백만 원)	소관부처
전문기술인재 장학금	취업역량 개발노력이 우수한 전문대 학생에게 등록금 및 생활비 지원	8,847	교육부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이공계 전일제 대학원생에게 매월 일정금액 이상의 학생 지원금 보장 및 학생연구자 지원구조 보강	60,000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국가장학금	대학생 가구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10개 구간 등으로 구분하고,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에게 등록금 범위 내 국가장학금 차등 지원	4,485,299	교육부
학자금대출 상환부담 경감	저금리 학자금대출(등록금, 생활비) 지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 및 이자면제 확대 지원, 저리 생활비 대출 한도 확대 등 청년들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 경감	309,802	교육부
고졸자 후학습 장학금 지원	고졸 후 재직 중 후학습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장학금 지원	51,794	교육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	산업현장의 실무형 인재양성을 위하여 재학생(고교, 대학) 과제직자 등을 기업이 학습근로자로 채용하여 맞춤형 현장훈련(OJT) 제공하고, 공동훈련센터(전문대, 4년제 등)에서는 현장훈련(OJT)을 보완하는 이론교육(OFF-JT)을 병행, 학습근로자의 숙련도 향상 지원, 아울러, 훈련 이수자의 역량을 국가자격으로 인정하여 노동시장의 통용성 확보도 지원	276,632	고용노동부
P-TECH(고숙련 일 학습병행) 확대	재직중인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졸업자 등을 대상으로 풀리텍·전문대 등과 연계하여 신기술 중심의 고숙련 기술융합형 훈련과정 지원	산출불기 ¹⁾	고용노동부

1) 2023년부터 관련 사업의 기관 통합 운영으로 별도 사업예산이 없음.

* 출처: 관계부처합동(2025a). 2025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이어서 학교-일자리 이행과 관련된 정책과제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일자리 분야의 학교-일자리 이행 정책과제들은 대체로 구직자 중심의 지원 대책이므로 학교에서 일자리로의 이행과정에 대한 지원 사업이 아닌 경우가 많다. 그나마 청년도전지원사업(과제명 구직단 념청년 등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촉진 지원)이 졸업 후 6개월 이후 개입이 들어가고 재학 단계를 연결하려는 제도 개선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해당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이공계 대학원생 청년창업 탐색지원 정도가 학생 단계에서 창업 교육과 탐색을 지원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제도적으로는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가 청년들이 선호하는 공공기관과 공기업에서 신규 채용을 확대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예산 수반업이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데 최근 들어 미이행 기관이 증가하고 신규채용 비율이 낮아져 이를 다시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표 VI-14. 2025년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 일자리분야 학교-일자리 이행 정책과제

과제명	사업내용	사업예산 (백만 원)	소관부처
국민취업지원제도(일 경험프로그램 통합)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취업지원 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등 지원	845,709	고용노동부
공공기관 청년고용의 무제 운영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3% 이상의 청년(15-34세)을 고용할 의무 부여	비예산	고용노동부
구직단념청년 등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촉진 지원	지자체와 협업하여 구직단념 청년의 자신감 회복 등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하고, 취업지원서비스로의 연계 지원	52,753	고용노동부
예비창업패키지	혁신적인 기술을 갖춘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사업화자금, 멘토링, 비즈니스모델 고도화 및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	49,000	중소벤처기업부
이공계 대학원생 청년창업 탐색지원	대학·출연(연) 연구실에서 나온 기초·원천 연구성과가 빠른 시간 내에 시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Lab to Market'형 실험실창업 교육 및 창업탐색 활동 지원	10,7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선정	청년고용실적 및 기업경쟁력이 우수한 강소기업 선정 지원	800	고용노동부

* 출처: 관계부처합동(2025a). 2025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청년도전지원사업은 당초 유럽연합의 청년보장제처럼 조기개입 방식을 도입하고자 했으나 졸업, 중퇴 후 6개월 미만인 청년을 지원하는 대신 6개월이 경과한 청년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2024년부터 신설된 청년성장프로젝트는 일부 졸업예정자나 사회초년생을 지원하고 있으나 온보딩(onboarding)이 주력 프로그램으로 이는 신입 직원에 대한 조직 적응 프로그램으로 학교-일자리 연계 프로그램과는 거리가 있다. 동시에 공간 제공을 전제로 하는 센터 운영 방식을 병행하고 있어 청년 당사자에게 직접적으로 지원이 가능 형태라기보다는 간접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형태에 가깝다. 다만, 이 두 사업은 지자체에서 구축해 온 청년센터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 중앙부처 사업 수행을 통해 일종의 전달체계 형태의 센터 운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지자체 청년센터에서 얻고 있는 상황이다.

표 VI-15. 고용노동부 청년도전지원사업과 청년성장프로젝트 운영 현황(2025년)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사업규모 (2024년)
청년도전지원사업	18-24세 구직단념청년(문답표 확인 30점 만점 중 21점 이상),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북한이탈청년, 지역특화청년	밀착 진로 상담, 취업역량강화 및 자신감 회복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연계	지자체 사업 전국 72개소 운영, 총 9,812명 참여
청년성장프로젝트	15-34세 청년	청년 친화적 시설 등 인프라 제공(청년 카페), 초기 상담 후 일상 유지, 구직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 제공, 청년고용정책 안내 및 연계 지원	30개 지자체 63개 청년 카페 운영, 총 65,841명 지원

* 자료: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5.01.19.), 청년의 자신감 회복부터 구직 활동까지 고용노동부와 지자체가 함께합니다.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7431에서 2025년 3월 20일 인출.

다음으로 교육분야에서 이루어지는 학교-일자리 이행과제는 2010년 수립되었던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에서 세부과제로 학교-일자리 연계가 포함되면서 독자적인 정책 영역으로 자리매김하였다. 핵심적인 세부 과제로는 현장실습과 취업연계 장려금, 그리고 계약학과를 비롯하여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있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고용노동부 사업이며 계약학과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교육부가 별도로 추진 중이며 나머지는 교육부에서 추진 중이다.

현장실습은 고교 단계에서 잇달아 발생한 사망사고로 인해 직업제고의 취업률이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현재까지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만, 직업제고 학생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받게 되는 장려금이나 이들을 지속적으로 추적해 이력관리 및 취업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졸자 후속관리 사업 등이 향후 유럽형 청년보장제를 도입할 때 의미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계약학과는 교육부가 운영했던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지자체로 이관해 추진 중인 라이즈 사업으로 이관되어 많은 예산이 투입될 예정으로 대상 학과가 증가하고 산학연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계약학과는 대학이나 기업이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해 운영하고 채용으로 연계하는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이다. 이번에 발표된 「국민주권 정부 청년정책 추진 방향」에서 산업통상부는 첨단분야 특성화대학원과 지역의 특화 산업 기업과 연계해 계약학과와 같은 운영방식을 확대할 예정이며 박사후 연구원으로 우수인재를 유치해 국내에 남도록 하는 산학프로젝트 지원사업을 신설할 예정이다.

표 VI-16. 2025년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 교육분야 학교-일자리 이행 정책과제

과제명	사업내용	사업예산 (백만 원)	소관부처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개선	대학생 현장실습의 운영 기준·절차를 표준화하고 학생 중심의 현장실습 운영을 위하여 참여 학생의 권익보호 절차 및 학생 안전망 강화 추진	비예산	교육부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중소·중견기업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들을 장학생으로 발굴 및 지원	44,497	교육부
직업계고 학생 현장실습 내실화	직업계고 현장실습처 발굴·확대, 중앙취업지원센터 운영, 취업지원관 확대 배치 등 현장실습 내실화	31,870	교육부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고졸 취업 활성화를 통해 대학진학이라는 일변도에서 벗어나 청년의 다양한 성장경로를 구현하고, 고졸 기술기능 인력의 적재적소 취업으로 인력수급의 미스매치를 해소	83,616	교육부
고졸자 후속 관리 지원모델 개발	거점학교(24개)를 선정하여 전용공간 등 취업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력관리 및 취업서비스 제공 지원	2,450	교육부
취업준비생 및 직업 전환자 지원 강화 (전문대학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협약 기업이 제시한 인사가준을 반영, 대학과 기업이 학생을 공동선발 후 채용약정하고, 교육과정 공동 개발·운영	9,600	교육부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지원	협약 기업이 제시한 인사가준을 반영, 대학과 기업이 학생을 공동선발 후 채용약정하고, 교육과정 공동 개발·운영하고, 산학협력 활동유형에 따라 연구개발(R&D), 기술사업화 등을 위한 공동연구 프로젝트 지원	25,800	교육부
중소기업 계약학과	중소기업 근로자(채용예정자) 대상으로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학위과정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 전문인력 양성	15,549	중소벤처기업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및 대학생 진로탐색 강화(청년고용지원 인프라운영)	대학 내에 청년 친화 원스톱 고용서비스 전달체계인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구축, 1:1 상담을 기반으로 고교·대학 저학년부부터 직업·진로 탐색과 설계를 제공하고 고학년에는 취업역량 향상을 지원하는 등 체계적인 진로·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109,384	고용노동부

* 출처: 관계부처합동(2025a). 2025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학교-일자리 이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2023년부터 새롭게 추진 중인 대학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이 있다. 이 사업은 저학년 단계에서부터 개입해 취업가능성을 높이고 고학년 단계에서 훈련이나 일경험, 인턴십을 연계하여 졸업 전이나 졸업 직후에 취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운영 중인데 고용노동부에서는 학교-일자리 연계와 관련하여

재학생과 졸업생을 포괄해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며 대학만이 아니라 고교생까지 대상을 넓혀 정책을 추진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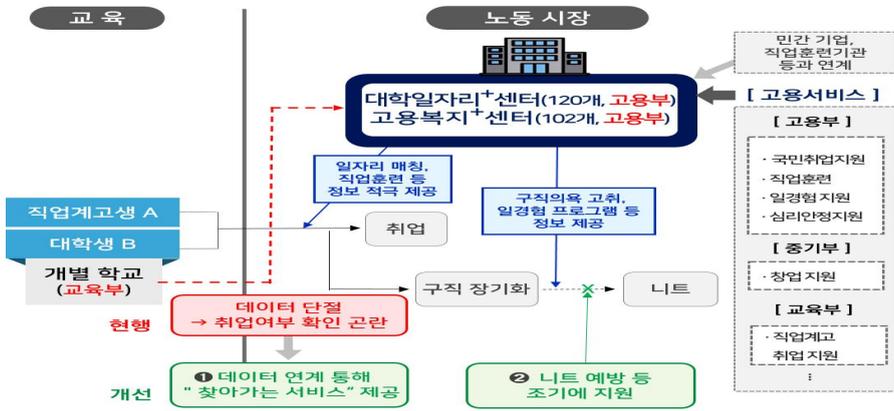
표 VI-17. 고용노동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현황(2025년)

사업명	사업내용	신설/확대	선정 규모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미취업졸업생 발굴, 수요조사 및 맞춤형 취업지원 제공	신설	120여 개교
대학일자리 플러스센터	대학생 및 지역청년대상 취업 상담 및 취업역량 강화 서비스 제공	확대 (121→122개교)	2개교 (신규 1개소, 지원만료1개)
대학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직업·진로탐색·설계(저학년), 훈련·일경험 연계(고학년) 등 맞춤형 서비스 지원	확대 (50→60개교)	10개교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취업을 희망하는 직업계고·일반고 청년 대상진로탐색·상담, 취업활동계획 수립 등 지원	확대 (20→30개교)	10개교

* 자료: 고용노동부 (2025).

기획재정부에서는 2024년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관계부처 합동, 2024b). 이 대책에서 청년의 학교-일자리 이행에 관한 대책이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3대 정책 방향 중 양질의 일자리를 통한 소득 상향기회 확충과 관련하여 청년 고용 인프라가 강화 및 전주기 맞춤형 지원 강화를 제시하였다.

이 중에서 청년고용을케어 플랫폼 구축 사업은 교육부의 학생 정보와 고용노동부의 노동시장 정보를 연계해 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발굴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대학생 중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에게 고용서비스 제공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고 차후에 워크넷 등을 통해 미취업 상태가 확인될 경우 취업정보 제공 및 컨설팅, 취업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와 함께 부처간 칸막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고용서비스전략팀(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 부처 파견 인원으로 구성)을 신설하였다. 고용노동부(관계부처 합동, 2025b)와 국무조정실(관계부처 합동, 2025c)에서 발표한 청년정책에서 이 사업은 명칭이 바뀌어 청년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으로 학교와 일자리를 연계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중 10개소가 일자리 첫걸음 센터로 내년부터 시범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 출처: 관계부처 합동(2024b), 김기현, 오병돈(2024: 84)에서 재인용

그림 VI-5. 청년고용올케이 플랫폼

표 VI-18. 2025년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 복지분야 학교-일자리 이행 정책과제

과제명	사업내용	사업예산 (백만 원)	소관부처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에게 매월 50만 원의 자립수당 지급	54,161	보건복지부
위기청년 자립 지원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청소년에 대해 최장 5년간 월 50만 원의 자립지원수당 지원	2,440	성평등가족부

* 출처: 관계부처합동(2025a), 2025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마지막으로 복지문화 분야에서 취약위기 청년에 대한 학교-일자리 이행 정책과제들이 있다. 이들 중에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아 자립수당 등이 지급되고 있으며 해당 과제들이 성인지 이행과제로 포함되었다. 그런데 취약위기 청년에게는 다양한 욕구에 따른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므로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이 향후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4. 해외 사례와 정책적 시사점

이 절에서는 해외 사례를 통해 정책적인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우선 우리나라에서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수립하고 있는 청년정책기본계획에 해당하는 국제기구들의 보고서를 살펴보고 주요 국가들의 대표적인 정책사업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국제연합(United Nations)에서 수립한 청년정책 기본계획인 청년 2030(Youth 2030)에서는 우선순위 5가지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UN, 2018: 10-11). 그중에서 두 가지가 학습과 진학, 그리고 학교-일자리 이행과 관련된 정책방향에 해당된다.

먼저 학습과 진학에 대해서 이 보고서는 정보와 건강한 토대 - 청년이 양질의 교육과 보건 서비스에 더 많이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Informed and Healthy Foundations - Support young people's greater access to quality education and health services)이라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지는데 한 가지는 양질의 교육에 대한 옹호이며 다른 한 가지는 비형식교육의 촉진이다. 양질의 교육 옹호는 회원국과 기타 협력 파트너들이 모두 양질의 교육에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어서 이 원칙은 청년을 위한 양질의 포용적 교육을 개발·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동시에 이 원칙은 학습자 중심의 접근을 취하고 평생학습 관점을 채택하며, 청년의 삶과 사회에 밀접하게 관련된 교육을 실현, 청년의 공동체의 경제적·환경적 필요를 반영하고, 지속가능한 생활방식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포함한다.

두 번째로 비형식교육의 촉진은 청년정책 체계 내에서 비형식교육을 지원하고 그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어서 이 원칙은 비형식교육이 청년의 지식, 기술, 역량 발달에 기여하는 역할을 강화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어서 학교-일자리 이행과 관련된 우선순위는 적절한 일자리를 통한 경제적 역량 강화로 청년이 양질의 일자리와 생산적인 고용에 더 많이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Economic Empowerment through Decent Work - Support young people's greater access to decent work and productive employment)이다.

이것은 4가지 측면에서 원칙을 갖는다. 먼저 글로벌 약속의 이행은 청년의 관찮은 일자리를 실현하기 위해, 근거 기반이며 확장 가능하고 혁신적인 해결책과 연대를 중심으로 한 노력을 새롭게 강화하고, 이러한 노력이 지역적·세계적으로, 그리고 취약한 상황을 포함한 모든 맥락에서 긍정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표 VI-19. 국제연합(UN)의 청년2030의 학습, 일자리 관련 정책 목표와 정책 방향

청년정책 기본계획	정책목표	정책 방향
청년2030 (Youth 2030)	<p>정보와 건강한 토대 - 청년이 양질의 교육과 보건 서비스에 더 많이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 (Informed and Healthy Foundations - Support young people's greater access to quality education and health service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질의 교육 옹호: 회원국과 기타 협력 파트너들이 모두 양질의 교육에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참여를 확대, 청년을 위한 양질의 포용적 교육을 개발·제공하며, 학습자 중심의 접근을 취하고 평생학습 관점을 채택하며, 청년의 삶과 사회에 밀접하게 관련된 교육을 실현, 청년의 공동체의 경제적·환경적 필요를 반영하고, 지속가능한 생활방식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 - 비형식교육의 촉진: 청년정책 체계 내에서 비형식교육을 지원하고 그 발전을 촉진하며, 비형식교육이 청년의 지식, 기술, 역량 발달에 기여하는 역할을 강화
	<p>적정한 일자리를 통한 경제적 역량 강화 - 청년이 양질의 일자리와 생산적인 고용에 더 많이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 (Economic Empowerment through Decent Work - Support young people's greater access to decent work and productive employmen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약속의 이행: 청년의 관점은 일자리를 실현하기 위해, 근거 기반이며 확장 가능하고 혁신적인 해결책과 연대를 중심으로 한 노력을 새롭게 강화, 이러한 노력이 지역적·세계적으로, 그리고 취약한 상황을 포함한 모든 맥락에서 긍정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노력 - 균형 잡힌 접근의 옹호: 회원국과 파트너들이 청년 고용 수요를 촉진하고, 기술개발체계 개선을 병행하는 균형 잡힌 접근을 취하도록 협력, 이 목표는 학교-일자리 이행을 원활히 하고, 특히 청년 여성과 취약 청년층의 니트 비율을 낮추기 위해 노력 - 정책지도와 지원: 회원국과 파트너들이 청년 친화적 고용 및 자영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청년 일자리의 양과 질 모두를 개선하는 전략을 수립·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 이를 위해 공공 및 민간 투자, 경제 및 노동시장 정책, 기술개발, 비공식 부문에서의 공식화 전환, 사회보장, 노동권, 청년의 적극적 참여를 강화 - 서비스 및 생산자원 접근성 촉진: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전환 중인 청년들이 통합적이고 충분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 또한 농촌과 도시 지역을 막론하고, 토지·금융·디지털 및 기타 기술 관련 생산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

* 자료: United Nations(2018: 10-11)

이어서 균형 잡힌 접근에 대한 옹호는 회원국과 파트너들이 청년 고용 수요를 촉진하고 기술개발체계 개선을 병행하는 균형 잡힌 접근을 취하도록 협력, 이 목표는 학교-일자리 이행을 원활히 하고, 특히 청년 여성과 취약 청년층의 니트 비율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음으로 정책지도와 지원은 회원국과 파트너들이 청년 친화적 고용 및 자영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청년 일자리의 양과 질 모두를 개선하는 전략을 수립·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 이를 위해 공공 및 민간 투자, 경제 및 노동시장 정책, 기술개발, 비공식 부문에서의 공식화 전환, 사회보장, 노동권, 청년의 적극적 참여의 강화를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및 생산자원 접근성 축진은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전환 중인 청년들이 통합적이고 충분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 또한 농촌과 도시 지역을 막론하고, 토지·금융·디지털 및 기타 기술 관련 생산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유럽연합 역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에 있다. 유럽연합의 청년 전략(Youth Strategy 2019-2027)에서는 초기 성인기 이행과 관련하여 양질의 학습(Quality Learning)과 모두를 위한 양질의 고용(Quality Employment for All)을 11개의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EU, 2018: 14-15).

양질의 학습 목표는 양질의 교육과 평생학습에 대한 보편적이고 동등한 접근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모든 청년이 충분한 재원이 지원되는 비형식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교육이 제도적으로 인정되고 검증되도록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서 개방적인 사고를 장려하고, 대인관계 및 문화 간 역량의 개발을 지원하며 교육의 모든 단계에서 학습자 중심의 개인화된·참여적·협력적 학습방법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교육을 통해 모든 청년이 금전관리, 건강교육(성·재생산 건강 포함)과 같은 생활기술(life skills)을 습득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공식교육 및 비형식교육의 과정 안에 비판적·분석적 사고, 창의성, 학습능력 등 개인적 기술을 함양할 수 있는 교수학습방법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지지한다. 마지막으로 청년이 정치제도, 민주주의, 인권에 대한 확고한 지식을 갖추도록 시민교육에 접근할 수 있게 하며, 지역사회 기반 경험을 통해 적극적인 시민참여를 촉진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다음으로 모두를 위한 양질의 고용 원칙은 “모든 청년에게 공정한 노동조건, 노동권, 그리고 생활임금의 권리를 보장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강조한다. 모든 청년 노동자에게 사회보장과 의료보호를 보장받아야 하며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을 종식하기 위해, 모든 청년에게 공정한 대우와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 동시에 청년이 교육에서 노동시장으로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

표 VI-20. 유럽연합(EU)의 청년전략의 학습일자리 관련 정책 목표와 정책 방향

청년정책 기본계획	정책 목표	정책 방향
유럽 유스전략 2019-2027 (European Union Youth Strategy 2019-2027)	양질의 학습 (Quality Learn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질의 교육과 평생학습에 대한 보편적이고 동등한 접근을 보장. - 모든 청년이 충분한 재원이 지원되는 비형식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교육이 제도적으로 인정되고 검증되도록 보장 - 개방적인 사고를 장려하고, 대인관계 및 문화 간 역량의 개발을 지원 - 교육의 모든 단계에서 학습자 중심의 개인화된·참여적·협력적 학습방법을 개발하고 실행 - 교육을 통해 모든 청년이 금전관리, 건강교육(성·재생산 건강 포함)과 같은 생활기술(life skills)을 습득할 수 있도록 보장 - 공식교육 및 비형식교육의 과정 안에 비판적·분석적 사고, 창의성, 학습능력 등 개인적 기술을 함양할 수 있는 교수학습방법을 통합 - 청년이 정치제도, 민주주의, 인권에 대한 확고한 지식을 갖추도록 시민교육에 접근할 수 있게 하며, 지역사회 기반 경험을 통해 적극적인 시민참여를 촉진
	모두를 위한 양질의 고용 (Quality Employment for Al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청년에게 공정한 노동조건, 일할 권리와 생활임금을 보장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 청년 노동자 모두에게 사회보장과 의료보호를 보장. -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을 종식하기 위해, 모든 청년에게 공정한 대우와 동등한 기회를 보장 - 청년이 교육에서 노동시장으로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보장 - 인턴십, 도제훈련, 기타 현장 기반 학습뿐 아니라 자원봉사와 비형식교육을 통해 습득한 역량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보장 - 청년과 청년단체가 모든 수준의 고용정책 개발, 이행, 모니터링, 평가 과정에 동등한 파트너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 -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미래 일자리에 대비할 수 있도록, 청년에게 양질의 정보와 적절한 지원체계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보장

* 자료: European Union(2018: 14-15).

이어서 인턴십, 도제훈련, 기타 현장 기반 학습뿐 아니라 자원봉사와 비형식교육을 통해 습득한 역량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보장받아야 한다. 청년과 청년단체가 모든 수준의 고용정책 개발, 이행, 모니터링, 평가 과정에 동등한 파트너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받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미래 일자리에 대비할 수 있도록, 청년에게 양질의 정보와 적절한 지원체계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보장받아야 한다.

유럽연합은 각 회원국에 청년정책에 대한 정책 방향을 천명하는 동시에 모든 회원국이

참여한 공동사업을 추진 중이다. 유럽연합이 추진하는 사업은 매우 광범위하고 많은 주체들이 참여하며 명확한 성과지표 관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략 7년 내외의 긴 기간 동안 추진한 후 증거기반 평가에 따라 2단계 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현재 2단계로 장기 프로젝트로 이어지고 있는 유럽연합의 브랜드 정책은 에라스무스+(Erasmus+)와 청년보장제(Youth Guarantee)이다.

에라스무스+는 유럽연합에 속한 회원국 대학생 간 교류 프로그램으로 출발한 에라스무스 사업을 대학생과 고등교육만이 아니라 직업교육과 훈련, 평생학습을 비롯하여 청소년과 청년 프로그램, 스포츠 등 모든 형태의 비형식, 무형식 학습을 포괄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1단계 에라스무스+는 2014년에 시작하여 2020년까지 추진되었으며 참여 대상을 대학생에서 청년 전반으로 확대되었다. 더불어 청년활동가(youth worker)와 교직원,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을 포함되었다. 정책 대상은 15세에서 25세가 주된 지원 대상이나 자원 봉사활동 등 유형에 따라 20대만이 아니라 30대를 포괄하여 추진되었다.

2020년까지 추진되었던 1단계 에라스무스+에는 유럽 회원국에서 2만 개에 이르는 프로젝트가 이루어졌으며 65만여 명에 이르는 유럽 청년들이 참여하였다. 이 기간에 유럽연합은 총 147억 유로의 예산을 투입하였고 매년 20억 유로의 예산이 집행되었다.

2021년부터 2027년까지 이루어지는 2단계 에라스무스+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2단계 사업은 1단계보다 늘어난 262억 유로가 투입될 예정이며 유럽연합의 새로운 청년 전략(EU Youth Strategy 2019-2027)의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이어서 유럽연합은 북유럽 국가들에서 추진 중이던 청년보장제를 2009년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청년 실업률이 증가하고 청년 니트(NEET)가 급증하자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으로 전체 유럽 회원국을 대상으로 2013년부터 청년보장제를 추진하였다.

표 VI-21. 유럽연합의 청년 학습 및 일자리 관련 정책사업 현황

사업	내용
에라스무스+ (Erasmu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라스무스+는 유럽연합에 속한 회원국 대학생 간 교류 프로그램으로 출발한 에라스무스 사업을 대학생과 고등교육만이 아니라 직업교육과 훈련, 평생학습을 비롯하여 청소년과 청년 프로그램, 스포츠 등 모든 형태의 비형식, 무형식 학습을 포괄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 - 1단계 에라스무스+는 2014년에 시작하여 2020년까지 추진되었으며 참여 대상을 대학생에서 청년 전반으로 확대하였고 청년활동가(youth worker)와 교직원,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을 포함하여 진행하였고 정책 대상 연령도 자원봉사활동 등 유형에 따라 20대만이 아니라 30대를 포괄하여 추진 - 2020년까지 추진되었던 1단계 에라스무스+는 유럽 회원국에서 2만 개에 이르는 프로젝트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65만 여명에 이르는 유럽 청년들이 참여하였음. 이 기간에 유럽연합은 총 147억 유로의 예산을 투입하였고 매년 20억 유로의 예산이 집행되었음. - 2021년부터 2027년까지 이루어지는 2단계 에라스무스+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1단계보다 늘어난 262억 유로가 투입될 예정이며 유럽연합의 새로운 청년 전략(EU Youth Strategy 2019-2027)의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추진 중임.
청년보장제 (Youth Guarante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연합은 북유럽 국가들에서 추진 중이던 청년보장제를 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청년 실업률이 증가하고 청년 니트(NEET)가 급증하자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으로 전체 유럽 회원국을 대상으로 2013년부터 청년보장제를 추진하였음. - 청년보장제는 그동안 정책 추진 시에 주로 이용되어온 신청주의 방식이 아니라 이행기에 있는 모든 청년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음. 정책 대상은 졸업 후 4개월이 지나가는 시점에서 여전히 니트 상태에 놓여 있는 25세 미만 청년이며 청년보장제는 이들에게 취업, 진학, 그리고 훈련이라는 세 가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었음. 유럽 회원국에 대한 지원은 청년 고용 여건에 따라 상황이 좋지 않은 국가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표 관리를 통해 성과를 내는 국가에게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취하였음. - 청년보장제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1단계로 사업이 이루어졌는데 이 기간 동안 유럽연합의 청년실업률(2013년 25.0%, 2019년 15.6%)은 10%p 가까이 낮아졌고 청년 니트비율은 같은 기간 3%p 이상 낮아져 고용여건 개선효과를 보여주었음. 청년보장제에 참여한 유럽 청년들은 2,400만 명에 이룸.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1단계 사업에 이어서 2020년부터 2026년까지 2단계 사업(reinforced Youth Guarantee)을 마련하였으며 정책 대상을 일반 청년 외에 30세 미만 취약 청년까지 확대하였으며 시와 같은 기술의 발전과 기후 변화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추진 중임.

* 자료: European Union(2018: 8-9); 유럽 청년포털 홈페이지(<https://youth.europa.eu/>), 유로데스크 홈페이지(<https://eurodesk.eu/>), 2025년 10월 4일 접속함.

청년보장제 추진 이후 유럽연합 국가들의 청년실업률은 2013년 25.0%에서 2019년 15.6%로 급감하였고 청년 니트비율도 같은 기간 15.2%에서 11.7%로 감소하였고 2,400만 명 이상의 청년이 청년보장제에 참여하였다. 유럽연합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고 2020년부터 2단계 사업으로 강화된 청년보장제(reinforced Youth Guarantee)를 추진 중이다.

청년보장제는 그동안 정책 추진 시에 주로 이용되어온 신청주의 방식이 아니라 이행기에 있는 모든 청년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찾아가서 대상을 발굴하는 아웃리치(out-reach) 접근이 신청주의를 보완하는 장치를 활용되었다. 정책 대상은 졸업 후 4개월이 지나가는 시점에서 여전히 니트 상태에 놓여 있는 25세 미만 청년이며 청년보장제는 이들에게 취업, 진학, 그리고 훈련이라는 세 가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었다.

유럽 회원국에 대한 지원은 청년 고용 여건에 따라 상황이 좋지 않은 국가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표 관리를 통해 성과를 내는 국가에게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유럽연합 이사회가 확정한 가이드라인은 민관 협력으로 추진하고 조기 개입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취업만이 아니라 진학, 창업 등 다양한 해법을 도입하며 유럽연합 예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엄정한 평가와 신속한 이행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겨졌다(European Commission, 2012).

청년보장제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1단계로 사업이 이루어졌는데 이 기간 동안 유럽연합의 청년실업률(2013년 25.0%, 2019년 15.6%)은 10%p 가까이 낮아졌고 청년 니트비율은 같은 기간 3%p 이상 낮아져 고용여건 개선효과를 보여주었다. 청년보장제에 참여한 유럽 청년들은 2,400만 명에 이른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1단계 사업에 이어서 2020년부터 2026년까지 2단계 사업(reinforced Youth Guarantee)을 마련하였으며 정책 대상을 일반 청년 외에 30세 미만 취약 청년까지 확대하였으며 AI와 같은 기술의 발전과 기후 변화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각 주요국가별로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우선 미국의 경우 잡 코퍼스(Job Corps)가 대표적이다. 이 프로그램은 16세에서 24세 저소득 청년을 지원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으로 1964년에 시작되어 55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최대 프로젝트이다(김기현, 유민상, 2019: 24-29).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저소득 청년은 후기 중등교육 학위를 취득하며 8개월에서 24개월까지 이루어지는 4단계(입학단계, 60일 간의 취업준비 단계, 진로개발 단계, 전환단계로 취업 성공 후 취업 유지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다른 국가들의 진로 및 취업 연계 프로그램과 잡코퍼스의 가장 큰 차이는 4단계 프로그램으로 취업 연계만이 아니라 취업을 유지하기 위한 각종지원이 이어진다는 점이다.

영국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개츠비 벤치마크(Gatsby Benchmarks)가 있다(김기현, 유민상, 2019: 52-55). 진로교육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교육효과를 발휘하

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이 도입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각급 학교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로교육의 현실화를 위해 도입되었으며 2014년에 도입되어 현재까지 유지, 학교의 종류와 학급에 따라 8가지의 성취 도달 목표가 제시 제시되었다.

표 VI-22. 주요국의 청년 학습 및 일자리 정책사업 현황1

국가	사업	내용
미국	잡 코퍼스 (Job Corp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세에서 24세 저소득 청년을 지원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으로 1964년에 시작되어 55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최대 프로젝트임 -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저소득 청년은 후기 중등교육 학위를 취득하며 8개월에서 24개월까지 이루어지는 4단계(입학단계, 60일 간의 취업준비 단계, 진로개발 단계, 전환단계로 취업 성공 후 취업 유지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
영국	개츠비 벤치마크 (Gatsby Benchmark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급 학교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로교육의 현실화를 위해 도입된 프로그램이며 2014년에 도입되어 현재까지 유지, 학교의 종류와 학급에 따라 8가지의 성취 도달 목표를 제시 - 8개의 성취 도달 목표는 안정적 경력프로그램, 직업과 노동시장 정보에 대한 학습, 각 학생들의 욕구 파악, 교육과정과 직업 연결하기, 기업주와 선배 직장인들과의 만남, 직업현장 일경험, 계속 교육 추진, 개인 지도 등 별로 제시 - 2014년부터 2024년까지 10년 동안 중등학교와 대학에서 90% 이상이 참여, 4,700개 민간기관들이 8개의 프로그램 제공, 성취 목표 도달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 16-18세 니트 비율을 감소시키는데 영향을 미침
일본	유스 에르 (ユースエール)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의 청소년고용촉진법을 법적 근거로 청년 신규 졸업자에 한 해 세부적인 기업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인증제도임. - 후생노동성에서는 법률 제정에 따라 2015년부터 이 인증제도를 추진 중이며 일본 내에서 블랙기업 문제가 불거진 이후 신규졸업자 채용에 한해서 법률에 따른 규제 정책으로 추진됨. - 유스 에르 인증제도에 참여하는 기업에게는 다양한 혜택도 부여하고 있는데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 외에 우수 인재 유치가 가능하며 인증기업에 한해 정부가 채용박람회 등에 참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정부 금융 이용시 저리 용자가 가능하며 공공조달 시에 가점이 부여됨.

* 자료: 미국은 김기현, 유민상(2019: 24-29), 영국은 김기현, 유민상(2019: 52-55)에서 제시된 사례를 요약함. 일본 사례는 厚生労働省 (2025). <https://wakamono-koyou-sokushin.mhlw.go.jp/youth-yell/landing/>.에서 2025년 10월 19일 접속.

8개의 성취 도달 목표는 안정적 경력프로그램, 직업과 노동시장 정보에 대한 학습, 각 학생들의 욕구 파악, 교육과정과 직업 연결하기, 기업주와 선배 직장인들과의 만남, 직업현장 일경험, 계속 교육 추진, 개인 지도 등이다.

이 프로그램은 2014년부터 2024년까지 10년 동안 중등학교와 대학에서 90% 이상이 참여, 4,700개 민간기관들이 8개의 프로그램 제공, 성취 목표 도달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 16-18세 니트 비율을 감소시키는 데 영향을 미쳤다.

이어서 일본의 유스 에르(ユースエール)제도 역시 참고할 만하다. 이 제도는 일본의 청소년고용촉진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된 것으로 청년 신규 졸업자에 한 해 세부적인 기업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인증제도이다. 후생노동성에서는 법률 제정에 따라 2015년부터 이 인증제도를 추진 중이며 일본 내에서 블랙기업 문제가 불거진 이후 신규졸업자 채용에 한해서 법률에 따른 규제 정책으로 추진되었다.

유스 에르 인증제도에 참여하는 기업에게는 다양한 혜택도 부여하고 있는데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 외에 우수 인재 유치가 가능하며 인증기업에 한해 정부가 채용박람회 등에 참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정부 금융 이용시 저리 용자가 가능하며 공공조달 시에 가점이 부여된다.

독일은 일본과 더불어서 청년 실업률이 가장 낮은 국가이며 원활한 성인기 이행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이다(홍문기, 2024). 연방교육지원법(BAfoeG)은 10학년부턴 대학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정규 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에 대해서 장학금과 생활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2024년 겨울방학을 기준으로 최대 992유로가 지급되며 열 살이 안된 자녀를 돌볼 경우에 추가적으로 160유로가 지급된다.

직업훈련지원금(Berufsausbildungsbeihilfe)은 청년들이 직업훈련을 받는 동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생활비나 통학비 등을 지원하는 연방고용청의 사업이다. 첫 번째 직업훈련에 참여할 때 지원하며 경우에 따라서 두 번째로 참여한 직업훈련 시기에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 훈련에 참여할 때 정부에서 인정하는 직업훈련이어야 하고 훈련을 받는 동안 부모로부터 독립해야 한다. 18세 이상인 청년이 대상이며 혼인상태에 있고 자녀가 한 명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본인과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금이 다름. 2024년 지원금은 매월 최대 822유로가 지급되고 있으며 통학비와 아동돌봄비용 등이 추가로 지급될 수 있다.

독일에서는 아동부터 청년에 이르는 생애 전반기 시기 동안 아동수당(Kindergeld)이 지급된다. 독일에 거주하는 부모가 자녀를 가지면 18세가 될 때까지 출생아 수(2025년 기준으로 첫째 255유로, 둘째 510유로, 셋째 765유로, 넷째 1,020유로, 다섯째 1,275유로 등)에 따라서 아동수당을 받는다. 18세 이후 25세 미만인 경우 본인이 직접 아동수당을 받기도 하는데 군 입대를 하거나 대학에 진학한 경우에 해당한다. 한편, 아동추가수당

(Kinderzuschlag)도 있는데 25세 미만으로 자녀를 가지고 있는 저소득 가구에 최대 297 유로를 지원하고 있다.

프랑스는 2013년 이후 유럽 회원국 대부분이 참여하는 청년보장제를 추진해 왔는데 2단계 사업 추진 시점에 청년참여계약(Contrat d'Engagement Jeune)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청년센터를 통해 이루어진 청년보장제를 개편한 것임. 청년참여계약은 청년센터인 미션로깅 외에 프랑스의 고용센터인 프랑스노동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표 VI-23. 주요국의 청년 학습 및 일자리 정책사업 현황2

국가	사업	내용
독일	직업훈련지원금 (Berufsausbildungsbeihilf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훈련지원금은 청년들이 직업훈련을 받는 동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생활비와 통학비 등을 지원하는 연방고용청의 사업임. 첫 번째 직업훈련에 참여할 때 지원하며 경우에 따라서 두 번째로 참여한 직업훈련 시기에도 지원이 이루어짐. - 이 훈련에 참여할 때 정부에서 인정하는 직업훈련이어야 하고 훈련을 받는 동안 부모로부터 독립해야 함. 18세 이상인 청년이 대상이며 혼인상태에 있고 자녀가 한 명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함. 본인과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금이 다름. 2024년 지원금은 매월 최대 822유로가 지급되고 있으며 통학비와 아동돌봄비용 등이 추가로 지급될 수 있음.
프랑스	청년참여계약 (Contrat d'Engagement Jeun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랑스에 추진 중인 청년참여계약은 그동안 청년센터를 통해 이루어진 청년보장제를 개편한 것임. 청년참여계약은 청년센터인 미션로깅 외에 프랑스의 고용센터인 프랑스노동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청년보장제는 졸업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니트 상태에 있는 청년을 지원했는데 청년참여계약은 취업 중인 저임금 시간제 노동자도 지원하는 등 지원 대상으로 확대하였음. 동시에 청년의 독립 여부와 부모의 소득 수준을 따지지 않고 청년 당사자의 소득만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함. 2025년 현재 청년참여계약 참여자들은 성인이 경우 월 최대 553유로의 수당을 받을 수 있고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월 221유로를 받을 수 있음.

* 자료: 홍문기(2024): Ministère du Travail, de la Santé, des Solidarités et des Familles(2025). <https://travail-sante-solidarites.gouv.fr/>에서 2025년 10월 19일 접속.

청년보장제는 졸업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니트 상태에 있는 청년을 지원했는데 청년참여계약은 취업 중인 저임금 시간제 노동자도 지원하는 등 지원 대상으로 확대하였다. 동시에 청년의 독립 여부와 부모의 소득 수준을 따지지 않고 청년 당사자의 소득만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2025년 현재 청년참여계약 참여자들은 성인이 경우 월 최대 553유로의 수당을 받을 수 있고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월 221유로를 받을 수 있다.

○———— 제7장 정책제언

- 1. 연구결과에 따른 정책 방향과 과제
도출 과정
- 2. 청년 성인기 이행 정책 방향(안)
- 3. 청년 성인기 이행 정책 과제(안)
- 4. 청년 성인기 이행 정책과제(안)
추진로드맵 및 결론

1. 연구결과에 따른 정책 방향과 과제 도출 과정

이 연구에서는 2010년에 중학교 1학년이었던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패널조사와 이들에 대한 약식의 유지조사 자료를 분석하였고 2010년 중1패널 대상으로 본조사 형태로 이루어진 추적조사를 실시하였다. 고3 시기의 교육기대와 실재를 분석하기 위해 중1패널 추적조사에 참여한 청년 21명을 대상으로 추적조사를 실시하였다. 동시에 기존 승인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청년 성인기 이행지표(안)을 만들고 이에 따른 성인기 이행 현황과 국제비교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정책 방향과 과제를 도출하였다. 이 절에서는 이 연구에서 진행한 다양한 연구 방법을 활용한 분석한 결과와 이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KCYPS 2010 중1패널 추적조사 결과 및 시사점

이 연구에서는 KCYPS 2010 중1패널을 대상으로 2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추적조사를 실시하였다. 28세 전후 시점에서 조사한 학교 이행과 관련하여 학습과 진학 차원의 결과를 보면, 고3 시기에 고졸 5.4%, 대졸 48.6%, 대학원 17.0%를 희망하였는데 2025년 현 시점에서 고졸 및 대학원 진학 희망자의 대다수가 대졸로 수렴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는 고교 단계에서 진로 다양화를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해준다. 동시에 고졸 취업과 대학원 진학이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이어서 28세 전후 나이에 대학이나 대학원 진학을 준비 중인 경우 지출하는 비용으로는 평균 30만 원 내외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등록금을 위한 장학금 지원과 학자금

9) 본 장은 김기현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대출 등이 2010년 반값 등록금 정책 추진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반면, 비학생이나 대학원 진학의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문제에 대한 관심이나 정책적 지원이 부족했다. 이와 관련 미진학자에 대한 진학 비용 지원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다음으로 대학 재학 시 절반이 한 번 이상 휴학이나, 졸업유예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휴학이나 졸업유예 이유는 취업준비였기 때문에 재학 기간을 지연시키지 않도록 학기 중 취업지원을 연계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이어서 대학 등록금 마련 시에 가족 지원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고 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 등을 확대해 왔으나 여전히 학비 부담이 있는 상황이다. 대학 등록금 부담을 좀 더 완화해 학업과 취업 준비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 이행과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대학원 진학 이유를 살펴보면, 절반 이상이 학문 및 전공 심화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취업이 어려워서 대학원을 간다는 응답은 매우 적었다. 이는 대학원 진학 확대에 있어서 청신호로 볼 수 있으며 대학원 진학 활성화를 위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분석결과	시사점
학습과 진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3 시집 고졸 5.4%, 대졸 48.6%, 대학원 17.0% 희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교 단계에서 진로 다양화를 위한 접근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 시집 고졸 및 대학원 진학 희망자 대졸로 수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졸 취업과 대학원 진학이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학을 위한 비용은 평균 30만원 내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진학자에 대한 진학 비용 지원 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 재학 시 절반 한 번 이상 휴학, 졸업유예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학 기간을 지연시키지 않도록 학기 중 취업지원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 등록금 마련 가족 지원 절반 가까이 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 등록금 부담을 완화해 학업과 취업 준비 매진 여건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원 진학 이유 절반 이상 학문 및 전공 심화 때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원 진학 활성화를 위한 대응책 마련 필요
학교-일자리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인으로서의 첫 출발 상징은 첫 일자리가 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첫 일자리 진입 장벽을 낮추는 정책적 접근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장 선호하는 일자리는 급여가 높은 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로 교육 강화로 직업선택 후 쏠림 현상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체의 68.6%가 중소기업 취업의사가 있다고 응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괜찮은 중소기업 홍보와 일자리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업 경험은 8.6%, 창업 희망은 39.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로 다양화를 위해 창업 희망자에 대한 지원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첫 일자리 교육수준 일치는 55.8%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첫 취업 과정에서 직무불일치를 낮추기 위한 노력 필요

* 출처: 자체작성

그림 VII-1. KCYPS 2010 중1패널 추적조사 결과 및 시사점

2) 청년 성인기 이행 지표(안) 결과 및 시사점

이 연구에서는 2010년 패널조사에 대한 추적조사를 통해 개인의 성인기 이행 경로를 분석하는 한편, 국가승인통계를 활용하여 청년 성인기 이행 실태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청년 성인기 이행지표(안)을 전문가 델파이조사를 통해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파악한 청년 성인기 이행 결과를 보면, 우선 학교 이행과 관련하여 직업계고의 대학 진학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직업계고의 설립목적은 완성교육으로 졸업 후에 취업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대다수가 취업이 아닌 진학을 선택할 경우 대학 쏠림 현상과 직무불일치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직업계고 학생들의 졸업 후 취업을 강화하는 정책적인 개입이 필요해 보인다.

	분석결과	시사점
학습과 진학 	✓ 직업계고 대학 진학을 증가	▶ 직업계고가 설립목적에 맞게 졸업 후 취업 강화
	✓ 대학수학능력시험 졸업생 응시율 증가	▶ 재수생을 양산하는 대입제도 개편에 대해 신중한 추진 필요
	✓ 대학 학업 중단률 및 휴학을 증가	▶ 대학 재학 중에 발생하는 부적응 및 유예 문제 대응 강화
	✓ 대학원 진학 희망 응답 감소	▶ 대학원 진학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학교-일자리 이행 	✓ 졸업 후 첫 취업 소요기간 증가	▶ 학교-일자리 연계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 청년 경제활동참여율과 고용률 감소	▶ 청년 고용의무제 강화와 중소기업 연계 등 취업경로 다양화 추진
	✓ 청년 실업자 및 쉬는 청년 비율 증가	▶ 학교 졸업 후 취업 연계 강화 필요

* 출처: 자체작성

그림 Ⅷ-2. 청년의 성인기 이행 지표 결과 및 시사점

두 번째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졸업생의 응시율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수시전형 대신 정시전형을 확대하고 킬러문항 이슈로 수학능력시험의 난이도 조정이 이루어지는 등 재수생에게 유리한 대입제도 개편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동시에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해 기존의 재수생과 이공계 대학생들이 의대 입시에 지원하면서 나타난 결과이기도 하다. 재수생을 양산하는 대입제도 개편은 신중한 접근과 억제하는 방향의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세 번째로 대학 학업 중단률 및 휴학률이 증가하였다. 학교-일자리 이행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은 많이 부각되어 왔는데 사실 대학 진학 단계의 재수생 확대와 더불어 대학 재학 기간이 증가하는 문제는 전반적으로 이행기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대학원 박사 진학을 희망한다는 응답이 감소하였다. AI, 로봇 등 첨단분야의 고급인재에 대한 수요가 점차 커지고 AI로 인해 과학기술 전반의 세밀한 전문가 양성이 시급한 상황에서 대학원 진학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학교-일자리 이행과 관련하여 졸업 후 첫 취업 소요기간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3개월 미만 조기취업비율은 낮아졌다. 이는 학교-일자리 이행의 핵심지표로 국가 차원에서 이 지표 결과에 대한 관리와 함께 조기개입을 통해 학교-일자리 연계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다음으로 청년 경제활동참여율과 고용률이 감소하였다. 동시에 청년 실업자 및 쉬는 청년 비율은 증가하였다. 코로나19 종식 이후 전통적인 고용지표가 개선되었으나 2024년 들어 모든 지표가 과거보다 부정적으로 바뀌었다. 공무원 증원과 같은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기는 어렵지만,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고용의무제 이행 비율을 높여 신규 채용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연계 등 취업경로를 다양화 하는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3) 청년 성인기 이행 국제비교 결과 및 시사점

여기에서는 성인기 이행 지표(안)와 관련하여 국제비교가 가능한 결과를 통해 시사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학교 이행과 관련하여 고등교육 이수율은 최고 수준이나 대학원 비중은 최저 수준이었다. 고교단계에서 교육 경로 다양화를 위한 접근을 강화하고 고졸 취업과 대학원 진학이 청년들에게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다음으로 고등교육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국제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대학원 이상의 고급인재 양성을 위한 정부 투자 확대가 필요해 보인다. 다만, 미국이나 일본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대학원보다는 대학 재정지원에 집중하고 있어 대학보다는 대학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분석결과	시사점
학습과 진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교육 이수율은 최고 수준이나 대학원 비중은 최저 ✓ 고등교육의 학생1인당 공공교육비는 매우 낮은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교단계에서 교육 경로 다양화를 위한 접근 강화 ▶ 대학원 이상의 고급인재 양성을 위한 정부투자 확대 필요
학교-일자리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고용률 상승 중에도 청년 고용률은 하락 ✓ 한국 청년 니트 비중은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 ✓ 한국 청년 실업률은 낮으나 노동시장 밖의 청년 비율은 높아 ✓ 경제 불평등은 교육과 실직 위험에 대한 인식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고용 개선을 위해 공공 및 민간 차원 대응 필요 ▶ 청년 니트 공식통계 집계 추진과 대응책 마련 ▶ 비경제활동인구로 빠지는 청년 원인 규명 및 대책 마련 ▶ 경제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 필요
* 출처: 자체작성		

그림 Ⅶ-3. 청년 성인기 이행 국제비교 결과 및 시사점

학교-일자리 이행과 관련하여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고용률은 상승 중임에도 청년 고용률은 하락하였다. 전체 고용률 증가는 고령자의 취업이 크게 증가하면서 나타난 것으로 청년 고용 개선을 위해 공공 및 민간 차원의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두 번째로 한국 청년 니트 비중은 OECD 평균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이는 부분적으로 재수생, 공시생 등 시험 형태의 입시나 취업 준비로 인해 높아진 측면이 있고 중등후 교육과정 없이 현실에서 실제 보다 높게 추정된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청년 니트비율은 높은 수준이며, OECD 차원에서 핵심지표로 이를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쉬웠음 청년뿐만 아니라 보다 포괄적인 니트 청년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세 번째로 한국 청년 실업률은 낮으나 노동시장 밖의 청년 비율은 높았다. OECD 「한눈에 보는 교육」 보고서에서는 노동시장 밖의 청년 규모를 제시하였는데 우리나라는 청년 니트와는 달리 이에 대한 공식통계를 제시하였다. 니트 통계가 몇 가지 이유로 어렵다면 대학 졸업 시기를 고려해 25세 이상부터 34세까지의 노동시장 밖의 청년 비율을 주요 지표로 관리해 볼 수 있다. 동시에 비경제활동인구로 빠지는 청년 원인 규명 및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세계가치조사 분석결과, 경제 불평등은 교육과 실직 위험에 대한 인식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본적으로 우리사회에서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이 청년들의 성인이 이행을 돕는 길이라는 점에서 경제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

4) KCYPs 중1패널 교육기대 분석 및 심층면담 결과와 시사점

이 연구에서는 KCYPs 2010년 중1패널 참여자들이 고등학교 3학년 때 교육기대 응답 결과와 2025년 추적조사 때 실제 학교 이행 과정을 데이터로 분석하고 해당 사례 참여자 중 21명에 대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이 결과는 총괄보고서가 아닌 심층분석보고서에 제시되었다. 교육기대와 실제에 대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결과에 따른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양적 연구 결과로는 고3 고졸 취업 희망자 중 52.5%가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KCYPs 중1패널 참여자들이 고3 시점에서 마이스터고 신설, 고졸 취업 확대 정책 등이 구체화되었기 때문에 고졸 취업을 희망하는 사례가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후 현장실습 사망 사고 등으로 인해 직업계고 취업률이 낮아지고 대학 진학률이 높아졌듯이 당초 고졸 취업을 희망했던 중1패널 참여자들이 주로 전문대로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 단계에서 진로 다양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이어서 고3 대학원 희망자 중 20.6%만이 대학원에 실제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후 대학원 진학이 줄어든 것과 연관성이 있어 보이며 대학원 진학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교육기대 일치 여부에 대한 로짓분석 결과, 진로정체감, 진로선택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학교 단계에서 실질적인 진로교육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이어서 질적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중등교육단계에서 성적 중심의 진로와 진학 상담, 형식화된 진로지도가 성인이 이행과정에서 다른 결정이 이루어진 이유로 나타났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진로지도와 자기주도 학습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면담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사교육 경험이 상위 대학 진학을 견고화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사교육으로 인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대입제도가 대학 선택의 다양화 제약하고 있다는 점도 면담과정에서 확인하였는데 대입제도를 다양화하여 다원화된 수시, 정시체제로 정비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비수도권 청년들과 면담을 하면서 지역 청년의 경우 불가피한 상황에서 수도권으로 이주를 선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대학 서열화와 수도권 집중 문제 해소 대책을 마련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고졸과 대학원 희망자 중 다양한 이유로 대졸을 선택하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대학 쏠림에 대한 사회적 인식 해소가 필요한 상황이며 이에 대한 관심과 개선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출처: 자체작성

그림 VII-4. KCYPS 중1패널 교육기대 분석 및 심층면담 결과와 시사점

5) KCYPS 본조사 및 유지조사 분석 결과 및 시사점

여기에서는 심층분석보고서에 담겨 있는 두 가지 연구 결과와 시사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먼저 한국 학교-일자리 이행 유형 분석 결과를 보면, 4년제 대학 진학 후 직장 이행 유형이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청년의 성인이 이행에 쏠림 현상이 있음을 보여주는데 진로 다양화를 통해 고졸과 대학원 진학 선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준다.

다음으로 이행 과정에서 경력 형성 및 진입 지연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학교 단계에서 맞춤형 진로 및 취업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해준다. 특히, 쉬는

청년의 경우 쉬는 기간 반복 경향이 발견되었다. 정부에서 쉬는 청년에 대한 대책이 2024년부터 마련되었으나 쉬는 청년 증가가 2025년에도 이어지고 있어 쉬는 청년에 대한 지원과 다층적 개입이 필요해 보인다.



그림 VII-5. KCYPS 2차 분석 결과 및 시사점

다음으로 성인기 이행 유형과 삶의 질 분석결과를 보면, 졸업 이후 취업을 하지 못할 경우 삶의 만족도가 크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서 학교와 일자리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취업 경험은 삶의 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다양한 일 경험과 첫 일자리 진입 강화를 위한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지금까지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성인기 이행 정책의 방향을 도출하였다. 사후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사전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여러 부처간의 연계 및 협력과 당사자 입장에서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도출하였다.

2. 청년 성인기 이행 정책 방향(안)

이 연구에서는 정책적 시사점을 토대로 4가지 정책방향(안)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먼저 청년 중심 접근이 필요하다. 청년정책은 교육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와 같이 기능 중심의 부처에서 다루는 정책이 아니라 청년을 다루는 대상 중심 정책이다. 우리나라는 대상 중심 부처가 성평등가족부 정도 존재하는데 성평등이라는 기능과 여성, 청소년, 가족이라는 대상 지원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유럽 등에서 추진 중인 대상 중심 부처와는 다른 측면이 존재한다. 게다가 아동정책은 대상 중심 정책임에도 기능 중심 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청년정책은 정부정책의 총괄과 조정 기능을 담당하는 국무조정실에서 관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성적으로 해당 기능 중심 방향으로 정책이 흐릴 가능성이 있다.



* 출처: 자체작성

그림 Ⅶ-6. 청년의 성인기 이행 정책 방향(안)

이는 공급자 중심의 분절적 접근이 이루어지는 출발점이 될 수 있으며 청년정책은 지난 몇 년간 각 기능 중심 부처에 청년 행정부서를 두고 개별적으로 기능별 청년정책을 추진하는 형태를 취해왔다. 이 역시 당사자인 청년보다는 공급자의 중앙정부 중심으로 정책이 추진될 개연성이 있다. 이러한 정부 구조를 바꾸는 것은 어려운 작업으로 장기과제로 두고 각 중앙부처의 청년 행정조직간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정책 당사자인 청년 입장에서 청년 참여와 권한 강화를 통해 청년 중심의 당사자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이어서 선제적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 청년을 위한 성인기 이행 정책은 예방적으로 이루어지기 보다 사후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이를 해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학교를 졸업하고 실업자가 된 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단계에서 졸업 전에 취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며 청년기보다는 청소년기에 개입해 문제를 최소화한 후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대상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협력적 접근과도 연결된다. 학생은 교육부에서, 실업자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다보니 학교에서 일자리로의 이행과정에 대한 지원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부처 간에,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에,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간에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 이는 선제적 접근을 통해 지원 대상자를 최소화했을 때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졸업 후 취업에 이르는 기간이 평균적으로 1년 가까이 걸리는 곳으로 취약하거나 위기 상태에 놓은 대상별로 촘촘한 접근이 어려운 곳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에서 취약위기 청년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동시에 이 문제는 협력적 접근이 전제되어야 한다. 취약위기 청년은 취업, 교육, 복지, 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처방이 가능하기 위해서 부처간의 연계와 협력이 절실하다고 볼 수 있다.

취약위기 청년뿐만 아니라 맞춤형 접근은 대상별로 학생, 취업자, 비경제활동인구별로 이루어지는 것을 포괄한다. 학생에 대한 지원은 선제적 접근과 관련이 있으며 취업자 역시 젊을수록 이직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선제적 접근이 필요한 대상이다.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한 지원은 문제가 발생한 후 맞춤형 접근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나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조기 개입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므로 선제적 접근의 대상이기도 하다.

3. 청년 성인기 이행 정책 과제(안)

이 연구에서는 KCYPs 중1패널에 대한 추적조사와 청년의 성인기 이행지표(안)에 따른 국내와 국제 실태분석, 패널조사와 횡단조사 자료를 활용한 2차분석, 패널조사 참여자에 대한 심층면담 등을 토대로 정책 방향(안)을 정하고 정책 과제(안)을 10가지로 제시해 보았다. 네 가지의 정책 방향(안)은 10가지 과제 선정에 있어서 핵심적으로 고려되었다.

이행단계로 볼 때 학교 이행과 관련하여 학습과 진학 차원에서 제안한 정책 과제는 5가지이다. 고교단계에서 선제적 접근으로 ‘직업계고 내실화와 현장실습 체계화’를 제안하였다. 그리고 대학생을 비롯하여 청년 전반에 대해서 진로교육을 강화하고 인생설계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는 한국형 갭이어 추진을 두 번째로 제안하였다. 세 번째로 대학원이 학교에서 일자리로의 이행 경로에 있어서 대안이 될 수 있도록 ‘대학원생 연구 및 생활 지원 체계 구축’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제가 실현되기 위해서 협력적 접근으로 ‘학교-기업-정부(중앙, 지자체)의 연계 및 협력체계 강화’를 제안하였다.

	과제명	정책대상	우선순위	담당부처
학습과 진학 	직업계고 내실화와 현장실습 체계화	직업계고 학생	3	교육부
	청년 진로교육 및 한국형 갭이어 추진	청년	2	교육부, 성평등가족부, 고용노동부
	대학원생 연구 및 생활 지원 체계 구축	대학원생	4	교육부
	학교-기업-정부(중앙, 지자체) 연계-협력체계 강화	전체 학생	1	교육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학교-일자리 이행 	학교-일자리 이행 지원 법제화	청년	5	국무조정실
	한국형 청년보상제 추진	청년	1	고용노동부, 교육부, 국무조정실
	공공기관 및 공기업 고용의무제 강화	청년 미취업자	3	고용노동부
	청년 일자리 이행경로 다양화	청년	4	교육부, 고용노동부
	취약-위기 청년 이행기 지원체계 구축	취약-위기 청년	2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인턴십 및 일경험 내실화	청년	6	교육부, 고용노동부, 국무조정실

* 출처: 자체작성

그림 Ⅶ-7. 청년 성인기 이행 정책 과제(안)

이 연구는 학교에서 일자리로의 이행 단계와 관련하여 6가지의 과제를 제안하였다. 먼저 학생 지원과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 지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학교-일자리 이행 지원 법제화’를 제안하였다. 미국이나 외국에서처럼 독립적인 법안

으로 가지않더라도 현재 개별 법률에서 이를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청년보장제와 같은 신규 정책을 추진할 때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과제는 ‘한국형 청년보장제 추진’이다. 이는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다루어져 왔으나 청년보장이라는 명칭만 소비되고 실제로 유럽식의 청년보장제가 우리나라에서 추진되지 못하였다. 이 정책은 선제적 접근과 협력적 접근을 실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과제는 ‘공공기관 및 공기업 고용의무제 강화’이다. 청년고용의무제는 2014년부터 법제화로 이루어져 2019년에 90% 가까이 이행했을 정도로 정착되는 듯 했으나 최근 이를 이행하지 않는 기관이나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독료와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국회에 상정된 법안에서처럼 의무고용비율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네 번째로 청년 일자리 이행경로 다양화가 필요하다. 학교 단계에서는 고교 시기부터 진로교육을 통해 고졸 취업과 대학 진학 후 취업, 그리고 대학원 진학 후 취업으로 경로가 다양해질 필요가 있다. 학교-일자리 이행 단계에서는 청년들이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괜찮은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과 대기업 및 공공기관과 같은 청년 선호 일자리 진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 번째로 ‘취약위기 청년 이행기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는 맞춤형 접근으로 선제적, 협력적 접근을 통해 다수의 청년이 원활한 성인기 이행이 이루어질수록 실현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경우에 부처 간의 협력적 접근이 더욱 중요한데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상 부처(아동은 보건복지부, 청소년은 성평등가족부, 청년은 국무조정실)간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처방과 관련하여 다양한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부처(취업은 고용노동부, 진학은 교육부, 훈련은 다양한 부처, 건강관리와 생활비는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문화생활 향유는 문화체육관광부 등)간의 협력체계가 필요하다.

여섯 번째 과제는 ‘인턴십과 일경험 내실화’이다. 현장실습은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법제화되어 있으나 인턴십과 일경험은 정규교육이 아닌 비정규 교육 및 훈련 형태로 체계성을 갖추어 오지 못했으나 향후 이를 내실화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1) 직업계고 내실화와 현장실습 체계화

① 필요성 및 목적

직업계고는 진학이 목적이 아닌 취업이 목적인 기관으로 전문적인 직업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이나 실제로 대학 진학률이 절반에 육박하고 원활한 취업 연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활한 학교-일자리 이행이 직업계고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일자리를 위한 체계를 정비하고 계속 문제가 되어왔던 현장실습을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과제의 목적은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고 직업반으로 이루어진 직업계고에서 내실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현장실습이 본연의 기능을 담당하여 원활한 일자리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② 정책 내용

직업계고는 완성교육기관으로 이러한 학교 건립 취지를 살려서 학생들이 졸업과 동시에 일자리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한 가장 큰 걸림돌은 고교 입학단계에서 진로를 확정하고 들어온 것을 전제로 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는 특정한 분야의 취업 준비와 요구되는 역량을 가르치는 데 집중하는데 들어온 학생은 해당 분야의 적성과 흥미에 따라 입학한 것이 아니라 성적에 맞추거나 큰 고민 없이 입학한 경우가 많아 학업에 매진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동시에 특정 분야라도 세부적인 전공이 다를 수 있는데 충분한 선택 기회 없이 세부 전공을 정한 뒤 이를 변경할 수 없게 해 자신과 맞지 않는 전공 공부에 대한 회의와 실망으로 학교 적응에 실패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에서는 1학년 시기에 적절한 범위에서 진로선택을 위한 진로교육을 강화하고 진로선택 시에도 진로를 변경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을 유연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시에 전문교과 필수 이수 요건을 완화해 수업부담을 낮추어 최소한 1학년 시기는 진로탐색과 진로 방향을 정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시에 현행 학교-일자리 이행을 지원할 때 기업에 취업하는 것과 더불어서 창업이나 사회연대경제 조직과 연계하는 등 일자리 이행 경로를 다양화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사회연대경제 조직은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사회적 기업을 비롯하여 기획재정부에서 관할하는 협동조합, 중소기업부의 소셜 벤처,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보건복지부의 자활기업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강화될 것으로 보여 학생들이 대안

두 번째로 현장실습은 잇달아 발생한 사망사고 이후 엄격한 참여 기업 관리와 보호 중심의 현장실습 강화로 이어졌고 이러한 일련의 조치로 현장실습의 안전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나 현장실습 자체의 위축으로 나타났고 일정 정도 직업계고 취업률을 감소시키는 부작용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실을 현장실습이라는 제도만으로 개선하기 어렵다. 여전히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실습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우수한 현장실습처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작업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동시에 현장실습과 다른 형태의 기업 연계 방식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직업계고의 채용연계용 직무교육과정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시에 새로운 기술과 산업 분야를 반영하여 직업계고의 학과를 개편하는 작업 역시 꾸준히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좋은 직업계고로 성과를 보여준 마이스터고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시도교육청에서 교육부가 추진하는 마이스터고 외에 별도의 지역형 마이스터고를 설립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64개교의 특성화를 대상으로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과 프로젝트 수업, 영마이스터 인증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부의 마이스터 지정 확대와 더불어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지역형 마이스터고를 확대해 학교-일자리 이행 과정에서 직업계고가 대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 1-1 직업계고 맞춤형 진로교육 강화 및 학교-일자리 연계 강화
- 1-2 현장실습 모니터링 강화와 기업연계 방식 다양화
- 1-3 시도교육청 중심 마이스터고 확대

③ 정책 예산

직업계고의 학교-일자리 이행 관련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이다. 현재 이 사업은 장려금 지원 사업 1개였다가 2020년부터 중앙취업지

원센터 운영비,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예산, 직업계고 졸업생 계속 지원모델 등 4개 사업을 포함하여 운영 중이다. 이 중에서 가장 예산 비중이 큰 것은 직업계고 3학년 학생이 증소, 중견기업에 취업할 경우 1인당 5백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2024년 기준으로 14,021명이 장려금 지급을 받았다. 이 예산은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데 예산을 유지한 상태에서 지원 대상 확대(전체 취업자)와 지원 금액 확대(5백만 원→6백만 원)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다.

표 VII-1. 직업계고 학교-일자리 이행 관련 예산 현황(2021-2025년)

사업 명칭	2021년 (억원)	2022년 (억원)	2023년 (억원)	2024년 (억원)	2025년 ¹⁾ (억원)	주관부처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1,330	1,300	1,020	1,020	836	교육부
직업계고 현장실습 내실화	546	462	462	320	314	교육부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지원	-	27	42	42	42	교육부

1) 2025년 예산은 계획 예산임.

*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1, 2022, 2023, 2024a, 2025). 중앙행정기관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

직업계고 현장실습 내실화는 현장실습 모니터링과 학교전담노무사 상담, 학생에 대한 현장실습 수당 지원, 권익보호 및 산업안전보건교육 등이 포함된다. 학생의 경우 현장실습 비로 1일 3만 원(최대 60일)을, 기업현장교사에게는 최대 21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대한 예산이 매년 삭감되고 있는데 지원비 등을 확대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해 예산을 현행 유지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은 공동훈련센터와 민간 교육훈련기관에서 참여 기업의 수료를 반영하여 채용연계형 사전 직무교육을 운영하고 채용연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4년 현재 1,252명이 참여하였고 이 중에서 829명이 취업에 성공하였다. 기업 연계 다양화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 확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2) 청년 진로교육 및 한국형 갭이어 추진

① 필요성 및 목적

현재 우리나라의 진로교육은 법적으로 학생에 한해서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학생이 아닌 청소년이나 청년 역시 지원을 받는 것이 필요한데 현행 「진로교육법」에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책무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부분만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청년에 대한 진로교육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동시에 청년들의 진로 설계를 위해 영국이나 미국, 일본 등에서 추진 중인 갭이어를 한국형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미 제주도를 시작으로 서울시에서 인생설계학교라는 이름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지자체 추진 사업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전국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이 정책 과제 목적은 청년 대상 진로교육 추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핵심 사업으로 한국형 갭이어 추진을 통해 청년들이 자신의 진로와 경력 설계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데 있다.

② 정책 내용

「진로교육법」은 학생의 진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진로 문제가 학생에 국한된 부분이 아니라는 점에서 학생이 아닌 청소년이나 청년에게 제공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제5조에서 제시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부분에 학생이 아닌 사회적 배려대상자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다루어지고 있다. 법적으로 제1조와 제7조가 충돌하고 있어서 제1조에 법률의 대상으로 청소년과 청년을 담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구체적인 추진 사업으로 지자체에서 도입해서 추진 중인 갭이어(gap year)를 정부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갭이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입학 후에 특정기간동안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영국에서 먼저 시작되었다. 이후 일본에서 지방정부의 사업으로 추진된 바 있으며 제주도에 이어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갭이어 프로그램이 추진 중에 있다. 대표적인 사업인 서울시의 인생설계학교는 진로설계에서부터 진로탐색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업이나 일을 잠시 멈추고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는 프로그램이다. 보편적인 사업으로 이루어진다면 수능능력시험을 마친 고3 학생을 대상으로 졸업 전에 노동관계법이나 금융, 주거 등 생활 분야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진로를 생각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수 있다. 학생 여부와 상관없이 지역사회에서 지역 청년센터나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등을 중심으로 참여자를 모집하여 인생설계를 하는 프로그램 형태로 운영될 수 있다.

1-1 청년 진로교육 지원 법적 근거 마련
1-2 청년 대상 한국형 갭이어 추진

③ 정책 예산

현재 청년에 대한 진로교육은 대학일자리센터 운영 중 일부 프로그램으로 진행 중이며 장병 대상 예산만 반영되어 있다. 대학일자리센터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로 확장 개편되어 재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과 센터 인근 직업계고 학생에 대한 지원을 추가되면서 매년 큰 폭의 예산 확대가 이루어져 왔다. 이는 선제적 접근 차원에서 긍정적인 변화인데 다만 학생 중심 지원 방식으로 비학생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표 VII-2. 청년 진로 관련 예산 현황(2021-2025년)

사업 명칭	2021년 (억원)	2022년 (억원)	2023년 (억원)	2024년 (억원)	2025년 ¹⁾ (억원)	주관부처
대학일자리센터 운영 및 대학생 진로탐색 강화	181	325	403	828	1,093	고용부
대학생 진로탐색 지원	8	8	-	-	-	교육부
선배들의 진로설계 멘토링 지원	-	3	1	-	-	과기부
청년장병 진로취업지원강화	58	58	54	64	62	국방부
청춘디딤돌 병역진로설계서비스 제공	30	21	30	38	27	병무청

1) 2025년 예산은 계획 예산임.

*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1, 2022, 2023, 2024a, 2025). 중앙행정기관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

이와 관련 한국형 갭이어를 통해 학생이 아닌 청년에 대한 진로교육 지원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교육부에서 예산을 확보해 고용노동부는 재학생을 지원하고 교육부는

학생이 아닌 청소년과 청년을 지원하는 교차 정책 추진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협업체계를 구축해 이러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④ 법률 제정 및 개정 사항

청년의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진로교육법의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제1조에 청소년과 청년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고 제5조에서 학교 밖 청소년 외에 청년도 추가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표 VII-3. 진로교육법 지원대상 범위 개정 사항

법률	현행조항	개정(안)	부처
진로 교육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여 국민의 행복한 삶과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학생 및 청소년, 청년에게-----학생 및 청소년, 청년-----	교육부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저소득층 가정과 학교 밖의 청소년 및 청년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 출처 : 정을호 의원 대표발의 법안(2024).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검색일 2025년 10월 16일.

3) 대학원생 연구 및 생활 지원 체계 구축

① 필요성 및 목적

고교 단계에서 선택지가 대학 진학으로 집중되고 고졸 취업과 대학원 진학이 대안이 되지 않으면서 학교-일자리 이행 시의 쏠림 현상에 따른 직무불일치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양한 선택지 중 하나로 대학원 진학이 충분한 선택지가 될 수 있도록 대학원생에 대한 지원 확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 과제의 목적으로 대학원의 경쟁력 강화와 대학원생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다양한 진로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는 데 있다.

② 정책 내용

학생들이 대학원 진학을 주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대학원생에 대한 연구 자율성이 높지 못하고 대학교수와의 종속적인 관계가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R&D 지원이 대학으로 투입되면 대학교수가 이를 받아 추진하고 대학원생들이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외국에서는 대학원생에게 직접적으로 연구비가 투입되어 본인의 책임과 감독하에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연구의 다양성은 물론 책임성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지원은 박사뿐 만 아니라 석사과정 단계에서부터 부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1-1 대학원생 연구 자율성 확대 및 연구비 직접 지원

1-2 대학원생 생활지원 체계 구축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장려금(한국형 Sipend) 사업은 2025년부터 추진되는 정부 사업으로 석사과정은 월 80만 원, 박사과정은 월 110만 원을 지원하는 하는데 등록금, 생활비 부담 때문에 연구에 전념하기 어려운 대학원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되었다. 2025년부터 2033년까지 9년 간 운영되며 총 9,79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지원 형태는 대학원생이 이미 받고 있는 장학금이나 인건비 등이 기준 금액(석사 월 80만 원, 박사 월 110만 원)에 못 미치는 경우에 이를 채워주는 방식이다. 석사의 경우 월 40만 원을 장학금과 인건비로 받을 경우 나머지 40만 원을 채워주는 방식이다. 이 사업은 참여대학에 소속 이공계 대학원생과 연구등록 수료생으로 한정해서 지원하고 있다. 새로운 제도 도입이기 때문에 현재 제안된 방식으로 추진하되 개인의 지원금과 연동하기 보다 별도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해 보이며 이공계만이 아니라 인문사회계와 예술체육계 등 타 전공 분야로 확대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③ 정책 예산

대학원생에 대한 예산 지원은 간접 지원 방식으로 대학에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고 이어져서 대학원생에게 지원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현재 산업통상부가 추진 중인 ‘산업 혁신인재 성장 지원’은 국가첨단전략사업 육성을 위해 1,661억 원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며 산업계가 요구하는 혁신인재 양성으로 2024년 56개 분야 6,782명이 교육에 참여하였다.

표 VII-4. 대학원생 학교-일자리 이행 관련 예산 현황(2021-2025년)

사업 명칭	2021년 (억원)	2022년 (억원)	2023년 (억원)	2024년 (억원)	2025년 ¹⁾ (억원)	주관부처
청년 석박사 연구인력 일자리 사업	14	15	17	15	11	산자부
산업 혁신인재 성장 지원	1,142	1,304	1,356	1,574	1,661	산자부
ICT 석박사 인재 글로벌 연구 역량 강화	145	17	40	45	34	과기부
ICT 석박사 인재 R&D 역량 강화	584	611	687	678	896	과기부

1) 2025년 예산은 계획 예산임.

*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1, 2022, 2023, 2024a, 2025). 중앙행정기관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 분야에 글로벌 연구 및 R&D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9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 중이다. 글로벌 연구 역량은 해외 최고 수준의 대학에 국내 석사와 박사 30여명을 6개월간 파견하여 전문적인 교육을 받도록 하는 사업이다. R&D 역량 강화 사업은 AI를 비롯하여 차세대 통신, ICT 융합 등 유망기술 분야의 석사와 박사를 지원하기 위해 대학IT연구센터를 설립하고 6대 전략기술 분야 대학원 운영, 지역 기업 연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후자는 간접사업에 가깝고 전자는 소수만이 지원을 받는 해외연수 사업으로 한계가 있다.

두 부처에서 추진 중인 사업을 지원 당사자가 대학과 대학교수보다는 대학원생에게 직접 지원하는 부분을 높이거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현재 새롭게 추진 중인 대학원 연구생활비 지원사업을 보다 확장하고 체계화하는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4) 학교-기업-정부(중앙, 지자체) 연계-협력체계 강화

① 필요성 및 목적

학교 이행 및 학교-일자리 이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교와 기업, 그리고 정부를 연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산학연이 강조되고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은 성공 사례를 만들기 위해 오래 전부터 관련된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정작 학생들의 취업과 창업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를 하지 못하고 대학 재정 지원 차원에 머문 측면이 있다.

이 과제의 목적은 학교-기업-정부 연계 체계를 학생의 학교-일자리 이행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하여 청년들의 원활한 성인기 이행을 강화하는 데 있다.

② 정책 내용

먼저 고교단계에서 학교-기업-정부의 학교-일자리 연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교육부에서는 2020년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 공모를 추진해 2022년부터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지역별로 전략산업이나 특화산업에 대해서 직업계고와 지역기업, 그리고 지역대학이 협력하고 지자체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지원하는 교육모델이다.

2021년에는 광역지자체 중 부산, 대구, 인천이, 기초지자체 중 천안, 사천, 진주, 고성 이 선정되었고 2022년에는 광주, 울산, 경북과 창원, 김해가 선정되었다. 2023에는 전북과 당진이, 2024년에는 서울이 선정되었다. 사업의 목적이나 내용을 볼 때 예산 규모가 크지 않고 대학의 유사사업인 라이즈(RISE)와 비교해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고교단계에서부터 학교-일자리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지자체에 대한 모니터링과 사업 예산 확대가 필요해 보인다.

이어서 대학단계의 학교-기업-정부의 연계체계 구축은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지자체로 이관한 대학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사업이 있다. 링크(LINK)라는 이름으로 추진해온 산학연 지원 사업을 지자체로 이관한 것으로 예산 규모는 2조 원에 이른다. 과거의 산학연 사업의 소기의 성과를 이루지 못한 중요 요인으로 대학생의 취업, 창업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대학 지원에 그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자체 성과 평가 지표로 학교-일자리 이행 결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 | |
|----------------------------------|
| 1-1 고교단계 학교-기업-정부 학교-일자리 연계체계 구축 |
| 1-2 대학단계 학교-기업-정부 학교-일자리 연계체계 구축 |

③ 정책 예산

직업계고와 관련하여 신산업분야로 직업계고의 학과를 개편하는데 600억 원에 이르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며 학교-기업-지자체를 연계하는 혁신지구 사업은 2024년 기준으로 86억에 그치고 있다. 이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며 학과 개편 논의 역시 산학연이 연계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표 VII-5. 학교-기업-정부 연계 관련 예산 현황(2021-2025년)

사업 명칭	2021년 (억원)	2022년 (억원)	2023년 (억원)	2024년 (억원)	2025년 ¹⁾ (억원)	주관부처
신산업분야 직업계고 학과개편 지원	711	615	423	588	596	교육부
직업교육 혁신지구 조성	-	93	97	107	86	교육부
전문대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60	84	96	96	96	교육부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지원	96	96	171	258	258	교육부
중소기업 계약학과	119	132	150	57	155	중기부
대학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RISE)	-	-	-	-	20,010	교육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2,439	3,480	4,885	-	-	교육부

1) 2025년 예산은 계획 예산임.

*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1, 2022, 2023, 2024a, 2025). 중앙행정기관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

대학과 관련하여 라이즈 사업이 새롭게 추진되는데 이 사업은 산학연의 성패가 달려 있으며 기존 대학 지원에서 대학생과 대학원생 지원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지 않으면 산학연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어렵다. 동시에 매우 효과적인 연계방식인 계약학과 관련 예산이 라이즈 사업으로 통합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점검도 필요해 보인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지자체의 책임과 관리감독이 중요하며 학교-일자리 이행 성과 지표 중심으로 사업을 평가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

5) 학교-일자리 이행 지원 법제화

① 필요성 및 목적

학교-일자리 이행이 매우 중요함에도 이를 담당하는 행정부처가 없는 상태에서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에서 담당하는 법률에 해당 조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과제 목적은 학교-일자리 이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다.

② 정책 내용

현재 청년 관련 법률에는 학교에서 일자리로의 이행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가장 중요한 법률인 「청년기본법」에 관련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어서 청년 고용 부분을 다루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 지원 근거 조항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한편, 해당 법률은 특별법으로 되어 있어 2026년 이후에 연장 여부에 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향후 특별법에서 일반법으로 전환하여 법률 효력 연장에 대한 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불필요한 상황을 없애는 것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올해 제정되어 2026년부터 시행되는 「위기아동·청년지원법」에서도 학교·일자리 이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 법률과 관련하여 아직 시행 전인데 기존의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 위기 청소년에 대한 정의와 연령, 사업이 중복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법률적 검토 역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 |
|-----------------------------------|
| 1-1 청년기본법 학교·일자리 이행 지원 근거 마련 |
| 1-2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학교·일자리 이행 지원 근거 마련 |
| 1-3 위기아동·청년지원법 학교·일자리 이행 지원 근거 마련 |

③ 법률 제정 및 개정 사항

먼저 「청년기본법」의 제19조에 학교에서 일자리로의 이행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표 VII-6. 청년기본법 제19조 개정 사항

현행	개정(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능력·재능·기술 등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향상을 시키고 학교에서 일자리로의 이행 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검색일 2025년 9월 25일.

표 VII-7.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4조②항 개정 사항

현행	개정(안)
2.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산·학·관 협력에 관한 사항	2. ----- ----- 협력에 관한 사항과 학교에서 일자리로의 이행 에 관한 사항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검색일 2025년 9월 25일.

표 VII-8. 위기가동청년법 제17조 개정 사항

현행	개정(안)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자에게 적성과 능력에 맞는 학업 및 취업 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 ----- 취업 지원 서비스와 학교에서 일자리로의 이행 에 대한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전담조직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업 및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시 민·관 장학금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과 연계하여야 한다.	② 전담조직의 장은 ----- ----- 및 학교에서 일자리로의 이행 지원 제공 시 민·관 장학금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과 연계하여야 한다.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검색일 2025년 9월 25일.

다음으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과 「위기가동청년지원법」에서도 학교-일자리 이행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6) 한국형 청년보장제 추진

① 필요성 및 목적

청년들의 졸업 후 첫 취업기간이 늘어나고 있으며 경력직 채용 관행과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졸업자들의 어려움이 커져 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기개입을 통해 재학 전이나 직후에 취업이나 창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 과제 목적은 조기 개입 정책 추진을 통해 청년들이 보다 원활하게 학교에서 일자리로 이행할 수 있도록 돕도록 지원하는 데 있다.

② 정책 내용

유럽연합에 1단계(2013-2019)에 이어 2단계(2020-2027)로 추진 중인 청년보장제(youth guarantee)를 우리나라의 실정과 상황에 맞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럽연합은 북유럽에서 성공적으로 추진 중이었던 청년보장제를 회원국 전체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기금 사업의 대규모 재정 투입을 통해 2013년부터 청년보장제를 추진하였다. 그 결과, 1단계 추진과정에서 코로나19라는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청년 실업률과 청년 니트 비율을 낮추는 데 성공하였으며 2단계에 더 강화된 청년보장제를 추진 중에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 서울시에서 한국형 청년보장제라는 표현을 기본계획 명칭으로 사용하면서 유럽의 청년보장제가 알려지기 시작했으나 조기개입 형태의 보편정책으로 추진되기 보다는 청사진을 밝히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에만 차용되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청년보장제의 틀을 갖춘 사업이 추진된 바 있으나 조기개입 형태의 보편정책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업이 청년도전지원사업으로 이 사업은 학교 졸업 후 6개월 후(사후 개입) 취약 청년(선별정책)을 대상으로 실시되어 청년보장제가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첫 사례로 보기 어렵다.

향후 청년정책의 핵심사업으로 추진될 한국형 청년보장제는 유럽연합의 청년보장제와 마찬가지로 학교 졸업 후 3개월 이전에 니트 상태(일도, 취업도 하지 않고, 훈련도 받지 않는 상태)에 있을 경우 개인의 어떤 조건과도 상관없이 1년간 지속적으로 진학, 취업, 그리고 직업훈련 참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1-1 한국형 청년보장제 추진

③ 정책 예산

청년보장제와 관련된 사업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도전지원사업과 청년성장프로젝트가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청년구직촉진수당과 청년 취업성동패키지로 청년사업으로 추진되어 오던 정책을 취약계층 전반을 포괄하는 실업부조제도 형태로 확장된 사업이다. 2021년 시행 초기에 사업규모가 1조 4,029억 원으로 대규모 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청년 참여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현재 유형 1과 2로 분산되어 있는 청년 유형을 통합하고

청년보장제의 마중물 사업으로 활용해 볼 수 있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문재인 정부에서 유럽식의 청년보장제 도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신규로 추진된 사업인데 논의 과정에서 조기개입 방식과 보편 지원 대신 사후개입 방식과 선별 지원 형태로 전환되었다. 현재 해당 사업은 ‘구직단념청년 등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이라는 긴 과제명으로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 주도로 장학재단을 통해 장학금과 학자금 지원을 받는 대학생의 경우 개인정보 동의를 통해 조기개입 형태의 접근이 가능해졌다. 고등학교생의 졸업자 정보는 교육부에서 추진 중인 직업계고 졸업자 후속관리 모델을 통해 부분적으로 대상자를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학교-정부 정보 연계를 바탕으로 당사자들에게 진학, 취업, 그리고 훈련을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의 예산 지원을 1:1대 하고 지자체 예산이 투입되는 매칭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표 VII-9. 청년보장제 유사 관련 사업 예산 현황(2021-2025년)

사업 명칭	2021년 (억원)	2022년 (억원)	2023년 (억원)	2024년 (억원)	2025년 ¹⁾ (억원)	주관부처
국민취업지원제도	5,049	6,652	5,743	6,149	8,457	고용부
구직단념청년 등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촉진 지원	42	75	407	458	527	고용부
청년의 구직활동 지원 및 쉬었음 전환 예방	-	-	-	251	189	고용부

1) 2025년 예산은 계획 예산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전체 예산이 아닌 청년 예산임.

*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1, 2022, 2023, 2024a, 2025). 중앙행정기관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

7) 공공기관 및 공기업 고용의무제 강화

① 필요성 및 목적

청년들의 첫 취업이 매우 어려워진 것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민간기업의 채용방식이 경력채용을 바뀐 부분도 있으나 동시에 공무원 채용이 크게 줄었고 공공기관 및 공기업 역시 신규채용을 줄이면서 나타난 문제이다. 법적으로 청년 고용의무제를 통해 신규채용을 해야 할 공공기관 및 공기업 역시 법률을 따르지 않고 의무채용 비율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

이 과제의 목적은 공무원 증원이 정부 재정 차원에서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법적으로

것이 필요한데 대안은 중소기업 취업 확대와 창업 활성화라고 할 수 있다. 관찮은 중소기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보 접근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청년 친화강소기업 추진을 법제화하고 청년 창업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사회연대 경제 조직을 통한 일자리연계를 통해 일자리 경로를 다양화할 수 있다.

② 정책 내용

우선 관찮은 중소기업을 청년에게 알려 취업을 다양화하고 직무불일치나 취업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선정해 청년들에게 알리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한 법제화를 토대로 안정적인 예상 확보와 보다 체계적인 정보 전달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청년 창업은 다양한 부처에서 별도로 추진하면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측면이 있다. 현재 활동 중인 법인 기업의 대표자 중 20대와 30대의 경우가 2011년 3.4%와 16.5%에서 2023년 현재 3.2%와 11.9%로 낮아졌다. 청년 인구 감소가 일정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가 청년 창업 활성화를 많은 정책 사업과 예산을 투입한 결과를 염두에 둘 때 부족한 측면이 있다. 이와 관련 창업교육과 자금지원, 컨설팅 및 사후 관리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동시에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통해 일자리 연계 역시 필요하다. 사회연대경제 조직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추진 중인 사회적 기업을 비롯하여 기획재정부에서 관리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셜 벤처,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과 보건복지부의 자활기업 등이 있다. 이를 통해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만들거나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사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동시에 대안적인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1-1 관찮은 중소기업 기업 정보 제공 법제화

1-2 청년 첫 창업 이행지원 및 내실화

③ 정책 예산

중견 및 중소기업 중 청년 친화적인 강소기업을 선정해 지원하는 있는 사업은 청년친화 강소기업 선정사업이 있다. 2021년 당시 3억원의 예산으로 시작해 2025년 현재 8억원으

로 확대되었는데 해당 정책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매우 낮은 예산임을 알 수 있다. 이 사업 추진 시 기업 컨설팅을 실시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연계해 추진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표 Ⅶ-11. 청년친화 강소기업 사업 예산 현황(2021-2025년)

사업 명칭	2021년 (억원)	2022년 (억원)	2023년 (억원)	2024년 (억원)	2025년 ¹⁾ (억원)	주관부처
청년친화 강소기업 선정	3	3	7	6	8	고용부

1) 2025년 예산은 계획 예산임.

*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1, 2022, 2023, 2024a, 2025). 중앙행정기관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은 매우 많은데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추진 중인 대표사업으로 청년 창업성공패키지가 있다. 이는 교육, 지원, 컨설팅과 사후관리를 동시에 진행하는 패키지 사업으로 예비창업패키지와 더불어 청년 창업 활성화에 있어서 중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예비 창업패키지는 매년 예산이 삭감되어 절반 이하로 줄었는데 해당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기반으로 예산 확대가 필요해 보인다.

표 Ⅶ-12. 청년 창업 지원 관련 대표사업 예산 현황(2021-2025년)

사업 명칭	2021년 (억원)	2022년 (억원)	2023년 (억원)	2024년 (억원)	2025년 ¹⁾ (억원)	주관부처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968	844	845	796	825	중기부
창업성공패키지(글로벌창업사관학교)	108	108	108	135	135	중기부
예비창업패키지	1,002	832	650	629	490	중기부

1) 2025년 예산은 계획 예산임.

*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1, 2022, 2023, 2024a, 2025). 중앙행정기관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

④ 법률 제정 및 개정 사항

현재 청년친화 강소기업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있어 향후 대표 사업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이와 관련 현재 제출된 법안 중에 해당 조항을 추가하는 법안이 제출 중이다. 이러한 법안 내용을 참고하여 청년 친화 강소기업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표 VII-13.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조항 신설

현행	개정(안)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제8조의6(청년친화강소기업의 선정 및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청년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에서 매년 청년 고용실적, 임금 수준, 일생활 균형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청년친화강소기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청년친화강소기업의 선정은 해당 기업의 사업장 단위로 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년친화강소기업의 선정 및 취소,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출처 : 박성준 의원 대표발의 법안(2025).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검색일 2025년 10월 16일.

9) 취약위기 청년 이행기 지원체계 구축

① 필요성 및 목적

취약 및 위기 청년에 대한 접근은 일반 청년과는 달리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며 사각지대가 없도록 신청주의 방식보다는 찾아가서 발굴하는 아웃리치 접근이 필요하다. 대상별 경중에 따라서 지원되는 금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 경제적 지원의 편차가 여론이나 부처의 차이로 나타난다면 이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취약 및 위기 청년에 대한 지원은 조기 개입 차원에서 연결되어 아동과 청소년기부터 이루어져야 하는데 부처간의 연계와 협력이 잘 되지 않아 분절적으로 다루어지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아동을 담당하는 보건복지와 청소년을 담당하는 성평등가족부, 그리고 청년을 담당하는 국무조정실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취약 및 위기 상태에 있는 아동, 청소년, 청년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② 정책 내용

2025년 「위기 아동·청년지원법」이 제정되어 2026년 시행될 예정인데 이 법률에 대한 법제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 가족돌봄 등이 붙어 있기는 하지만 위기상태의 아동과 청년을 모두 포괄하고 있지 못하여 「청소년복지지원법」을 근거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위기

청소년과도 지원 대상에서 중복되는 문제도 존재한다. 법률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각 부처에서 생애 전반기에 위기 상태에 놓인 젊은 세대를 사각지대 없이 충실히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제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시에 실태조사 실시와 달체계 운영 등에 있어서 위기 상태에 놓은 아동과 청소년, 청년 모두를 대상으로 통합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국무조정실과 보건복지가족부, 성평등가족부 등 관련 부처 간의 상설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원하고 공동 예산 사업 운영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다.

- | |
|----------------------------|
| 1-1 취약, 위기 아동·청소년·청년 법제 정비 |
| 1-2 취약·위기 청년 이행기 지원체계 구축 |

③ 정책 예산

각 개별부처에서 자립준비청년, 고립·은둔청년, 가족돌봄청년, 위기청년, 청년한부모 등을 담당하여 예산 확보에 나서면서 자립준비청년과 청년한부모의 경우 충분한 예산 확보가 이루어졌으나 다른 분야의 경우 분절적이고 경우에 따라서 예산이 삭감되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새롭게 제정된 「위기 아동·청년지원법」은 보건복지부 내에서 자립준비청년을 제외하고 고립·은둔청년, 가족돌봄청년만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발굴 목적을 겸비한 별도의 실태조사 실시, 별도의 전달체계인 미래청년센터 구축 등이 다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률 담당 부처와 부서를 넓혀 자립준비청년과 위기청년, 청년한부모 등을 포괄하는 것이 필요하며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실태조사를 통해 발굴을 시도하더라도 이러한 접근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표 VII-14. 취약위기 청년 지원 관련 예산 현황(2021-2025년)

사업 명칭	2021년 (억원)	2022년 (억원)	2023년 (억원)	2024년 (억원)	2025년 ¹⁾ (억원)	주관부처
고粱은둔 청년 발굴 및 제도적 기반 마련	-	88	-	24	20	복지부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293	359	566	602	541	복지부
자립준비청년 맞춤형 지원	25	101	187	227	255	복지부
가족돌봄청년 발굴·지원체계 마련	-	-	-	32	34	복지부
위기청년 자립지원(쉼터·퇴소·청소년)	2	5	9	12	24	성평등부
위기청년 자립지원(내일이룸학교)	31	31	-	-	-	성평등부
청년한부모 자립지원	93	188	246	257	406	성평등부

1) 2025년 예산은 계획 예산임.

*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1, 2022, 2023, 2024a, 2025). 중앙행정기관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

④ 법률 제정 및 개정 사항

현재 「위기 아동·청년지원법」은 「청소년복지지원법」과 중복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심의 및 조정과 관련하여 아동정책조정위원회와 청년정책조정위원회만 언급되어 있어 청년정책위원회가 포함될 필요가 있다.

10) 인턴십 및 일경험 내실화

① 필요성 및 목적

인턴십(internship)과 일경험(work experience)은 그 자체로 취업은 아니라 취업을 위한 과정으로 전 세계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인턴십은 청년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사업을 도입되어 교육 및 훈련이라는 목적보다는 경력의 공백을 없애고 취업준비를 위한 시간을 보내는 기간처럼 잘못 운영되었다. 최근 일경험은 새롭게 정책화되어 확산 중인데 아직 청년 전반에게 뚜렷하게 인지가 되지 않은 측면이 있고 인턴십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 과제의 목적은 청년을 위한 일경험 사업의 유형을 명확히 내실화를 통해 청년들의 학교-일자리 이행과정에서 중요한 단계로 자리잡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② 정책 내용

청년 일경험 사업은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부처마다, 기관마다 달리 적용되는 측면이 있다. 청년 인턴은 크게 일경험 사업 중 하나로 볼 수 있는데 사후적으로 제도화되어 마치 다른 사업처럼 추진 중이다. 현재 각 중앙행정기관에 추진 중인 일경험 사업 중 가장 많은 형태가 인턴 사업이다.

공공정책 영역에서 일경험은 인턴형과 프로젝트형, 체험형으로 나뉜다.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이러한 구분에 따라 일경험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인턴형은 실제 실무를 경험하고 일을 하기 때문에 보수를 받고 진행되며 글로벌 기업들은 신규채용 방식으로 인턴을 거쳐 상호간에 탐색을 통해 채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반면 프로젝트형은 해당 기업에 출근할 필요가 없으며 기업에서 원하는 프로젝트를 조율 과정을 거쳐 수행하고 제출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체험형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직장탐방이나 직무체험을 포괄한다. 학술적으로 이에 대한 구분은 취업이나 창업까지를 포괄하여 모든 형태의 일에 대한 경험을 의미하며 넓게는 자원봉사까지를 포괄한다.

고용노동부뿐만 아니라 많은 정부부처에서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이므로 일경험에 대한 유형을 공식적으로 정의하고 각 부처별 사업에 대한 관리와 점검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청년 일경험 사업 유형화에 이어 정부에서 청년 인턴 및 일경험 사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중앙정부 인턴십의 경우 국무조정실에서 신규 사업으로 종합적인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모델을 일경험 전반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1-1 청년 일경험 사업 유형화

1-2 청년 인턴 및 일경험 사업 체계화

③ 정책 예산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인턴십 사업은 매우 많은데 바뀌 부분은 2023년부터 국무조정실에서 중앙행정기관 인턴을 총괄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모델을 일경험 전반에 걸쳐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고용노동부에서 인턴형을 제외한 나머지 일경험 지원에 대한 사업을 통합적으로 운영해 볼 수 있다.

표 VII-15. 인턴십 및 일경험 관련 예산 현황(2021-2025년)

사업 명칭	2021년 (억원)	2022년 (억원)	2023년 (억원)	2024년 (억원)	2025년 ¹⁾ (억원)	주관부처
국민취업지원제도(일경험 프로그램 통합)	541	11,623	12,254	9,425	8,457	고용부
청년일경험지원	-	499	553	1,718	2,140	고용부
중앙행정기관 인턴	-	-	278	623	642	국조실

1) 2025년 예산은 계획 예산임.

*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1, 2022, 2023, 2024a, 2025). 중앙행정기관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

4. 청년 성인기 이행 정책과제(안) 추진로드맵 및 결론

이 연구에서는 2010년에 중학교 1학년이었던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패널조사와 이들에 대한 약식의 유지조사 자료를 분석하였고, 2010년 중1패널 대상으로 본조사 형태로 이루어진 추적조사를 실시하였다. 고3 시기의 교육기대와 실재를 분석하기 위해 중1패널 추적조사에 참여한 청년 21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동시에 기존 승인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청년 성인기 이행지표(안)를 만들고 이에 따른 성인기 이행 현황과 국제비교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정책 방향과 과제를 도출하였다.

표 VII-16. 청년 성인기 이행 정책 과제(안) 로드맵

영역	정책 과제(안)	추진기간			신규/기존	법률재개정
		단기 (‘26-’27)	중기 (‘28-’30)	장기 (‘31-’35)		
학습과 진학	1. 직업계고 내실화와 현장실습 체계화	○			기존	
	2. 청년 진로교육 및 한국형 갭이어 추진	○	○		신규	○
	3. 대학원생 연구 및 생활 지원체계 구축	○			기존	
	4. 학교-기업-정부 연계협력체계 강화	○	○	○	기존	
학교-일자리 이행	5. 학교-일자리 이행 지원 법제화	○			신규	○
	6. 한국형 청년보장제 추진	○	○	○	신규	
	7. 공공기관 및 공기업 고용의무제 강화	○			기존	○
	8. 청년 일자리 이행경로 다양화	○	○		기존	○
	9. 취약위기 청년 이행기 지원체계 구축	○	○	○	기존	○
	10. 인턴십 및 일경험 내실화	○			기존	

이 연구에서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청년 중심 접근과 선제적 접근, 맞춤형 접근과 협력적 접근이라는 4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정책 방향을 토대로 10개의 정책과제(안)을 마련하였다. 학습과 진학과 관련된 정책과제는 직업계고 내실화와 현장실습 체계화, 청년 진로교육 및 한국형 갭이어 추진, 대학원생 연구 및 생활 지원체계 구축, 학교-기업-정부 연계, 협력체계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4가지 과제 중 가장 우선순위를 높게 잡은 과제는 학교-기업-정부 연계, 협력체계 강화이며, 이는 모든 과제가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 기반이 되는 과제이다. 두 번째 과제는 청년 진로교육 및 한국형 갭이어 추진이다. 이 과제는 신규과제인 한국형 갭이어가 포함되어 있으며 진로교육을 통한 적절한 진로계획 수립과 인생 설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2순위 과제로 선정하였다. 법률 제정이나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청년 진로교육 및 한국형 갭이어 추진으로 진로교육이 중등교육 학생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학교 밖의 청소년이나 청년을 포괄하여 진로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

학교-일자리 이행과 관련된 정책 과제로는 학교-일자리 이행 지원 법제화, 한국형 청년보장제 추진, 공공기관 및 공기업 고용의무제 강화, 청년 일자리 이행경로 다양화, 취약위기 청년 이행기 지원체계 구축, 인턴십 및 일경험 내실화로 총 6가지 과제였다.

이 과제 중 가장 우선순위를 부여한 과제는 한국형 청년보장제 추진(신규사업)으로 우리나라 청년의 성인기 이행에 있어서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취약위기 청년에 대한 이행기 지원체계 구축을 두 번째로 중요한 과제로 선정하였다. 한국형 청년보장제가 보편정책이라면 가장 많은 지원을 받아야 하는 취약위기 청년에 대한 지원은 보편정책의 성공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법률 개정이나 제정이 필요한 과제는 고용의무제 강화와 이행경로 다양화, 그리고 취약위기 계층 이행기 지원체계 구축 과제이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청년의 성인기 이행과 관련하여 정책 방향과 과제(안)를 제시하였다. 이번 1차연도 연구에서는 학교이행과 학교-일자리 이행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방향과 과제를 제안하였다. 이 연구 결과가 실제 정책에 반영되어 청년의 삶이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 참고문헌

참고문헌

[국내문헌]

- 강세욱 (2016). **일학습병행제 성과 평가**. 국회예산정책처.
- 고용노동부 (2025). **2025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공고문**. 세종: 고용노동부.
- 관계부처 합동 (2024a). **2024년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 세종: 국무조정실.
- 관계부처 합동 (2024b).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비상경제장관회의 24-8-1.
- 관계부처 합동 (2025a). **2025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 세종: 국무조정실.
- 관계부처 합동 (2025b). **청년의 첫걸음을 응원하는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추진방안**. 세종: 국무조정실.
- 관계부처 합동 (2025c). **“첫걸음부터 함께 하는, 모두의 미래를 위한” 국민주권정부 청년 정책 추진방향**. 세종: 국무조정실.
- 관계부처합동 (2020).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 세종: 국무조정실.
- 국가데이터처 (2022). **지역통계 표준매뉴얼-청년통계**. 대전: 국가데이터처.
- 국무조정실 (2023a). **청년정책 연차보고서 2023**. 세종: 국무조정실.
- 국무조정실 (2023b). **청년친화도시 추진계획(안)**. 세종: 국무조정실.
-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 (2021). **지자체 청년정책 통계**. 세종: 국무조정실.
- 권재혁, 박승훈, 조창범, 김필, 김성훈 (2024). **청년패널2021 2차(2022) 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충북: 한국고용연구원.
- 김기현 (2018). **청년프레임**. 서울: 이담북스.
- 김기현 (2021). **해외 주요국 청년정책 현황 및 시사점**. 세종: 기획재정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기현 (2025). **아동청소년패널 추진 배경과 청년정책 연계 방안**. 서울연구원한국청소년

- 정책연구원 제1차 공동포럼 「청년 삶의 경로를 고려한 데이터 기반 연구 방안」 자료집.
서울: 서울연구원.
- 김기현, 김윤희 (2025). OECD 국가의 청년정책 현황 및 시사점. **블루노트 이슈&정책** 제156호.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기현, 김형주, 강영배, 오선정 (2024). **한중일 청년의 일과 직업에 대한 가치관 변화 분석**. 세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김기현, 배정희, 김창환, 성재민 (2021).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 일자리** (연구보고 21-R19).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기현, 신동훈, 변금선, 고혜진, 신인철 (2020).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Ⅲ** (연구보고 20-R15).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기현, 오병돈 (2024). **2024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데이터분석보고서-성인기 이행** (연구보고 24-일반05-01).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기현, 이운주, 유설희 (2017). **청년사회·경제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I: 총괄보고서** (연구보고 17-R09).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기현, 하형석, 신인철 (2016). **청년사회·경제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 총괄보고서** (연구보고 16-R08).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민선 (2020). 직업인용 일 자유의지 척도 타당화 연구. **직업교육연구**, 39(5), 1-21.
- 김아라, 이은호, 정유숙, 황순택, 홍상황, 김지혜 (2019). 한국어판 바클리 집행기능결핍 척도-단축형의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8(2), 247-256.
- 김희명, 황매향 (2015). 한국판 아동용 끈기 (Grit) 척도의 타당화.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연구원 교육논총**, 35(3), 63-74.
- 남궁지영, 김나영, 박근영, 이주연, 최예슬, 최유리 (2023). **2023 한국교육종단연구 한국 교육종단연구2013(XI): 조사개요보고서**.
- 남재량, 성재민, 이상호, 최효미, 신선옥 (2008). **제9차(2006)년도 한국 가구와 개인의 경제활동: 한국노동패널 기초분석보고서**.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대한민국 정부 (2025).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 변금선, 김상현, 최지원, 김기현, 이승호, 이혜림 (2024). **서울시민의 생애과정 변화에 따른 빈곤 위험 대응방안** (서울연 2023-BR-16). 서울: 서울연구원.

- 손을춘 (202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제418회국회(정기회) 제 1차 환경노동위원회.
- 유민상, 신동훈, 신영규, 박미희 (2022).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I: 성인 이행기 청년의 자립** (연구보고 22-일반07).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윤혜준, 송창용, 황성수, 민숙원, 백원영, 이은혜, 이지은, 금예진, 김혜정, 박라인, 이경상 (2021). 한국청소년패널조사에서의 표본이탈의 종단적 변화유형 및 관련 표본특성 요인. **공공정책연구**, 38(2), 79-104.
- 이용해, 김기현, 신동훈 (2023). 청년정책의 법적, 행정적 기반이 청년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s Survey) 결과. **사회복지정책**, 50(3), 145-169.
- 이자영, 남숙경, 이미경, 이지희, 이상민 (2009). Rosenberg 의 자아존중감 척도: 문항수준 타당도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1), 173-189.
- 이태진, 류진아, 강예은, 남윤재, 신재동, 정주성, 정유림, 송지은, 이원진, 이봉주, 강상경, 박정민, 정원오, 임은정, 김건, 김태형 (2024). **2024년 한국복지패널조사·분석 보고서** (연구보고서 2024-06). 세종: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장근영, 성은모, 최홍일, 진성희, 김성균 (2015).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II : IEA ICCS 2016-총괄보고서** (연구보고 15-R18).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정세정, 김태완, 김동진, 김문길, 김기태, 이원진, 임덕영, 이해정, 김성아, 함선유, 신영규, 류진아, 강예은 (2022).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세종: 국무조정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진성준 (2022). 기업의 학습권 보장과 일학습병행 제도의 성과.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이슈 브리프**.
- 최옥현, 김봉환(2006). 대학생의 진로낙관성과 진로적응성: Career Futures Inventory(CFI)의 타당화연구. **상담학연구**, 7(3), 821-833.
- 하형석, 김기현, 최인재, 한지형 (2024). **2024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사업보고서** (연구보고 24-일반05).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하형석, 이종원, 정은진, 김성은, 한지형 (2018).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IX : 사업보고서** (연구보고 18-R13). 세종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하형석, 정은진, 최승주 (2017).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VIII : 한국청소년패널조**

- 사 2018 기초연구 (연구보고 17-R16-3). 세종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홍구표, 전해성 (2017). 대학생의 SNS 중독경향성과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 37(1), 34-67.
- 홍문기 (2024). 독일 아동보호 및 자립지원서비스 정책 현황 및 쟁점. **국제사회보장리뷰** 2024 겨울호, 31, 15-31.

[외국문헌]

- Arnett, J. J. (1998). Learning to stand alone: The contemporary American transition to adulthood in cultural and historical context. *Human Development*, 41(5-6), 295-315.
- Barkley, R. A. (2011). *Barkley deficits in executive functioning scale (BDEFS)*. New York, NY: Guilford Press.
- Barkley, R. A., & Murphy, K. R. (2010). Impairment in occupational functioning and adult ADHD: the predictive utility of executive function (EF) ratings versus EF tests. *Archives of Clinical Neuropsychology*, 25(3), 157-173.
-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Experiments by nature and design*. Harvard university press.
- Chisholm, L., & Hurrelmann, K. (1995). Adolescence in modern Europe. Pluralized transition patterns and their implications for personal and social risks. *Journal of adolescence*, 18(2), 129-158.
- Coleman, J. C. & Hendry, L. B. (2006). *The nature of adolescence*. Routledge. 강영배, 김기현, 이은주(역). **청소년과 사회: 청소년기의 심리, 건강, 행동 그리고 관계의 본질**. 서울: 성안당.
- Duffy, R. D., Diemer, M. A., Perry, J. D., Laurenzi, C., & Torrey, C. L. (2012). The construction and initial validation of the Work Volition Scal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80(2), 400-411.
- European Union. (2016). *European Quality of Life Survey 2016: Quality of life, quality of public services, and quality of society*.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 European Union. (2018).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 ILO (2024). *Global Employment Trends for Youth 2024*.
- International Wellbeing Group. (2013). *Personal Wellbeing Index - Adult* (5th ed.). Australian Centre on Quality of Life, Deakin University. <http://www.acqol.com.au/instruments#measures>.
- Jones, G. and Wallace, C. (1992). *Youth, Family, and Citizenship*. Philadelphia: Open University Press. 강영배, 김기현(역). **청소년 시민사회론**. 서울: 교육과학사.
- Lee, H. B., Yang, M. J., Lee, E. H., Joung, Y. S., Hwang, S. T., Hong, S. H., & Kim, J. H. (2016).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orean version of Barkley deficits in Executive Functioning Scal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5, 519-539.
- Lucas, S. R. (2001). Effectively maintained inequality: Education transitions, track mobility, and social background effect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6(6), 1642-1690.
- OECD (2024). *Risk That Matter for Young People*.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62b44423-en>.
- OECD (2025a). *Education at a Glance*.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1c0d9c79-en>.
- OECD (2025b). *Employment Outlook*.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194a947b-en>.
- OECD (2025c). *Society at a Glance: Asia/Pacific 2025: A Spotlight on Fertility Trend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24fa8f05-en>.
- Ra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3), pp.385-400.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UN (2018). *Youth 2030*. United Nations Youth Strategy.

[보도자료]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5.01.19.). 청년의 자신감 회복부터 구직 활동까지 고용노동부와 지자체가 함께합니다.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7431에서 2025년 3월 20일 인출.
- 손솔 보도자료 (2025.07.14.). 윤석열 정부,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도입 초기인 박근혜 정부 수준으로 회귀. https://blog.naver.com/sol_foryou/223933088154에서 2025년 9월 25일 인출.

[참고사이트]

- Ministère du Travail, de la Santé, des Solidarités et des Familles(2025). <https://travail-sante-solidarites.gouv.fr/>에서 2025년 10월 19일 접속.
- World Values Survey (2017-2022). WVS 홈페이지. <https://www.worldvaluessurvey.org>에서 7차 주기(wave) 조사 원자료에서 2025년 10월 6일 인출.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25). 국제통계 결과를 교육통계서비스. <https://kess.kedi.re.kr/>에서 2025년 10월 6일 인출.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202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률안. likms.assembly.go.kr에서 2024년 10월 16일 인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5). 청년기본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지자체 청년기본조례. <https://www.law.go.kr>에서 2025년 2월 3일, 2025년 9월 25일 인출.
- 유럽 청년포털 홈페이지. <https://youth.europa.eu/>에서 2025년 10월 4일 인출.
- 유로데스크 홈페이지. <https://eurodesk.eu/>에서 2025년 10월 4일 인출.
- 정을호 의원 대표발의 법안 (2024).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likms.assembly.go.kr에서 2025년 10월 16일 인출.
- 청년정책분석평가센터 홈페이지. <https://www.nypi.re.kr/yap/mps>에서 2025년 5월 24일 인출.
-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 (2025).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인구동태조사. 사회조사. <https://kosis.kr/>에서 2025년 2월 3일 인출.
- 厚生労働省(2025). <https://wakamono-koyou-sokushin.mhlw.go.jp/youth-yell/landing/>에서 2025년 10월 19일 접속.

○ — 부 록

부 록

1. KCYPS 2010 중1 코호트 추적조사(2025년) 설문지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 중1 코호트 추적조사(2025년) 설문지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
중1 코호트 제1차(2025년) 추적조사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조사주관기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조사대행기관 :  **Gallup 한국갤럽**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내 유일의 청소년 분야 국책연구기관으로, 아동·청소년과 청년의 성장과 발달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3년간 청년의 성인 이행기에 관련한 추적조사를 실시합니다.

아동·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연구와 정책개발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하는 국가적인 연구 사업인만큼 올해도 잠시만 시간을 내시어 꼭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응답해 주신 모든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와 통계법 제33조, 제34조에 의해 비밀이 철저히 보호됩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시어 몇 가지 질문에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사주관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홈페이지 : www.nypi.re.kr
데이터 아카이브 : www.nypi.re.kr/archive
TEL : 044-415-2129
E-mail : yhlee@nypi.re.kr

조사대행기관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홈페이지 : www.gallup.co.kr
TEL : 010-3509-0914 (매일전용 휴대전화)
카카오톡채널: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팀
E-mail : youthpanel@outlook.com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귀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은 아래의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하여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고 통계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기재해 주신 개인정보는 조사 기간에 따라 최대 1년간 내부적으로 보관된 후 전문기관에 의해 즉각 일괄 폐기됩니다.

제33조(비밀의 보호)

-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

통계종사자, 통계종사자이었던 자 또는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통계 작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귀하의 개인정보는 본인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다만 설문 참여 사실 검증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경우 기재해 주신 연락처로 연락을 드릴 수 있습니다.

-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응답자 확인, 응답자 특성별 통계 분석
-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연락처
-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조사 종료 후 1년

본인은 위의 조사목적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동의합니다.

한국개발조사연구소

1. 「학습과 진학」 영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 1] 대학(전문대 포함, 대학원 제외)에 진학하셨습니다가? 대학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다니셨습니까?

※ 대학(전문대 포함, 대학원 제외)에 2번 이상 진학하셨다면, 가장 최근에 진학하신 곳을 기준으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아니오 ☞ 문 15
2. 예, 진학 후 졸업하였다 (입학: ___년 ___월, 졸업: ___년 ___월)
3. 예, 현재 재학 중이다 (입학: ___년 ___월에서 현재까지(현재 휴학 중 포함))
4. 예, 진학하였으나 중퇴하였다 (입학: ___년 ___월, 중퇴: ___년 ___월)

[문 2] 다니신 대학(교)은 어느 지역에 있습니까?

- | | | | | | |
|--------|--------|--------|--------|--------|--------|
| 1. 서울 | 2. 부산 | 3. 대구 | 4. 인천 | 5. 광주 | 6. 대전 |
| 7. 울산 | 8. 세종 | 9. 경기 | 10. 강원 | 11. 충북 | 12. 충남 |
| 13. 전북 | 14. 전남 | 15. 경북 | 16. 경남 | 17. 제주 | 18. 해외 |

[문 3] 다니신 대학(교)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 | | |
|-------------|--------------|
| 1. 2년제 전문대학 | 2. 3년제 전문대학 |
| 3. 4년제 대학교 | 4. 5~6년제 대학교 |

[문 4] 다니신 대학(교)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 외국학교일 경우, 학교명에 국가명도 응답해 주십시오)

대학(교) 명칭 : _____

예: ○○대학교 또는 미국 ○○대학교

[문 5] 다니신 대학(교)에 어떤 모집방법으로 입학 하셨습니다가?

- | | |
|---------|---------|
| 1. 수시모집 | 2. 정시모집 |
|---------|---------|

[문 6] 다니신 대학에 어떤 전형방법으로 입학 하셨습니까?

1. 일반전형
2. 특별전형(농어촌, 특성화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재외국민 전형, 특기자, 대학 독자적 기준 전형 등)
3. 기타(작성: _____)

[문 7] 각 항목에 대해 제시된 두 가지 선택지를 보고, 귀하가 대학을 정할 때 더 중시한 정도를 선택해 주십시오

항 목	중시 정도							항 목
	←						→	
(1) 대학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공
(2) 취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학문
(3) 적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흥미
(4) 주변 의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본인 의견

[문 8] 대학(전문대 포함, 대학원 제외) 재학 중 휴학을 하셨습니까? 휴학을 하셨다면 몇 번 하셨습니까? ※ 남성의 경우 군휴학도 휴학에 포함됩니다.

1. 아니오 ☞ 문 9
2. 예(_____ 회) ☞ 문 8-1

[문 8-1] 휴학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복수 응답

- | | |
|-----------------|--------------------|
| 1. 공공부문 취업시험 준비 | 2. 민간부문 취업시험 준비 |
| 3. 자격시험 준비 | 4. 어학연수 |
| 5. 인턴 등 현장취업 경험 | 6. 병간호 등 가족적 이유 |
| 7. 학비(생활비) 마련 | 8. 병역의무 이행(군입대 대기) |
| 9. 기타(_____) | |

[문 9] 귀하의 전공(또는 학과, 계열 등)은 무엇입니까? 보기 중 해당하는 전공 계열과 세부 전공을 선택해 주십시오.

계열 _____ 전공 _____

전공 계열 구분	세부 전공
1. 인문계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1 언어학, 102 국어국문학, 103 일본어문학, 104 중국어문학, 105 기타 아시아어문학, 106 영미어문학, 107 독일어문학, 108 러시아어문학, 109 스페인어문학, 110 프랑스어문학, 111 기타 유럽어문학, 112 교양어문학, 113 문헌정보학, 114 문화민속미술사학, 115 심리학, 116 역사고고학, 117 종교학, 118 국제지역학, 119 철학윤리학, 120 교육인문학, 999 모르겠음
2. 경제경영계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 경영학, 202 경제학, 203 관광학, 204 광고·홍보학, 205 금융·회계·세무학, 206 무역유통학, 207 교양경상학, 999 모르겠음
3. 법률계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1 법학, 999 모르겠음
4. 사회과학계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01 가족·사회·복지학, 402 국제학, 403 도시·지역학, 404 사회학, 405 언론·방송·매체학, 406 정치외교학, 407 행정학, 408 교양사회과학, 999 모르겠음
5. 교육계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1 교육학, 502 유아교육학, 503 특수교육학, 504 초등교육학, 505 언어교육, 506 인문교육, 507 사회교육, 508 공학교육, 509 자연계교육, 510 예체능교육, 999 모르겠음
6. 공학계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01 건축·설비공학, 602 건축학, 603 조경학, 604 토목공학, 605 도시공학, 606 지상교통공학, 607 항공학, 608 해양공학, 609 기계공학, 610 금속공학, 611 자동차공학, 612 전기공학, 613 전자공학, 614 제어계측공학, 615 광학공학, 616 에너지공학, 617 반도체세라믹공학, 618 섬유공학, 619 신소재공학, 620 재료공학, 621 전산학컴퓨터공학, 622 응용소프트웨어공학, 623 정보통신공학, 624 산업공학, 625 화학공학, 626 기전공학, 627 응용공학, 628 교양공학, 999 모르겠음
7. 자연계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01 농업학, 702 수산학, 703 산림·원예학, 704 생명과학, 705 생물학, 706 동물수의학, 707 자원학, 708 화학, 709 환경학, 710 가정관리학, 711 식품영양학, 712 의류·의상학, 713 교양생활과학, 714 수학, 715 통계학, 716 물리·과학, 717 천문·기상학, 718 지구·지리학, 719 교양자연과학, 999 모르겠음
8. 의료·보건계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01 의학, 802 치의학, 803 한의학, 804 간호학, 805 약학, 806 보건학, 807 재활학, 808 의료공학, 999 모르겠음
9. 예체능계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01 디자인 일반, 902 산업디자인, 903 시각디자인, 904 패션디자인, 905 기타디자인, 906 공예, 907 사진·만화, 908 영상·예술, 909 무용, 910 체육, 911 순수미술, 912 응용미술, 913 조형, 914 연극영화, 915 음악학, 916 국악, 917 기악, 918 성악, 919 작곡, 920 기타음악, 999 모르겠음
10. 자유전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0 자유전공, 999 모르겠음

[문 10] 대학(전문대 포함, 대학원 제외) 시절 졸업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졸업을 미룬 적이 있습니까?

1. 아니오 ☞ 문 11
2. 예(_____회) ☞ 문 10-1

[문 10-1] 대학 시절 졸업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졸업을 미룬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1. 취업 준비를 하기 위해
2. 진로를 결정하지 못해서
3. 졸업을 해도 취업이 안 될 것 같아서
4. 경제적으로 학비나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5. 문화 및 여가생활을 누리기 위해
6. 기타(_____)

[문 11] 대학(교) 시절 한 학기 등록금은 평균 얼마였습니까?

(※ 재학 중인 경우에는 지난 학기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_____만 원

[문 12] 귀하가 대학(교) 등록금을 마련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합이 100%가 되도록 각 항목별 비율을 대략적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대학 등록금”**은 문3)에서 응답한 전문대(2-3년제) 또는 대학교(4-6년제)를 다니기 위해 지불한 등록금을 의미하며, 대학원은 포함되지 않음
☞ **“학자금 대출”**은 생활비, 주택 등을 위한 대출은 제외하고 “학자금 대출”이라는 이름이 붙는 금융상품의 이용뿐만 아니라, 학자금의 지불을 위하여 각종 기관 및 개인에게 돈을 빌린 경우를 모두 포함

1. 국가 장학금 약 _____ %
2. 민간 장학금 약 _____ %
3. 학자금 대출 약 _____ %
4. 부모 등 가족으로부터의 지원 약 _____ %
5.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스스로 마련 약 _____ %
6. 기타 (_____) 약 _____ %

[문 13] 대학 시절 평균 성적(평점)은 어떻게 됩니까?

(※ 재학 중인 경우에는 지난 학기까지의 평균 성적(평점)을 응답해 주십시오)

1. 4.0 만점인 경우 _____ 점
2. 4.3 만점인 경우 _____ 점
3. 4.5 만점인 경우 _____ 점
4. 기타 _____ 점 / _____ 만점

[문 14] 대학생활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재학 중인 경우에는 지난 학기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1.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2. 만족하지 않는다
3. 보통이다
4. 만족한다
5. 매우 만족한다

[문 15]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보셨습니까? 보셨다면 최종적으로 보신 년도는 언제입니까?

1. 아니오 ☞ 문 16
2. 예, 보았다 (연도: _____ 년, 두 번 이상인 경우 마지막 연도)

[문 15-1]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수능 등급은 어떻게 됩니까?

※ 수능등급은 백분위로 응시생의 표준점수보다 낮은 표준점수를 받은 응시생 수를 백분율로 나타낸 후 이를 9개 등급으로 구분한 것입니다.

(1등급 상위 4%, 2등급 11%, 3등급 23%, 4등급 40%, 5등급 60%, 6등급 77%, 7등급 89%, 8등급 96%, 9등급 하위 3% 이하)

※ 기억이 나실 경우 9개 등급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시고 잘 기억이 나지 않을 경우 ① 상위(1-3등급 정도), ② 중위(4-6등급 정도), ③ 하위(7-9등급 정도) 등급을 선택해 주십시오.

과목명	응답								
	① 상위 등급			② 중위 등급			③ 하위 등급		
1. 국어	1	2	3	4	5	6	7	8	9
2. 수학	1	2	3	4	5	6	7	8	9
3. 영어	1	2	3	4	5	6	7	8	9

[문 16] 대학(전문대 포함, 대학원 제외)에 진학하기 위해 재수를 하셨습니까?

※ 고교 졸업 직후 다시 수능을 준비한 경우(재수생), 대학을 다니던 중에 수능을 준비한 경우(반수생), 한 번 이상 N번째한 경우(삼수생, 사수생,...N수생)을 모두 포함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1. 아니오
2. 예, 재수를 하였다 (시작 연도: ___년 __월, 끝 연도: ___년 __월)
3. 예, 현재도 재수를 하고 있다

[문 17] 대학원에 진학을 하셨습니까?

1. 아니오 ☞ 문 18
2. 예, 진학 후 졸업하였다 (입학: ___년 __월, 졸업: ___년 __월)
3. 예, 현재 재학 중이다 (입학: ___년 __월에서 현재까지(현재 휴학 중 포함))
4. 예, 진학 후 수료하였다 (입학: ___년 __월, 수료: ___년 __월)

[문 17-1] 대학원에 진학한 주된 동기는 무엇입니까?(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1. 학문(전공 심화)에 대한 관심 때문에
2. 대학원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3. 졸업할 당시 취업이 어려워서
4. 학교 교수님의 권유로
5. 부모님의 권유로
6. 선배, 동기, 친구들의 권유로
7. 기타 (_____)

[문 18] 다음 각 문항에 대해 자신은 어떠하다고 생각합니까?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린다	①	②	③	④
2) 다른 사람과 협력을 잘 한다	①	②	③	④
3) 다른 사람과 갈등이 발생했을 때 잘 해결한다	①	②	③	④

[문 19] 다음 각 문항에 대해 평소 본인의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응답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무엇을 하다가 다른 생각이 나면 집중하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2) 나는 문제를 해결하다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크게 좌절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좌절에서 벗어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어떤 문제에 잠깐 집중하다가 곧 흥미를 잃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4) 나는 노력가이다	①	②	③	④
5) 나는 자주 목표를 세우지만 그것을 이루기 전에 다른 목표를 세우고는 한다	①	②	③	④
6) 나는 무엇을 완성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계속 열심히 하는 것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7) 나는 시작하면 무조건 끝낸다	①	②	③	④
8) 나는 부지런하다	①	②	③	④

II. 다음은 「학교-일자리 이행」 영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 20] 귀하는 성인으로서의 첫 출발을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상징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1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 학교를 졸업하는 것
2. 첫 일자리를 갖게 되는 것
3. 부모와 타인으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것
4. 부모(보호자)와 함께 살지 않는 것
5. 결혼하는 것
6. 자녀를 출산하는 것
7. 주택을 구입하는 것
8. 성인으로서 권리를 갖게 되는 것 (선거권, 운전면허 등)
9.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는 것
10.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커지는 것
11. 기타(적을 것 : _____)

[문 21] 귀하는 몇 세부터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만 _____세부터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일을 해야 하는 연령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문 21-1] 귀하가 돈을 벌 때 다음 항목에 대해서 얼마나 선호하십니까?

문 항	전혀 선호 하지 않는다	선호 하지 않는 편이다	선호 하는 편이다	매우 선호 한다
1) 근로소득(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받는 모든 소득)	①	②	③	④
2) 금융소득(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운용하면서 발생한 소득)	①	②	③	④
3) 사업소득(사업, 임대 등을 통해 얻은 소득)	①	②	③	④
4) 이전소득(정부, 단체나 부모, 자녀 간에 이전받은 소득)	①	②	③	④
5) 기타소득(상금, 당첨금, 원고료, 사례비 등 일시적으로 얻는 소득)	①	②	③	④

[문 22] 귀하가 가장 선호하는 일자리 유형은 무엇입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 | |
|---------------------|------------------|
| 1. 분위기 좋은 회사 | 2. 급여가 높은 회사 |
| 3. 유명한 회사 | 4. 안정적인 회사 |
| 5. 퇴근이 빠른 회사 | 6. 발전 가능성이 높은 회사 |
| 7. 직무가 적성에 맞는 회사 | 8. 복지 수준이 좋은 회사 |
| 9. 기타(적을 것 : _____) | |

[문 23] 귀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할 의사가 있습니까?

(※ 현재 귀하의 취업상태와 상관없이, 귀하가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 | | |
|-------------|-----------------|
| 1. 예 ☞ 문 24 | 2. 아니오 ☞ 문 23-1 |
|-------------|-----------------|

[문 23-1] 중소기업 취업을 원하지 않는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 | |
|---------------------|-------------------|
| 1. 대기업보다 낮은 성취감 | 2. 고용 불안정 |
| 3. 개인의 발전 가능성이 없음 | 4. 사회적으로 낮은 인지도 |
| 5. 낮은 급여 수준 | 6. 대기업보다 낮은 복지 수준 |
| 7. 기타(적을 것 : _____) | |

[문 24] 귀하는 창업을 해보거나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1. 창업을 해본 적이 있다
2. 창업을 생각해 보았으나 실제로 창업을 해본 적이 없다
3. 창업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문 25] 귀하가 생각하는 ‘첫 일자리(취업/창업)’란 무엇입니까?

예) 내가 생각하는 첫 일자리(취업/창업)란?
 (1) 졸업 후 (2) 최소 6개월 이상 (3) 최소 주당 35시간 이상 처음으로 일한 일자리다.

	(1) 학교 졸업여부	(2) 근로 기간	(3) 주당 근로 시간	
내가 생각하는 첫 일자리란	① 졸업과 상관없이	① 최소 1일 이상 ② 최소 1주일 이상 ③ 최소 1개월 이상	① 최소 주당 1시간 이상 ② 최소 주당 35시간 이상	처음으로 일한 일자리다
	② 졸업 후	④ 최소 6개월 이상 ⑤ 최소 12개월 이상 ⑥ 최소 24개월 이상		

[문 26] 귀하는 졸업/중퇴/수료 후 모두 몇 번의 일자리(취업/창업)를 가지셨습니까?

(※ 여기서 “일자리(취업/창업)”는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하였거나 함께 사는 가족의 사업체 또는 농장에서 보수를 받지 않고 18시간 이상 일한 것을 의미합니다.)

1. 아니요, 졸업/중퇴/수료 후 일자리(취업/창업)를 가진 적이 없다 문 28
2. 1번 3. 2번 4. 3번 5. 4번 이상

[문 26-1] 졸업/중퇴/수료 후 첫 일자리(취업/창업)에 대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내용	
(1) 일을 시작한 시기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월	
(2) 근속년수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개월	
(3) 종사상 지위	① 임금 근로자	② 비임금 근로자
(4) 고용형태	① 정규직 ② 비정규직	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②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③ 무급가족종사자
(5) 근로시간 유형	① 전일제 ② 시간제	
(6) 직업 (별첨자료 참조)	직업명: (<input type="text"/>)	
(7) 직장 유형	① 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 ③ 정부기관(공무원, 군인 등) ⑤ (재단, 사단)법인단체 ⑦ 기타 (<input type="text"/>)	② 외국인회사 ④ 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공기업 ⑥ 특정한 곳에 소속되어 있지 않음
(8) 종사자 수 (사업체* 기준)	① 1-4인 ③ 10-29인 ⑤ 100-299인 ⑦ 500인 이상	② 5-9인 ④ 30-99인 ⑥ 300-499인
(9) 주당 근로시간	약 <input type="text"/> 시간	
(10) 월 소득	약 <input type="text"/> 만 원	
(11) 소재지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광주 6. 대전 7. 울산 8. 세종 9. 경기 10. 강원 11. 충북 12. 충남 13. 전북 14. 전남 15. 경북 16. 경남 17. 제주 18. 해외	
(12) 졸업 후 첫 일자리(취업/창업)에서 요구하는 교육수준이 자신의 교육수준에 비해 어떠셨습니까?	① 나의 교육수준이 일자리에서 요구하는 교육수준보다 낮았다 ② 나의 교육수준과 일자리에서 요구하는 교육수준이 같았다 ③ 나의 교육수준이 일자리에서 요구하는 교육수준보다 높았다	
(13) 귀하는 졸업 후 첫 일자리(취업/창업)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② 만족하지 않는다 ③ 보통이다 ④ 만족한다 ⑤ 매우 만족한다	

※ 사업체는 기업을 구성하는 부분으로, 기업이 여러 장소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장소별'로 각각의 사업체가 됨. 기업체와 사업체가 동일한 경우 기업이 한 장소에만 있는 경우임.

[문 27] 귀하는 취업 후 회사를 그만두거나 해고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1. 스스로 그만둔 적이 있다 ☞ 문 27-1
2. 해고를 당한 적이 있다(계약기간 만료 포함) ☞ 문 27-1
3. 둘 다 경험한 적이 있다 ☞ 문 27-1
4. 둘 다 경험한 적이 없다 ☞ 문 28

[문 27-1] 귀하는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1. 그렇다 ☞ 문 28
2. 아니다 ☞ 문 27-2

[문 27-2]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1. 실업급여 제도가 있는지 몰라서
2.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
3. 절차가 복잡해서, 요구사항이 많아서
4.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혜택이 크지 않아서
5. 신청 도중에 취업이 되어서
6. 기타(적을 것 : _____)

[문 28] 귀하는 현재까지 플랫폼 노동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플랫폼 노동은 앱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고객의 요청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을 의미함.

- | | |
|---|----------------------------------|
| 대 | - 음식배달앱을 통한 배달업체 라이더 |
| 표 | - 대리운전앱을 통한 대리운전 |
| 예 | - 재능공유앱 등 플랫폼을 통한 디자인, 콘텐츠 제작 의뢰 |
| 시 | - 유튜브 편집자 |

1. 예 ☞ 문 28-1
2. 아니오 ☞ (문 26의 1 응답한 경우 문 31)
(문 26의 2~5 응답한 경우 문 29)

[문 28-1] 귀하는 2025년 6월 24일~6월 30일 동안 플랫폼 노동을 수행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1. 그렇다 ☞ 문 28-2
2. 아니다 ☞ 문 29

[문 28-2] 귀하는 2025년 6월 24일~6월 30일 동안 플랫폼 노동을 주업으로 수행하셨습니까?

1. 그렇다(주업임)
2. 아니다(부업임)

[문 29] 귀하는 직장생활 중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문 30] 귀하는 직장생활 중에서 산업안전 위험으로부터 노출된 적이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문 31] 귀하는 2025년 6월 24일~6월 30일 동안 일자리(취업/창업)에서 일을 하셨습니까?

(※ 여기서 “일자리(취업/창업)”란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하였거나 함께 사는 가족의 사업체 또는 농장에서 보수를 받지 않고 18시간 이상 일한 것을 의미합니다.)

1. 일을 하였음 ☞ 문 31-1
2. 휴가 및 일시 휴직 ☞ 문 31-1
3. 일을 하지 않았음 ☞ 문 32

[문 31-1] (문 31에서 ① 또는 ②로 응답한 경우) 귀하는 2025년 6월 24일~6월 30일 동안 총 몇 개의 일자리(취업/창업)에서 일(휴가·일시휴직 상태 포함)을 하셨습니까? (투잡, 쓰리잡 등 동시에 갖고 있는 일자리의 개수를 의미함)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이상

[문 31-2] 현재 일하고 있는 일자리(취업/창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2개 이상의 일을 하시는 경우) 더 많은 근무시간이나 높은 보수 기준으로 말씀해 주세요

구분	내용	
(1) 일을 시작한 시기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월	
(2) 근속년수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개월	
(3) 종사상 지위	① 임금 근로자	② 비임금 근로자
(4) 고용형태	① 정규직 ② 비정규직	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②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③ 무급가족종사자
(5) 근로시간 유형	① 전일제 ② 시간제	
(6) 직업 (별첨자료 참조)	직업명: (<input type="text"/>)	
(7) 직장 유형	① 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 ③ 정부기관(공무원, 군인 등) ⑤ (재단, 사단)법인단체 ⑦ 기타 (<input type="text"/>)	② 외국인회사 ④ 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공기업 ⑥ 특정한 곳에 소속되어 있지 않음
(8) 종사자 수 (사업체* 기준)	① 1-4인 ③ 10-29인 ⑤ 100-299인 ⑦ 500인 이상	② 5-9인 ④ 30-99인 ⑥ 300-499인
(9) 주당 근로시간	약 <input type="text"/> 시간	
(10) 월 소득	약 <input type="text"/> 만 원	
(11) 소재지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광주 6. 대전 7. 울산 8. 세종 9. 경기 10. 강원 11. 충북 12. 충남 13. 전북 14. 전남 15. 경북 16. 경남 17. 제주 18. 해외	
(12) 일자리(취업/창업)에서 요구하는 교육수준이 자신의 교육수준에 비해 어떻습니까?	① 나의 교육수준이 일자리에서 요구하는 교육수준보다 낮다 ② 나의 교육수준과 일자리에서 요구하는 교육수준이 같다 ③ 나의 교육수준이 일자리에서 요구하는 교육수준보다 높다	
(13) 귀하는 현재의 일자리(취업/창업)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② 만족하지 않는다 ③ 보통이다 ④ 만족한다 ⑤ 매우 만족한다	
(14) 일자리(취업/창업)에서 받는 스트레스의 주된 원인은 무엇입니까?(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① 성과에 대한 압박 ② 상사고객거래처의 갑질 ③ 낮은 연봉/보상	
	④ 과도한 업무량/아근 ⑤ 상사 및 동료와의 갈등/인간관계 ⑥ 직장 내 괴롭힘	
	⑦ 자금 마련 및 재정 관리 ⑧ 인력 채용 및 관리 ⑨ 기타 (<input type="text"/>)	

※ 사업체는 기업체를 구성하는 부분으로, 기업체가 여러 장소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장소별'로 각각의 사업체가 됨. 기업체와 사업체가 동일한 경우 기업체가 한 장소에만 있는 경우임.

[문 31-3] 귀하는 현재의 일자리(취업/창업)를 찾기 위해 다음의 구직활동들을 하셨습니까?

 **구직활동**이란 일자리를 찾기 위해 구인현황, 근로조건 등 정보를 수집하고 탐색하는 활동으로, 대면활동 뿐만 아니라 홈페이지, 이메일, SNS 등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활동을 모두 포함

문항	예	아니오
(1) 고용주에 직접 연락(방문)하여 면접을 보았다	①	②
(2) 정부 취업/창업지원 기관에 연락(방문)하였다	①	②
(3) 민간 취업/창업지원 기관에 연락(방문)하였다	①	②
(4) 친구, 선배 또는 친척에게 연락하였다	①	②
(5) 고등학교 또는 고등학교 취업/창업지원 기관에 연락(방문)하였다	①	②
(6) 대학교 또는 대학교 취업/창업지원 기관에 연락(방문)하였다	①	②
(7) 관심기업에 이력서 또는 지원서를 제출하였다	①	②
(8) 기업/창업정보 제공 기관을 통해 정보를 확인하였다	①	②
(9) 구직 광고를 게시하였다	①	②
(10) 구인 광고를 살펴보았다	①	②
(11) 직업훈련프로그램/창업교육 과정에 참여하였다	①	②
(12) 기타 (자세히 적을 것 : _____)	①	②

[문 31-3-1] 위의 항목에서 '예'로 응답한 구직활동 중 일자리를 찾는데 가장 도움이 되었던 활동은 무엇이었습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번

[문 33] 다음의 각 항목이 2025년 6월 24일~6월 30일 동안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에 해당되는지 응답해 주세요.

구 분	예	아니오
(1)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①	②
(2) 일할 욕구를 느끼지 못해서	①	②
(3) 여행이나 문화예술, 취미활동을 위해서	①	②
(4) 시간적 여유를 즐기기 위해서	①	②
(5) 육아나 돌봄, 가사 활동으로 시간을 보내야 해서	①	②
(6) 질병이나 지병 때문에 휴식을 취하기 위해	①	②
(7) 학교(정규교육기관)에 다니고 있어서	①	②
(8) 입시학원에 다니고 있어서	①	②
(9) 학원에 다니지 않고 진학준비 중이어서	①	②
(10) 취업을 위한 학원이나 직업훈련기관에 통학 중이어서	①	②
(11) 학원이나 기관에 다니지 않고 취업준비 중이어서	①	②
(12) 군 입대 대기 중이어서	①	②
(13) 학교와 학원 입학 혹은 직업훈련기관 통학 대기 중이어서	①	②
(14) 계속 취업에 실패해서	①	②
(15) 인간관계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①	②
(16) 진로를 정하지 못해서	①	②
(17) 기타(적을 것 : _____)	①	②

[문 33-1] 위의 항목에서 '예'로 응답한 항목 중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번

[문 33-2] 귀하가 학교를 다니지 않고 일자리(취업/창업)도 갖지 않은 상태가 얼마나 지속되었습니까?
(기간을 고려하여 해당하는 항목 한 가지만 선택 후, 응답해 주십시오)

선택(V)	비교육 및 미취업 기간
(1) 1개월 미만 ()	()일 동안 지속 되었다. (예: 15일)
(2) 1개월 이상 - 1년 미만 ()	()개월 동안 지속 되었다. (예: 3개월)
(3) 1년 이상 - 2년 미만 ()	()년 ()개월 동안 지속 되었다. (예: 1년 6개월)
(4) 2년 이상 ()	()년 ()개월 동안 지속 되었다. (예: 2년 6개월)

☞ 문 35로 이동

[문 34] 귀하가 구직활동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가장 최근 구직활동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기간을 고려하여 해당하는 항목 한 가지만 선택 후, 응답해 주십시오)

선택(V)	구직활동을 한 기간
(1) 1개월 미만 ()	()일 동안 지속 되었다. (예: 15일)
(2) 1개월 이상 - 1년 미만 ()	()개월 동안 지속 되었다. (예: 3개월)
(3) 1년 이상 - 2년 미만 ()	()년 ()개월 동안 지속 되었다. (예: 1년 6개월)
(4) 2년 이상 ()	()년 ()개월 동안 지속 되었다. (예: 2년 6개월)

[문 35] 현재 대학/대학원 진학 또는 취업/창업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1. 대학이나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고 있다 ☞ 문 35-1
2. 취업/창업을 준비하고 있다 ☞ 문 36
3. 대학(원) 진학 및 취업/창업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 ☞ 문 37

[문 35-1] 귀하는 대학이나 대학원 진학을 언제부터 준비하셨습니까?

_____년 _____월

[문 35-2] 귀하는 대학이나 대학원 진학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였습니까?

(해당되는 곳에 모두 응답)

문 항	대학진학 준비 경험	
(1) 학원 통학을 통한 교육	① 예	② 아니오
(2) 인터넷 강의, 어플, 동영상 등을 활용한 교육	① 예	② 아니오
(3) 재수생 개인 간의 스터디	① 예	② 아니오
(4) 기타 (구체적으로 : _____)	① 예	② 아니오

[문 35-3] (문 35-2에서 (1), (2)번 항목 ① 응답자만) 사설기관(사설학원, 인터넷취업사이트 등)을 이용하는데 월평균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셨습니까?

약 만 원

[문 35-4] 사설기관(사설학원, 인터넷취업사이트 등)에 지불한 비용을 제외하고 시험응시료, 진학을 위한 교재, 도서 구입 등 진학준비를 위해 월 평균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셨습니까?

(※ 중·고등학교 및 대학(원)교의 정규 수업료 및 등록금 제외)

약 만 원

[문 35-5] 진학 준비를 위해 평일 하루에 투자한 시간은 평균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1일 평균 약 시간 문 37

[문 36] 귀하는 일자리(취업/창업)를 갖기 위해 언제부터 준비하셨습니까?

_____년 _____월

[문 36-1] 귀하는 일자리(취업/창업)를 갖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셨습니까?

(해당되는 곳에 모두 응답)

문 항		일자리(취업/창업) 준비 경험	
(1)	학원이나 직업훈련기관, 창업교육기관을 통한 교육이나 훈련(어학, 면접 제외)	① 예	② 아니오
(2)	인터넷 강의, 어플, 동영상 등을 활용한 교육이나 훈련(어학, 면접 제외)	① 예	② 아니오
(3)	영어회화, 제2외국어, 한자능력, 토익, 토플 등 준비(인터넷 포함)	① 예	② 아니오
(4)	해외 연수, 어학 연수 경험	① 예	② 아니오
(5)	면접 훈련(인터넷 포함)	① 예	② 아니오
(6)	자소서 작성 훈련(인터넷 포함)	① 예	② 아니오
(7)	취업, 창업전문회사 자문이나 컨설팅	① 예	② 아니오
(8)	현장실습 경험	① 예	② 아니오
(9)	취업, 창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	① 예	② 아니오
(10)	일 경험(인턴 경험, 프로젝트형 일 경험, 현장 견학 등)	① 예	② 아니오
(11)	봉사활동 경험	① 예	② 아니오
(12)	동아리, 스터디 활동 경험	① 예	② 아니오
(13)	희망하는 일자리 관련 아르바이트 경험	① 예	② 아니오
(14)	기타 (구체적으로 : _____)	① 예	② 아니오

[문 36-2] 귀하는 일자리(취업/창업) 준비와 관련하여 어디로부터 도움을 받았습니까?
(해당되는 곳에 모두 응답) 일자리(취업/창업) 준비와 관련하여 도움을 받았다면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문 항	[문 36-2-1] 도움 받은 경험	[문 36-2-2] 도움이 되는 정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보통 이다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1) 학교(상담교사, 교사, 지도교수 등)	① 예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2) 공공기관(고용센터, 청소년상담복지 센터 등)	① 예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3) 사설기관(사설학원, 인터넷취업사이트 등)	① 예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4) 부모님이나 친인척	① 예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5) 친구, 선후배	① 예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6)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① 예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 문 36-2-1 에서 도움받은 경험이 모두 ② 아니오 인 경우는 문 36-5로 이동

[문 36-3] (문36-2에서 (3)번 항목 응답자만) 사설기관(사설학원, 인터넷취업사이트 등)을 이용하는데 월평균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셨습니다?

약 만 원

[문 36-4] 사설기관(사설학원, 인터넷취업사이트 등)에 지불한 비용을 제외하고 시험 응시료, 취업을 위한 교재, 도서 구입 등 일자리(취업/창업) 준비를 위해 월 평균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셨습니다?

약 만 원

[문 36-5] 일자리(취업/창업) 준비를 위해 평일 하루에 투자한 시간은 평균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1일 평균 약

--	--

 시간

[문 37] 귀하는 향후 직업 훈련을 받을 계획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 문 37-1 3. 이미 받고 있다

[문 37-1] (문 37에서 ②로 응답한 경우) 직업훈련을 받지 않으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 분	예	아니오
(1) 관심분야가 없어서	①	②
(2)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①	②
(3) 시간이 없어서	①	②
(4) 정보가 없어서	①	②
(5) 필요 없어서	①	②
(6) 접근성이 떨어져서	①	②
(7) 심리정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①	②
(8) 기타()	①	②

[문 38] 귀하는 향후 일 경험을 받을 계획이 있습니까?

※ 일 경험은 관심이 있는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직접 직장에서 근무를 하면서 직무를 체험하는 인턴형과 직장에서 요구하는 과제를 일정기간 수행해서 결과를 제공하는 프로젝트형, 그리고 직장 견학 형태로 이루어지는 직장탐방형이 있습니다.

1. 있다 2. 없다 ☞ 문 38-1 3. 이미 받고 있다

[문 38-1] (문 38에서 ②로 응답한 경우) 일 경험을 받지 않으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 분	예	아니오
(1) 관심분야가 없어서	①	②
(2)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①	②
(3) 시간이 없어서	①	②
(4) 정보가 없어서	①	②
(5) 필요 없어서	①	②
(6) 접근성이 떨어져서	①	②
(7) 심리정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①	②
(8) 기타()	①	②

[문 39]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정도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가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나는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직업을 바꿀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외부의 장벽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원하는 종류의 일을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나는 나의 직업 선택에 완전한 통제감을 느낀다(직업 선택에 대한 권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 40]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정도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새로운 직업 환경에 잘 적응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내 진로에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장벽들을 극복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직업과 관련된 새로운 과제들을 시도하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일의 세계에서 변화에 적응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직장에서 변화하는 요구에 쉽게 적응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사람들은 내가 진로 계획에 변화가 생기더라도 잘 적응할 것이라고 말한다	①	②	③	④	⑤

Ⅲ. 다음은 「자립과 주거」 영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 41] 귀하가 미래에 거주하길 희망하는 곳을 선택해 주십시오.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광주 6. 대전
7. 울산 8. 세종 9. 경기 10. 강원 11. 충북 12. 충남
13. 전북 14. 전남 15. 경북 16. 경남 17. 제주 18. 해외

[문 42] 현재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

1. 부모님(또는 두 분 중의 한 분)과 함께 살고 있다 ☞ 문 43
2. 부모님과 떨어져서 살고 있다 ☞ 문 42-1
3. 부모님(양친 모두)이 안 계신다 ☞ 문 42-2

[문 42-1] 현재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1. 일자리 때문에 2. 학교 때문에 3. 결혼 때문에
4. 독립하고 싶어서 5. 기타 (_____)

[문 42-2] 언제부터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지 않습니까?

_____년 _____월 부터

[문 43] 형제자매는 총 몇 명입니까? 본인을 포함하여 총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 _____명 = 남 _____명 + 여 _____명

[문 44] 귀하가 현재 살고 있는 주거(집)의 명의 혹은 계약 당사자는 누구입니까?

1. 부모 2. 본인 3. 배우자
4. 친인척 5. 공동명의 6. 기타 (_____)

[문 45] 귀하의 현재 주거 형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1. 다가구(원룸 등) : 전체 집이 1인 개인 명의로 된 집으로 방 하나가 침실, 거실, 부엌을 겸하도록 설계된 집
2. 아파트
3. 다세대/빌라 : 공동주택의 일종, 개별 방마다 소유주가 다른 경우
4. 오피스텔 : 세탁기, TV, 냉장고 등이 배치되어 있으며 관리인이 있는 경우
5. 하숙
6. 기숙사
7. 고시원
8. 단독주택
9. 기타 : 일반주택의 방 하나만 임대, 지역 운영학사 등

[문 46] 귀하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점유형태는 무엇입니까?

1. 자가 ☞ 문 46-1
2. 전세
3. 보증금이 있는 월세
4. 보증금이 없는 월세
5. 사글세, 연세, 일세 등
6. 무상

[문 46-1] (자가인 경우) 현재 귀하가 살고 있는 주택의 가격은 얼마인지 시세 기준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작성해 주십시오.

_____억 _____만 원

[문 47] 귀하의 주거비용 마련을 위해 지금까지 본인 명의로 금융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1. 예 ☞ 문 47-1
2. 아니오 ☞ 문 48

[문 47-1]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 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_____억 _____만 원

[문 48] 현재 부모, 형제를 포함하여 가족으로부터 매달 고정적으로 생활비(용돈) 등의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경제적 지원은 생활비(용돈), 주거비용, 경조사, 부채상환, 의료비, 내구재구입, 자녀양육비 등 경제적(금전적) 지원을 의미합니다.

1. 예  문 48-1
2. 아니오  문 49

[문 48-1] 부모, 형제를 포함하여 가족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게 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 | |
|----------------|------------------|
| 1. 생활비가 부족해서 | 2. 주거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
| 3.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 4. 의료비 때문에 |
| 5. 자녀 양육비 때문에 | 6. 기타(_____) |

[문 48-2] 월 평균 얼마나 지원받고 있습니까?

월평균 총 _____만 원

[문 49] 귀하는 현재 부모, 형제를 포함하여 가족에게 매달 고정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1. 예  문 49-1
2. 아니오  문 50

[문 49-1] 부모, 형제를 포함하여 가족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 드리게 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 | |
|----------------|------------------|
| 1. 생활비가 부족해서 | 2. 주거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
| 3.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 4. 의료비 때문에 |
| 5. 자녀 양육비 때문에 | 6. 기타(_____) |

[문 49-2] 월 평균 얼마나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월평균 총 _____만 원

[문 50] 귀하는 은행이나 제2금융권, 대부업체, 또는 개인에게 갚아야 할 채무(학자금 대출 포함)가 있습니까?

1. 있다 ☞ 문 50-1
2. 없다 ☞ 문 51

[문 50-1] 은행이나 제2금융권, 대부업체 또는 개인에게 채무가 발생하게 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1. 학자금 마련
2. 주거비 마련(전·월세자금 대출 등)
3. 생활비 마련(식비, 의료비 등)
4. 창업 자금 마련
5. 기타(적을 것 : _____)

[문 50-2] 귀하는 어느 경로를 통해 돈을 빌리셨습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 | |
|------------------|-------------------|
| 1. 은행 | 2. 제2금융권 |
| 3. 대부업체 | 4. 가족, 친척 |
| 5. 친구, 직장동료 등 지인 | 6. 기타(적을 것:_____) |

[문 51] (2025년 7월 1일 기준) 귀하는 결혼하셨습니다가?

1. 배우자 있음 ☞ 문 51-1
2. 사별·이별·별거 ☞ 문 51-1
3. 결혼하지 않음 ☞ 문 52

[문 51-1] 언제 결혼하셨습니다가?

_____년 _____월

[문 52] (2025년 7월 1일 기준) 귀하는 자녀가 있으십니까?

1. 있다 ☞ 문 52-1
2. 없다 ☞ 문 53

[문 52-1] 자녀가 몇 명 있으십니까?

_____명

[문 52-2] 첫 째 자녀는 언제 태어났으십니까?

_____년 _____월

IV. 다음은 「삶의 질과 참여」 영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 53] 귀하는 행복한 삶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 | |
|--------------|-------------------------------|
| 1. 재산·경제력 | 7. 직업·직장 |
| 2. 화목한 가정 | 8. 연인(이성관계 등) |
| 3. 자아성취 | 9. 친구·대인관계 |
| 4. 건강 | 10. 꿈·목표의식 |
| 5. 감사·긍정적 태도 | 11. 기타 () |
| 6. 종교생활 | |

[문 54] 다음은 귀하의 현재 삶의 질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질문을 천천히 읽고 응답해 주십시오

문항 내용	응답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			보통					매우 행복했다		
1. 귀하는 어제 어느 정도 행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0	1	2	3	4	5	6	7	8	9	10
2. 귀하는 어제 어느 정도 걱정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걱정하지 않았다			보통					매우 걱정했다		
	0	1	2	3	4	5	6	7	8	9	10
3. 귀하는 어제 어느 정도 우울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우울하지 않았다			보통					매우 우울했다		
	0	1	2	3	4	5	6	7	8	9	10
4. 귀하는 요즘 자신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					매우 만족한다		
	0	1	2	3	4	5	6	7	8	9	10
5. 귀하는 요즘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전반적으로 얼마나 가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가치없다			보통					매우 가치있다		
	0	1	2	3	4	5	6	7	8	9	10

[문 55] 귀하는 지난 2주 간 일상생활을 보내면서 다음 각 문항들에 대해 얼마나 느끼고 있습니까?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때때로 그렇다	2주의 절반 이하는 그렇다	2주의 절반 이상은 그렇다	대부분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나는 밝고 즐거운 기분임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2) 나는 차분하고 편안함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3) 나는 활동적이고 활기참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4) 나는 집에서 깨었을 때, 피로가 다 가시고 상쾌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5) 나의 일상은 흥미로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문 56] 2025년 6월 24일-6월 30일 동안 땀이 날 정도로 운동한 시간은 총 몇 시간 정도입니까?

1. 없다
2. 1시간
3. 2시간
4. 3시간
5. 4시간 이상

[문 57] 2025년 6월 24일-6월 30일 동안 아침식사를 한 날은 며칠입니까?

_____일

[문 58] 체질량지수와 관련하여 아래 내용을 입력해 주시겠습니까?

키 : _____cm / 몸무게 : _____kg

[문 59] 귀하는 2024년 7월-2025년 6월 동안 건강검진(종합건강검진 혹은 일반건강검진 모두 해당)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문 60] 귀하는 자신의 평소 건강 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건강하다 2. 건강한 편이다 3. 보통이다
4.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5. 전혀 건강하지 않다

[문 61] 스마트폰을 얼마나 자주 사용하십니까?

항목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가끔 사용한다	자주 사용한다	해당 없음
1) 가족과의 통화	①	②	③	④	⑤
2) 가족과의 문자 메시지 (카톡, 라인 등 메신저 포함)	①	②	③	④	⑤
3) 친구와의 통화	①	②	③	④	⑤
4) 친구와의 문자 메시지 (카톡, 라인 등 메신저 포함)	①	②	③	④	⑤
5) SNS(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이용	①	②	③	④	⑤
6) 게임	①	②	③	④	⑤
7) 사진/동영상 촬영	①	②	③	④	⑤
8) TV 및 동영상 시청 (유튜브, 넷플릭스, 티빙, 웨이브, 디즈니플러스 등)	①	②	③	④	⑤
9) 음악 감상	①	②	③	④	⑤
10) 정보 검색 (학교홈페이지, 뉴스, 포털사이트, 웹서핑 등 학습·비학습 관련 모두 포함)	①	②	③	④	⑤
11) 문서 보기(웹툰, e-Book 등)	①	②	③	④	⑤
12) 학업 관련	①	②	③	④	⑤
13) 업무 관련	①	②	③	④	⑤
14) 기타(적을 것 : _____)	①	②	③	④	⑤

[문 62] 귀하는 현재 SNS를 이용하십니까?

1. 예 2. 아니오  문 64

[문 63] 현재 귀하의 SNS 이용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구분	내용
(1) SNS 하루 이용시간	① 30분 미만 ② 30분 이상 ~ 1시간 미만 ③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④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⑤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⑥ 4시간 이상
(2) SNS 접속 빈도	① 매일 ② 주 5회 이상 ③ 주 3회 이상 ④ 주 1회 이상 ⑤ 한 달에 한 번 이상 ⑥ 거의 접속하지 않음/1년에 5회 미만
(3) SNS 글 게시 빈도	① 거의 하지 않는다 ② 1달에 1~2번 ③ 1주일에 1~2번 ④ 1주일에 3~4번 ⑤ 하루에 1~2번 ⑥ 하루에 3번 이상
(4) SNS 인맥	약 ()명
(5) SNS로만 유지되는 인맥	① 있다 ② 없다

[문 64] 귀하께서 지난 1주일간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별로 응답해 주십시오.

※ 24시간 단위로 응답. 예 : 밤 10시 30분 → (22) 시 (30) 분, 밤 12시 → (0) 시 (0) 분
새벽 1시 30분 → (1) 시 (30) 분, 낮 12시 → (12) 시 (0) 분

항목	1a) 평일	1b) 주말
1) 기상(평균적으로 일어나는 시간)	___ 시 ___ 분	___ 시 ___ 분
2) 취침(평균적으로 잠드는 시간)	___ 시 ___ 분	___ 시 ___ 분
3) 평소 잠을 잘 잡니까?	① 매우 못 잔다	① 매우 못 잔다
	② 못 자는 편이다	② 못 자는 편이다
	③ 잘 자는 편이다	③ 잘 자는 편이다
	④ 매우 잘 잔다	④ 매우 잘 잔다

[문 65] 귀하는 평소에 외출을 하십니까?

1. 직장이나 학교로 평일은 매일 외출한다 ☞ 문 66
2. 직장이나 학교로 일주일에 3~4일 외출한다 ☞ 문 66
3. 여가생활을 위해 자주 외출한다 ☞ 문 66
4. 사람을 만나기 위해 가끔 외출한다 ☞ 문 66
5. 보통은 집에 있지만, 자신의 취미생활만을 위해 외출한다 ☞ 문 65-1
6. 보통은 집에 있지만, 인근 편의점 등에 외출한다 ☞ 문 65-1
7. 자기 방에서 나오지만, 집 밖으로는 나가지 않는다 ☞ 문 65-1
8. 자기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다 ☞ 문 65-1

[문 65-1] 현재의 상태가 얼마나 지속되었습니까?

- | | |
|------------------|-------------------|
| 1. 6개월 미만 | 2.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 3. 1년 이상 - 3년 미만 | 4. 3년 이상 - 5년 미만 |
| 5. 5년 이상 - 7년 미만 | 6. 7년 이상 |

[문 65-2] 현재의 상태가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 | | |
|--------------------|--------------------|
| 1. 학업중단이나 대학진학 실패로 | 2. 취업이 잘되지 않아서 |
| 3. 인간관계가 잘되지 않아서 | 4. 장애가 있거나 몸이 불편해서 |
| 5. 임신이나 출산 때문에 | 6. 기타 (_____) |

[문 69] 다음 각각의 질문에 대해서 양 쪽의 표현을 보고, 귀하가 더 선호하는 정도를 선택해 주십시오.

항 목	← 선호 정도 →							항 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 일 중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여가 중시
(2) 현실 중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이상 중시
(3) 결과 중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과정 중시
(4) 개인 중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집단 중시
(5) 타인의 이목 중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자신의 주관 중시

[문 70] 다음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에게 해당되는 항목에 응답해 주십시오.

문 항	참여한 적 없음	1년에 1~2회	한 달에 1~2회	일주일에 1~2회	일주일 에 3회 이상
1) SNS, 홈페이지, 블로그에 글을 올리거나 답변하기	①	②	③	④	⑤
2) 개인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배지, 팔찌, 리본, 스티커 등을 착용/부착	①	②	③	④	⑤
3) (온·오프라인으로) 서명에 참여하기	①	②	③	④	⑤
4)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기	①	②	③	④	⑤

[문 71] 다음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에게 해당되는 항목에 응답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정치적 문제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가치관이나 신념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선거나 캠페인 참여 등을 통해 정치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문 72] 다음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에게 해당되는 항목에 응답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나에게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2) 때때로 나는 내가 어디에도 소용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내가 장점이 많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4) 나는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5) 나는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6) 때때로 나는 내가 쓸모없는 존재로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7) 나는 남들만큼의 일은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8) 나는 나를 좀 더 존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①	②	③	④
9) 나는 내가 실패자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10) 나는 나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①	②	③	④

[문 73] 귀하는 지난 1주일간 얼마나 자주 다음과 같이 느끼셨습니까?

문 항	극히 드물다 (일주일 1일 미만)	가끔 있었다 (일주일에 1~2일간)	종종 있었다 (일주일에 3~4일간)	대부분 그랬다 (일주일에 5일 이상)
(1) 먹고 싶지 않고 식욕이 없다	①	②	③	④
(2) 비교적 잘 지냈다	①	②	③	④
(3) 상당히 우울했다	①	②	③	④
(4)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	①	②	③	④
(5) 잠을 설쳤다(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①	②	③	④
(6)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①	②	③	④
(7) 큰 불만 없이 생활했다	①	②	③	④
(8)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①	②	③	④
(9) 마음이 슬펐다	①	②	③	④
(10)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①	②	③	④
(11) 도무지 뭘 해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①	②	③	④

[문 74] 귀하는 다음 각 분야의 정부 청년정책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청년정책 분야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필요한 편이다	매우 필요하다
1. 일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역량강화 ▪ 청년 창업 활성화 및 내실화 ▪ 일터 안전망 강화 ▪ 공정채용 기반 구축·직장문화 개선 	①	②	③	④
2. 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주택 공급 확대 ▪ 청년 전·월세 비용 경감 ▪ 주거취약 청년 집중 지원 ▪ 청년친화형 주거모델 보급 	①	②	③	④
3.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자금 지원 등 고른 교육 기회 보장 ▪ 청년의 미래역량 강화 ▪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 ▪ 온택트 교육기반 구축 	①	②	③	④
4. 복지·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출발 자산 형성 및 재기 지원 ▪ 청년 건강 증진 ▪ 취약계층 지원 확대 ▪ 문화가 있는 청년의 삶 지원 	①	②	③	④
5. 참여·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결정과정에 청년 주도성 확대 ▪ 청년정책 추진기반 마련 및 내실화 ▪ 청년 친화적 정책 전달체계 확립 ▪ 청년 권익보호 및 청년교류 활성화 	①	②	③	④
6. 기타 (_____)	①	②	③	④

[문 75] 귀하는 2024년 한 해 동안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정책 사업에 참여 혹은 지원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귀하가 참여 혹은 지원을 받으셨던 사업의 주관 기관을 모두 골라 주십시오.(복수응답 가능)

1. 중앙정부(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국방부, 성평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인사처,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2. 광역지자체(서울시청, 경기도청 등 특별시청·광역시청·도청 및 산하 공공기관 등)
3. 기초지자체(수원시청, 마포구청, 가평군청 등 시·군·구청 및 산하 공공기관 등)
4. 2024년 청년정책에 참여하지 않았다

2. 심층면담 조사지

■ 심층면담의 목적:

(1) 2015년 당시 고3시점에서 제시한 교육기대와 27, 28세 시점에서 실제 고졸이나 대학/대학원 진학(졸업) 여부를 살펴보고 (2) 양적 자료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부분을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¹⁰⁾

<여는 말: 라포 형성>

- 가벼운 인사, 연구자 소개, 연구목적 안내, 통계법제33조 안내 등을 전달함
(예: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면담을 진행하는 권경만 박사입니다. 편하게 ○○씨라고 부르면 될까요? 면담 장소까지 오시는 길은 괜찮으셨나요? 요새 가장 기분 좋은 일은?)
- 답변시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단답식보다는 충분한 내용의 답변을 요청함
- 2016년부터 지금까지의 경험을 충분히 기억을 되살릴 필요가 있음을 알림
- 면담대상자의 자기소개(현재 하는 일, 거주 지역 등), 면담 참여 동기 및 소감 등을 요청
(예: 간단한 자기소개와 현재 하는 일, 거주 지역을 말씀해 주시고, 오늘 면담에 참여하게 된 계기와 소감을 편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I. 고3 당시의 교육 기대

1. [공통] 고등학교 3학년 당시, 본인이 기대하거나 계획했던 진학 경로는 어떤 것이었나요?
 - 대학 진학(전문대, 4년제 등), 취업, 휴식, 기타 활동 등
 - 당시에 가장 희망했던 대학 또는 전공은 무엇이었나요?

10) 심층면담은 실태조사 이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특히 '학습과 진학' 설문내용(붙임1. 실행계획서. pp.43-50)과 긴밀하게 연계함으로써 양적연구에서 포착할 수 없는 이유나 원인 등을 발견할 목적으로 면담질문을 구성하여야 함

2. [공통] 진학(또는 취업) 목표를 세우게 된 배경에는 어떤 요인들이 주로 작용했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성적, 적성, 흥미, 부모님의 학력 수준과 직업, 경제적 상황 등
- 고교 계열(직업계고, 일반고), 고교 소재지(수도권, 비수도권)
- 교사의 조언, 진로교육, 직업활동체험, 자원봉사활동, 아르바이트 등
- 국내외 경제상황, 취업시장 상황, 정책상황(직업계고 활성화), 입시제도 변화 등

3. [공통] 당시 진학(또는 취업) 목표에 대해 얼마나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나요?

- 자아존중감(자기 자신의 능력, 성품, 가치에 대한 느낌)을 통한 목표 달성 가능성

4. [공통] 진학(또는 취업) 준비 과정에서 특별히 어려웠던 점이나 고민했던 점이 있다면 무엇이었나요?

- 학교의 진로교육 미흡, 학교 현장실습 관리 등
- 정부의 교육정책 관련

II. 실제 교육기대 이행(진학 또는 취업) 과정

5. [대졸/대학원졸] 현재 본인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나요? (예: 고졸, 전문대 졸업, 4년제 졸업, 대학원 진학 등)

- 실제 진학 경로와 고3 당시 기대 간의 차이가 있었다면, 그 변화는 어떤 이유에서 비롯되었나요?

5-1. [고졸] 결과적으로 대학 진학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학업의지 부족, 성적, 등록금 부담, 가족 부양, 직업 선택, 입시 실패 등

5-2. [고졸] 고등학교 졸업 직후 어떤 경로를 선택하게 되었나요?

- 취업, 아르바이트, 군 입대, 진로 모색 등

6. [대졸/대학원졸] 재수를 하거나 진학을 유예한 경험이 있다면, 그 선택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 6-1. [고졸] 재수를 고려하거나 준비한 경험이 있다면, 어떤 이유로 중단하게 되었습니까?
7. [대졸/대학원졸] 재학 중인 대학의 소재지(서울, 지방 등)는 진로 결정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 수도권 대학에 대한 기대, 주거지 또는 가족 상황의 영향 등
8. [대졸/대학원졸] 재학 중인 대학의 유형(2년제, 3년제, 4년제, 5~6년제)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 학비, 조기 취업, 성적 부담, 전공 특성 등
9. [대졸/대학원졸] 대학 입학 시 모집 방법(수시/정시), 전형 유형(일반/특별/기타)은 어떤 것이었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해당 전형을 선택한 이유, 그 전형이 본인에게 유리했다고 생각했는지
- 9-1. [고졸] 입시제도(모집방법: 수시/정시, 전형 유형: 일반/특별/기타 등)에 대해 어떤 느낌을 받았으며, 자신에게 유리했는지 불리했는지 생각한 이유는?
10. [대졸/대학원졸] 입시 과정에서 본인이 고려한 주요 기준은 무엇이었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예: 대학명(대학 서열) vs 전공, 취업률 vs 흥미, 부모의 의견 vs 본인 판단 등
11. [대졸/대학원졸] 실제로 대학에 진학한 후, 입학 전의 기대와 얼마나 일치했나요?
- 만족스러웠던 점과 실망했던 점, 대학생활에서 느꼈던 개인적인 변화
- 11-1. [고졸] 진학하지 않고 직접 사회로 진입하면서 겪은 가장 큰 어려움과 배움은 무엇이었나요?
12. [대졸/대학원졸] 대학을 중퇴하거나 휴학한 경험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고 당시 어떤 고민을 했었나요?

13. [대졸/대학원졸] 졸업을 일부러 유예한 경험이 있다면, 그 배경과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 취업 준비, 진로 미정, 경제적 이유, 사회적 압박감 등

14. [대졸/대학원졸] 대학원에 진학(또는 비진학)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학문적 흥미, 전문직 목표, 취업난 회피, 주변 권유 등

15. [대졸/대학원졸] 대학원 진학 또는 진학 포기 결정에서 가장 크게 작용한 요인은 무엇이었습니까?

- 진로 불확실성, 등록금 부담, 가정 경제, 사회적 인식 등

Ⅲ. 교육기대 이행 과정에 대한 자기 성찰 및 정책 제언

16. [공통] 진학(또는 취업) 과정에서 본인의 어떤 특성(예: 협동심, 창의성, 끈기 등)이 도움이 되었거나 장애가 되었나요?

※ 용어 설명			
항목	정의	교육기대와의 관련성	성인기 이행기에서 역할
협동심	팀워크, 공동 목표 추구	사회적 네트워크, 대인관계 적응	사회적 네트워크, 대인관계 적응
창의성	독창적 사고, 문제해결	진로 탐색 다양화, 자기주도적 진학 결정	유연한 전공/진로 전환 역량
끈기	장기 목표에 대한 집착과 노력	재수, 실패 극복, 목표 유지	진로 유지, 역경 극복, 성취

17. [공통] 지금 돌아보았을 때, 진학(또는 취업)과 관련하여 가장 잘한 결정과 가장 후회되는 결정은 각각 무엇인가요?

- 왜 그렇게 느끼는지, 이후 삶에 미친 영향은?

- 만약 그 시점으로 돌아간다면, 어떤 결정을 다르게 하고 싶나요?

18. [대졸/대학원졸] 교육과 진로를 둘러싼 개인 경험을 통해, 현재 고3 학생들을 위해 교육정책 또는 진로(진학·취업)지원 시스템에서 국가나 학교 차원에서 보완되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대학 또는 고교 시절 겪은 정책 중 불편했던 점이나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은?

19. [대졸/대학원졸] 대학 진학률 증가, 장기 휴학, 졸업 유예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적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대학 또는 고교 시절 겪은 정책 중 불편했던 점이나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은?

20. [대졸/대학원졸] 국가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대학원 진학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마무리(5분)

- [공통] 오늘 이야기하면서 놓친 부분이나 더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 [공통] 면담 협조에 대한 감사 인사 및 정리

3. 전문가 델파이조사 설문지(1차, 2차)

청년의 성인기 이행 지표 전문가 델파이조사(1차)

이 설문에서 얻어진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밀이 보호의도를 통계법(제13조 및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ID

--	--	--	--

안녕하십니까?

여러 가지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본 설문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조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수행하는 「청년의 성인기 이행경로 조사 I」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청년의 성인기 이행 지표 전문가 델파이 조사」입니다. 이번 조사는 전문가 델파이조사를 통해 청년들이 성인기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통계 지표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델파이조사는 두 차례 이상 진행될 예정이며, 1차 델파이 조사지에 대한 회신은 **6월 23일(월) 정오(12:00)**까지 이메일에 대한 회신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 의견과 응답 내용은 전적으로 연구 자료로만 활용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 번 전문가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 6.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연구진 김기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윤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용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조양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문의 이용해 ☎ 044-415-2129 / ✉ e-mail: yhlee@nypi.re.kr

만일 어느 때라도 연구참여자로서 귀하의 권익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전화번호: 044-415-2188

- 이번 조사는 총 두 차례,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할 경우 총 세 차례에 걸쳐 반복해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2차 조사부터 본인의 응답 결과와 더불어 전체 응답자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할 예정입니다(설문 소요 예상 시간 : 회당 약 40분 내외).
- 설문에 응해주시는 분께는 소정의 설문조사 수당(1차 10만 원, 2차 10만 원, 3차까지 진행될 경우 추가로 10만 원)을 지급해 드리하고자 합니다.

□ 1

부 록 | 317

1. 청년의 성인기 이행 지표 영역의 정의에 대한 의견

다음은 청년의 성인기 이행 지표 영역에 대한 정의입니다. 각 지표 영역에 대한 정의가 적절한지에 대해서 해당하는 번호에 표기해 주시고, 수정보완하거나 추가할 내용이 있는 경우 의견란에 기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1. “학습과 진학”의 정의

매우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은 편이다	중립적이다	매우 적절하다
------------	-------------	-------	---------

지식이나 기술, 가치와 태도 등을 습득하거나 개선하기 위해 공식적인 교육기관에 입학하고 중퇴하거나 졸업하고 진학하거나 비형식, 무형식 학습을 받는 과정

1	2	3	4
---	---	---	---

1-1-1. (“매우 적절하지 않다”와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의를 바꾸어야 한다면 어떻게 바꾸는 것이 적절합니까?

의견:

1-2. “학교-일자리 이행”의 정의

매우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은 편이다	중립적이다	매우 적절하다
------------	-------------	-------	---------

공식적인 교육기관에서 졸업 전에 일자리를 구하거나 졸업중퇴 후에 구직할 동을 거쳐 노동시장에 진입하거나 이직 후 재진입하는 과정

1	2	3	4
---	---	---	---

1-2-1. (“매우 적절하지 않다”와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의를 바꾸어야 한다면 어떻게 바꾸는 것이 적절합니까?

의견:

1-3. “자립”의 정의

매우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은 편이다	중립적이다	매우 적절하다
------------	-------------	-------	---------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꾸려나갈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상태 또는 능력을 갖추어 나가는 과정

1	2	3	4
---	---	---	---

1-3-1. (“매우 적절하지 않다”와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의를 바꾸어야 한다면 어떻게 바꾸는 것이 적절합니까?

의견:

1-4. "가족 형성"의 정의

매우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은 경우다	전혀 의의없 다	매우 적절하다
------------------	-------------------	----------------	------------

개인이 다른 사람과 결혼, 동거를 하거나 출산이나 입양을 통해 자녀를 두는 등 새로운 가족관계를 만드는 과정	1	2	3	4
--	---	---	---	---

1-4-1. ("매우 적절하지 않다"와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의를 바꾸어야 한다면 어떻게 바꾸는 것이 적절합니까?
의 결:

다음은 청년의 성인기 이행 지표 영역(안)입니다. 청년의 성인기 이행 과정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영역이 적절함에 대해 응답해 주시고, 수정보완하거나 추가해야 할 내용이 있는 경우 의견란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1-5. "청년의 성인기 이행"의 지표 영역

매우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은 경우다	전혀 의의없 다	매우 적절하다
------------------	-------------------	----------------	------------

[1] 학습과 진학	1	2	3	4
[2] 학교-일자리 이행	1	2	3	4
[3] 자립	1	2	3	4
[4] 가족 형성	1	2	3	4
[5] 기타(어떤 영역인지 기술: _____)	1	2	3	4

1-5-1. ("매우 적절하지 않다"와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의를 바꾸어야 한다면 어떻게 바꾸는 것이 적절합니까?
의 결:

1-5-2. (기타로 응답한 경우) 기타 영역을 추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추가 이유를 기술해 주십시오.
의 결:

2. 청년의 성인기 이행 영역별 지표에 대한 의견

다음은 각 영역별 청년의 성인기 이행 지표입니다. 이 지표가 각 영역에 적절한지에 대해서 해당하는 번호에 표기해 주시고, 수정보완하거나 추가할 내용이 있는 경우 기타 및 의견란에 기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1. “학습과 진학”의 지표

매우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은 편이다	중립적이다	매우 적합하다
------------	-------------	-------	---------

[1] 직업계고 진학률(직업계고 취업통계)	1	2	3	4
[2] 직업계고 취업률(직업계고 취업통계)	1	2	3	4
[3] 일반고 취업자 비율(교육통계연보)	1	2	3	4
[4] 대학수학능력시험 졸업생(N수험) 응시율(수학능력시험통계)	1	2	3	4
[5] 대학 미진학 이유(청년 삶 실태조사)	1	2	3	4
[6] 대학 진학률(교육통계연보)	1	2	3	4
[7] 대학생 학업중단율(교육통계연보)	1	2	3	4
[8] 대학생 휴학률(교육통계연보)	1	2	3	4
[9] 대학졸업 소요기간(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1	2	3	4
[10] 대학등록금(대학알라미)	1	2	3	4
[11] 학자금 대출 비율(대학알라미)	1	2	3	4
[12] 대학생 교육훈련을 받고 싶은 영역(청년 삶 실태조사)	1	2	3	4
[13] 대학에서 습득한 지식이 취업에 도움이 되는 정도(청년 삶 실태조사)	1	2	3	4
[14] 대학생의 취업목적 사교육 경험 비율(청년 삶 실태조사)	1	2	3	4
[15] 대학 취업률(고등교육취업통계)	1	2	3	4
[16] 평생학습 참여율(평생학습실태조사)	1	2	3	4
[17] 직장체험 경험비율(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1	2	3	4
[18] 학생이 기대하는 교육수준(사회조사)	1	2	3	4
[19] 기타(어떤 지표인지 기술: _____)	1	2	3	4

2-1-1. (“매우 적절하지 않다”와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의를 바꾸어야 한다면 어떻게 바꾸는 것이 적절합니까?

의 결: (예시 : 17번 - “직장체험 경험비율”보다는 최근 중시되고 있는 일 경험 비율 대체 검토)

2-1-2. (기타로 응답한 경우) 기타 영역을 추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추가 이유를 기술해 주십시오.

의 결:

2-2. "학교-일자리 이행"의 지표

매우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은 경이다	적절 한 경이다	매우 적절하다
------------------	-------------------	----------------	------------

[1] 청년 졸업(중퇴) 후 첫 취업 소요기간(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1	2	3	4
[2] 청년 졸업(중퇴) 후 조기 취업 비율(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1	2	3	4
[3] 청년 경제활동 참여율(경제활동인구조사)	1	2	3	4
[4] 청년 고용률(경제활동인구조사)	1	2	3	4
[5] 청년 실업률(경제활동인구조사)	1	2	3	4
[6] 청년 구직단념자 비율(경제활동인구조사)	1	2	3	4
[7] 쉬는 청년 비율(경제활동인구조사)	1	2	3	4
[8] 청년 넷(NEET) 비율(경제활동인구조사)	1	2	3	4
[9] 청년 소년(번아웃) 경험 비율(청년 삶 실태조사)	1	2	3	4
[10] 첫 직장 근무기간(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1	2	3	4
[11] 청년 현재 일자리 업무 지루성 정도(청년 삶 실태조사)	1	2	3	4
[12] 청년 이직 또는 구직 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이유(청년 삶 실태조사)	1	2	3	4
[13] 청년 직장 내 괴롭힘 정책이나 대응 절차 유무(청년 삶 실태조사)	1	2	3	4
[14] 청년 위험한 근로 환경 경험 빈도(청년 삶 실태조사)	1	2	3	4
[15] 청년 복수 일자리(N잡러) 비율(청년 삶 실태조사)	1	2	3	4
[16] 활동법인 청년 대표자 비율(기업생태통계)	1	2	3	4
[17] 신규 자영업자 사업자금 규모(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 부가조사)	1	2	3	4
[18] 신규 자영업자 사업자금 조달방법(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 부가조사)	1	2	3	4
[19] 기타(어떤 지표인지 기술: _____)	1	2	3	4

2-2-1. ("매우 적절하지 않다"와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의를 비교해야 한다면 어떻게 비교는 것이 적절할까요?

의견:

2-2-2. (기타로 응답한 경우) 기타 영역을 추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추가 이유를 기술해 주십시오.

의견:

2-3. "자립"의 지표

표준 점수 범위	적절하지 않은 경이다	적당 한 경 도	적당 한 경 도	표준 점수 범위
----------------	-------------------	-------------------	-------------------	----------------

[1] 삶을 결정함에 있어 자유로운 정도(사회통합실태조사)	1	2	3	4
[2] 본인이 하는 일이 가치있다고 생각하는 정도(사회통합실태조사)	1	2	3	4
[3] 바라는 미래 실현 가능성(청년 삶 실태조사)	1	2	3	4
[4] 갖추었다고 생각하는 미래 실현 요소(청년 삶 실태조사)	1	2	3	4
[5] 본인 세대 계층이동(사회조사)	1	2	3	4
[6] 부모 동거 비율(사회조사)	1	2	3	4
[7] 60세 이상 현재 자녀와 동거 이유(사회조사)	1	2	3	4
[8] 부모로부터 독립하려는 구체적 계획 비율(청년 삶 실태조사)	1	2	3	4
[9] 부모로부터 독립을 계획하지 않는 주된 이유(청년 삶 실태조사)	1	2	3	4
[10] 청년 거주 주택 점유형태(주거실태조사)	1	2	3	4
[11] 청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주거실태조사)	1	2	3	4
[12] 청년 지하반지하·옥탑방 거주가구 비율(주거실태조사)	1	2	3	4
[13] 청년 주거비 과부담 가구 비율(주거실태조사)	1	2	3	4
[14] 생애 최초 주택미련 소용기간 및 연령(주거실태조사)	1	2	3	4
[1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수급 비율(청년 삶 실태조사)	1	2	3	4
[16] 고립은둔 청년 비율(청년 삶 실태조사)	1	2	3	4
[17] 가족돌봄 청년 비율(청년 삶 실태조사)	1	2	3	4
[18] 청년 상태빈곤율(청년 삶 실태조사)	1	2	3	4
[19] 기타(어떤 지표인지 기술: _____)	1	2	3	4

2-3-1. ("매우 적절하지 않다"와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의를 바꾸어야 한다면 어떻게 바꾸는 것이 적절할까요?

의견:

2-3-2. (기타로 응답한 경우) 기타 영역을 추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추가 이유를 기술해 주십시오.

의견:

2-4. "가족 형성"의 지표

매우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은 편이다	적절함 의 중간 수준	적절 하다	매우 적절하다
------------------	-------------------	----------------------	----------	------------

[1] 조혼율(인구동향조사)	1	2	3	4
[2] 초혼연령(인구동향조사)	1	2	3	4
[3] 결혼에 대한 견해(사회조사)	1	2	3	4
[4] 결혼 문화에 대한 태도(사회조사)	1	2	3	4
[5] 향후 결혼계획(청년 삶 실태조사)	1	2	3	4
[6] 1인가구 비율(인구동향조사)	1	2	3	4
[7] 출산연령(인구동향조사)	1	2	3	4
[8] 합계출산율(인구동향조사)	1	2	3	4
[9] 향후 자녀 출산 의향(청년 삶 실태조사)	1	2	3	4
[10] 이상적인 자녀수(사회조사)	1	2	3	4
[11]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사회조사)	1	2	3	4
[12] 가사 분담에 대한 견해(사회조사)	1	2	3	4
[13] 이혼에 대한 견해(사회조사)	1	2	3	4
[14] 재혼에 대한 견해(사회조사)	1	2	3	4
[15] 입양에 대한 견해(사회조사)	1	2	3	4
[16] 외국인을 우리나라 국민으로 수용하는 정도(사회통합실태조사)	1	2	3	4
[17] 자녀의 배우자로서 집단 구성원 포용 정도(사회통합실태조사)	1	2	3	4
[18] 기타(어떤 지표인지 기술표: _____)	1	2	3	4

2-4-1. ("매우 적절하지 않다"와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의를 바꾸어야 한다면 어떻게 바꾸는 것이 적절합니까?

의 결 :

2-4-2. (기타로 응답한 경우) 기타 영역을 추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추가 이유에 대해서 기술표 주십시오.

의 결 :

☞ 장시간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년의 성인기 이행 지표 전문가 델파이조사(2차)

이 설문에서 얻어진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13조 및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응답자 이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데 1차 델파이 조사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차 조사에서 응답해주신 분들의 동의 정도가 낮은 문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된 문항과는 달리 이전과 동일한 문항의 경우 본인 응답 및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기했고 2차 답변은 우측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칸에 숫자로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본 조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수행하는 「청년의 성인기 이행경로 조사 I」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청년의 성인기 이행 지표 전문가 델파이 조사」입니다. 이번 조사는 전문가 델파이조사를 통해 청년들이 성인기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통계 지표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델파이조사는 두 차례 이상 진행될 예정이며, 2차 델파이 조사지에 대한 회신은 **7월 7일(월) 정오(12:00)**까지 이메일에 대한 회신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 의견과 응답 내용은 전적으로 연구 자료로만 활용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 번 전문가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 7.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연구진 김기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윤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용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조양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원

문의 이용혜 ☎ 044-415-2129 / ✉ e-mail: yhlee@nypri.re.kr

만일 어느 때라도 연구참여자로서 귀하의 권익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전화번호: 044-415-2188

- 이번 조사는 총 두 차례,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할 경우 총 세 차례에 걸쳐 반복해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2차 조사부터 본인의 응답 결과와 더불어 전체 응답자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할 예정입니다(설문 소요 예상 시간 : 회당 약 20분 내외).
- 설문에 응해주신 분께는 소정의 설문조사 수당(1차 10만 원, 2차 10만 원, 3차까지 진행될 경우 추가로 10만 원)을 지급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청년의 성인기 이행 지표 영역의 정의에 대한 의견

다음은 청년의 성인기 이행 지표 영역에 대한 정의입니다. 각 지표 영역에 대한 정의가 적절한지에 대해서 해당하는 번호에 표기해 주시고, 수정보완하거나 추가할 내용이 있는 경우 의견란에 기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1. “진학과 학습”의 정의

매우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은 편이다	중립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
------------	-------------	----	------	---------

정규 교육기관 혹은 비형식기관에서 학습하거나, 혼자서 지식, 기술 등을 습득하는 과정(무형식)	1	2	3	4
--	---	---	---	---

1-1-1. (“매우 적절하지 않다”와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의를 바꾸어야 한다면 어떻게 바꾸는 것이 적절합니까?

의견:

1-2. “학교-일자리 이행”의 정의

매우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은 편이다	중립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
------------	-------------	----	------	---------

정규 교육기관에서 졸업(중퇴 포함) 전이나 후에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과정	1	2	3	4
--	---	---	---	---

1-2-1. (“매우 적절하지 않다”와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의를 바꾸어야 한다면 어떻게 바꾸는 것이 적절합니까?

의견:

2. 청년의 성인기 이행 영역별 지표에 대한 의견

다음은 각 영역별 청년의 성인기 이행 지표입니다. 이 지표가 각 영역에 적절한지에 대해서 해당하는 번호에 표기해 주시고, 수정보완하거나 추가할 내용이 있는 경우 기타 및 의견란에 기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1. “진학과 학습”의 지표

지표가 적절합니다	지표가 적절하지 않습니다	지표가 적절하지 않음	지표가 적절함	평균 (표준편차)	1차 순위	2차 순위
-----------	---------------	-------------	---------	-----------	-------	-------

[4] 대학수학능력시험 졸업생(N수험) 응시율(수학능력시험통계)	1	2	3	4	3.25 (0.89)		
[5] 대학 미진학 이유(청년 삶 실태조사)	1	2	3	4	3.20 (0.87)		
[8] 대학생 휴학률(교육통계연보)	1	2	3	4	3.30 (0.78)		
[10] 대학등록금(대학알리미)	1	2	3	4	2.60 (1.07)		
[11] 학자금 대출 비율(대학알리미)	1	2	3	4	2.90 (0.94)		
[12] 대학생 교육후원을 받고 싶은 영역(청년 삶 실태조사)	1	2	3	4	3.05 (1.02)		
[13] 대학에서 습득한 지식이 취업에 도움이 되는 정도(청년 삶 실태조사)	1	2	3	4	3.00 (1.00)		
[14] 대학생의 취업목적 사교육 경험 비율(청년 삶 실태조사)	1	2	3	4	3.20 (0.75)		
[16] 평생학습 참여율(평생학습실태조사)	1	2	3	4	3.10 (0.89)		
[17] 직장체험 경험비율(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1	2	3	4	3.10 (0.94)		
[18] 학생이 기대하는 교육수준(사회조사)	1	2	3	4	3.25 (0.70)		

2-1-1. (“매우 적절하지 않다”와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의를 바꾸어야 한다면 어떻게 바꾸는 것이 적절합니까?

의견:

2-2. "학교-일자리 이행"의 지표

매우 불만 이다	매우 만족 이다	매우 불만 이다	매우 만족 이다	매우 불만 이다	평균 (%)	1차 응답	2차 응답
----------------	----------------	----------------	----------------	----------------	-----------	----------	----------

[2] 청년 졸업(중대) 후 조기 취업 비율(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1	2	3	4	3.45 (0.59)		
[9] 청년 소진(반이웃) 경험 비율(청년 삶 실태조사)	1	2	3	4	3.10 (0.83)		
[11] 청년 현재 일자리 업무 지루성 정도(청년 삶 실태조사)	1	2	3	4	3.10 (0.77)		
[12] 청년 직장 내 괴롭힘 경험(아니 대응 절차 유무(청년 삶 실태조사)	1	2	3	4	2.95 (0.80)		
[13] 청년 위험한 근로 환경 경험(청년 삶 실태조사)	1	2	3	4	3.05 (0.80)		
[14] 청년 복수 일자리(직장) 비율(청년 삶 실태조사)	1	2	3	4	3.50 (0.50)		
[15] 활동중인 청년 대표자 비율(기업생태조사)	1	2	3	4	3.30 (0.78)		
[17] 신규 자영업자 사업자금 규모(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 부가조사)	1	2	3	4	2.45 (0.86)		
[18] 신규 자영업자 사업자금 조달방법(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 부가조사)	1	2	3	4	2.40 (0.86)		

2-2-1. ("매우 적절하지 않다"와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의를 바꾸어야 한다면 어떻게 바꾸는 것이 적절할까요?

의견:

2-3. "자립"의 지표

매우 불만 이다	매우 만족 이다	매우 불만 이다	매우 만족 이다	매우 불만 이다	평균 (%)	1차 응답	2차 응답
----------------	----------------	----------------	----------------	----------------	-----------	----------	----------

[3] 바라는 미래 실현 가능성(청년 삶 실태조사)	1	2	3	4	3.25 (0.94)		
[5] 본인 세대 계층이동(사회조사)	1	2	3	4	3.20 (0.87)		
[7] 60세 이상 현재 자녀와 동거 이유(사회조사)	1	2	3	4	2.75 (0.94)		
[10] 청년 거주 주택 점유형태(주거실태조사)	1	2	3	4	3.35 (0.79)		
[11] 청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주거실태조사)	1	2	3	4	3.35 (0.73)		
[12] 청년 지하반지하옥탑방 거주가구 비율(주거실태조사)	1	2	3	4	3.25 (0.70)		
[13] 청년 주거비 과부담 가구 비율(주거실태조사)	1	2	3	4	3.45 (0.59)		
[1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수급 비율(청년 삶 실태조사)	1	2	3	4	3.30 (0.84)		

2-3-1. ("매우 적절하지 않다"와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의를 바꾸어야 한다면 어떻게 바꾸는 것이 적절할까요?

의견:

2-4. “가족 형성”의 지표

	매우 적절하지 않다	적 절하지 않다	적 절하다	매우 적절하다	평균 (SD)	1차 응답	2차 응답
㉔ 기사 분담에 대한 견해(사회조사)	1	2	3	4	3.05 (1.02)		
㉕ 이혼에 대한 견해(사회조사)	1	2	3	4	3.35 (0.85)		
㉖ 재혼에 대한 견해(사회조사)	1	2	3	4	3.25 (0.89)		
㉗ 입양에 대한 견해(사회조사)	1	2	3	4	3.20 (1.03)		
㉘ 외국인을 우리나라 국민으로 수용하는 정도(사회통합실태조사)	1	2	3	4	2.50 (0.92)		
㉙ 자녀의 배우자로서 집단 구성원 포용 정도(사회통합실태조사)	1	2	3	4	2.45 (0.74)		

2-4-1. (“매우 적절하지 않다”와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의를 바꾸어야 한다면 어떻게 바꾸는 것이 적절할까요?

의견 :

♣ 장시간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 추적조사 문항 출처 및 참고문헌

○ KCYPS 2010 중1패널 추적조사 「학습과 진학」

문항번호	내용	출처 및 참고문헌
문 1	대학(원) 진학 여부	보고서: 김기현, 오병돈(2024) 조사: KCYPS 2010 중1패널 유지조사
문 2	대학(교) 소재지	보고서: 하형석, 정은진, 최승주(2017) 조사: KCYPS 2010 중1패널 유지조사
문 3	대학(교) 유형	보고서: 하형석, 정은진, 최승주(2017) 조사: KCYPS 2010 중1패널 유지조사
문 4	대학(교) 명칭	보고서: 윤혜준 외(2019) 조사: KEEP(교육고용패널조사)
문 5	대학(교) 입학 시 모집 방법	보고서: 남궁지영 외(2023) 조사: 한국교육종단연구2023
문 6	대학(교) 입학 시 전형 방식	보고서: 남궁지영 외(2023) 조사: 한국교육종단연구2023
문 7	대학(교) 입학 시 선택 기준	자체 작성 참고: 윤혜준 외(2019), 남궁지영 외(2023)
문 8	휴학 경험 여부	보고서: 김기현, 하형석, 신인철(2016) 조사: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문 8-1	휴학 이유	보고서: 김기현, 하형석, 신인철(2016) 조사: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문 9	전공(또는 학과, 계열 등)	보고서: 하형석 외(2018) 조사: KCYPS 2010 중1패널 유지조사
문 10	졸업유예 경험 여부	보고서: 김기현, 하형석, 신인철(2016) 조사: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문 10-1	졸업유예 이유	보고서: 김기현, 하형석, 신인철(2016) 조사: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문항번호	내용	출처 및 참고문헌
문 11	대학(교) 등록금(만 원)	보고서: 김기현, 하형석, 신인철(2016) 조사: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문 12	대학(교) 등록금 마련 방법	보고서: 김기현, 하형석, 신인철(2016) 조사: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문 13	대학(교) 평균 성적(학점)	보고서: 남궁지영 외(2023) 조사: 한국교육중단연구2023
문 14	대학(교) 만족도	보고서: 하형석, 정은진, 최승주(2017) 조사: KCYPS 2010 중1패널 유지조사
문 15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여부	자체 작성
문 15-1	대학수학능력시험 등급(수능백분위)	자체 작성
문 16	재수 여부 및 기간	자체 작성
문 17	대학원 진학 여부와 입학 졸업 시기(연월)	보고서: 남재량 외(2008) 조사: KLIPS(한국노동패널조사) 청년용 부가조사
문 17-1	대학원 진학 동기	보고서: 남재량 외(2008) 조사: KLIPS(한국노동패널조사) 청년용 부가조사
문 18	역량발달 - 협동심	보고서: 장근영 외(2015), 하형석, 정은진, 최승주(2017) 조사: IEA ICCS 2016
문 19	핵심발달 - 끈기(Grit)	보고서: 김희명, 황매향(2015) 조사: KCYPS 2018 중1패널

○ KCYPS 2010 중1패널 추적조사 「학교-일자리이행」

문항번호	내용	출처 및 참고문헌
문 20	성인으로서의 첫 출발 상징	보고서: 김기현 외(2020) 조사: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문 21	일을 시작하는 연령에 대한 의견	자체 작성 참고: 김기현 외(2020)
문 21-1	돈을 벌 때 선호하는 소득 유형	자체 작성 참고: 김기현 외(2020)
문 22	가장 선호하는 일자리 유형	보고서: 김기현 외(2020) 조사: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문 23	중소기업 취업 의향	보고서: 김기현 외(2020) 조사: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문 23-1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	보고서: 김기현 외(2020) 조사: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문 24	창업 및 창업의사 여부	보고서: 김기현 외(2020) 조사: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문 25	내가 생각하는 첫 일자리 정의	보고서: 김기현 외(2020) 조사: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문 26	취업 경험 여부	보고서: 김기현 외(2020) 조사: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문 26-1	첫 일자리 관련 상황	보고서: 김기현 외(2020) 조사: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문 27	퇴사 및 해고 경험	보고서: 김기현 외(2020) 조사: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문 27-1	실업급여 수급 여부	보고서: 김기현 외(2020) 조사: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문 27-2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이유	보고서: 김기현 외(2020) 조사: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문 28	플랫폼 노동 경험 여부	보고서: 김기현 외(2020) 조사: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문 28-1	지난 1주일간 플랫폼 노동 경험 여부	보고서: 김기현 외(2020) 조사: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문 28-2	지난 1주일간 플랫폼 노동 주업/부업 여부	보고서: 김기현 외(2020) 조사: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문 29	직장생활 중 직장내 괴롭힘 경험 여부	자체 작성 참고: 김기현 외(2020)

문항번호	내용	출처 및 참고문헌
문 31	지난주 취업 여부	보고서: 김기현 외(2020) 조사: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문 31-1	[취업자] 부업 여부 및 갯수	보고서: 김기현 외(2020) 조사: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문 31-2	[취업자] 현재 일자리 관련 상황	보고서: 김기현 외(2020), 자체 작성 조사: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문 31-3	[취업자] 현재 일자리 구직활동 경험	보고서: 김기현 외(2020) 조사: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문 31-3-1	[취업자] 현재 일자리 가장 도움이 된 구직활동 경험	보고서: 김기현 외(2020) 조사: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문 31-4	[취업자] 노조 및 노사협의회, 제안제도 등 유무	보고서: 김기현 외(2020) 조사: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문 31-5	[취업자] 노조 가입 여부	자체 작성 참고: 김기현 외(2020)
문 32	지난 1주일간 구직활동 여부	보고서: 김기현 외(2020) 조사: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문 33	[나트] 나트(NEET) 상태에 대한 이유	보고서: 김기현 외(2020) 조사: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문 33-1	[나트] 가장 주된 나트(NEET) 상태 이유	보고서: 김기현 외(2020) 조사: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문 33-2	[나트] 나트(NEET) 기간(월)	보고서: 김기현 외(2020) 조사: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문 34	[실업자] 구직활동 기간(월)	보고서: 김기현 외(2020) 조사: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문 35	대학/대학원 진학 및 취업/사업 준비 여부	자체 작성 참고: 김기현, 오병돈(2024)
문 35-1	대학/대학원 진학 준비 시기(연월)	자체 작성 참고: 김기현, 오병돈(2024)
문 35-2	대학원 진학을 위한 준비	자체 작성 참고: 김기현, 오병돈(2024)
문 35-3	사설기관 월평균 비용(만 원)	자체 작성 참고: 김기현, 오병돈(2024)

문항번호	내용	출처 및 참고문헌
문 35-4	사설기관 비용 외 진학준비 비용(만 원)	자체 작성 참고: 김기현, 오병돈(2024)
문 35-5	평일 진학준비 평균 시간	자체 작성 참고: 김기현, 오병돈(2024)
문 36	취업/사업 준비 시기(연월)	자체 작성 참고: 김기현, 오병돈(2024)
문 36-1	취업/사업 준비 분야	보고서: 김기현 외(2020) 조사: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문 36-2	취업/사업 준비 참여 기관 및 도움 정도	보고서: 김기현 외(2020) 조사: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문 36-3	사설기관 월평균 비용(만 원)	보고서: 김기현 외(2020) 조사: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문 36-4	사설기관 비용 외 취업준비 비용(만 원)	보고서: 김기현 외(2020) 조사: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문 36-5	평일 취업/사업준비 평균 시간	보고서: 김기현 외(2020) 조사: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문 37	향후 직업훈련을 받을 계획 여부	보고서: 김기현 외(2020) 조사: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문 37-1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이유	자체 작성 참고: 김기현 외(2020)
문 38	향후 일 경험을 받을 계획 여부	보고서: 김기현 외(2020) 조사: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문 38-1	일 경험을 받지 않은 이유	자체 작성 참고: 김기현 외(2020)
문 39	일 자유의지	원척도: Work Volition Scale; WWS 타당화: 김민선 (2020) 참고 및 수정
문 40	진로 적응성	원척도: Career Futures Inventory; CFI 타당화: 최옥현, 김봉환 (2006).

○ KCYPS 2010 중1패널 추적조사 「자립과 주거」

문항번호	내용	출처 및 참고문헌
문 41	미래 희망 거주지	자체 작성
문 42	부모 동거 여부	보고서: 김기현, 오병돈(2024) 조사: KCYPS 2010 중1패널 유지조사
문 42-1	부모와 분가 시기(연월)	보고서: 김기현, 오병돈(2024) 조사: KCYPS 2010 중1패널 유지조사
문 42-2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주된 이유	보고서: 김기현, 오병돈(2024) 조사: KCYPS 2010 중1패널 유지조사
문 43	형제자매 수	보고서: 하형석, 정은진, 최승주(2017) 조사: KCYPS 2018 중1패널
문 44	현재 주거의 명의 혹은 계약당사자	보고서: 김기현 외(2020) 조사: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문 45	현재 주거 형태	보고서: 김기현 외(2020) 조사: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문 46	현재 주거 점유 형태	보고서: 김기현 외(2020) 조사: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문 46-1	(자가인 경우) 주택 시세	보고서: 김기현 외(2020) 조사: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문 47	주거비용 마련 대출 여부	보고서: 김기현 외(2020) 조사: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문 47-1	대출을 받은 액수	보고서: 김기현 외(2020) 조사: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문 48	가족으로부터 경제적 지원	보고서: 권재혁 외(2024) 조사: 청년패널조사
문 48-1	경제적 지원을 받게 된 이유	보고서: 권재혁 외(2024) 조사: 청년패널조사
문 48-2	월 평균 지원금	보고서: 권재혁 외(2024) 조사: 청년패널조사
문 49	가족에게 고정적으로 경제적 지원 여부	보고서: 권재혁 외(2024) 조사: 청년패널조사

문항번호	내용	출처 및 참고문헌
문 49-1	경제적 지원을 하게 된 이유	보고서: 권재혁 외(2024) 조사: 청년패널조사
문 49-2	월 평균 지원금	보고서: 권재혁 외(2024) 조사: 청년패널조사
문 50	채무 여부	보고서: 김기현 외(2020) 조사: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문 50-1	채무 발생 이유	보고서: 김기현 외(2020) 조사: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문 50-2	채무 기관	보고서: 김기현 외(2020) 조사: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문 51	〈응답자의 결혼 상태〉 결혼 여부	보고서: 김기현 외(2020) 조사: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문 51-1	결혼 시기	보고서: 김기현 외(2020) 조사: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문 52	자녀 유무	보고서: 김기현 외(2020) 조사: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문 52-1	자녀 수	보고서: 김기현 외(2020) 조사: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문 52-2	첫째 자녀 출생 시기(연월)	보고서: 김기현 외(2020) 조사: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 KCYPS 2010 중1패널 추적조사 「삶의 질과 참여」

문항번호	내용	출처 및 참고문헌
문 53	행복한 삶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	보고서: 김기현 외(2020) 조사: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문 54	현재 삶의 질	보고서: International Wellbeing Group (2013), 유민상 외(2022) 조사: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조사
문 55	주관적 정신건강상태	보고서: European Union(2016), 김기현, 이윤주, 유설희(2017) 조사: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문 56	땀이 날 정도의 운동 시간	보고서: 하형석, 정은진, 최승주(2017) 조사: KCYPS 2018 중1패널
문 57	일주일 간 아침식사 한 날(일)	보고서: 하형석, 정은진, 최승주(2017) 조사: KCYPS 2018 중1패널
문 58	체지방지수(키와 몸무게)	보고서: 하형석, 정은진, 최승주(2017) 조사: KCYPS 2018 중1패널
문 59	건강검진 여부	보고서: 김기현 외(2020) 조사: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문 60	건강상태	보고서: 권재혁 외(2024) 조사: 청년패널조사
문 61	스마트폰 사용 빈도	보고서: 하형석, 정은진, 최승주(2017) 조사: KCYPS 2018 중1패널
문 62	SNS 이용 여부	자체 작성 참고: 홍구표, 전혜성(2017)
문 63	SNS 이용 현황	자체 작성 참고: 홍구표, 전혜성(2017)
문 64	평일과 주말 하루 생활시간(시분)	보고서: 하형석, 정은진, 최승주(2017) 조사: KCYPS 2018 중1패널
문 65	평소 외출 여부(은둔 청년)	보고서: 内閣府 (2017), 김기현, 이윤주, 유설희(2017) 조사: 若者の意識に関する調査,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청년 삶 실태조사
문 65-1	은둔 상태 기간	보고서: 内閣府 (2017), 김기현, 이윤주, 유설희(2017) 조사: 若者の意識に関する調査,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청년 삶 실태조사

문항번호	내용	출처 및 참고문헌
문 65-2	은둔 상태 이유	보고서: 김기현, 이윤주, 유설희(2017) 조사: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청년 삶 실태조사
문 66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고립 청년)	보고서: 국가데이터처(2013), 유민상 외(2022) 조사: 사회조사,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조사
문 66-1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친구(고립 청년)	보고서: 국가데이터처(2013), 유민상 외(2022) 조사: 사회조사,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조사
문 67	돌봄이 필요한 가족 여부(가족돌봄 청년)	보고서: 김승연 외(2023) 조사: 서울시 복지실태조사
문 67-1	가족 돌봄 여부(가족돌봄 청년)	보고서: 김승연 외(2023) 조사: 서울시 복지실태조사
문 67-2	돌봄 가족이 겪는 어려움(가족돌봄 청년)	보고서: 김승연 외(2023) 조사: 서울시 복지실태조사
문 68	물질적 결핍	보고서: Eurostat (2016), European Union (2016), 김기현 외(2020) 조사: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문 69	대비되는 가치관 선호 정도	보고서: 김기현 외(2020) 조사: World Values Survey,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문 70	사회 참여 여부	보고서: 김기현 외(2020) 조사: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문 71	정치 효능감	보고서: 김기현 외(2020) 조사: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문 72	자아존중감	보고서: Rosenberg(1965), 하형석, 정은진, 최승주(2017) 조사: KCYPS 2010 중1패널 유지조사, KCYPS 2018 중1패널
문 73	우울	보고서: Radloff(1977)/ 이태진 외(2024) 조사: 한국복지패널
문 74	분야별 청년정책의 필요성	자체 작성
문 75	정부 청년정책 사업의 참여 여부	보고서: 김기현 외(2021) 조사: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 KCYPS 2010 중1패널 추적조사 「일반사항」

문항번호	내용	출처 및 참고문헌
문 76	2024년 유지조사 참여 여부	자체 작성
문 77	현재 거주지(시도)	보고서: 하형석 외(2018) 조사: KCYPS 2010 중1패널 유지조사
문 78	출생지와 거주지 동일지역 여부	보고서: 김기현, 오병돈(2024) 조사: KCYPS 2010 중1패널 유지조사
문 78-1	출생지(시도)	보고서: 김기현, 오병돈(2024) 조사: KCYPS 2010 중1패널 유지조사
문 79	[남자] 병역관계	보고서: 하형석 외(2018) 조사: KCYPS 2010 중1패널 유지조사
문 79-1	[남자] 입대 및 전역시기	보고서: 김기현, 오병돈(2024) 조사: KCYPS 2010 중1패널 유지조사

5. KCYPS 2010 유지조사 조사항목(2017-2024)

항목	내용	문항번호	첫 조사 실시 연도
공통문항	응답자(패널과의 관계)	문 1	1차 연도(2017년)
	현 거주지	문 2	2차 연도(2018년)
	부모님과의 동거 여부	문 3	2차 연도(2018년)
	부모 분가 시기(연월)	문3-1	8차 연도(2024년)
	현재 가정생활 만족도	문 4	2차 연도(2018년)
	청소년기 만족도	문 5	1차 연도(2017년)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	문 6	1차 연도(2017년)
	전반적 생활만족도	문 7	1차 연도(2017년)
	주관적 웰빙(5개 문항)	문 7-1	2차 연도(2018년)
	[남자]병역관계	문 8	2차 연도(2018년)
	[남자] 입대 및 전역시기(연월)	문 8-1	2차 연도(2018년)
	지난 1년간 신분변동 사항	문 9	2차 연도(2018년)
	대학 진학 여부 및 시기(연월)	문 10	8차 연도(2024년)
대학원 진학 여부 및 시기(연월)	문 11	8차 연도(2024년)	
현재 신분 상황	문 12	1차 연도(2017년)	
대학(원)생 조사문항	학교 소재지	문 13	1차 연도(2017년)
	학교 유형	문 14	1차 연도(2017년)
	학교생활 만족도	문 15	2차 연도(2018년)
	전공분야	문 16	2차 연도(2018년)
취업자 조사문항	직장 소재지	문 17	1차 연도(2017년)
	직장생활 만족도	문 18	2차 연도(2018년)
	직종	문 19	1차 연도(2017년)
	종사상의 지위	문 20	1차 연도(2017년)
무직자 조사문항	진학/취업 준비 여부	문 21	1차 연도(2017년)
	진학/취업 가능성	문 21-1	2차 연도(2018년)
	진학/취업 준비하지 않는 이유	문 21-2	2차 연도(2018년)

주: 하형석, 이종원, 정은진, 김성은, 한지형(2018: 138-139), 김기현, 오병돈(2024:100-111). KCYPS 2010 중1패널 2024년 유지조사 설문지는 최종본을 확인해 수정함.

국문초록

이 연구는 청년의 성인기 이행이 불안정하고 지연되는 현상을 분석하고, 원활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KCYPS 2010)」 중1패널을 대상으로 2025년 추적조사와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종단자료를 구축하였다.

연구에서는 청년 성인기 이행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안)를 개발하고 최근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으며, 세계가치조사(WVS)와 OECD 통계를 활용해 국제 비교를 수행하였다. 또한 중앙부처 정책과 주요국(UN, EU, 일본, 독일 등)의 정책사례를 검토하고, 문헌분석·패널조사(1,139명)·전문가 델파이조사·심층면담(21명)을 병행하였다.

분석 결과, 고3 시기의 교육기대와 실제 이행 간 괴리가 여전하며, 성적 중심의 진로지도와 가정·학교환경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대학 진학률은 높으나 휴학·졸업유예 등으로 성인기 이행이 지연되고, 대학원 진학 희망은 감소하였다. 국제적으로는 고등교육 이수율은 높지만 NEET 비율과 이행 불안정성이 두드러졌다.

이에 본 연구는 청년 중심·선제적·맞춤형·협력적 접근의 네 가지 정책방향과 함께 학교-기업-정부 연계 강화, 한국형 갭이어 추진, 청년보장제 도입 등 10대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특히 학교-기업-정부 협력체계 강화와 청년보장제 추진을 핵심 기반 과제로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growing instability and delay in young people's transition to adulthood and to propose policy directions and tasks to support smoother transitions. To this end, a follow-up survey and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in 2025 with participants of the Korea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0 (KCYPs 2010), middle school cohort, building a longitudinal dataset for empirical analysis.

The study developed a set of core indicators to assess youth transitions, examined recent trends, and conducted international comparisons using data from the World Values Survey (WVS) and OECD. It also reviewed youth transition policies implemented by central ministries and major countries, including the UN, EU, Japan, and Germany. Multiple research methods were employed, combining literature review, panel survey (1,139 respondents), expert Delphi survey, and 21 in-depth interviews.

The results show persistent gaps between high school students' educational expectations and actual attainment, with family and school environments exerting greater influence than individual choice. Although higher education enrollment remains high, frequent leaves of absence and delayed graduation have prolonged

transitions to adulthood. Internationally, Korea records high tertiary attainment but also a relatively high NEET rate and unstable transitions.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proposes four policy directions—youth-centered, proactive, tailored, and collaborative approaches—and ten strategic tasks, including strengthening school–industry–government cooperation, introducing a Korean-style gap year, and implementing a national youth guarantee scheme.

2025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간자료 목록

기관고유과제

- 연구보고25-기본01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원을 위한 다체계 연계 지원방안 연구: 진로 위기 청소년을 중심으로 / 김성은·김희진·조혜영·김현수
- 연구보고25-기본02 20대 초반, 후기청소년은 왜 금융이해력이 낮은가? : 후기청소년 금융이해력 증진 방안 연구 / 김지경·송현주·송원일
- 연구보고25-기본03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 2022 개정 교육과정 중심으로 / 강경균·오해섭·최홍일·성은모
- 연구보고25-기본04 수요자 중심 평가모형을 활용한 청년정책 진단 연구 / 김형주·장근영
- 연구보고25-기본05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개선 방안연구 / 성윤숙·문호영·손병덕
- 연구보고25-기본06 가족돌봄 청소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 황여정·정은주
- 연구보고25-기본07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연구 / 김정숙·연보라·전현정·김나영
- 연구보고25-기본08 시설거주 청소년 교육기회 확대 방안 연구 / 김승경·백혜정
- 연구보고25-일반01 2025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 유민상·이경상·서고운·유성렬·유설희
- 연구보고25-일반01-01 2025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기초분석보고서 / 유민상·이경상·서고운
- 연구보고25-일반02 청년의 성인지 이행경로 연구 I : 총괄보고서 / 김기현·김윤희·이용해
- 연구보고25-일반02-01 청년의 성인지 이행경로 연구 I : 심층분석보고서 / 김기현·김윤희·권경만·오병돈·유현주
- 연구보고25-일반03 이주배경청년 사회통합방안연구 I / 양계민·서정아·권오영·변수정·장윤선
- 연구보고25-일반06 2025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 사업보고서 / 하형석·황진구·최인재·한지형
- 연구보고25-일반06-01 2025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 데이터분석보고서 / 최인재·노연경·정승
- 연구보고25-일반07 2025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신동훈·이지연·이정민·장한소리
- 연구보고25-일반07-01 2025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기초분석보고서(1기 패널) / 신동훈·이지연·이정민
- 연구보고25-일반07-02 2025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기초분석보고서(2기 패널) / 신동훈·이지연·이정민

협동연구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5-36-01
(자체번호 연구보고25-일반04)

청년 친화적인 지역인재양성 및 일자리 창출 방안 II
/ 최용환·임지연·좌동훈·박윤수·이동성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5-37-01
(자체번호 연구보고25-일반05)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청소년보호정책 개선방안
연구 II : 위기청소년의 마약류 사용 실태
/ 배상률·김영지·모상현·김남희·조제성·김다은·
홍서아

수시과제

연구보고25-수시01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현황 및 체계화 방안 연구 / 좌동훈·남화성

연구보고25-수시02 이주배경청소년 역량강화방안연구: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을 중심으로 /
양계민·권오영·안지현

연구보고25-수시03 안전하고 교육적인 현장체험학습 운영·지원을 위한 법적 제도화 방안 연구 /
권오영·남화성

연구보고25-수시04 청소년의 방과후활동수요 및 방과후아카데미 발전 방안 연구 / 장근영

연구개발적립금 과제

연구보고25-연적금0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개선방안 연구 / 김승경·백해정·김경준

연구보고25-연적금02 전 세계 청년정책 현황 분석 연구 / 김기현·유민상·신동훈·한지형

연구보고25-연적금03 지역 청년고용정책에 대한 효과성 분석과 전략수립 연구
/ 최용환·임지연·좌동훈

연구보고25-연적금04 청소년 유해약물 사용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 배상률·김영지·모상현

수탁과제

< 일반 >

연구보고25-수탁01	2024 인성교육프로그램 발굴·확산 사업 결과보고서 / 최용환·이창호·임지영
연구보고25-수탁02	2025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회복 지원 가이드라인 (2종) / 최정원
연구보고25-수탁03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회복 프로그램 (초등학생용 2종) / 최정원
연구보고25-수탁04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전수)조사 분석보고서 / 성윤숙·이창호
연구보고25-수탁04-01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전수)조사 통계자료집 / 성윤숙·이창호
연구보고25-수탁05	2024년 2차 학교폭력 실태(표본)조사 분석보고서 / 성윤숙·이창호
연구보고25-수탁05-01	2024년 2차 학교폭력 실태(표본)조사 통계자료집 / 성윤숙·이창호·
연구보고25-수탁06	2024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사업 결과보고서 / 성윤숙·이창호
연구보고25-수탁07	2024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심층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성윤숙
연구보고25-수탁08	2025년 제2기 학생 인성 함양 리더십세삭 캠프 운영보고서 / 성윤숙
연구보고25-수탁09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활동사업 성과관리 진단 / 임지연·김혁진·문지혜
연구보고25-수탁10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전수)조사 통계자료집/ 성윤숙·문호영
연구보고25-수탁11	2025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황진구·김영지·모상현·김경준· 이용해·허효주·안지현·진인범·박지영
연구보고25-수탁12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 사업보고서 / 서고운
연구보고25-수탁13	2026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사전 연구 / 김지경·유준오·송현주·허효주
연구보고25-수탁14	역량기반 인증수련활동 효과 유의성 평가도구 개선 연구 / 송원일·김정숙·최수정
연구보고25-수탁15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6~'30) 수립 연구 / 하형석·김기현·유민상· 신동훈·성재민·박미선·박병영·변금선·배정희·권향원·김문정·진인범
연구보고25-수탁16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전수)조사 분석보고서 / 성윤숙·문호영
연구보고25-수탁17	청소년 인문교실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 강경균
연구보고25-수탁17-1	청소년 인문교실 프로그램 학생용 워크북(초등) / 강경균
연구보고25-수탁17-2	청소년 인문교실 프로그램 교사용 매뉴얼(초등) / 강경균
연구보고25-수탁17-3	청소년 인문교실 프로그램 학생용 워크북(중등) / 강경균
연구보고25-수탁17-4	청소년 인문교실 프로그램 교사용 매뉴얼(중등) / 강경균
연구보고25-수탁18	2025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 김혁진·황여정·김성은

〈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 〉

- 연구보고25-학폭01 시도별 학교폭력 예방교육 사업 주요 현안 및 정책 분석
/ 안병훈·모상현·김용남·박선영·김영인
- 연구보고25-학폭02 2024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학생서포터즈단 결과보고서
/ 모상현·백승훈·박재욱
- 연구보고25-학폭03 2024년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 우수사례집 / 모상현·백승훈·김영인
- 연구보고25-학폭04-01 학교에서 쉽게 활용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개정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초등학교 3~4학년) / 모상현·장금연·최미애·최인재·
김영인·박재욱·구찬동·김아라·심현아
- 연구보고25-학폭04-02 학교에서 쉽게 활용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개정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초등학교 5~6학년) / 모상현·장금연·최미애·최인재·김영인·
박재욱·구찬동·김아라·심현아
- 연구보고25-학폭04-03 학교에서 쉽게 활용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개정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중학교 2~3학년)
/ 모상현·장금연·최미애·최인재·김영인·박재욱·구찬동·김아라·심현아
- 연구보고25-학폭04-04 학교에서 쉽게 활용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개정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
나기(고등학교 2~3학년)
/ 모상현·장금연·최미애·최인재·김영인·박재욱·구찬동·김아라·심현아
- 연구보고25-학폭05 2024 학부모용 학교폭력 예방교육 소식지 모음집 / 모상현·박재욱·전원지
- 연구보고25-학폭06 2024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학교 효과성 분석
/ 모상현·이경상·김현수·전원지·문은솔
- 연구보고25-학폭07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 모상현·김경년·김경애·김봉섭·김소아·김승혜·박주형·차성현
- 연구보고25-학폭08 학교폭력예방 학생 언어습관 자기 진단도구 개발 연구
/ 박창균·조재윤·이정우·최태경
- 연구보고25-학폭09 2025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학생서포터즈단 운영안내서
/ 모상현·백승훈·김영인·최지윤
- 연구보고25-학폭10 2025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운영 매뉴얼
/ 모상현·최지윤·박재욱·문은솔

〈 대안교육기관지원센터 〉

- 연구보고25-대안01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 방안 : 보통교부금 개선 가능성 검토
/ 남수경
- 연구보고25-대안02 지속가능한 대안교육을 위한 재정지원방안 연구
/ 함승수·이시호·박현정·김희정
- 연구보고25-대안03 2025 대안교육기관 청소년 패널조사
/ 하형석·최인재·전현정·이지숙·신원규

〈위(WEE)프로젝트연구·지원센터〉

- 연구보고25-위센터01 위(Wee) 뉴스레터 / 김영지·김소연·주예찬
- 연구보고25-위센터02 제14회 위(Wee) 희망대상 우수사례집
/ 김영지·김승경·정춘현·김영인·주예찬
- 연구보고25-위센터03 문제행동별 개인상담 개입 지도서(중·고등) / 김영지·김승경·김영인
- 연구보고25-위센터04 2025 위(Wee) 클래스 및 센터 운영 가이드 / 김영지·양하나·정춘현
- 연구보고25-위센터05 2025년도 위(Wee) 프로젝트 연구·지원 사업 운영 결과보고서
/ 김영지·김승경·서고운·전현정·이정민·최홍일·양하나·이수민·
김소연·정춘현·김주영·문세진·김다인·김영인·주예찬·이유진

〈 학업중단예방지원센터 〉

- 연구보고25-학중01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꿈지락 활동집 / 김성은·이진아
- 연구보고25-학중02 학업중단 위기학생 실태조사 사전연구
/ 김희진·백혜정·황여정·유성렬·전예빈·정유경
- 연구보고25-학중03 학업중단 위기학생 실태조사 사전연구: 기초분석보고서
/ 김희진·백혜정·황여정·전예빈

자 료 집

< 세 미 나 >

- 세미나25-01 2025년 17개 시·도교육청 인성교육 담당자 1차 협의회 (25.3.27.)
세미나25-02 2025년 인성교육 우수교원 네트워크 발대식(1차 세미나) (25.6.13.)
세미나25-03 2025년 인성교육 우수교원 네트워크 중간보고회 (25.8.12.)

< 워 크 쉼 >

- 워크숍25-01 2025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실 프로그램(꿈지락) 운영 워크숍 자료집
(25.7.31.-25.8.7.)
워크숍25-02 가정형 위(Wee)센터 워크숍 (25.8.11.)

< 포 럼 >

- 포럼25-01 고립 은둔 청소년 삶 실태 및 정책과제 (25.3.26.)
포럼25-02 이주배경청년 사회통합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포럼 (25.4.29.)
포럼25-03 청소년의 디지털 시민성 함양을 위한 정책과제 (25.4.29.)
포럼25-04 청년의 엇갈린 삶의 경로_한국과 일본의 성인기 이행 (25.7.28.)
포럼25-05 인구감소시대 이주배경청년의 안정적 정착 및 자립역량강화방안 모색 (25.8.26.)
포럼25-06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지역 청소년시설 추진방향 모색 (25.11.11.)
포럼25-07 디지털 시대의 청소년 보호 정책과제 개발 (25.11.19.)
포럼25-08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하는 청소년 AI시대의 책임과 권리 (25.11.27.)
포럼25-09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성과 및 향후과제 (25.12.4.)

< 콜 로 키 움 >

- 콜로키움25-01 선주민과 이민자간 노동시장 성과와 정책과제 (25.4.17.)
콜로키움25-02 이주배경청소년 대상 한국어교육의 현황과 과제 (25.5.13.)
콜로키움25-03 청소년 유해약물 정책 관련 해외사례 (25.8.26.)

〈 기 타 자 료 집 〉

- 자료25-01 2024 대안교육기관 교육 활동 프로그램 우수사례집
- 자료25-02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매뉴얼 제2판
- 자료25-03 학업중단 숙려제 공통운영기준, 3판
- 자료25-04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 가이드북
- 자료25-05 2025년 대안교육기관 교직원 연수 제1차 연수 강의자료
- 자료25-06 2025년 대안교육기관 교직원 연수 제2차 연수 강의자료
- 자료25-07 2025년 대안교육기관 교직원 연수 제3차 연수 강의자료
- 자료25-08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 활동 가이드북
- 자료25-09 2025년 대안교육기관 패널조사 제1차 설명회
- 자료25-10 2025년 대안교육기관 패널조사 제2차 설명회
- 자료25-11 제14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 자료25-12 2025년 제12회 학업중단 예방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작품집
- 자료25-13 2025년 대안교육기관 패널조사 제3차 설명회
- 자료25-14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 가이드라인
- 자료25-15 2025년 대안교육기관 교육·활동 프로그램 우수사례집
- 자료25-16 청소년 부모·한부모 지원 매뉴얼 (2판)

학 술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36권 1호(통권 116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36권 2호(통권 117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36권 3호(통권 118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36권 4호(통권 119호)

기타 발간물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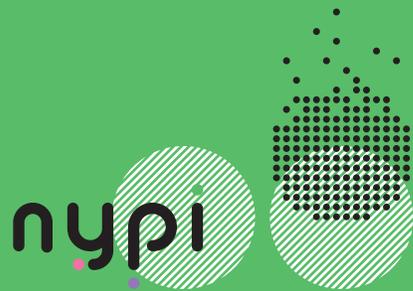
- 154호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학교와 지역자원 연계: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 155호 청년 친화적인 지역인재양성 및 일자리 창출의 정책방향
- 156호 OECD 국가의 청년정책 현황 및 시사점
- 157호 청소년은 어떻게 범죄의 길에 빠지게 되는가: 청소년 범죄 경로와 예방 대책
- 158호 청년 온라인 커뮤니티의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 NYPI Bluenote 통계 >

- 86호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청소년보호정책 개선방안 연구 I : 사이버도박
- 87호 청소년 근로 실태 및 권리 보장 현황
- 88호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24년) 데이터 구축 및 주요 조사 결과
- 89호 청소년활동을 통한 환경 실천 지원방안
- 90호 2024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주요 지표 결과

연구보고25-일반02

청년의 성인기 이행경로 연구: 총괄보고서



NYP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
daero, Sejong-si, 3014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



ISBN 979-11-5654-457-9
979-11-5654-456-2 (세트)

연구보고25-일반02

청년의 성인기 이행경로 연구 I : 총괄보고서

인 쇄 2025년 12월 24일

발 행 2025년 12월 31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백 일 현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사단법인 대한민국공무원공상유공자회 인쇄사업부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 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지식정보관)

ISBN 979-11-5654-457-9 94330

979-11-5654-456-2 (세트)